2004 여성학 학교 커리

16대 총어학생회

2004 여성학 학교 커리

16대 총여학생회

'남자가 댄스를 한다면?' 이런 망측한(?) 상상을 통해서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남성 아티프로기의 허구를 통렬히 공박한다. 그녀의 역설과 풍자가 빛나는 이 글의 요지는 "'무엇인' 집단이 지닌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우월성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열등한' 집단이 가진 것은 모두 그 열등성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댄스는 여성의 '즐거이 할 것', '불편한 것', 심지어는 '불결한 것' 으로만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 진짜로 연약 여성들이 아니라 남성들이 댄스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남성들은 일정의 댄스를 자신들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을까?

남자가 댄스를 한다면...

내가 인도에 살면서 알아낸 한 가지 사실은, 지구상에서 소수에 속하는 백인들이 지난 수 세기 동안 흰색 피부가 다른 색보다 더 우월하다고 설득해왔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흰색 피부란 실은 그저 자외선에 좀더 약하고, 주름살이 쉽게 생기는 피부일 뿐인데 말이다.

또한 나는 프로이트를 읽으면서 소위 남근선망이라는 것에도 역시

희의를 품게 되었다. 예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실은 '자궁선망'의 대상이 되고, 페니스처럼 밖으로 돌출하여 무방비상태로 있는 기관은 매우 상처받기 쉽다고 느껴지는데 말이다.

나는 최근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여성에게 예기치 않은 댄스가 찾아온 일 때문에 대단히 당황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강단에서 열정적으로 연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케스트라 멤버들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마침내 누군가가 그녀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녀는 모두 남자로 이루어진 관중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이 자리에 댄스를 하고 있는 여성이 서 있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은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 일은 지난 몇 년 동안 이 모임에서 일어난 일 중 가장 멋진 일일 겁니다."

관중들은 모두 웃었고, 또 안심했다. 그녀는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놓았던 것이다. 하여간 그녀의 이야기는 인도와 프로이트를 결합시켜 마침내 나로 하여금 긍정적인 사고의 힘을 이해하게 했다. '우월한' 집단이 지닌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우월성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열등한' 집단이 가진 것은 모두 그 열등성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흑인들은 그들이 백인들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보수가 적은 직업란에 가질 수 없고, 여성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수가 적은 직종으로 밀려난다. 어떤 소년에게 너희 엄마처럼 변호사가 되고 싶니라고 물었을 때 그 소년이 "아뇨, 그건 여자들 일이잖아요"라고 대답했다는 조크가 있다. 논리란 것은 이렇게 사실과는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날 갑자기 이상하게도 남자가 댄스를 하고 여자는 하지 않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지만 자동주의자들과 급진주의자들은, 여성들은 동등하며 다만 다를 뿐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이 펜스권의 우선성을 인정하기만 하면, 혹은 그녀들도 매달 한 번씩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기만 한다면(「적법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도 피를 흘려야 한 합니다」) 그들도 남성의 지위에 합류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원플록 관람들은 "그거는 상큼 패드를 하고 있어"라든지 "설은 다섯 개야"라며의 농담들을 나눌지도 모른다. 또는 원플록 한 구석에서는 "어이, 오늘 좋아보이는데?", "응, 거길 (패드로) 꽉 채웠거든" 식의 인사를 나누면서 손뼉을 맞부딪힐 지도 모른다.

TV의 토크쇼 같은 곳에서는 펜스를 공공연하게 다룰 것이다. 이를테면 '배퍼 데이즈'라는 프로에서는 벌써 두 번이나 펜스를 거른 남성에게 선물기가 조언을 할 것이고, '힐스트리트 블루스'에서는 한 동네의 남성들이 모두 펜스주기가 같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할 것이다. 신문들도 마찬가지리라. "배우욕장에서 상어들이 펜스하는 남성들을 위협하고 있다" 혹은 "법원이 펜스 중에 강간한 남성에게 관용을 베풀다" 등의 기사가 실릴 것이다. 그리고 곡장가에는 롤 놀런과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한 「피플 나는 헬게」가 상영될 것이다.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그 기간' 중에 나누는 섹스가 훨씬 즐겁다고 설득할 것이다. 페스미언들은 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삶 자체까지 두려워하는 부류들로 낙인찍힐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마음은 훌륭하게 펜스하는 남성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주장될 것이다.

의과대학들은 여성의 입학을 제한할 것이다(여성들은 피를 지옹보고 기절할 지도 모른다).

몸을 지식인들은 가장 흔히적으로 논의되던 주장을 펼 것이다. 남성들이 나는 성장적 속을과 주물 없이 여행 구멍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여성들이 생리를 통해 이른바 '몸 안의 독'을 배출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주장할 것이다.

전염병 같은 것이 생성(창조)되는 것은 언제나 남성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인간의 몸은 자연적인 것이든 인공적인 것이든 모든 종류의 이물질에 대해 면역성을 가지고 있다. 그 면역성이 어떤 종류의 병균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은 흡혈귀이다. 그 다음이 여성들이 생리 때 흘리는 것과 같은 양의 피를 흘리는 것이다. 그 다음은 남성들이 매일

이 글은 여자의 자격을 묻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더 보수적이라고 하지만 스테이넘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만나본 사람들로 미루어볼 때 이같은 편견이 틀렸다고 확신한다. 최소한 미국 여성들의 경우를 보면 실제로 그녀의 말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듯하다. 우리 한국 여성들은 어떨까?

왜 많은 여성이 보수적인가

10년 전만 해도 나는 대학 캠퍼스야말로 페미니스트나 급진주의자들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나는 학생 나이의 남성이나 여성은 그들의 부모들보다 훨씬 활동적이고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교회와 대학의 분위를 제안했던 중세 프랑스의 '이단' 학생들에서부터, 영국식민지 인도의 반식민 학생폭동

에 이르기까지, 또 중국의 문화혁명을 주도했던 학생홍위병부터 이란의 샤 Shah정에 저항했던 캠퍼스 시위에 이르기까지 캠퍼스의 저항의 역사는 길고 그 전통은 잘 알려져 있다. 학생들의 행동주의 전통이 약한 이 나라에서도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대중운동은 바로 캠퍼스의 저항과 서른 넘은 사람은 아무도 믿지 말라는 말로 상징되지 않았던가.

하지만 수년 동안 페미니스트 참여자이자 조직가로 여기저기를 여행한 결과 나는 적어도 여성들이 자신들을 대변하는 운동에 있어서는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행동주의의 경우에서도 남성들의 문화적 유형이 자연스러운 것이거나 혹은 유일한 것이라고 가정하도록 교육받았다. 만약 남성들에게 있어 학생시절이 만남과 변화에 대한 개방성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라면 여성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나는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사무실 노동자들이 조직한 점심시간의 짧은 강연에서부터 캠퍼스 여학생들과의 랩셋트론에 이르기까지, 주부 모임에서부터 캠퍼스 집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여성집단과 만나본 결과,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여성이어서 나이 들면서 더욱 급진적으로 변하는 집단이었던 것이다. 물론 남부 학생들은 이런 질문에서 예외가 되겠지만, 여성 일반을 두고 보면 내가 말한 그대로이다.

내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나 역시 전형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 같다. 나의 대학 시절은 불확실성과 보수주의로 가득차 있었다. 부자집 남학생을 만날 때나 급진적인 남자를 상대할 때나 여자답게 굴어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젊은 시절에는 용감하고 늙으면 집많은 보수주의자가 된다는 생각을 믿었고, 나

적 고전적인 이민집단처럼 행동하게 만든 측면도 있다. 우리는 스스로를 설명하고, 학문적 성취를 이루하고, 좋아졌고 상징적인 정체를 필요로 한다. 새롭게 발전된 능력을 시험하고 남자들보다 잘 한다는 걸 증명하려고 한다. 그러다보면 행동주의를 실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사실 우리는 아직 행동의 필요성을 잘 모르는 것이다.

또 외부의 비판기들은 이전까지는 남성들의 일이라고 생각되었던 분야에 여성들이 진출하는 것을 보수적이고 순응적인 사건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들은 남성의 금전주의를 변화의 척도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욕구를 모두 싸잡아서 '캠퍼스 보수주의'의 상징으로 간주한다. 사실 '학교를 마치는 것'이 남성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일 수 있지만, 여성들에게는 '학교에 들어오는 것'이 새로운 일이다. 어쩌면 진보가 우리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신입 집단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닌 교육과 학위에 대한 믿음은 아직 흔들리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남성들의 대학등록률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 여성들의 대학 등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78년에 이르자, 입학생들로 보면 최초로 여성이 남성을 숫적으로 앞질렀다. 이렇게 기존의 게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현상은 아마도 '착한 소녀'가 되고 규칙을 준수하라는 여성들에게 전통적으로 가해지는 문화적 압력에 기인한 것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지닌 새로운 게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아직 현실을 너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 현실은 바로 여성 박사들의 높은 실업률, 남성 고졸자들보다 낮은 여성 대졸자들의 임금, 여성대졸자들의 높은 감원율, 비전통적 분야에서 일하는 용감한 여성들이 몰락 때이다 첫번째 감원대상이 되는 현실이

만이 별종이라고 지정했다.

비록 여성문화에 대한 일반화에는 많은 예외가 있고 그 일반화가 어떤 변명거리로 이용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내 생각에 우리는 학생시절에는 세상의 문제들에 관심을 덜 가지다가,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이 변화를 추구하는 자신의 장애력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따라서 캠퍼스에서 여성운동이 활발하지 않다고 해서 페미니즘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기자들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사실 여성들의 대학시기는 비현실적이고 조심스러운 시간이다.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보자.

학생 시절 우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첫째 우리는 소비자이다. 우리가 지불하는 수업료와 우리 덕분에 나오는 정부보조금은 학교를 먹여살린다. 출산율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 학교에게 돈은 더욱 절실해진다. 하지만 우리는 희나의 집단으로서 힘을 갖기에는 너무 일시적인 소비자들이다. 또 카톡이 우리의 수업료를 지불하기에 우리는 더욱 약한 존재들일 수밖에 없다.

학생이든 아니든 젊은 여성들은 이 남성지배의 사회에서 가장 대우받는 집단이다. 우리는 노동자, 아내, 섹스 파트너, 자녀양육자로서 장애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여성들을 급진화시키는 인생의 쓴맛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즉 임노동자가 되어 여성이 어떻게 대우받는지를 알고, 결혼이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아이들을 키우며 혼자서 책임을 도맡고, 아직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큰 짐으로 다가오는 노년의 세월을 겪어보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페미니즘의 부활에 따른 새로운 이상이 젊은 여성들을 아

으로 간주하는 경향때문에 시작한다. 남자들보다 50%만 벌으면서 기업에서 조금이라도 승진하려고 하는 젊은 여성들은 자신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전 부터였다. 당신이 생활한 남자들을 만난 전 혹다(국내적인 차별에 대한 분석). 이런 식이다.

여성 문제들은 심리으로서 여성적 힘이 함께 싸우는 정책을 찾아야

(여기에는 물법행위를 시인하는 취함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낙태경험을 말하는 것도 포함된다). 만선대 법안·1의 개혁과 폐지를 요구했다. 또한 그들만 캠퍼스에서는 강간사건이 수도 없이 일어났으나, 젊은 여성학생자들은 말하기를 두려워했고, 대학측은 수업료를 지불하는 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침묵을 조장했다. 이에 대한 항의가 더 지나온 건 오히려 캠퍼스 바깥이었다. 대부분의 학생단체가 대학측의 정책에 좀더 나은 강간예방 조치를 요구하기 전에 이미 나이든 여성들은 강간사건과 관련한 법률과 경찰서의 절차에 항의하는 시위를 조직했고, 현실을 알리는 연설을 했으며, 주법정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사실상 '데이트 강간'—젊은 여성이 잘 아는 남자에게 강간당하는 경우로 널리 퍼진 현상이다. 심지어 돌아리모임에서 여러 명에게 윤간당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제서야 공개되고 있다. 더욱 어려운 법적 문제로 부부 사이의 강간은 몇 년 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매맞는 여성이라는 문제에서는, 통계적으로만 보면 남편이나 연인이 거리의 건달보다도 여성에게 더욱 위험하다. 이 문제 역시 이제까지 주로 대학 밖에서만 다루어져왔다. 하지만 내가 연심했던 대학들에서는 절두심에 불탄 연인이 젊은 여성을 구타하거나 살해한 사건이 최소한 한 건 이상씩은 있었다.

젊은 여성들의 보수주의라는 문화적 유형을 감안할 때 나이든 여성들이 점점 더 많이 대학으로 돌아가는 현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들은 자신의 딸만큼이나 젊은 여성들을 급진화시키는 알아있는 모델이자 실천적인 활동가들이다. 나이든 여성들의 많은 수가 대학에 돌아왔기 때문에 현재 여대생들의 평균연령은 27세이다. 덕분에 이제 캠퍼스는 세대간 연결이 가장 잘 이루어진 장소가 되었다.

생각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개인적인 정력을 쌓는 데 집착하기도 한다. 또 어떤 여성들은 "난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식으로 어떤 중간적인 지점에 머물고 싶어 한다. 반면 어떤 여성들은 정치적으로 행동적이지만 오직 상대 남성들이 진지하게 다루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진다.

페미니즘의 역사를 보더라도 젊은 여성들의 보수주의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자유와 변화의 시간이나 '혁명'의 시기라는 남성들의 획일적인 '젊은 시절' 개념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다른 여성의 심상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즉 남성들의 젊은 시절은 앞으로 다가올 권력과 인정을 기다리는 때이다. 나는 과거의 여성운동들을 돌아봄으로써 비로소 여성 나름의 행동 유형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이 나라의 19세기 페미니즘의 물결을 선도한 여성들은 이미 결혼해서 법적으로 남편의 동산 財産이 되는 제도적인 정벌을 한 여성들과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처녀라고 놀림받던 비교적 나이든 여성들이었다. 또한 그들 대부분은 노예해방 운동에서도 열심히 일했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인종차별과 성차별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한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운동의 물결을 주도한 여성들은 주로 보수적인 '허가된' 시절을 지난 여성들이었다.

여성운동의 무엇에 부흥 시기를 살펴보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960년대의 초기 페미니즘 활동가들과 의식화 집단들은 이미 민권운동 경험을 통해 그들의 재능이 자녀양육이나 요리에 그치지는 않는다는 걸 알았다. 1960년대말 대부분의 캠퍼스들에서 학생들이 불법 낙태시술자의 이름을 서로에게 몰래 알려주고 있을 때, 그보다 나이든 여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의 현실을 알리는 연설을 했으며

반기는 여성들은 더욱 많은 조롱 앞에 두고 있다. 우리는 서점 내에 넘쳐 나는 인도 관련 전문서적 및 요가, 명상, 점성술, 채식주의 관련 서적들과 비교해 보라. 또한 여성들이 '여성적'이라고 간주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라. 이러한 것들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여성들은 '정치적'이라는 용어가 가장 누구를 대변하는지 알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은 정치적 행동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들은 정치적 행동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들은 정치적 행동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3

70kg 남자와 임산부

여성과 남성이 똑같지 않은 이유

다음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 1900년 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밀즈 여자 대학 이사회는 학교가 세워진 뒤 처음으로 지금 남자들의 입학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사람들은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여대생들의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특히 토끼 쇼와 신문사에 걸려온 전화로 추측하건대 남자들이 더 심한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들의 반응은 판결같이 여학생들의 학문 사정에 동정하기는커녕 철수령과 같고 20세기의 변화에 동참하라는 식이었다. 그들은 여학생들이 여자 대학의 존립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남자 대학에도 들어가려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L. A. 타임즈』에 기고한 한 독자는 여학생들의 변명을 남자들을 증오하는 히스테릭한 행동으로 간주하기도 했다.

• 열대생이었던 "마라"와 "샬"은 서로 얼싸안은 채 흥분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결

혼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서 아이가 생기자, 정혁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마라에게는 변화가 생겼다. 마라는 생각보다 훨씬 아이가 자신을 지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아이를 맡길 만한 적당한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었다. 그래서 마라는 아이를 돌보는 데 "매여 있어야만 했다." 집이 다니는 병원 회사는 육아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집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마라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다. 마라와 집이 이혼했을 때 판사는 마라의 상황을 동정하지 않았다. 그는 마라가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과 최소한의 양육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는데, 그 이유는 전문직 여성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라는 자신과 아이의 생계를 위해서 전일제 일을 했지만, 이것은 전남편의 직업이나 자신의 이전 직업과는 비교도 안되는 일이었다. 실제로 마라에게는 아이가 아플 때 쉴 수 있고, 초과 근무나 출장에 시달리지 않는, 그리고 놀이방에서 아이를 데리오기 위해서 5시에 퇴근할 수 있는 직장이 필요했다. 그렇지만 아무도 마라와 같은 처지에 있는 여자들을 동정하지 않았다. 단지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넌 살에서 당신은 남자와 평등하길 원했고, 법은 당신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보호를 요구할 수 없다."

• 몇 년 전, 자원 의사 22,0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아스피린 복용이 심장마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그렇지만 이 연구 대상에는 단 한 명의 여자 의사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 이어서 13,38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장마비에 대한 아돌 치료 효과를 설명한 연구에서도 여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이어트가 유방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다른 연구도 그 대상을 남자만으로 제한했다.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의 편집장 마르시아 앤절 Marcia Angell은 의학의 성 편견에 대한 비난에 맞서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성 편견은 연구를 왜곡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 있지도 않는 성차별을 찾아내는 것은 여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성의 몸을 그렸다. 몇몇 심리학자들은 현재 의과 대학에서 사용하는 8개의 주요 해부학 교과서를 분석해서 몸과 몸 기관 해부도에 나타난 남녀 성비를 기록했다. 일반적인 해부 구조를 설명하는 장에서 남성은 성화의 64%, 여성은 11%를 차지했으며, 나머지에서는 성별이 분명치 않았다. 유독 생식 해부학 장에서만 남녀의 몸이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들은 "인체" 해부학에서 여성이 배제된 이유가 생식 기능을 제외한 "여성의 몸이 비정상"이라는 인상을 심어 주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1] 달리 말하자면 여자의 몸은 생식 기능에 가장 적합하고, 남자의 몸은 모든 생산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늘 이렇게 그러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남녀의 유사성과 차이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17세기 루뱅 네덜란드 해부학자 가브리오 비드루 Godfried Bidloo는 몸기관을 보여 주는 아주 놀라운 그림을 그렸는데, 그는 남성과 여성의 몸을 투사법적으로 사용했다.[2] 예를 들어 등상림의 근육을 그릴 때 그는 여자 상반신을 이용했다. 19세기까지 해부 삽화가들은 생식기, 가슴, 턱수염(남자의 경우), 어깨까지 늘어진 머리(여자의 경우)를 그려 넣음으로써 분명하게 성별을 표현했다. 그들은 남녀의 몸기관을 서로 환원할 수 없는 것으로, 그리고 바꿀 수 없는 부분인 생식기조차도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여성 생식기는 남성 생식기와 특징적으로 남성 생식기를 "뒤집어 놓은" 것에 불과했다.

19세기 과학자들은 남녀의 몸이 같다는 이러한 전제를 모든 분야에 걸쳐 공격하면서, 혼성, 신체, 정신의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차이를 강조했다. 그들은 남녀의 몸의 차이도 그만큼 엄청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자는 진화의 낮은 단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 따르면 여자는 진화의 시다리에서 어린아이, 원숭이, "원시" 인간과 같은 단계에 있다. 여자의 해부도 역시 여자가 멀등하다는 믿음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두개골이 작고, 골반이 넓은 것으로 묘사된 여성 골격은 여성이 지적 능력이 모자란, 생식 기능에 적합한 존재라는 인식을 불어넣었다.[3] 이러한 대조적으로 남자들의 몸은 인간의 몸의 원형으로 간주되었고, 이런 태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의대생들은 문자 그대로 남성 모델을 가지고 교육받는다. 의과 대학에서 다루는 표준화된 환자는 "70kg 남자"이다. 소아과 의사이자 작가인 패티 클라스 Pauli Klass와 미국 여성 의학 협회 전 회장이자 내과 전문의인 엘라 윌리스 Lila Wallis에 의하면, 의대생들은 남성의 평균 심장 무게와 피스 오줌량이 어떠야 하는지를 배우고 남성의 알레르기, 행장병, 설사, 정신신을 치료하는 법을 배운다. 또 남성의 몸무게를 기초로 약물 복용량을 계산한다. 그런데 70kg 남자는 다름 아닌 바로 "나"이다. 그에게서 난소 포낭, 유선유종, 그 밖의 여자들의 병을 찾을 수는 없다.[4]

의학 연구 역시 정상성에 대한 남성 규범에 기반하고 있다. 1990년에 발간된 회계청 The Government Accounting Office의 발간한 1990년 보고서에 따르면, 약물 효과, 질병, 치료에 대한 국립 보건원의 대다수 연구가 여성을 배제했으며(이것은 여성을 더 많이 포함시켜야 한다는 1986년에 발표된 국립 보건원의 과제 규정에도 위반된다) 전체 연구 기금의 13%만 여성에 관한 연구에 사용되었다. 수년 동안 여성 연장 의학과 여자 의사는, 미국의 엄청난 의학 연구비가 "우리에게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금을 투자한다"는 원칙에 따라 남성 연장 의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할당되고 있다고 말해 왔다. 그래서 남성의 심장병을 대규모로 연구하는 데는 충분한 기금이 제공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유방암의 원인에 대한 연구 또는 고콜레스테롤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얼대한 규모의 연구에는 기금이 부족했다.

존타리오 교육학 연구소의 심리학자 마그릿 어이슬러 Margrit Eichler과 토론토 페스틴 병원의 정신과 의사인 안나 리자 레이먼 Anna Lisa Raiman과 엘레인 프린스 Elaine Prairie는 1988년에 출판된 4개의 전문 잡지들을 분석 조사했다.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미국 정신 의학 저널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미국 정신 의학 저널 *The American Journal of Trauma*』, 『캐나다 외과학 저널 *The Canadian Journal of Surgery*』을 조사한 결과, 논문 제목, 연구 계획, 방법, 자료 수집과 해석, 의학 등의 연구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나는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제임 appendix의 증상 annoxus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생물학에서 사람들이 "좋은 선호가 있어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것은 단지 진화의 역사에서 우연히 살아남은 것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관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부적절한 대상으로 한 이스라엘의 초보적 대한 연구는 상당히 논란을 일으켰고 그로서 실시한 수많 부적 세부적인 연구결과가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스라엘 계획 에

• 경고를 상황 시도는 나쁜 상황 연구에 따라 다양한 변동을 나타낸다. 대략 부분은 이주한 방법을 따라 시행으로 이루어진 하나 하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연구결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상황 나타내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인 중요한 환자에 대한 것인 중요한 환자가 복용하는 약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인 중요한 환자에 대한 것인 중요한 환자가 복용하는 약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 경고를 상황 시도는 나쁜 상황 연구에 따라 다양한 변동을 나타낸다. 대략 부분은 이주한 방법을 따라 시행으로 이루어진 하나 하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연구결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인 중요한 환자에 대한 것인 중요한 환자가 복용하는 약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인 중요한 환자에 대한 것인 중요한 환자가 복용하는 약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 경고를 상황 시도는 나쁜 상황 연구에 따라 다양한 변동을 나타낸다. 대략 부분은 이주한 방법을 따라 시행으로 이루어진 하나 하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연구결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인 중요한 환자에 대한 것인 중요한 환자가 복용하는 약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인 중요한 환자에 대한 것인 중요한 환자가 복용하는 약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세한다 — 그러한 이유는 수컷을 쓰는 것이 간단하고 비용이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임신의 성주기 estrus cycle는 행동과 생물학적 실험에서 나타날 변동을 명해하여 동물들간의 편차를 확대한다. 연구 목표는 이러한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문제의 약이나 치료법의 정확한 효과를 밝아낼 수 있어야 한다. 연구자들은 비용 때문에 임신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남녀가 생리적으로 다른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이 변수를 없애는 것은 실험 결과가 단편적으로든지 아니면 의학적으로든지 여성들에게 적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약물 X의 효과를 알고 싶은데 월경 주기가 약물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여성을 제외한다면, 남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로는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짐작할 수 없다. 바로 월경 주기가 여성의 약물 반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른 연구자들은 실제로 여성들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결과 분석에 있어서는 사회적, 신체적 생자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아이슬리와 동료들이 실행하고 있는 그러한 연구 가운데, 한 연구는 만성 퇴전성 무도병 Huntington's Disease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와 유전과 보유자로 판명된 사람들이 그것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했다. 그들은 34명의 여자와 13명의 남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그들 중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 주었다. 절반은 "심각하게 우울해졌고" 나머지 절반은 "일과 같은 생활에서의 장기 목표를 전지하게 다시 재가하게 되었다." 검사 후 1년이 지났을 때 그들이 보인 "정서적 반응의 강도는 약해졌다." 이것이 그들의 연구 결과였다. 남녀는 일과 같은 생활에서의 경험이 서로 다르며 여성에게는 우울증 증세가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연구 결과는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 남녀 모두 "절반" 정도가 우울증을 나타냈는가? 아니면 여자들만 그러한 반응을 보인 것인가? 아니면 모든 남자들과 몇몇 여자들만이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정서적 반응의 정도가 약해졌다는 것인가? 연구자들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서 전혀 연급하지 않았다.

연구에서의 성 gender 배제는 기초 의학 과정에 고루 퍼져 있는 관행이다. 1986

실 전반이 드러났다. 이러한 편견은 대부분의 미국과 캐나다의 저널에서 나타났고 모든 의학 전문 분야를 망라했다."

책을 들어 연구 세목은 남자만으로 한정된 연구임을 보여 주는데 결과는 남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암시한다.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의 대표적인 논문 '활동과 관상 동맥성 심장병 사망률'은 남자 표본만을 썼는데도 제목은 일반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정신 신체 의학 Psychosomatic Medicine』의 '생식성 자극 호르몬이 인간의 정서와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는 호르몬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었는데, 문제는 연구 대상이 12명의 남자였다는 데 있다. '국립 노인원 NIA, National Institution Aging'이 1984년에 발표한 보고서 제목은 '정상적인 인간의 노화'이나 남자들만을 대규모로 연구한 것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남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적절한 알코올 소비와 여성의 관상 심장병 발작의 위험에 관한 연구, 또는 '당뇨병 유형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이 붙는다. (루자는 당뇨병이 남성에게만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들의 편견을 수정한 것이다[9].

아이슬리와 동료들은 전문 잡지에 실린 연구 논문의 필자들이 여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연구 문제를 남성의 관점에서 보고 있음을 밝혀 냈다. 한 연구팀은 심장병 약물 치료와 운동이 심장이비에서 회복되는 데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를 조사했다. 논문의 본문은 연구 대상 환자들을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하고 있었고, 독자들은 표의 자주를 보고서야 환자가 34명의 남자와 5명의 여자였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들은 남자 환자 38명의 결과만을 분석했고 처음에 입원한 여자 5명은 연구의 두번째 단계에서 삭제해 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결과가 여성들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 없이 치료가 효과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약을 더 면밀히 시행할 연구를 계획하면서 그 대상에 남녀가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다.

실험에서도 일정은 연구 대상에서 배제되는데 — 좌 연구에서 일정 위조하도 배

• 콜레스테롤 고콜레스테롤은 남자 — 실제로는 40-55세 사이의 남자들 — 들이 심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높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콜레스테롤은 여성에게는 이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폐경 이전의 여성들은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 그러나 고콜레스테롤이 폐경 이후의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고콜레스테롤이 폐경 이후의 여성들에게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

• 흡연 흡연은 심장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흡연은 심장병 발병률을 2배 이상 증가시킨다. 흡연은 심장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다. 흡연은 또한 뇌졸중, 폐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리고 다른 많은 질병들의 원인이 되고 있다. 흡연은 남녀 모두에게 위험하다. 흡연은 심장병 발병률을 남녀 모두에게 증가시킨다. 흡연은 또한 심장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다. 흡연은

■ 남자들은 여성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

우승은 모든 사람이 사실상 식사는 끝났을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어떤 사람이 —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 힘든 일을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가지 과학에 내 돈은 올거은 없어 혼란에 빠졌다. 그가 당신 사용하고 싶을 때 거의 대부분 "그 또는 그녀"로 지칭하는 그 또는 그녀를 사용하고자 했을 때 거의 "당신"를 "그 또는 그녀"로 지칭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보고 싶어서 내 친구의 실험을 몇 년 동안 관찰했다. 이것은 또한 우리 모두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보여주었다. 그들은 남성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을 사용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을 사용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 릴리 존슨, 『스탠포드 뉴스』

UCLA 법대 교수인 크리스틴 헌들리 Christine Hendley은 여성이 사회적 불평등을 문제로 제기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여성들이 남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대표적으로 투명 요청 — 일부 식품이 어떤 재료로 그들을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알려 주는 것 — 은 여성의 고용 기회를 제한하고, 그들을 직업을 바꾸게 하거나 직업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을 특별하게 고려하지도 않고 평등한 문제로 간주하지도 않는 것이었다. 이런 관점에 대해 명쾌한 변설가 랜디 윌리엄스 Wendy Williams는 이렇게 경고하였다. "두 가지를 모두 택할 수는 없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갈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7] 랜디 카미너 Wendy Kaminer도 자신의 저서 『두려운 자유 : 평등으로부터의 여성들의 도주 *A Fearful Freedom : Women's flight from equality*』에서 법이 남녀를 대칭적으로 다루는 문제에 대해 탁월하게 분석했다.

리틀존은 법적 대칭 모델을 "동화 assimilation"라고 불렀다. 그것이 "기회가 있다면 여자는 실제로 남자와 똑같으며 그리고 똑같을 수 있다는 관념"에 기반해 있기 때문이다.[8] 따라서 직장은 남자를 대우하던 방식대로 여성들을 대우해서, "자격이 되는" 여자를 한아들여야 하고 일단 들어온 여자는 남자처럼 행동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만일 법률 회사가 여성을 하근에 투입해서 육아 의무와 가족 문제의 희생을 요구한다 해도 변호사로서 살골하려는 여성은 그것에 따라야 한다. 똑같을 제로 회사가 조립 라인의 론베이어 벨트 높이에 적합한 키 175cm의 여성들만 구한다면, 그 조건을 갖춘 여성만이 고용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자는 "남자가 해야 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평등 모델이다.

대칭 모델은 법체계,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도 구속하는 경직된 성역할을 타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호소력을 갖고 있다. 대칭 모델은 공평하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며 그것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세퍼적인 상황과 적용하는 것보다 쉽다. 그렇지만 이 모델의 핵심은 이제는 모두에게 익숙한 남성을 표준으로 한 정상성임을 주시해야 한다. 이 모델의 목표는 이미 남성을 대우하고 있는 방식대로 여성을 대우하는 것이다. 리틀존의 말에 따르면 "여성이 사회적으로 남성의 행동 양식을 따를 수 없거나 따르지 않는 한 그들은 냉대를

미리한 이유로 법이 남녀를 지금까지 비대칭적으로 대우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 법학자들은 이제부터는 남녀를 완벽하게 대칭적으로 다루자고 주장했다. 남녀의 자연적 차이란 없고 본질적으로 분리된 영역도 없으므로 남녀는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을 특별하게 고려하지도 않고 평등한 문제로 간주하지도 않는 것이었다. 이런 관점에 대해 명쾌한 변설가 랜디 윌리엄스 Wendy Williams는 이렇게 경고하였다. "두 가지를 모두 택할 수는 없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갈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7] 랜디 카미너 Wendy Kaminer도 자신의 저서 『두려운 자유 : 평등으로부터의 여성들의 도주 *A Fearful Freedom : Women's flight from equality*』에서 법이 남녀를 대칭적으로 다루는 문제에 대해 탁월하게 분석했다.

리틀존은 법적 대칭 모델을 "동화 assimilation"라고 불렀다. 그것이 "기회가 있다면 여자는 실제로 남자와 똑같으며 그리고 똑같을 수 있다는 관념"에 기반해 있기 때문이다.[8] 따라서 직장은 남자를 대우하던 방식대로 여성들을 대우해서, "자격이 되는" 여자를 한아들여야 하고 일단 들어온 여자는 남자처럼 행동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만일 법률 회사가 여성을 하근에 투입해서 육아 의무와 가족 문제의 희생을 요구한다 해도 변호사로서 살골하려는 여성은 그것에 따라야 한다. 똑같을 제로 회사가 조립 라인의 론베이어 벨트 높이에 적합한 키 175cm의 여성들만 구한다면, 그 조건을 갖춘 여성만이 고용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자는 "남자가 해야 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평등 모델이다.

대칭 모델은 법체계,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도 구속하는 경직된 성역할을 타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호소력을 갖고 있다. 대칭 모델은 공평하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며 그것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세퍼적인 상황과 적용하는 것보다 쉽다. 그렇지만 이 모델의 핵심은 이제는 모두에게 익숙한 남성을 표준으로 한 정상성임을 주시해야 한다. 이 모델의 목표는 이미 남성을 대우하고 있는 방식대로 여성을 대우하는 것이다. 리틀존의 말에 따르면 "여성이 사회적으로 남성의 행동 양식을 따를 수 없거나 따르지 않는 한 그들은 냉대를

당할 수밖에 없다. 여성이 남성의 행동 양식을 따를 때, 그들은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남성으로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다"[9]라는 것이다.

현재 학자들은 법 적용을 의도한 대칭 모델의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특히 그 속의 남성 편견에 주목하고 있다. 대칭 모델에 대한 가장 강한 반론은 여성을 남성처럼 대우하는 바람에 아주 심각적일 정도로 불평등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증거로서 제시한다. 1986년에 『뉴욕주 여성과 법에 관한 특별 조사단 New York Task Force on Women and the Law』은 여성과 관련된 모든 문제 — 가정 폭력, 강간, 육아, 학대, 임신 — 에서 여성을 법 앞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한 것이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했음을 밝혀 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사법 위원회가 실시한 1990년도 법원의 성 편견 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10] 다음은 여성의 경험이 법에서 인정되지 않았거나, 법적 동등 대우가 결과적으로는 불평등을 가져온 몇몇 사례들이다.

• **이혼 및 후견법.** 이혼 및 후견법의 개정 이후에 일어난 공론화된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많이 익숙해졌다. 개정법은 이혼한 부부를 "공정하게"(즉 "똑같이") 대우하도록 했다. 이 법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동등한 지위에 있으며 현재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부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로체스터 대법원의 로버트 사티 Robert Satter 판사는 자서전에서 이 같은 전제를 피력했다. 그는 실업 상태에 있는 40대 여자에게는 2-3년 동안만의 위자료가 필요하며 이는 "기술을 습득해서 직장에 다시 복귀하기에 충분한 돈"이라고 했다.[11]

하지만 이런 가정은 거짓임이 판명되었다. 여성이 받은 임금과 복지 후생은 남성과 동일하지 않았다. 최근까지 여성은 교육 수준과 기술 수준이 비슷한 남성이 받는 임금의 60%밖에 받지 못했다. 현재의 남녀 임금 격차는 70%로 좁혀졌지만, 이것은 여성의 임금이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1980년대의 노조 와해로 인하여 남성의 임금이 내려갔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티 판사의 낙관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없는

• 특징 1980년 더럽 브랜 윌슨 법률 팀에는 남편의 폭력 혹은 자신 또는 그의 친구들을 죽인 것으로 위협한 남성에 대한 강간 사건이 여러 건 있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남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할 때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이 여성들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판사들에게 물었다. 판사들은 이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를 강간하려고 할 때 아내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예시는 주석을 이용해 "합당하게 의심"되는 경우로 분류한 것이다. 검찰은 이 여성들이 남편을 살해할 때 "합당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여성들은 남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할 때 남편을 살해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여성들이 남편을 살해할 때 남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한다고 합당하게 의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 여성들은 남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할 때 남편을 살해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여성들이 남편을 살해할 때 남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한다고 합당하게 의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 여성들이 남편을 살해할 때 남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한다고 합당하게 의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 여성들은 남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한다고 합당하게 의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 여성들은

• 책임 그리고 경멸. 많은 심리 요법 제안을 모색 중인 한 요법사는 늦게 귀가하는 아내를 비난하는 남편의 말을 이렇게 옮겼다. "당신은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 당신은 내 감정을 존중하지 않아.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당신은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 당신은 내 감정을 존중하지 않아.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대꾸한다. 이 부부는 서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 이 부부는 서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 이 부부는 서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

실관계도 마찬가지다. 남편의 입장만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남편으로부터 감정적으로 학대받는 아내의 경험은 법에 드러나지 않는다.

로런 레스트는 이러한 이야기가, 법이 인간의 법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많이 일어나는 경험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함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간주한다. "강제적 성관계로 인한 피해는 법규에 명시된 폭력이 아닐지라도 명백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한다. 또한 그것이 남성의 경험과 비슷하지 않을 때에도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어야 한다."[94]

여기도 역시 변화의 조짐이 있다. 미국의 9번째 순회 법정에서 최근 심리를 사건을 맡은 로버트 비어츠 Robert R. Beezer 판사는 여성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면서 "합리적 여성"의 표준을 제택했다고 밝혔다. 비어지 판사에 따르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의 표준이 남성의 관점으로 가득해서 여자들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95]

• 반격과 고정 관념. 여성들은 피를 지연을 때 남성 판사의 가사도 정신과 상담으로 쉽게 풀려나올 수 있다는 뉴스가 때때로 화제가 되기도 한다. 지방 법원 판사 랜드류 호프 A. Andrew Hauk는 "육아 상 문제와 관련해서" 여자들은 교활한 남자의 "법에 넘어가기 쉽다고" 하면서 5번의 손해 강도로 유죄를 선고받은 여자에게 집행해 주어 2년을 구형했다.[96] (성관계에 관한 한, 남자가 교활한 여자와의 관계에서 결코 취약하지 않다는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는 언론의 주목 대상이다. 그러나 진실은 여성이 남성보다 중한 판결을 받고 있으며 일단 투옥되면 더 오진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뉴욕 교정 협회', 공공 정책 피장인 트레시 헐링 Tracy Huling은 "판사들이 여성을 더 심하게 대하고 있고 투옥률도 남자들에 비해 더 높다"고 말했다. 심지어 사형 집행 대기 상태에 있는 여자들은 같은 처지의 남자들보다 권리가 없다. 1930년대 말 연방 법원은 사형 집행을 맡두고 있는 수감자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도록 산하된 교도소에 명령했다. 그러나 그 특권은 사형 선고를 받은 남자에게만 적용되었다. 그래서 독

방에 갇혀 있던 모든 여자모도는 고립되어 살아야 했고, 타이틀, 재킷, 스포츠를 할 수 없었으며 면회마저도 유리벽을 사이에 둔 상태에서만 가능했다.[97]

여성들이 자신을 학대한 가해자를 살해한 죄로 감옥살이를 했다면 아내나 여자 친구를 죽인 많은 남자들은 감형되었다. 1986년만 해도 1,500명의 여자가 남편이나 남자 친구에 의해서 살해되었는데, 이런 살인자의 평균 선고 형량은 2 - 6년이었다. 일리노이 주의 제임스 루도맨 James Lutgen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죽였다. 크리스마스 쇼핑을 가자는 제안을 아내가 거절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이론 소송을 청구당이었고 남편이 가까이 못 가도록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루도맨은 몰과 20개월을 복역한 후 사이코의 후견인이 되었다. 메사추세츠에 사는 한 여성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심지어 경찰서에서도) 남편으로부터 보호를 해 달라는 신청을 낸다. 그러나 판사는 "법원은 관여해야 할 더 심각한 사건이 많다"며 이 요청을 거절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성은 남편에게 살해되었다. 이런 사건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98]

캘리포니아 사법 위원회 보고서는 법원이 여성을 다루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배적인 고정 관념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성행위 관한 정보는 보호 권을 보고서에서 증거로 채택되며 법원이 아이들의 후견인을 결정 할 때 불이익을 준다. 그러나 공정회의 한 방청객의 말대로 "18개월 동안 사라졌던 아버지는 그 자리에 나타나기만 해도, 몇 명의 여자와 열아섯 명의 아이를 두게 되었는지는 결코 법원이 참작하는 자료가 되지 않는다."[99]

사법 위원회는 여자들에게는 남자와 다른 규범이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린다. 판사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물위를 상실했다면 아주 가혹하게 취급한다. 한 변호사의 증언에 의하면, 아버지의 "알콜 남용이 부족해 보이면 [법원의 태도는] 그를 가르치면 된다는 식이지만 기년하고 문명인 어머니가 알콜 능력이 없으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단정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 아이들을 잘 돌보고 싶다는 여자들의 말을 남자의 경우와 똑같이 신의로 해석해 주지 않는다"[100]고 덧붙였다.

"임신은 임신일 뿐이다. 그 어떤 것도 임신과 똑같은 것은 없다. 이것은 신비화도 아니고 미화도 아니다. 사실에 대한 진술이다. 이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어떠한 일과도 비교될 수 없다. 그것은 고유한 일이다. 어떻게 해야 임신의 고통일이 행동 모델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라고 그녀는 질문 내린다.[1] 로스앤은 임신부는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며 남자나 임신하지 않은 여성보다 약하거나 무분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임신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무시하는 일은 불합리한 반여성적 행동이다.

정치 사회학자 아이젠스타인 Zillah Eisenstein은 『여성의 몸과 법 *The Female Body and the Law*』이라는 저서에서, 인간의 기본 모델을 남자의 몸이 아니라 임신부의 몸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보여 주면서 법에서의 남성 편견을 설명하였다. 그녀는 법이 지금보다 인간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더욱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산부라고 해도 임신이 수월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지는 여성부터 임신을 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까지 아주 다양하고, 남자처럼 임신을 안하는 여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법은 임신한 노동자와 임신하지 않은 노동자가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할 것이다. 임신한 노동자는 구역질을 피하기로 점심 시간에 식사를 하는 대신 혼잡일 통풍이 간식을 먹어야 할 수도 있다. 물론 임산부 개개인의 특성도 서로 다르다. 그들 중 일부는 상당한 기간의 휴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여성은 출산 후 바로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일할 수 있다. (그들은 두 시간 후에는 다시 일하기도 한다.) 어떤 임신한 노동자들은 임신하지 않은 다른 남녀 동료 노동자와 다른 점이 전혀 없어서,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이젠스타인은 정상성에 대한 남성 규범을 없앤다면, 이것이 모두에게 평등한 대우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임신이 그렇게 많은 다양성을 갖고 있다면, 임신을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상의 심각성과 무력함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병처럼 생각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나 임신을 추가된 능력이 아니라 병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로 남성 규범이

동과 똑같다는 생각이 임산부의 몸도 남자의 몸과 똑같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법이 배자리를 생돌고 있는 게 분명하다. 때때로 법은 임산부를 남자와 다르다고 생각했고, 법률 전문가들의 얼허대로 법은 그 차이를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했다. 예를 들어 법은 지금까지 임신한 십대를 처벅시켜 왔고 (그렇지만 정신시킨 십대는 처별하지 않았다) 임신한 여자들을 직장에서 해고하거나 임신하지 않은 여자에게는 직장에 남아 있으려면 임신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어떤 경우에 법은 임산부를 남자와 똑같이 여기고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았다. 그러나 때로 법은 남자에게 주지 않은 특혜를 임산부에게 주었다.

'캘리포니아 연방 상호 은행 대 게이다 California Federal Savings and Loan Association v. Guerra,'라는 특별한 사건에서 릴리안 가렌드 Lillian Garland는 무급 출산 휴가를 얻었다. 1978년 법은 그녀에게 석 달 후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지만, '연방 상호 은행'은 남성을 차별하는 지시라며 이러한 제기했다. 이 사건은 여성 단체들을 양편으로 갈라놓았다. 일부 단체는 가렌드를 지지했지만, '전국 여성 연합 NOW,' '전국 여성 정치 위원회 NWPC,'를 포함한 다른 단체들은 연방 상호 은행의 항변을 지지했다. 이 사건은 평등한 대우와 우대 간의 분쟁으로 발전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6대 3으로 임산부 우대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와 다른 주는 출산 휴가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평등권 equal rights 옹호론자들에 따르면 임신은 병처럼 일정 기간 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여권 women's rights 옹호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사회학자 바바라 로스앤 Barbara Rothma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여자 변호사들은 남자 변호사와 똑같다. 여자 경찰은 남자 경찰과 똑같다. 그렇다면 임신한 여자는— 누구와 같은가? 임신은 병과 비슷한 질에? 아니면 군복무와 비슷한 질에?

문다. 로스앤은 이렇게 여러서은 질문이 너무도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반박했다. "임신, 분만, 산후기 생물학적 현실을 부정하면 평등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로스앤은 이렇게 말했다.

로스앤은 사법체계에 여전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과학적 증거 없이 유급 병가를 허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결정은 임신이 병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임신부를 남자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불평등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에 — 대상을 — 더 관심한다. 그 중에 어느 세에서 가장 높게 세일러에

드시 남자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남자가 여성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남성이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여성을 억압하는 것보다 더 쉽다. 보호는 억압보다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보호하는 사람은 보호받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보호하는 사람은 보호받는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 보호하는 사람은 보호받는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 보호하는 사람은 보호받는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남성들이 여성을 보호하려고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남성들은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남성들은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명예에 부합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셋째, 남성들은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양심에 부합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넷째, 남성들은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부합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섯째, 남성들은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문화적 전통에 부합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섯째, 남성들은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부합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곱째, 남성들은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덟째, 남성들은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홉째, 남성들은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열째, 남성들은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가족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는 개인마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성들이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여성을 억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남성들이 여성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는 여성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보호는 여성의 자유를 제한한다. 둘째, 보호는 여성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 셋째, 보호는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든다. 넷째, 보호는 여성을 의존적인 존재로 만든다. 다섯째, 보호는 여성을 약한 존재로 만든다. 여섯째, 보호는 여성을 무능한 존재로 만든다. 일곱째, 보호는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만든다. 여덟째, 보호는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다. 아홉째, 보호는 여성을 억압하는 것이다. 열째, 보호는 여성을 착취하는 것이다.

■ 역사적 근거와 쟁점들

역사적 증거를 살펴보면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기 전에 여성들은 이미 많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여성들은 투표권이 없었지만 로비 활동, 청원, 시위, 파업 등을 통해 정치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여성들은 교육,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사회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여성이 투표권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그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평등권은 결코 구조나 정부의 역할에 도전하지 않는다. 남자처럼 대우해달라는 요구는 근본적으로 보수적 입장이며 임신이나 출산과 같은 특별한 차이에 대한 정부의 특별 지원이나 고용주의 특별 배려를 정확히 요구할 수 없다."[10]

베이슨은 평등권의 목표를 전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모든 여성에게 유일한 목표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평등권은 남자처럼 "일하기 위해 사는," 엘리트 남성의 경력과 집단에 접근하고 싶어하는 여성에게 적절한 전략이지만, "살기 위해 일하는" 계급군의 여성 직업에 몰려 있는 여성에게는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베이슨은 1964년 인종과 성별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한 「시민 권리 규정」 제7장이 여성 권리의 유일한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성별 sex"은 마지막 순간에 남부 국회의원 시민의 농담 한마디로 제7장에 덧붙여진 말이었다. 그는 시민 권리 규정이 통과되길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당시 여성 권리 규정이 통과되었더라면 상황은 아주 달라졌을 것이라고 베이슨은 주장한다. "만일 그것이 일하는 여성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의도되었다면 평등한 정책을 강조하는 대신 출산 휴가, 최저 임금의 인상(최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65%가 여성들이기 때문에), 양육의 정부 보조, 시간제 노동자의 의료 보험과 연금권, 적극적 조치, 재취업권 등의 문제를 다루었을 것이다. 또한 남성 직종과 여성 직종의 동일 임금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일차적 양육자로서 특별 요구를 제기할 여지가 없는 정장 모델로 결론되었다."[11]

이러한 베이슨의 도발적 주장으로 인해 평등권이라는 냄비의 무엇이 얼리자 운 갖 가능성들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어떤 여성 권의 옹호자는 정책이 여성의 나이와 사회적 지위 — 아내, 주부, 직장, 시간제 노동자, 이혼녀 — 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떤 이는 옛날의 보호 입법으로의 회귀를 경계하면서 기본적 평등 모델에서 임신, 수유, 출산의 생물학적 과정만을 제외하고 다른 차이들은 대칭적 평등의 관점에서 다루자고 제안했다.

급진적인 법학자들은 평등과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차이들 혼재하

나는 세상이 모순덩어리 투성이 복잡한 곳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히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런 세상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배우고 있다고 말한다. "왕따"라는 단어는 유명성 있는 새로운 모델 모델이 세 번째입니다.

수업으로서 행동 모델은 여성들의 문화적 역할에 대해서 우리 세로 보는 여성 그룹 안에 불평등한 관계를 제거하려는 우리 생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이해관계에 대한 또 우리 생각을 통해서 도달할 것이라는 이상 기대하던 내성 구멍을 주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날씬 여성이 모델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모델이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우리 남자들은 여성 모델이 없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여성"이라는 것은 Claudine Mc-Donald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만약 남자라는 이유로 그들이 모델이 없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해결 도움을 주었다면 여성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세로 보는 여성 모델이 없다는 것은 모델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질문은 실용으로서 행동보다 더 복잡하고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모델이 없다는 것은 "행동"에 대해 우리가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다.

여러 명이는 것이 더 쉬운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우리들은 누구의 말이 정확하고 누구의 말이 비정확한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우리들은 다음 여러 가지로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들이 제시한 가능성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만으로도 오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한다.

여러분 사무에서 보면 스포츠에서부터 남녀 행동을 우수한 선택 관점을 여성들이 스포츠 프로그램에 남녀 행동을 자동적 제공하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스포츠 종목에 있어서 남녀 차별 없이 여성들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들은 대부분 그들의 "그에게 한다"고 있다고 말할 수 있

그들은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양육, 아동 복지, 교육 등 전통적인 여성의 문제들을 국가적 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무상 휴가와 양육.** 전체국(민도, 이웃도, 폴란드,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무상 휴가를 보장하는 국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는 이런 정책이 없을 뿐 아니라 무급의 무상 휴가조차 허리는 실정이다(연방 상호 은행 시간으로 모성 휴가를 허용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무급 휴가는 희희의 절충안이었고, 처음이나마 이 정도에서 시작하자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정책은 우일이 끝 생존과 직결되는 수백만의 어머니들에게 아무런 돌보가 없었다.

현재 여성 노동자는 일과 가정이라는 이중 부담을 해결하는 방식이 여성 개인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 개별적인 해결책은 미국적(남성) 방식이다. 많은 여성들은 (많은 남성처럼)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희생하거나 직장과 가정을 결합하려고 고군 분투하는 식으로 남성과 똑같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서구 어느 나라도 여성 노동력을 필요로 하면서, 일하는 여성이 아이를 돌보면서 전일제 일을 하도록 방관하지 않는다.

• **직장의 융통성.** 비키 비셀은 자신의 법과 대학원 동창생 이야기를 예로 든다. 그 친구는 임신중이었기 때문에 학장에게 이번 학기 강의를 면제해 주면 다음 학기에는 두 강좌를 맡겠다고 제안했다. 학장은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셀은 "만일 내가 유일한 여교수라면 남자 교수들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여성들은 일주일의 출산 휴가를 '메워해 주는' 데 감사하는 태도를 가졌다. 이제 여성은 인간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제닫고 있다. 우리에게 유리한 변화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융통한 노동 조직은 그러한 변화 가운데 하나이다."[9]

몇 년 전 뉴스에 등장했던 융통한 노동 조직으로 직장과 가정을 결합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 "어머프랙 mommy-track"이 있었다. 이것은 직장 여성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이었다. 즉 집에서 시간을 더 보내는 대신 속도를 조절하면서 일을 하는 "어머프랙" 집단과 직장에만 에너지를 투입하기를 원하는 "패스프 프랙 fast-track"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용어는 저널리스트들이 만들었고 어머니의 일이 어떻게 하찮은 일로 취급되는지를 잘 보여 준다.) 직장 여성들은 장래적으로 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그 계획에 반대했다. 다시 말해서 가족을 선택한 여성은 가족을 선택한 남자와는 달리 대가를 치러야 하며 임금이나 승진에서 불이해진다.

이렇에 의하면 "어머프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 "지금 제기된 방식에서 어머니는 본지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머니를 따로 분리시키는 제안은 여성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대신 어머니들이 하는 일을 포함해서 여성의 노동을 재구성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가족이 있는 여자에게 피해가 안 갈 것이다."

이렇 등은 일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즉 시간제 근로자에게 복지 혜택과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 임금 삭감을 나중의 고용 기회 확대와 수입 증대와 교환한다. 법률 회사는 시간제 종업자를 고용하고 대학은 시간제 정임 교수제를 실시한다. 의료 보험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구적인 시간제 계약을 인정한다. 또 출장, 야근, 긴급한 비상 사태로 양육과 일을 양립시킬 수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해결책은 성공의 희미에 대한 남성의 정의에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선 순위를 재고하기 시작할 때 나올 수 있다고 에이슨은 말한다. 그렇게만 되면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그 해결책들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 **"여성의 일"에 대한 거지 평가와 보상.** 몇 년 전 법원은 부인의 차 사고로 두 달 동안 가사일을 해야 했던 남자에게 56,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뉴스위크』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여성 운동도 주부의 일에 연간 336,000달러의 가치를 매기지는 않았다고 논평했다. 주부의 일이 이렇게만 가치 평가된다면 많은 남

5장

여성의 다이어트 경험을 통해 본 몸의 정치학

1. 외모의 양극화를 통한 상차의 사회 문화적 형상

우리 인간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사회를 형성해 가는 방식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꾸려 가는 방식은 각 사회와 문화가 관습적으로 정해 놓은 규범과 규칙에 따라 구성되며, 모든 개인은 사회화 과정에서 그것을 필수적으로 학습해야만 한다. 그러한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성원권(membership)을 획득할 수 없으며, 모든 관계에서 점차 배제되어 결국 안정된 정체성(identity)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과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인간 관계를 맺어 가는지를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제빨리 파악하지 않으면 더 이상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 상대방의 나이나 성별, 학벌, 종교 등을 모르고서는 단 한마디도 건넬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그것은 이러한 요소들이 사회에서 개인의

성원권과 지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만일 나이가 개인간의 위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방법을 어떻게든 재빠르게 배울 것이다. 우리 사회처럼 학벌이 계층 상승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 곳에서는 일류 대학을 다녔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위에 따른 물질들이 심할수록 사회적 지위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는 거의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성별은 인간 관계와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을까?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자. 만일 우리가 처음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의 성별을 파악할 수 없다면? 상대방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분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아마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스러움은 나이나 학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겪는 혼란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그만큼 성별은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서로를 평가하고 관계를 맺어 나가는 데 전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성별이 한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말이다.

남녀가 신체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유를 단순화시켰을 때 다음 세대의 재생산과 맞닿아 있다고 한다면, 이하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많은 사회적 영역들에서조차 성별에 따라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가 바로 지금의 우리 사회이다. 결국 그건 바로 우리 사회가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위의 차이와 위계를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

이렇게 우리 사회와 같이 성별이 중요한 변수가 되는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성별을 쉽고 분명하게 구별짓기 위한 갖가지 사회적 기술과 도구들이 발달하게 된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반문할지도 모른다. 성별은 타고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구분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한 기술과

이다. 다음의 경우에 대한 사회의 지위의 차이가 큰 사회일수록 이러한 성호혁 상징들이 나타나는 빈도수가 많다는 것도 대부분의 사회에서 여자 이상으로 장신으로 장조되어 왔다. 그 예로써 사회에서 요구하는 외모의 기준이 남성과 여성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음은 성별에 따른 외모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써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인광고의 내용이다.

여성의 성별에 따라 외모를 얼마나 차별하는 사회적 기준이 자연스럽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고용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외모에 따른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여성의 외모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외모에 따른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여성의 외모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외모에 따른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2. '여성적' 외모의 역사적 변화

1) '여성=육체의 여성 혐오 전통과 '미모'의 권력화

한 사회의 지배 집단이 다른 집단을 차별하고 낮은 사회적 지위에 묶어 놓기 위해서 가장 흔하고 간편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그 집단을 단 하나의 속성으로만 환원시키는 갖가지 제도와 이데올로기를 개발함으로써 그 집단이 갖는 다양한 성격과 잠재력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 한 가지 속성의 문화적 가치를 평하하려는 노골적인, 또는 은밀하고 정교한 시도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집단은 사회 문화의 메커니즘을 결정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흑인들은 흑인 집단이 가진 다양성을 무시당한 채 피부가 검다는 육체적 속성으로만 환원되고 그것을 이유로 차별당해 왔으며 '검은색'은 (보다 밝고 하얀색에 비하여) 추하고 더러우며 열등한 속성으로 간주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다른 잠재적 가능성을 모두 거세당한 채 육체적 존재로만 환원되어 정신과 이성의 가치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해 온 역사[1] 속에서 정신, 이성의 담지자를 자처해 온 남성들에 의해 열등한 성으로 규정되어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어 왔다. 따라서 여성들은 아주 최근까지도 공적 영역에서 활동을 금지당하는 한편, 오로지 한 남자의 여자로서 아이(특히 아들)를 낳는 육체적 기능과 이상적 기준에 맞게 꾸며진 육체의 아름다움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가부장제 사회와 역사 속에서도 남성들이 선호하는 이상적인 외모를

1) 육체와 정신을 구분하는 동시에 육체에 대한 정신의 우위를 강조하는 이원론적인 시고는 자연과 문화, 감성과 이성 등 다양한 이원론적 사고틀과 함께,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을 통해 살아남기 그 세력을 확장해 온 서구의 역사를 통하여 지배적인 사상적 · 문화적 이데올로기가 되었다고 한다. 『데카르트, 홉스, 루소의 '육체'』, 『사회이론』 17, 나남출판, 1997, 99-101쪽.

각되는 분별한 성별 차이야말로 성적 매력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대가 되어 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리적으로 매력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데 중요한 기준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데 있어서, 성별에 따라 무랏하게 다른 외모를 이상화하는 것은 과연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사회적 위계와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것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을 맺고 있을까.

외모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사회에서 두드러지는 흥미 있는 현상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특히 여성에게 요구되는 이상적 외모의 사회적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외모 가꾸기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과 열의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과연 현대 여성들의 자아 정체감과 사회적 지위 확보에 얼마만큼의 변수가 되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1990년대 들어 점차 '성해방과 여성 해방'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묻아져 나오고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본격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의 한편에서는, 더욱 완벽하고 이상적인 여성적 외모의 기준이 더 강하게 여성들에게 부과되면서 이 기준에 도달하려는 여성들의 욕망과 노력이 커다란 사회적 몸을 이루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우리 사회에서 정와 당연시되는 여성다운 외모의 엄격한 기준을 하나의 문화적 압력으로 체험하는 젊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성별화된 몸이 한국 사회의 변화된 제슈얼리티의 양상에서 차지하는 의미, 그리고 그것이 여성의 자아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에 앞서 먼저 '여성다운 외모 가꾸기'를 둘러싼 사회적 압력과 여성들의 노력을 살펴보고 그러한 외모 관리 실천의 시대적 양상과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다이어트'라는 외모 관리 방법이 보편화된 역사를 따라가 보자.

기적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로부터 사회적 인정과 보상을 받을 뿐
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나 남편, 혹은 자녀들에게서도 경제적 압박을 받
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여가 시간을 주로 자기 계발을 위해 사용
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또한 자신의 몸을 가꾸는 데 많은 돈을 투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자신의 몸을 가꾸는 것을 자기 계발
의 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
이고 자신감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또한 자신의 몸을 가꾸는 데
에서 쾌락을 느끼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의 몸을 가꾸는 것을 통해 자
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자신감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또한
자신의 몸을 가꾸는 것을 통해 쾌락을 느끼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의 몸을 가꾸는 것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자신감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또한 자신의 몸을 가꾸는 것을 통
해 쾌락을 느끼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의 몸을 가꾸는 것을 통해 자신
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자신감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또한 자

수전 식품의 경우 전통 사회에서는 원산가 가운 여성, 기혼 손인, 동
백기 도타는 여인, 복부가 좋고 적절 여인, 분부가 작은 여인, 유방이 작
은 여인은 소비맹았다고 한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아랫배 실낸' 이라
하여 출산한 복부를 가진 여인이 '빈낸' 으로 불렸다. 이것은 유아기 여
우하지 못한 사회적 여건과 다산의 여성이 선호되는 의식이 공존하
서의 분위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말 이후 우리 사
회가 급속히 '자본주의화, 근대화, 서구화' 되면서 여성의 이상적 미
의 기준은 통만간에 '날씬함' 으로 집약 이동해 왔다. 특히 서
구의 문물의 홍수를 '근대화, 선진화' 의 척도로 생각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서구적 미인상이 힘차 '한국적 미인상' 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말
서 발행된 여성 잡지를 살펴보면 '백의의 미녀 스커트 별풍' 에 대한 기
사가 실려고 비키니 스타일의 수영복이 소개되는 등, 서구적 미의 기준
과 체형이 중심 표적으로 등장하고 있다.[5]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당시 미인상이 여전히 여성의 신체적 특징에 국한되어 있
다는 점이다. 물론, 1990. 22쪽). 이러부터 다이어트는 이러한 떳떳함 달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떳떳함으로 계승과 나이를 뛰어넘고 모든 여성들
의 삶의 한 양식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다이어트가 여성들의 의모 관리 차원으로 확고하게 자리잡
게 된 데는 1960년대 말 이후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서구화, 근대화' 되
는 이데올로기(Modernization)에 선행한 여성들과 '뭘씨이로 Fujiboy』 표
지 모델들의 등장은 1959년에만 해도 없던 여성들의 위에
이었으나 1970년대 말에 이르면 83%로 감소하였고, 그러한 감소 추
세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꾸준히 계속되었다(Thompson, 1990,
다이. 이에 따라 1970년대 이래로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통해 자신의 몸
과 체형이 중심 표적으로 등장하고 있다.[6]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당시 미인상이 여전히 얼굴을 중심

의 표로가 여성들에게 매너의 이상적 표준으로 다가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에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소비 자본주의 사회로 전환
하게 되면서부터였다.

1980년대 후반 이래로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소비의 미덕이 장
려되고, 넘쳐나는 갖가지 유혹을 비롯한 물질적 풍요를 중심으로 대
한 이데올로기들이 등장했다. 그리고 문화와 산업의 영역에서 대중 매체
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었다. 이제 '이데
올 소비' 가 중시되고 개성 연출과 자아 존중감 등 '자아 하나의 사회 문제로 등
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과 동시에, 여성의 외모에 대한 기준은 급
격히 얼굴에서 '몸 전체' 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아무리 얼굴이 예쁜 여성일지라도 '날씬하고
글래 보면 현실적이 아닌 불통한 얼굴에 영향을 끈 놈, 그리고 오목
프를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이로, '옆태통' 과 '오목한 곳' 를 만들기 위한 '젖꼭 성형 수술' 이었다
1970년대가 지날 때까지도 이상적 미인의 기준은 몸매가 아니라 얼
의 얼굴이 '아름다움' 이었으며, 여성의 외모 관리 다이어트는 여성들의 외모 관
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오로 세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 데에서 선택된 여성들의 모
습을 보면 현실적이 아닌 불통한 얼굴에 영향을 끈 놈, 그리고 오목한
프를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이로, '옆태통' 과 '오목한 곳' 를 만들기 위한 '젖꼭 성형 수술' 이었다
1970년대가 지날 때까지도 이상적 미인의 기준은 몸매가 아니라 얼
의 얼굴이 '아름다움' 이었으며, 여성의 외모 관리 다이어트는 여성들의 외모 관
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책은 주로 사회 계층 간의 차이에 주목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대 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적 몸을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 들어서서 다이어트가 여성들에게 가장 중심적인 외모 관리 방법의 하나로 부상한 것은 이러한 사회의 역사적 변화 속에서 여성들에게 부과되었던 이상적 외모의 기준이 '날씬한 몸매' 로 그 무게 중심을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 성불평등한 성별 체계와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성들이 이러한 미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는 과정의 성격은 결코 강제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즉 여성들은 어떠한 강압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며, 많은 경우 그러한 외모 관리가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큰 매강과 자신감을 안겨다 주는지를 매우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다이어트라는 외모 관리도 '자기 관리' 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능동적인 실천으로 여성들 스스로 의미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획득된 이상적인 외모가 보장하는 사회적 특권이라는 거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무엇보다 성별화된 외모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자아' 와 맺게 되는 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성찰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시 말하면, 과연 여성들은 어떤 환경과 사회 관계 속에서 외모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토록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천하게 되는 것일까. 이상적 외모에 대한 여성들의 욕망을 강화해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제도와 인간 관계들은 구체적으로 여성들의 자아에 어떤 방식을 통하여, 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과정은 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을까.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사회의 젊은 여성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다이어트 경험[6]을 통해서 풀어 보자.

3. 여성성과 외모 관리의 정치 경제학 — '다이어트를 권하는 사회'

1) 여성성의 표상으로서 외모 : '사랑, 성, 결혼' 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성들이 외모에 그토록 많은 에너지와 돈을 쓰고 외모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많은 신경을 쓰는 데 대하여 단순히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본능적 욕구쯤으로 설명해 왔다. 이제껏 그러한 현상은 '여자들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그렇다' 는 식의 이야기들로 쉽고 가볍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상적인 외모를 갖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은 여성들에게 본래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여자로서 정체감을 획득하고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기를 요구받는 것이다. 우리 사회처럼 뚜렷하게 성별화된 사회에서 여성들이 남성과 대비되는 성으로서 자신의 정체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정체성의 범위와 내용에 스스로 부합해야만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여성' 또는 '남성' 이라는 범주는 단순히 신체적 특징만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몸었을 때 자기 존중감의 토대가 충분히 흔들릴 만한 말로 흔히 꼽히고 있는 '넌 여자도 아니다' 라는 식의 평가가 있는데, 이는 여성들의 성별 정체감이 여자임을 나타내는 몇 가지 생물학적 표시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여성적' 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요소들로 그 내용이 구성되는 것임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가 그토록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감의 근원이 사회적 지위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또는 자신의 재능보다도 먼저 '여자'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 그 자체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일 것

[6] 이후 인용되는 여성들의 직접 경험과 이야기들은 필자가 같은 주제로 쓴 석사 학위 논문 「여성의 외모 관리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 다이어트 경험을 중심으로, 1998」에서 부분적으로 발췌한 것임을 밝힌다.

그러나 남자들에게 '여자'로 보여 인식되고 연애 관계가 설립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몸을 감염하고 여자로서의 외모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남성과 여성이 맺는 관계는 이성애 중심적 구조 속에서 '여자'로 보이기 위한 외모 관리와 '남자'로 보이기 위한 외모 관리가 서로 다른 것처럼 다르다. 남성들은 여자들이 자신을 '여자'로 보이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외모 관리 행위들을 '여자'로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자'로 보이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남성들은 여자들이 자신을 위해 외모를 관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식된 여성의 낯선 몸은 '여자'로 뚜렷하는 사람과 연예
라는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집중적인 등요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여성
의 낯선 몸매는 낭만적 연예로 대표되는 '성적인 판타지(sexual stimul
ation)'의 산물로 여겨지게 되었다. 반대로 이것은 낯선 사회적 현실을 뛰기 위
해서 반드시 회피해야 하는 것이 되었다. 반대로 이것은 낯선 여성을 위한 보
장이 필요 여성들이 스스로를 성적인 존재(sexual being)로 인식하지 못
하게 만들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에서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
스스로도 정형화 여자는 성적 매력이 전혀 없다는 '여자 아니 없고
나서 딱 떨고 그리고 대단하다는데…… 여자 그러니
지만 여성 관련 스포츠를 보게 있어요. 당장에 남편 같은 분들은 여자역
할을 한다는 생각을 하실하게 싫어 지는데, 그게 왕 같은데요. 실
한 특히도 스포츠스를 보게 있어요. 당장에 남편 같은 분들은 여자역
수행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만나겠어요. 섹스 파트너
들이 수도 없이 있을 거라구요. 서공도 스포츠 맨이요. 선수 생각
을 안 하려고 해도 작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구 내가 정말 이
렇게 과거 있는데, 여자들이 보기 싫고 떳떳이 그 여자들이 얼
굴이 관련이 있는 점에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성에 대한 잘가지 생각 속

있으므가 기성이어요. 20대 후반, 이제 스물여덟인데 스물이일 것이
각을 가졌어 서 같은 몸을 하고 있는 여자들은 없기든요. 예를 들 수
부라도 요즘 '여시족', 이시대' 라면서 넘어서 넘어를 같고 뚫은 변화에
나서 딱 떨고 여기 딱 올해 예고 그리고 대단하다는데…… 제가 그러니
지만 여성 관련 스포츠를 보게 있어요. 당장에 남편 같은 분들은 여자역
할을 한다는 생각을 하실하게 싫어 지는데, 그게 왕 같은데요. 실
한 특히도 스포츠스를 보게 있어요. 당장에 남편 같은 분들은 여자역
수행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만나겠어요. 섹스 파트너 넘어
들이 수도 없이 있을 거라구요. 서공도 스포츠 맨이요. 선수 생각
을 안 하려고 해도 작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구 내가 정말 이
렇게 과거 있는데, 여자들이 보기 싫고 떳떳이 그 여자들이 얼
굴이 관련이 있는 점에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성에 대한 잘가지 생각 속

2) 여성의 사회적 '성공'과 외모 : '몸모 체환' 글래의 지속

낭만적 사랑과 결혼이 실패되는 과정에서 여성에게 요구하는 여성성이 중요한 여성 정체감의 근원이라면, 현대 여성들에게는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여 '노동하는' 개인, '경제적 능력'을 가진 개인이 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중요한 정체감으로 자리 매김되어 왔다. 서구의 경우 여성들은 근대의 자본주의 체제가 본격화된 이래로, 공사 영역의 급격한 분리 속에서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 배몰되어 어떠한 경제적 · 정치적 권력도 갖지 못했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참정권 등의 정치적 권리와 노동권 등의 경제적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 운동이 등장하면서 서서히 공적 영역을 향한 진출을 시도하였다.

우리 사회에서도 1960년대, 1970년대 경제 개발에 여성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1980년대 이후에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여성 해방의 이념이 확산됨에 따라 여성의 공적 영역 진출이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이제 가정의 테두리를 벗어나 사회 속에서 당당히 '자아'를 실현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멋있는 개인으로, 사회의 당당한 시민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일하는 여성'은 이제 더 이상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삶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일하지 않고 가정에서 가사 노동과 육아에만 전념하는 것에 대해 '집에서 쫓지는 게 싫다, 나만 무언가 뒤떨어지는 것 같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여성들이 많이 생겨날 정도로 여성의 노동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화하였다. 특히 대학 교육 이상의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전문직에 종사하며 사회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보편화되었다. 여성들에게 '일과 사회적 성공'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자아'의 확립은 사회적 인정과 함께 매우 중요한 자기 존중감의 근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성공과 자아 실현에 대한 여성들의 욕망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성공의 모델은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는 여성들이 공적 영역에 진출한 역사가 아주 짧은 데다 남성 중심적인 문화의 벽이 여전히 두터워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이 아직 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대기업 간부가 되는 것만으로도 그 성공담이 책이 되어 팔릴 정도로, 여전히 여성들이 지립적인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사회적 보상과 인정을 받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떠 된 일인지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아주 쉽게 성공한 여성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쉽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이 아니라 성공한 직업 여성의 '이미지'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래로 광고, 드라마, 영화 등의 대중 영상 매체에 등장하기 시작한 이른바 '커리어 우먼' 이미지는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에 대한 욕망이 점점 커져 가는 것과 동시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며 미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 속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을 나타낼 때 가장 핵심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바로 세련된 패션과 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는 여성의 날씬한 외모였다. 결국 이 이미지들 속에서 현대 사회의 바람직한 여성으로 부각되는 '일하는 여성', '성공한 여성' 등은 곧바로 '아름다운 여성'으로 재현되어 왔던 것이다(김미숙, 1995, 64쪽).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움이 '날씬한 몸'을 이상적인 것으로 구성할 때, 날씬함과 그것의 곧곧연한 전시는 여성들이 자신의 성공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나타내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여겨지게 되었다. 결국 대중매체에서 등장하는 커리어 우먼의 이미지는 여성들에게 '날씬함 = 사회적 성공'이라는 등식을 만들어 냄으로써 날씬한 외모는 이제 단순한 미적 기준을 넘어서 자아 실현과 사회적 성공에 대한 여성들의 욕망의 중심에 자리잡게 되었다.

텔레비전에서 가장 많이 그린 거 같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야 되는 거 같구 그런 거 있죠. 표시되는 게 그렇잖아요. 캐릭터를

문제는 이러한 이미지가 단순 히나의 이미지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성들의 사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야기하는 여성상의 스스로도 이미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상적인 그림 같은 이미지에 그런 줄 알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아닌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특히 이러한 커리어 우먼의 이미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이미지가 갖조하고 있는 여성적인 커리어 우먼이란 곧 겨울에서 남성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 개인이면서도 동시에 '여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여성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남성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 커피 심부름 따위는 여성에게 제도 한다가 모든 유능한 남성들에게 귀찮은 일이 되고 만 이유는 여기에 있다. 여성은 이제 커피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그 정도에요 쉽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사례 D : 대학원, 23세

특히 이러한 이미지가 여성들에게 주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이러한 이미지는 여성들에게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고 있다. 즉 그러한 '자격증'을 취득해도 그것이 사회적인 효과를 원만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직업에 맞는 '어떤해 보이지 않는 몸매'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통해 외모를 관리하여 '커리어 우먼'의 이미지로 자신의 몸을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여자 애들은 남자 애들보다 배로 사시에 예달려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시 준비하다 안 되면 행시 하고 행시 하다 안 되면 다른 자격증에 예달려요. 대체적인 추세이기도 하겠지만 여자 애들한테는 상각한 거 같아요. 친한 친구 세 명이 같아 가지구,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정말 이제 기로에 서 있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까, 근데 일단 내가 세상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니까 세상에 어느 정도는 맞춰 가야 한다, 결론이 이렇게 나와서…… 저는 그때 결론으로 난 살 좀 빼야 돼, 이 몸매 가지고는 어디 얼굴도 못 내밀어, 난 안 돼, 살 빼고 좀 미련해 보이지 않아야 되니까, 여자가 똥똥하면 일단 미련해 보이니까, 살도 좀 빼고 능력도 좀더 기르고.

(변호사도 외모 같은 게 중요해요?)

여자 변호사한텐 중요하죠. 왜냐면 여자들한텐 사건을 잘 안 맡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여자 변호사가 별로 없잖아요……. —사례 B

이처럼 여성들에게 외모가 하나의 '직업적 자질'이 되어 가는 현상은 단순히 여성들이 날씬한 몸매를 갖기 위해 강수해야 하는 고통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상품생동의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데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점차 많은 여성들이 공적 영역에 진출하고 사회적 권력에 접근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점점 더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아름다움의 직업적 자질'은 마치 변압기가 원래의 에너지 수준을 변화시켜 주어진 상황에 맞도록 조절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여성의 에너지를 조절하고 약화시키게 된다(N. Wolf, 1991, 20쪽).

실의 취업문이 점차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은 다른 능력이 동일할 경우 외모가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의 외모를 중요한 직업적 자질의 하나로 평가하는 기업의 시선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남성들의 시선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다(조혜정, 1994, 11쪽). 다른 인간 관계와 사회 영역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이러한 시선의 의미와 힘을 파악하고 그것이 내포하는 평가기준을 적극적으로 내면화해 온 여성들은 노동 시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남성과 여성을 한 개인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만을 서로의 비교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결국 여성들은 남성 중심적인 시선을 그대로 적용하는 기업의 관행과 그 평가 기준의 타당성을 받아들이게 되며, 이것은 이제 여성들이 스스로 '이렇이면 다홍치마'라는 논리를 수용하고 재생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저도 3학년이구, 취업을 할 생각을 하니까, 아 그럼 나도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은 하죠. 일단은 현실이 그러니까. 근데 그럴 거 같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솔직히 요즘은 공급이 하도 많으니까 수요자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능력 있는 여자들 중에서도 단순화시켜서 예쁜 여자 못생긴 여자가 있으면, 예쁜 여자를 뽑겠죠. 그러니까 못됐어, 그러면서도 이해는 하지, 화긴 나 같아도 그럴 거야, 그러면서. —사례 E : 대학생, 23세

이와 같이 여성들이 날씬한 외모를 성공을 위한 중요한 능력으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다이어트는 취업과 사회 생활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과제로 다가간다. 한 법대 여학생은 사법고시를 준비하기로 결심하면서 동시에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취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오로지 능력만이 요구되므로 실제로 거의 없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자격증 전문직'에서도 여성의 날씬한 외모가 중요한 '자질'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러한 '자격증'을 취득해도 그것이 사회적인 효과를 원만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직업에 맞는 '어떤해 보이지 않는 몸매'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통해 외모를 관리하여 '커리어 우먼'의 이미지로 자신의 몸을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여자 애들은 남자 애들보다 배로 사시에 예달려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시 준비하다 안 되면 행시 하고 행시 하다 안 되면 다른 자격증에 예달려요. 대체적인 추세이기도 하겠지만 여자 애들한테는 상각한 거 같아요. 친한 친구 세 명이 같아 가지구,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정말 이제 기로에 서 있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까, 근데 일단 내가 세상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니까 세상에 어느 정도는 맞춰 가야 한다, 결론이 이렇게 나와서…… 저는 그때 결론으로 난 살 좀 빼야 돼, 이 몸매 가지고는 어디 얼굴도 못 내밀어, 난 안 돼, 살 빼고 좀 미련해 보이지 않아야 되니까, 여자가 똥똥하면 일단 미련해 보이니까, 살도 좀 빼고 능력도 좀더 기르고.

(변호사도 외모 같은 게 중요해요?)

여자 변호사한텐 중요하죠. 왜냐면 여자들한텐 사건을 잘 안 맡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여자 변호사가 별로 없잖아요……. —사례 B

이처럼 여성들에게 외모가 하나의 '직업적 자질'이 되어 가는 현상은 단순히 여성들이 날씬한 몸매를 갖기 위해 강수해야 하는 고통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상품생동의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데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점차 많은 여성들이 공적 영역에 진출하고 사회적 권력에 접근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점점 더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아름다움의 직업적 자질'은 마치 변압기가 원래의 에너지 수준을 변화시켜 주어진 상황에 맞도록 조절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여성의 에너지를 조절하고 약화시키게 된다(N. Wolf, 1991, 20쪽).

노동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4. '아름다움의 신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상적 정치학

현대의 젊은 여성들은 페미니즘과 여성 운동이 대중화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제까지 여성들에게 지나치게 부과되었던 '여자'라는 성별의 한계를 벗어나 자신을 한 인간으로, 당당한 사회의 시민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욕구를 키울 수 있게 되었다. 여성들은 직업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남성들과 나누는 사랑과 성, 그리고 결혼 제도 속에서도 자신들의 이러한 욕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앞서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볼 수 있었듯이, 이러한 여성들의 욕구와 기대가 높아질수록 우리 사회에는 여성들로 하여금 '여자'라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명백히 각인시키는 다양한 기제들이 교묘하게 발달되어 왔다. 특히 여성을 육체적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로만 한정하면서 여성이 가진 다양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부인하고, 여성으로 하여금 이 한정된 존재 가치 속에서만 정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외적 아름다움을 소유해야만 확고한 자아 존중감과 안정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현재의 상황은 최근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은밀한' 좌절감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준다. 그리고 이것이 여성들에게 불러일으키는 외모 가꾸기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몰두는 여성들 스스로 이러한 '미의 신화'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재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여성들의 욕망과 무의식의 차원에까지 스며들어 간 이 신화의 위력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관행, 제도들의 위력을 탓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이제 외모를 통해 여성들이 스스로를 집

수 있는 '정체성 문'이 적극적으로 찾아 내야만 한다. 그러한 '정체성 은 여성

우선 보다 어려운 직업 집단은 여성을 아름다운 육체를 가진 존재로만 한정해 온 사회 제도와 관행을 기준으로 보면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롭다. 세를 통해 여성의 몸을 규격화하고 여성성을 철저하게 육체적 아름다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가 되어 온 전국적인 미디어의 캐릭터 연대하는 움직이나, 기업의 입사 용모 제한이 조건으로 내걸어지고 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면 '몸매 관리'의 영역으로 정어되고 있으며, 그 욕망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여성들의 에너지 역시 그 영역 속에서 끊임없이 소모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외모가 공적 영역에 진입하는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됨으로써 여성들은 스스로나 사회의 시선에 의해 남성과 대등하게 노동하고 성취하는 개인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자'라는 정체성으로 환원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렇게 여자로 정체화되는 것, 즉 불리한 직업 영역에서도 계속해서 여성이라는 성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은 노동 시장에서 매우 심각한 성불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선 여성들의 외모가 취업의 조건이 됨에 따라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여성 인력이 아예 처음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은 여성들의 일을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들은 승진, 승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또 다른 차별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도 업무 수행과 상관없이 외모를 기준으로 모집된 여성들은 남성 동료들에게 동료 노동자가 아닌 '여자'로 보여지게 되며, 특히 이것은 현재 대부분의 여성이 공적 영역의 위계 서열에서 남성보다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직장 내 성희롱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조순경, 1991, 48쪽).

결국 여성들이 사회적 성공과 자아 실현을 통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안정된 정체감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여성을 아름다운 육체를 가진 존재, 즉 '여자'로만 한정짓는 노동 시장의 남성 중심적 통제로 말미암아 심각한 장애에 부딪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육체에 부여된 이러한 성적인 의미는 끊임없는 성희롱과 같은 성폭력에 여성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여성들의 사회적

2

시각적 억압

성별과 시선

스펙터클로서의 여성 : 남성적 응시

최근 여성주의 문화 분석은 "성별과 시선"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다. "시선 looking"이나 "시각 sight"은 이미지 수용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지 바라보기가 성별의 차이와 가부장적 권력 관계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이러한 접근은 여성의 재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새로운 관심과 연결된다. (초기의 많은 여성주의 비평이 보여 준 것처럼) 여성이 성적 스펙터클로서, 남성에게 "보이기" 위해 재현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과정을 통해 여성은 성적인 스펙터클이 되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자 여성주의 문화 비평은 이미지의 상차별적 맥락에 대한 질문을 넘어 "시각 viewing 메커니즘"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미르크스주의 문화 비평가인 존 버거 John Berger는 시선이라는 복잡한 문제와 성별과 시선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급한 최초의 이론가들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이미지 Ways of Seeing』라는 제목의 책과 동일한 TV 기획을 대본을 썼다. 버거는 가부장제의 사회가 여성을 남성 관객, 혹은 남성 관음자의 "시선"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남녀의 권력이 불평등한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여성이 어떻게 남성 시선의 수동적 대상의 위치에 놓이고 어떻게 이러한 시선을 내면화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여성은 자신의 모습과 행동을 구석구석 살펴보아야만 한다. 다른 사람에게, 궁극적으로는 남성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가 그 여성이 성공하느냐 아느냐를 판가름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남성은 보고 여성은 보여진다.** 남성은 여성을 바라본다. 여성은 바라보이는 자신을 지켜본다. 이것이 대부분의 남녀 관계를 결정지을 뿐 아니라 여성들간의 관계를 결정짓는다. 여성 안에서 여성을 관찰하고 있는 자는 남성이다. 그리고 관찰되는 사람은 여성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성은 스스로를 시각의 대상 곧, 볼거리로 바꾸어 버린다.[1]

버거는 비교적 중립적인 행위로 보일 수 있는 시선에 사실은 권력, 접근, 통제 관계를 수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권력이 바로 여성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여성은 남성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묘사된다. 여성성이 남성성과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상적' 관객은 항상 남

성으로 가정되고 여성의 이미지는 남성 관객을 즐겁게 하도록 고안되기" 때문이다.

『이미지』는 마르크스주의 문화 이론가이자 비평가인 존 버거의 문제들에 뿌리를 두고 있고, 같을 만 해도가 여성주의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책의 독창성은 "고급 예술"과 "대중 문화"의 범주를 깨뜨리고 노력하면서, 이러한 분류와 시각 양식 자체가 이데올로기적이고 신화적임을 보여 주려 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주의 문화 이론가들에게 이 책은 여전히 중요한 텍스트이다.

버거는 시선이 어떻게 성별화된 방식으로 구축되는지를 살피면서 대중 매체 광고와 함께 "고급 예술"을 연구했다. 고전적 누드가 현대 광고에서 볼 수 있는 명백한 형태의 여성 대상화의 원조라고 생각한 버거는, 신성 불가침하다고 여겨지는 "고급 예술"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재현물에 남성 권력이 내재해 있고 문화 비평은 그것을 밝혀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거는 고전 회화에서의 여성 누드 표사가 성의 정치학에 관해 아주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성의 몸은 그림을 볼 남성에게 보여지는 방식으로 배치된다. 그 그림은 **남성의** 섹슈얼리티에 호소하도록 그려지므로, 여성의 섹슈얼리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4] 이러한 대상화 과정과 남성의 이미지 통제 과정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소유"권을 정당시킨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남성 욕망의 대상이라는 관점을 내면화시키는 여성의 정체성을 만들어 낸다. 그리하여

"여성의 정체성은 자신의 **관찰자**이며 동시에 **관찰당하는 자**라는 두 가지의 구별되는 속성으로 구성된다"[5]는 점을 강조한 것 역시 매우 의미 심장하다.

버거는 성별화된 "시각 양식" 개념을 도입하고 오랜 세월 동안 여성의 몸이 어떻게 대상화되어 왔는지를 보여 주는 역사적 논의를 펴면서, "응시"에 관한 여성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이를 통해 대중 문화의 이데올로기를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재고찰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

남성이 시선의 담지자이며 "시각 양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특권을 점하고 있다는 이러한 생각은 다른 이론적 입장을 갖고 있는 여성주의자들에 의해서도 지적되었다. 정신 분석을 발전시킨 로라 멀비의 이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그녀는 영화 이론에서 중요한 논문으로 고려되는 「시각적 쾌락과 서사 영화」를 1975년에 『스크린』에 발표했다. 여기서 여성이 성별화된 시선의 구축에서 수동적 입장에 서 있다고 자신있게 주장했다면, 멀비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물음을 던짐으로써 이론적 문제를 제기했다. 멀비는 "세련에서 이러한 능동/수동의 구별과 '남성적 응시'의 지배력을 영속화시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 멀비는 정신 분석, 특히 라캉주의 정신 분석에 기대어 고전적 서사 영화의 특수한 과정상에서, 또한 시각 쾌락증 **scopophilia**, 관음증, 물신주의 등의 심리학적 현상으로서 남성적 응시의 개념을 설명했다. 메리 앤 도앤 **Mary Ann Doane**의 지적대로 멀비의 작업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이 개념이 여성주의 영상과 문화 연구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데도 딱히 이견은 없을 성싶다. 이것은 남성 관객의 응시를 시각적으로 즐겁게 하는 것이 영화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책의 독창성은 "고급 예술"과 "대중 문화"의 범주를 깨뜨리고 노력하면서, 이러한 분류와 시각 양식 자체가 이데올로기적이고 신화적임을 보여 주려 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주의 문화 이론가들에게 이 책은 여전히 중요한 텍스트이다.

버거는 시선이 어떻게 성별화된 방식으로 구축되는지를 살피면서 대중 매체 광고와 함께 "고급 예술"을 연구했다. 고전적 누드가 현대 광고에서 볼 수 있는 명백한 형태의 여성 대상화의 원조라고 생각한 버거는, 신성 불가침하다고 여겨지는 "고급 예술"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재현물에 남성 권력이 내재해 있고 문화 비평은 그것을 밝혀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거는 고전 회화에서의 여성 누드 표사가 성의 정치학에 관해 아주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성의 몸은 그림을 볼 남성에게 보여지는 방식으로 배치된다. 그 그림은 **남성의** 섹슈얼리티에 호소하도록 그려지므로, 여성의 섹슈얼리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4] 이러한 대상화 과정과 남성의 이미지 통제 과정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소유"권을 정당시킨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남성 욕망의 대상이라는 관점을 내면화시키는 여성의 정체성을 만들어 낸다. 그리하여 기존 젠더의 존재한다고 주장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모습의 젠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여성 관객의 응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영화 이론은 영화를 분석의 틀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영화 이론이 주로 영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화 이론은 영화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영화 자체를 제한하는 경향도 있다. 영화 이론은 영화 자체보다 영화를 분석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영화 이론은 영화 자체보다 영화를 분석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제이크는 린다 '롱 쿨'에서 은은한 여인 낸시 알리가 입었는 를 바라 보며 욕망 은 욕망에 흔들리는 로버트 레이놀즈 그림, 1966 ; 뉴욕 근대 미술관 제공

여성 신체의 부분다면서 가장에 남근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간주해 버린다. 이렇게 확증 편향적 시선을 적극적 거부하는 것이 바로 페티시즘이다.[7]

이러한 정신분석적 시선은 영고에서 여성을 재현할 때 몇 몇의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 남성은 항상 능동적, 관음적 시선의 주체로 여성은 수동적 시선의 대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남성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 관객이 영화를 보게 된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 부분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남성 주인공의 시선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한다. 남성 주인공의 시선은 여성을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주인공 자신의 욕망을 대상화하는 것이

남성적 응시의 주인에 속하는 예술로 인구를 선택 은 여성주의자들은 할리우드 고전 영화가 여성 이미지를 남성 소비를 위한 스펙터클로 만들고 있는 주범이고 비난해 왔다. 노엘 캐럴 Noël Carroll은 "남성은 수동적인 할리우드 뉴웨이브는 남성 시선을 여성의 스펙터클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스펙터클로 고발 응이라는 남성의 시선의 주체성 획득하기 위해 여성 시선 전통적 서사 영화, 의 후기적, 남성적 응시 개념을 여성 관객의 "여성 관객은 없다"고 단언한 것이다.[10]

결정 짓을 : 그 영화로 보기

남성적 응시 이론을 바탕으로 인구를 선택 은 여성주의자들은 할리우드 고전 영화가 여성 이미지를 남성 소비를 위한 스펙터클로 만들고 있는 주범이고 비난해 왔다. 노엘 캐럴 Noël Carroll은 "남성은 수동적인 할리우드 뉴웨이브는 남성 시선을 여성의 스펙터클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스펙터클로 고발 응이라는 남성의 시선의 주체성 획득하기 위해 여성 시선 전통적 서사 영화, 의 후기적, 남성적 응시 개념을 여성 관객의 "여성 관객은 없다"고 단언한 것이다.[10]

그러나 도엔이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을 위한 시선의 폭력을 거부할 지 이미 응시를 보복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바로 "남성 스트럽스 나 남성성 그러한 것도 이상 대상을 장악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모두 자신 계속가 거절 예술가들을 평범하고 드러내려 이것은 성차와 주체적 이분법을 연장시키는 지배 폭력을 장악할 뿐 인 "탈신"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배 폭력의 본질적 속성은 남성 우월성 시선의 특징이라는 것이다.[11]

남자들이 여성 응시의 대상이 될 때 여성은 응시의 압박에 무엇을 주도적으로 "남성적 masculine" 여성을 만들 한다. 그리고 자신의 몸 변화 여성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물신주의자의 위치를 갖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성은 자신의 몸과 너무 밀착되어 있어서, 남성처럼 거세의 공포를 환기하면서 물신화시켜서 사라지게 하지 못한다."[12] 이러한 구조에서 여성 관객은 특정 도착이라는 위치에 놓인다. 여기서 그녀는 여성 인물과 동일시하여 수동적이고 마조히즘적인 위치에 처하거나 남성 영웅과 남성성을 자신과 동일시한다고 도엔은 남성의 시선을 흔들어 놓는 여성의 저항 공간을 찾고자 "가장 무도회 masquerade"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가장 무도회는 여성성이 구성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여성 관객은… 영화표를 살 때 자신이 여성임을 부정해야만 한다. 그녀를 위한 이미지나 그녀의 이미지는 어디에도 없다."[13]

멀비는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일시적으로 여성 관객이 남성적 폐락을 위해 구성된 시각적 세계에 살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남성 관객은 물신적 시각 폐락증에서 폐락을 얻고, 거리를 두면서 바라본 것에 대한 폐하과 통제권을 얻는다. 반면, 여성 관객은 나르시시스적 폐락 즉, 메리몬의 설명대로 "가까이에서, 만졌던 것을 통해, 이미지와 동일시할 때 생기는 폐락"에 빠진다. 말하자면 멀비에게 여성의 응시는 응시하기보다는 수동적 관객의 위치일 뿐이며, 나르시시즘이나 대상화를 통해 자신과 마조히즘적으로 동일시하는 특징을 갖게 된다.

나아가 도엔은 여성이 물신화에 필요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성의 관객성은 남성과 "다르다"는 정신 분석학의 입장을 발전시킨다. 남성은 "물신주의자의 운명에 처해 있는" 반면에 여성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물신주의자의 위치를 갖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성은 자신의 몸과 너무 밀착되어 있어서, 남성처럼 거세의 공포를 환기하면서 물신화시켜서 사라지게 하지 못한다."[12] 이러한 구조에서 여성 관객은 특정 도착이라는 위치에 놓인다. 여기서 그녀는 여성 인물과 동일시하여 수동적이고 마조히즘적인 위치에 처하거나 남성 영웅과 남성성을 자신과 동일시한다고 도엔은 남성의 시선을 흔들어 놓는 여성의 저항 공간을 찾고자 "가장 무도회 masquerade"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가장 무도회는 여성성이 구성된 것이라는 점을

멀비 등이 할리우드 고전 영화는 서사 구조와 미장센을 통해 분자 그대로 남성적 응시를 실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을 때 "시점"이라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할리우드 고전 영화는 관객을 서사상의 영웅의 관점에 가져 놓음으로써 이러한 메시지를 강화"[3]시키는 스타일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또한 멀비는 스펙터클과 서사의 관계를 강조한다.

> 영화의 시각적 쾌락에 대한 프로 멀비의 설명에 따르면 영화가 시각적 쾌락을 주기 위해 전형적으로 취하는 방식은 스펙터클과 서사가 서로 결합되는 것이다. 한 영화는 주로 스펙터클의 효과를 갖고 있다. 그 효과가 가장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이 음악 효과인데, 서사를 "멈기"에 부속시키거나 극적 효과를 최대한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고전 영화는 카메라의 시선이든 영화 주인공의 시선이든 그 시선의 대상을 규정해 냄으로써 스펙터클을 만들어 낸다. 이때 특히 시선의 대상으로 여성이 지목될 경우에는 "여성의 보여짐 to-be-looked-at-ness"이라는 속성이 스펙터클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4]

멀비는 상업 영화 제작의 여러 측면들, 예를 들어 플로즈업과 같은 화면 구성과 의상, 조명, 분장 등이 여성을 성애화된 스펙터클로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았다.

멀비의 남성적 응시에 담긴 함의는 극적이다. 그 함의는 서사 영화를 거부하고 서사적 쾌락을 파괴하는 여성주의적 아방가르드 영화를 만들

어 내자는 것이다. 멀비에 의하면 서사적 쾌락이란 마조히즘적인 쾌락이고 남성 지배를 재생산한다. 멀비는 피터 울른 Peter Wollen과 함께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The Riddles of the Sphinx」라는 아방가르드 영화를 제작했다. 멀비는 할리우드 영화가 여성주의자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주류 영화와 그것이 의식적으로 발전시켜 온 영화 관습은 관중의 존재와는 무관하게 관중에게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고 그들의 관음적인 판타지를 자극하여 마술적으로 멀쩍지지만, 의미론적으로 갇혀 버린 세계를 묘사한다."[5] 여성들에게 영화의 쾌락이 지배적이고 대상화하는 남성적 응시에 의해 항상 오염된 것을 의미했다면 우리는 마로 그 쾌락을 거부해야만 한다. 그런데 영화의 쾌락에 대한 이러한 비난 역시 대다수에게 일정난 쾌락을 주는 영화를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뜻 깊 멀쩐 아방가르드 영화를 제작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곤혹한 논쟁을 초래했다.

남성적 응시라는 개념이 영화 이외의 다른 대상에 어느 정도로 일반화시켜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논쟁이 진행되었다. 응시의 개념은 여성을 명백하게 성적 스펙타클로 등장시키는 광고를 분석하는 데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왔지만 멀레비전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정신 분석학적으로 볼 때 응시는 어두운 공간과 비교적 수동적이고 움직일 수 없는 관중에 과루되는 의미화 실천 signifying practices과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그 개념을 멀레비전 같은 매체에 어느 정도로 적용

2
생산기술: 성별 분리된 직업 만들기

자본가는 자본가로서 그리고 남성은 남성으로서 오직 기술을 선점한다.
Cockburn, *The Material of Male Power*

어둡고 악마 같은 분위기의 제재소에서부터 로봇에 의해 거의 완전히 운전되는 청결하고 자동화된 공장에 이르기까지,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는 생산과 임금노동 영역에서 가장 무엇하게 나타난다. 어쨌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노동을 하며 바로 그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기술변화에 드는 비용과 그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을 둘러싼 가장 격렬한 투쟁들의 일부는 바로 그곳에서 일어났다. 그중 가장 악명 높은 것은 19세기 영국에서 남성 직조공들이 자신들의 직업을 위협하는 새 기계와 제재소들을 파괴한 것이다. 실제로 '러다이트'(Luddite)라는 말은 지금도 여전히 기술변화를 반대하고 따라서 진보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20세기 후반은 또다시 대단히 빠른 기술발달을 보이고 있고 우리

는 그 시대를 살고 있다. 반도체와 전자통신 기술의 근본적인 혁신으로 노동의 성격과 노동력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현재의 성별 노동분업은 이와 같은 변화에 깊이 관여되어 있으며 성별 분리된 노동을 할 한 새로운 영역이 전개되고 있다. 나는 이 장에서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신기술이 노동의 비인간적인 면들을 제거해 줄 해방의 힘이 될지 아니면 노동을 기술 보조적인 성격을 지닌 피보하고 파편화되고 강도 높은 노동으로 전락시킬지는 아직 알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앨빈 토플러(Toffler, 1980), 해리 존스(Jones, 1982) 그리고 앙드레 고르(Gorz, 1982) 같은 후기산업사회 이론가들은 '반도체 혁명'의 결과 산업사회들 내부로부터 급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들은 이런 급진적 변화에 대해 낙관적이다. 이들은 기술혁신이란 산업발달에 투입되는 노동의 감소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경제로의 이동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반도체산업의 등장으로 사라진 직업들은 이런 새로운 산업부문의 새로운 직업군으로 대체될 것이며, 지적분하고 기계적인 일은 기계에 맡기고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심취 지향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미래에는 이런 일들 가운데 일부는 심지어 가정이나 '전자가내공업'(electronic cottage)으로 이관될 텐데, 왜냐하면 컴퓨터 처리를 통해 더 이상 거대 규모의 생산단위에서 일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종류의 낙관적인 견해로 노동사회학을 들 수 있다. 노동사회학은 최근에 '유연한 전문화'와 '신포드주의' 문제에 크게 관심을 집중함에 따라 점차 부상하게 되었다. 노동사회학은 신기술이 제공하

는 직업항상의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자동화는 점점 더 높은 수준의 노동숙련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경영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기술변화는 규모는 작지만 더 숙련되고 융연한 노동력을 요구할 것이며,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은 노동력은 신기술에 필요한 기능 습득이 가능한 그런 노동력이 될 것이라고 본다."

한편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실업률의 증가는 노동에 대한 기술의 영향에 관해 훨씬 비관적인 견해를 불러일으켰다. 이 입장의 비평가들은 '후기-산업화' 시나리오와는 대조적으로, 사무자동화는 퇴화되고 단순화되고 평가절하된 직업들, 위험하고 스트레스 많은 노동, 피고용인을 감시하는 고용주 그리고 노동강도의 심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노동자들은 일은 더 많이 하고 임금은 더 적게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자의 기능은 이미 기술 안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을 계속 유지할 정도로 운이 좋은 노동자라 해도 결국 기계를 돌보는 위치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커트 본너거트Kurt Vonnegut의 공상과학소설 『피아노 주자Player Piano』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기계를 자세히 감시하는 체계를 설치하여 생산결과를 감독하고 기록하는 감시체계 경향은 점차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써 노동착취는 더욱더 강화된다는 것이다.

문제를 이 같은 구도에서 접근할 때, 논의는 당연히 많은 질문을 낳게 된다. 생산기술은 노동조직을 결정하는 독립적인 세력인가? 특히 생산기술은 여성과 남성의 노동경험과 노동성격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특정 기술들의 도입과 발달 자체가 젠더관계를 포함하여 현행 사회관계들에 의해 구체화되는가?

나는 비록 신기술이 변화세력을 대표하긴 하지만 그 결과들은 특히 젠더가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는 기존의 노동조직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을 주장하려고 한다. 기술변화는 노동시장 내 성별분업과 남녀 사이의 직업적 차별을 종말의 징식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이 점은 먼저 무엇이 특정 기술발달들을 구체화시켰는가 하는 질문으로 나아가게 한다. 만약 기술이 특정한 직업정형들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다면 직업장에 성차별이 더욱더 반영되어 간다고 해서 그리 놀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노동력의 성과 작업장 내 젠더관계 자체가 어떤 식으로 기술혁신의 방향과 속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 방식들을 조사할 것이다.

성별 노동분업에 대한 기술의 영향

사무자동화와 여성고용

지금까지 많은 수의 여성들이 항상 일해 왔지만, 선진 산업경제 안에서 여성 노동력이 거의 절반에 이르게 된 것은 지난 30년 동안의 일이다. 그런데도 노동과 기술에 대한 논쟁의 주도자들은 젠더문제를 감지하지 못했으며, 단지 맹목적으로 남성 노동자가 우세한 생산부문들에만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70년대 중반부터 페미니스트 연구자와 활동가들은 사무자동화가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연구의 핵심 관심영역은 사무실 내에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의 도입에 관한 것이었다. 예나하면 거의 모든 곳에 있는 사무직과

이직적 근로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고, 또 사무실은 기술이 불티일 조직는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장소여서, 이 전단들이 가장 명확한 주요 관심사는 먹다요 당장기의 항변한 사용이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위험에 모든기까지 다양한 이슈들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사무자동화 사용자들에 대한 많은 초사들은 서멀로에서 도입이 진통적인 비서직능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서멀로 순장, 기술통합, 인장, 무통, 백스백용과 여자이용을, 소화불량 그리

고 유용증과 같은 신체적 · 심리적 항상을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컴퓨터로 노동관사가 되고 있는 사람들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전국 노동장도가 이상과 같은 스트레스 원인 업무기 업에 요구되는 노동강도의 심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노동자들은 일은 더 많이 하고 임금은 더 적게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자의 기능은 이미 기술 안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을 계속 유지할 정도로 운이 좋은 노동자라 해도 결국 기계를 돌보는 위치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커트 본너거트Kurt Vonnegut의 공상과학소설 『피아노 주자Player Piano』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기계를 자세히 감시하는 체계를 설치하여 생산결과를 감독하고 기록하는 감시체계 경향은 점차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써 노동착취는 더욱더 강화된다는 것이다.

문제를 이 같은 구도에서 접근할 때, 논의는 당연히 많은 질문을 낳게 된다. 생산기술은 노동조직을 결정하는 독립적인 세력인가? 특히 생산기술은 여성과 남성의 노동경험과 노동성격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특정 기술들의 도입과 발달 자체가 젠더관계를 포함하여 현행 사회관계들에 의해 구체화되는가?

나는 비록 신기술이 변화세력을 대표하긴 하지만 그 결과들은 특히 젠더가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는 기존의 노동조직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을 주장하려고 한다. 기술변화는 노동시장 내 성별분업과 남녀 사이의 직업적 차별을 종말의 징식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이 점은 먼저 무엇이 특정 기술발달들을 구체화시켰는가 하는 질문으로 나아가게 한다. 만약 기술이 특정한 직업정형들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다면 직업장에 성차별이 더욱더 반영되어 간다고 해서 그리 놀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노동력의 성과 작업장 내 젠더관계 자체가 어떤 식으로 기술혁신의 방향과 속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 방식들을 조사할 것이다.

성별 노동분업에 대한 기술의 영향

사무자동화와 여성고용

지금까지 많은 수의 여성들이 항상 일해 왔지만, 선진 산업경제 안에서 여성 노동력이 거의 절반에 이르게 된 것은 지난 30년 동안의 일이다. 그런데도 노동과 기술에 대한 논쟁의 주도자들은 젠더문제를 감지하지 못했으며, 단지 맹목적으로 남성 노동자가 우세한 생산부문들에만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70년대 중반부터 페미니스트 연구자와 활동가들은 사무자동화가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연구의 핵심 관심영역은 사무실 내에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의 도입에 관한 것이었다. 예나하면 거의 모든 곳에 있는 사무직과

과 넓가 같은 몇몇 부문이 힐튼타로 저리되었으며 이로써 특히 경쟁적인 사무실 서비스 업종에서 보통주의 수익률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고도의 숙련을 요구하는 새로운 사무직이 대량으로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숙련이 요구되는 업무들은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숙련이 요구되는 새로운 사무직이 대량으로

그림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군수공장 노동자

자료: 오스트레일리아 전쟁기념관, 사진번호 131736.
마간 맥머리(Megan McMurchy), 마고트 올리버(Margot Oliver), 제니 손리(Jenni Thonley) 주연의 〈사랑인가 운인가〉(1980) 출연시.

되어 있는 성의 정치학의 현대판 실례를 제공한다.

1986년 영국의 와핑(Wapping)에서 새로운 기술의 신문인쇄공장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는 플릿 가(Fleet Street)의 인쇄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노동과정의 통제권을 뺏으려는 경영진의 기나긴 시도의 역사에서 마지막 국면을 장식하는 사건이었다. 미국의 경우, 1970년 무렵에 컴퓨터로 처리하는 사진식자기 체계가 인쇄

과 협상이 이루어지며, 성별 노동분업을 여성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종종 남성권력에 의해 저지된다. 강력한 집단이 자신들의 기존 기술을 방어하고 신기술을 독점하기 때문에 여성은 이러한 투쟁에서 패배한다. 숙련노동자는 기술변화에 따른 투쟁에서 노동계급 이해의 옹호자로 간주되어 왔지만, 사실 그 힘은 부분적으로 과거에 배타적으로 작업해 왔던 데서 유래한다. 그들의 이득은 종종 상대적으로 덜 숙련되고 덜 조직화된 노동력 부문의 희생으로 얻어졌으며, 많은 경우 여성의 배제에 기초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과 특히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영국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여성들이 2차산업에 진입하였으나 전쟁이 끝나자마자 여성들은 똑같이 정교한 과정을 거쳐 일터에서 추방되었다(그림) 참조). 그러므로 공학을 비롯하여 그 밖의 2차산업 내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점과 기술에 직면해서 종종 여성이 느끼는 자신감의 결여는, 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징표로 이해되어야 한다. 공학 내 여성의 저조한 참여를 주장하려는 공식적인 계획들은 종종 마치 문제가 단순히 여성들의 자신감 결여에 있는 것처럼 전행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기술의 남성지배는 여성을 기술노동 영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옹지되어 왔다.

특히 인쇄업과 신문출판업은 전통적으로 숙련노조가 노동과정을 지배해 온 산업이다. 인쇄노동자들은 최근의 기술발달, 특히 이와 같은 전통을 훼손시킬 잠재력을 가진 전자조판 기술에 대해 저항해 왔다. 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미국이나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일어났던 동맹파업과 공장폐쇄는 신기술 시도에 대한 판박이 성격을 지녔다. 영국의 인쇄산업은 기술에 대항한 이 같은 투쟁에 내포

이 분리는 계속 사업장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의 사업장 소득의 3/4 정도를 받는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야 할 점은 직업에 따른 직업의 분리현상과 성별임금 격차현상이 별구하고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보통명사 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은 생물학적 남성성에 전입하기보다는 새로운 숙련을 요구하는 새로운 직업에 종종 전입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생물학적 환원과 성에 따른 직업분리 사이의 관계는 우연적이고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다. 예컨대 산업혁명 초기에 방적업은 여성의 직업이었으며, 그 일부는 지금도 그러하다. 또한 방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대개 가족 단위로 고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방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가족 내에서 가지는 지위와 관련되어 있다. 즉 남성과 여성은 각기 다른 역할로 분석되어 있는데, 이러한 역할은 가족 내에서 여성의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다. 방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가족 내에서 남성의 지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 내에서 남성의 지위는 여성의 노동력 공급을 통제하는 것을 통해 강화된다. 즉 남성과 여성은 각기 다른 역할로 분석되어 있는데, 이러한 역할은 가족 내에서 여성의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다. 방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가족 내에서 남성의 지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은 가족 내에서

'어떻게 하면 기술은 본래적으로 남성적인 것이라고 단정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기술우위적 남성성을 통달사하는 이 저속적 힘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면이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기술적 남성성의 사회적 산물로 이해하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수행)적 지위는 성중립적으로 남성성과 결합되었고 이 덕분에 하지 않는 일로 이해되었다. 반면에 여성의 숙련은 비기술적인 것으로 그리고 필가물화되어 질의되었다.

그리므로 작업장 내에서 남성의 권력과 기계류에 대한 지배 사이에는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 바꾸거나로 여성의 기술적인 위협적 측면 기술숙련의 결핍 사이에도 중요한 연관이 있다. 제3장에서 나타난 기술숙련 개념 자체가 보통의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우위적 남성성을 구성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산업에 도입되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저널리스트와 광고업계 종사자들은 자기 원고를 직접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신기술의 도입은 식자공의 업무 통제능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을 의미했는데, 왜냐하면 식자공의 전통적인 수작업(手作業) 기능이 기술적으로 불필요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숙련노동의 해체성과 인쇄공 노조의 저해력에 힘입어 당연히 안전할 것처 신문산업에는 이런 종류의 기술혁명이 도입되지 못했다. 전후(戰後)에 이들 숙련공들의 임금은 대단히 높았다. 그중에서도 프리랜서 식자공들은 가장 높은 임금을 받았다. 영국 식자기술의 역사에 관한 책에서, 록번은 남성 숙련노동자집단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식자공집단이 자기들 전자조판에 밀려 갑작스럽게 허물어져 갔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Cockburn, 1983). 이 영역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배제되었던 노동영역이다. 고용주들은 이 기술변화를 통해 남성숙련공을 더 값싼 여성노동자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지난 10년 동안 식자공들은 — 자본가 입장에서 — 컴퓨터 식자도구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가짐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기술적으로는 식자공의 숙련이 불필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식자공들은 다양한 수준에서 자신들의 숙련통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식자공의 저항전략에는 비숙련 여성을 노조에서 배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배제전략에는 인종적·종교적 편견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숙련 인쇄노동자 중 백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WASP)의 비율은 한(무)숙련 혹은 비숙련 노동자 중 이들의 비율보다 훨씬 높다.

조직화된 남성노동자가 작업장 내에서 기술을 통해 여성에 대한

지배를 유지해 왔다는 것을 지적했으므로, 이제 이 지배가 항구불변의 성격가 아니라는 점을 말할 필요가 있다. 기계류에 대한 남성지배는 — 이 지배를 줄이려는 여성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숙련 남성노동자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노동비용을 낮추려는 고용주들의 행동에 의해 — 점점더이 위협받고 있다.

몇 가지 조건 아래서는 숙련 남성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대신 여성이 그 자리를 얻는 경우가 있다. 여성화의 과정은 몇몇 기술변화의 한 부분을 이룬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성이 이전에 남성이 수행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같은 조건 아래서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기술변화 과정에는 본질적으로 직업 자체가 변형된다는 특징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점이 바로 핵심적인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여성노동의 도입에는 업무 숙련도의 저하와 그에 따른 임금하락이 동반된다.

성, 숙련 그리고 기술능력

흔히들 여성이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비숙련 노동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확실히 공식적인 분류에 따르면 여성들의 노동은 비숙련 혹은 반숙련 범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숙련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확립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디지털 손목시계와 포켓용 계산기를 조립하는 여성들에게는 상당히 정교한 손동작('재빠른 손놀림')과 지속적으로 정밀한 관찰을 할 수 있는 집중력 그리고 손과 눈 동작의 균형을 맞추는 뛰어난 능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런 능력은 '숙련'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간호사는 기술적 지식뿐만 아니라 많은 훈

이런 식의 분석은 편더콘의 문화적 속변이 지나친 중요성을 강조하며, 및 작업장 내에서 뜬다가 어떻게 사람들이 정확히 책무를 다하는지 그 맥락을 모호하게 만든다. 이것은 특별히 석사논문에 관한 연구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한 숙련공들이 기술과 전문성을 구현하는 수많은 예를 그들이 남성 정체성과 맺고 있는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1980년대 숙련공의 신화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 분석은 여성의 기술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여성의 기술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는 노동자 집단 간 남자답고 노력하는 것이다."Knudsen, 1995, p. 11)

실업 상황가 편더콘슨의 간 역사를 가진 하나의 지속적인 이데올로기적 문화의 개념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초점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 실행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동한다. 현재 가능문화가 남성집단 간 남성성을 구별하고 강화하는 방식은 역사적인 맥락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분명히 기술숙련의 전유(專有)는 남성과 여성 사이뿐만 아

하는 데 저임금 여성노동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발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에서 최신 자동화체계의 발달이 해외의 조립작업에 대한 필요를 감소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무자동화(예를 들어 음성인식과 광학적 문자인식)의 발달은 해외주재 사무업무의 이용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컴퓨터를 기반으로 가정에서 업무를 보는 일—이것을 '원격근무'(telework)ing) 혹은 '재택근무'(telecommuting)라고도 부른다—의 발달은 기술이 업무배치에 미치는 영향을 훨씬 더 잘 보여준다. 컴퓨터와 원격통신 기술의 결합은, 정보처리 업무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수많은 노동자들이 집에 있는 단말기로 업무를 보는 것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일명 '전자공동체'(electronic cottage)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망은 노동의 미래에 대한 온갖 시나리오에서 주연급 역할을 한다. 비록 이런 새로운 형태의 재택근무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는 여전히 적지만, 그 잠재력은 대단히 크다. 그리고 매우 다양한 범위의 정치적 신념을 가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면, 재택근무는 미래 노동조직의 규범적인 사례이다. 후기산업사회 이론에 따르면, 작업장으로서의 가정은 사람들을 산업생산의 규율과 소외로부터 해방시켜 준다. 재택근무는 자기규제적인 근무의 자유를 주며, 일과 사생활의 재통합을 가능케 한다. 게다가 재택근무가 확장되면, 남성과 여성이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짐에 따라 임금노동과 무임금 가사노동의 공유부분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도 한다.

후기산업사회 이론가들은 전자재택근무를 긍정적인 미래의 업무로 간주하는 데 비해, 다른 이론가들이 볼 때 재택근무는 '혹시당하

단일하고 일관된 형태의 남성성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남성 기술문화는 노동계급과 중산층 남성에게 부분적으로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신체적 용맹스러움과 관련된 남성성의 승배는 육체노동자들 사이에서 작업장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마 노동계급 남성은 자동차나 가정의 기계들을 수리할 때 좀더 능력을 발휘하겠지만, 중산층 남성은 추상적이고 일반화된 기술지식을 통해서 더 많은 권력을 가질 것이다. 게다가 계급문화뿐 아니라, 인종간 · 세대간 차이도 남성성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낳는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남성들'과 '남성성'을 본질적인 것으로 구성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이 용어를 다원화해서 '남성성들'로 말할 필요가 있다. 나는 제6장에서 남성적인 기술문화의 성격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토론하도록 하겠다.

업무의 재배치

반도체와 원격통신 기술의 발달로 업무배치가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점이 널리 인식되어 왔다. 예를 들어 화이트칼라의 업무는 중심가에 집결되어 있지 않아도 되어 (임대료도 싸고 임금도 낮아질 수 있는) 교외의 사무실로 옮겨가거나, 모두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 사무실의 해외이전은 물론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위성통신 역량이 증대하면서 그만큼 더 쉬워진 것만은 확실하다. 제3세계의 여러 국가들에서 여성들이 노동집약적인 마이크로칩 조립작업을 수행하는 등 컴퓨터 제조업 내 생산과정의 와해를 바탕으로 해서, 국제적인 성별 노동분업이 부상했다. 더 최근에는 해외주재 사무업무는, 선진 산업국가에 본사를 둔 기업의 자료 입력 및 처리 작업을

력연구 대상자 가운데 프로그램이나 워크로서의 융합적 숙련을 요구하는 경우 제근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제근무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융통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직장인 집중 시간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 결국 전체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업무에 기능한 제근무는 노동분업이 아닌 노동분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근무는 융합적 숙련을 요구하는 업무에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직장인 집중 시간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새로운 전자시대에 어떻게 일할 것인지 실제하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 같아서 더욱 흥미롭다. 각기 매우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노동방식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자동방적기는 방적공들의 투쟁성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어떨의 목적을 부분적으로 실현시켜 주었다. 이 기계가 도입되고부터 방적공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하락했고 파업횟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이 사례는 특정 영역에서의 산업적 갈등이 어떻게 특정 종류의 기술혁신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사실 자동방적기의 확산은 상대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졌고 성인남성 방적공의 장인으로서의 지위를 파괴할 것이라고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 방적기의 수동적 요소들이 급진적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적공은 여전히 지위를 유지하였다. 방적공-보조공 체계는 단순히 그와 유사한 후견인-보조공 체계로 대체되었는데, 이 체계에서도 보조공을 충원하고 작업현장에서 보조공을 통제하는 확실은 여전히 후견인이 장악하고 있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노동의 내에서의 이와 같은 위계적인 구분이 당시 면방직업 생산구조의 기본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윌리엄 라조닉은, 고용주에게는 남성 후견인의 기술이나 조직화된 힘보다는 오히려 매우 효과적인 노동관리 형태에 의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Lazonick, 1979). 그러므로 기술변화의 조건을 이룬 것은 노동계급 내부의 위계적 분화였다.

> 자본가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자동화된 방적기를 도입한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바꿔하면 기술의 발달로 직공의 주의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감독 바로 앞에서도 덮어질 수 있는 상황보다는, 수백 개의 실이 흘러져 나오다가 한꺼번에 끊어지는 식의, '머보 같은 직공'의 명백한 실수가 드러나서, 결국 그 후견인의 허점수입의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MacKenzie, 1984, p. 497)

자동방적 혼합기의 역사는, 기술변화를 생산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것으로 이해할 때는 노동계급 내의 분화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숙련 노동자들의 저항이 자신들의 노조에 비숙련 노동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어떻게 좌우되는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경영주가 노동계급의 분화를 어떻게 자신들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도 보여준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숙련노동자는 자신의 기술을 기계와 통합시킴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낮추려고 하는 자본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똑같이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비숙련 노동자대중'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이런 경계의 전형적인 예는 나이 많은 남성 백인노동자들이 적어도 흑거나 여성이거나 흑인이라는 특성 가운데 하나를 지닌 노동자 혹은 소수인종 출신의 노동자를 감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발달은 단순히 자본 전체가 노동 전체를 통제할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최근의 노동과정론 연구는, 기술은 탈숙련화를 통한 노동통제를 목적으로 구성된다는, 단순하면서도 일반론적인 경향으로 설명하는 것이 지닌 허약성을 거듭 지적해 왔다.[9] 나아가 이 연구는 자본가들 사이에도 이해관계와 행동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초점은 한편으로는 서로 경쟁적인 경영전략들과 과제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다양한 대응

기술혁신은 서로 경쟁을 통제하려는 이 같은 두 방식이 공존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19세기 영국의 자동방적 기술혁신은 '혼합기(mule)'의 기술혁신, 예를 들어 19세기 영국의 자동방적 '혼합기(mule)'의 기술혁신이 두 방식 중 어느 하나만 경영주들의 주요 무기로 사용되었다는 식으로 설명될 수 없다.

기술변화에 있어 핵심적인 쟁점은 노동이용이다. 바바네크만에 비정체적인 것은 없다. 그리므로 기술적인 탈피상과 정체적인 탈피상은 대체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려는 것에 대한 경영주들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은 린다와 관련해서는 흔히의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의 산업에서 발생하였다. 이 이론은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를 둘러싼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설명을 제공해 준다.

적으로 부분의 정확히 같은 노동조합 부분을 그 대상으로 했다. 가장 간단한 경우는 한 산업에서 서적이나 작업방식 하나에 관한 표준 능력수준 같은 것을 구하는 것이다. 이런 수준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명확하게 기록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수준은 (business)을 포함하여 많은 상업상의 비밀처럼 숨겨진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기술연구자들은 숙련등급에 대한 기술적 정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기술경영론에 도전하는 기술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그로부터 현대분석을 위한 교훈을 끌어낼 수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에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

공구 자동화: 선택에 대한 사례연구

자동조정이 가능한 공구의 발달은, "덧무가의 이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산업에서 서적이나 작업방식 하나에 관한 표준 능력수준 같은 것을 구하는 것이다. 이런 수준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명확하게 기록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수준은 기술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business)을 포함하여 많은 상업상의 비밀처럼 숨겨진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기술경영론에 도전하는 기술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그로부터 현대분석을 위한 교훈을 끌어낼 수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에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

공구 자동화: 선택에 대한 사례연구

자동조정이 가능한 공구의 발달은, "덧무가의 이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산업에서 서적이나 작업방식 하나에 관한 표준 능력수준 같은 것을 구하는 것이다. 이런 수준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명확하게 기록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수준은 기술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business)을 포함하여 많은 상업상의 비밀처럼 숨겨진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기술경영론에 도전하는 기술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그로부터 현대분석을 위한 교훈을 끌어낼 수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에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

생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에 수치제어는 잘 조직화된 숙련기계공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수단을 제공하였다. 기계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운전되었기 때문에 이제 설계와 개념적 기능은 모두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기계공이 하는 일은 단추를 누르는 일뿐이었다. 따라서 수치제어는 금속절단 기술일 뿐만 아니라 관리체계였다. 수치제어기는 공장조직체계의 변화를 가져와 결국 생산에 대한 경영주의 통제권을 증가시켰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선택된 기술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기록재생장치보다 수치제어를 선호한 경영주들의 목표가 반드시 실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작업현장에 수치제어가 도입되는 것만으로 통제권이 경영진에게 넘어간 것은 아니었다. 수치제어의 도입은 노동자들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했다. 이와 동시에 경영진은 새로운 공구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숙련기계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경영진은 생산에 대해 완벽한 통제를 결코 얻어낼 수 없었다. 사실 기계는 스스로 돌아가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탈숙련화 추세는 늘 모순을 내포하게 마련이다. 실제로 노블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이에 뒤이어서 공구기술이 발전하면서 작업현장에서의 직접적인 프로그래밍을 재도화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 기술진보를 통해 적용 영역——소규모 일괄처리나 전문화된 생산을 하는 소규모기업 같은——이 새롭게 확대됨에 따라, 숙련 노동자들은 다시금 프로그래밍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사실 이런 소규모기업의 운영조건으로는, 탈숙련화를 저항하는 경영

전략보다는 오히려 작업현장에서 직접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더 경영에 이익을지 모른다.

노블의 연구는 여러 가지 상이한 수준의 기술의 사회적 결정들을 포괄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뛰어나다. 그의 연구는 기술을 단순히 노동자를 통제하려는 경영진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공학자(engineer)의 이데올로기와 이해관계를 비롯하여 전후 시기의 군대의 역할과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노블이 제시하는 사례를 보면, 비록 기술의 선택에서 균형을 깨뜨린 것은 생산의 사회적 관계였지만 그는 통제권에 대한 경영진의 요구가 군대의 명령 및 통제목표와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자동화된 것이 가장 발전된 기술이며 인간적인 요소는 '인간적 실수'의 잠재적인 원인이므로 생산과정으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학자들의 이데올로기와 이해관계가 경영진의 통제권에 대한 사고와 어떻게 부합하는지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노블은 다양한 계급적 요소들이 공구의 설계와 적용방식을 결정짓는 데 개입하고 있는 점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이 요소들 가운데 젠더구도도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젠더구도는 국가나 자본, 노동조합의 역할을 통해 관찰될 수 있었겠지만, 공학자의 이데올로기와 문화에 대한 그의 매우 탁월한 설명에서 특히 분명해진다. 컴퓨터와 가장 자동화된 기술에 매혹되어 있는 공학문화는 전형적으로 남성문화이다. 그리고 공학문화는 기술변화에 대한 계급적 시각과 젠더적 시각을 통합시킬 수 있는 커다란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영역이었다.

성별화된 기술공학

지금까지 제시한 분석에서 핵심을 이룬 것은 계급분화였지만, 기술공학에 관한 논의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남성 노동자에 관한 논의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점이다. 기술공학은 그 자체로 '남성적'이라는 관념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기술공학은 '남성적' 영역이라는 관념 때문에 여성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기술공학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기술공학은 '남성적' 영역이라는 관념 때문에 남성노동자들이 기술공학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장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 장에서 나는, 기술은 하나의 수단적으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남녀 간의 권력관계를 구현하고 있는 기본의 상태 · 작업 · 인공 환경 속에 편입되어 버렸다 고 주장하였다. 몇 가지 새로운 정서를 겨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노동력과 고용기회를 구별

박문: Bonnie Bowman

그림 3-6

체외수정

만약 여러분이 의학 및 생물학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시험관 아기'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일반적인 의미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은 체외수정(IVF)이라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시험관 안에서 수정시킨 후 수정란을 다시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술의 등장 덕분에 불임 부부들은 자신의 유전적 자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유전학 연구나 생명공학, 불임치료는 이제 과학이라는 분야의 이상 한 이상 한 분야에 어떻게 보일 것인지 상상하기 어렵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이 기술들이 여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술은 여성해방의 열쇠이다

페미니스트들의 글에서 재생산기술은 주로 억압적인 것으로 묘사되어 왔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야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기술들을 여성의 선택과 통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해방운동의 초기에 재생산기술을 여성억압의 주요 원인으로 보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예를 들어 슐라미스 파이어스톤(Shulamith Firestone)은 여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궁극적 재생산기술을 사용할 것을 주장한 대표적인 페미니스트로 가장 많이 인용된 사람이다. 『성의 변증법』(The Dialectic of Sex, 1970)에서 파이어스톤은 여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토대로 생물학적 재생산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자연적 과정을 통한 임신과 출산은 여성에게 고유한 자연적인 과정을 뜻하는 개념인 데 비해, 기술은 가부장적이고 여성과 자연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이론이라는 사고가 내포되어 있다.

대체로 이 문제에 관한 초기의 논쟁은 한편으로는 페미니스트 운동 내부에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우파 안에서 각기 진행되었다. 흥미롭게도 사회주의자들은 재생산기술 부문에서의 최신 발전에 대해 일반적으로 침묵을 지켰는데, 아마 이것은 이와 같은 발전이 주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혹은 전통적으로 최극의 관심영역인 작업장 생산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그러나 재생산기술은 생명체 세계에 인간의 개입역할이라는 복잡한 도덕적 문제가 제기되는 생명기술이다. 이 장에서 나는 재생산기술을 점점 더 발전하는 최상의 의료기술이라는 훨씬 광범위한 맥락 속에 놓고, 재생산기술에 대한 페미니스트 관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재생산기술에 관한 페미니스트 관점

재생산기술에 관한 문헌들을 보면, 기술적 변화를 사회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는 기술결정론적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 아마 다른 어느 영역보다 재생산 영역의 주요한 기술적 진보를 통해 여성의 삶이 직접적으로 변화되고 더 나아지게 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 기술을 통해 출산의 고통과 위험이 사라졌다고 본다. 건강한 임신과 건강한 아기는, 고도로 의료적이고 기술적인 과정이 되어버린 현대의 임신기간에 대한 치료의 정이로운 결과로 간주된다. 임신 초기 태아의 발육상태를 검진하는 새롭고 정교한 기술들은 "결함 있는" 태아를 유산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3
재생산기술: 남성들의 손으로 넘어가다

한 여자와 기술의 관계를 둘러싸고, 인간의 생물학적 재생산 영역만큼이나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없다.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여성이며 또 대부분의 사회에서 주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도 여성이다. 그러므로 재생산기술은 여성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산아제한 문제는 낙태합법화를 지향하는 모든 운동의 주요 이슈가 되어왔다. 그리고 많은 페미니스트 연구들이, 의료 지식과 행위를 남성이 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에 대항했던 여성들의 투쟁을 역사 곳곳에서 찾아내어 알리는 데 많은 힘을 기울였다.

이 분석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임신과 출산 과정이 갈수록 더 복잡하고 공적인 기술에 의해 지도·감독되고 있다는 인식인데, 오늘날 이와 같은 인식은 더욱더 타당성을 지닌다. 이 시각에는, 재생산은 원래 여성에게 고유한 자연적인 과정을 뜻하는 개념인 데 비해,

빈곤 지역의 빈민이 수정란에 관한 의료연구에 우선적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것이 인류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불임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임을 투쟁할 수 있게 해준다. … 이 연구자들은 과학이 그들은 제한적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에 답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야 한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갖게 된 불임부부들은 그들을 고맙게 생각한다. (Rowland, 1987, p. 81)

그러나 전체적으로 객관적 연구에 인간배아를 사용하는 것은 수요 측면이 보고되고 있다. 각 개부는 배아를 이용한 연구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연방정부를 분열의 금지에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신생한 장조직 형성에 기술이 가능이 입법에 위치한 기술을 이용한 연구는 배아연구는 가장 저명한 옹호자들이 있다. 저명한 불임의료 산부인과,

간주되어 박탈당하고 파편화되고 해부되며, 클레인이 표현하고 있듯이 이 기술을 통한 인간생산을 위해 '살아 있는 실험실'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가장 강한 표현은 코리아(Corea)가 묘사한 '재생산 매춘굴'이라는 이미지이다. 여기에서 코리아는 현재 동물들이 마치 사육기계처럼 취급되고 있는 방식으로부터, 여성들이 전문적인 사육자, 즉 남성의 명령을 따르는 '엄마기계(mother machine)'가 되는 미래를 추론해 내고 있다. 몇몇 연구자들은, 실제로 이런 재생산기술들은 유성적으로 완벽한 아기의 제조를 보장함으로써 결국 자연분만을 내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래에 대한 이런 비관적인 전망에 따르면, 마침내 남성은 인간의 창조를 완벽하게 통제할 것이고 여성은 불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재생산을 통제하려는 가부장제적 욕망을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적인 용어로 설명하였다. 즉 남성의 재생산에 대한 지배욕망은 여성의 출산능력에 대한 두려움과 불멸에 대한 추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태어와 여성의 몸을 분리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이 기술은 "여성의 출산능력이라는 창조력과 잠재적으로 오염된 권력을 제한하고 가두어두고 속박하고 싶어하는"(Oakley, 1976, p. 57) 고대의 남성적 충동의 특수한 형태로서, 한마디로 자궁에 대한 남성의 질투로 간주된다. 이러한 접근방식에는 과학과 기술을 근본적으로 가부장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 점은 특히 미즈의 연구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FINRRAGE는 '자연과 여성의 비착취적 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페미니스트 과학을 원한다고 주장한다. 확실히 과학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지닌 남성적 특성에 대한 페미니스트 철학의 이론과 작업은, 현재 재생산

기술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토론들에 크게 의존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즈는 이 기술을 적용하고 지배하는 사람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 기술은 본질적으로 지배의 도구, 즉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전쟁의 새로운 단계"라는 점이다. 기술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 항상 "자연의 착취와 지배, 여성의 착취와 종속, 다른 사람의 착취와 억압"을 기초로 하고 있다(Mies, 1987, p. 37). 이것이 자연과학의 근본 논리이며 그 모델이 바로 기계라고 미즈는 주장한다. 미즈가 볼 때, 기술적 진보의 딜레마란 살아 있는 유기체들간의 자연적인 연결고리들을 폭력적으로 파괴하고 남성공학자의 계획에 따라 이들 유기체를 기계처럼 재조립하기 위하여 나눌 수 있는 가장 최소의 요소들로 나누어서 해부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이 기도의 목표는, 그래도 생명은 자연과 여성으로부터 나온다는 '풍조'(moods)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즉 재생산기술과 유전공학은 남성의 자연지배에서 "마지막 미개척분야"를 정복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재생산기술은 중립적인 것이다

한편 또 다른 페미니스트 그룹은 재생산기술을 여성에 대한 일차불변한 공격으로 보기보다는 그것이 여성의 삶에 이중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셜 스탠워스는 신기술 혁명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많은 신기술들이 "여성들에게 자신의 상황에 따라 사용하고 싶은 필수적인 자원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tanworth, 1987, p. 51). 이들은 이와 같은 신기술이 여성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지만 여성에게 힘을 부여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토론은 '손에서 칼을 내려놓으라'고 주장하는 관점에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이 연구가들은 여성들이 대부분 불임문제를 무시함으로써 이런 하이테크 연구프로그램에 필연적 여성을 '자연에 떡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출산을 질병이라는 생물학적 숙명'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 FINRRAGE 연구자들은 산기술이 필연적으로 여성을 꾸며놓은 '최신 출산 감옥'(the latest birth prison)에 따르면 "기술 자체에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억압적이 될 수도 있다"고 폰단체(Pontchevy, 1987, p. 79). 이와 비슷하게 스탠워스 역시 분석적 초점이 "기술에 있는 것 아니라"이 기술이 속해 있는 문화적·정치적 상황으

로부터 이 기술의 의미를 분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Stanworth, 1986, p. 30).

여기서 대두되고 있는 재생산 산기술에 대한 페미니스트 논쟁은 '자연의 착취'를 수용하는 최근의 페미니스트 분석에 더 넓은 문맥 특정을 보탠다. 바이트로 한다. 즉 여자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분석에 비판을 집중하여 재생산기술(Depo-Provera) 같은 피임약의 시판을 비롯하여 새로-프로제라틴 등 유해성분 여성에 대한 생물로 이루어진다.

더욱더 정교해지고 있는 유전자공학 뿐만이 무엇이 가능하고 또 사실인가 를 넘어, 이것에 의해 '유전적인 질병'의 내용이 규정되고 또 사실인가 를

구를 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랜디 페인트의 연구는 영국에서 태아감식에 관한 의료지표는 양수검사가 하용되는 조건으로서 임산부로부터 낙태 동의서를 받는 형태를 취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Farson, 1985).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기술들은 여성의 재생산에 관한 더 많은 정보에 근거해 선택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보다 오히려 인구통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해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FINRRAGE의 분석과 입장을 달리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위험이 기술 자체의 기능에서 파생된 것이라기보다, 그 기술을 오용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탠워스는 이 같은 입장을 "재생산기술은 양날의 칼이었다"라는 말로 요약한다(Stanworth, 1987, p. 15).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아이를 가질지를 결정하는 데 기술적으로 더 많은 선택 가능성을 제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진과 국가가 재생산기술의 대부분을 지배함으로써 당신이 여성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한층 커졌다. 그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재생산기술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은 여성 스스로가 이 분야에 대한 지식과 자원을 얻을 수 있고 "여성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재생산의 경험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 설명에서 간과되고 있는 재생산기술의 정치적 측면은, 기술이 질병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한다는 사실이다. 이제 더 이상 '불임'은 여성이 자신의 삶에서 받아들여야 할 신체적 상태가 아니라 기술적인 개입이 가능한 의료상황이 되고 있다. 설사 불임여성이 그러한 의료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술이 존재한다는 바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은 불임여성이 자신의 몸을 '불임'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런 여성의 '불임'은 이제 치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일테면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할 때는 강력하게 그런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재생산기술은 모든 여성의 모성기능을 강화시키고, 세계의 여성에게 모성역할을 더욱더 내재화시킨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이 그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런 기술을 사용할 권리에 강조점을 둔 주장은 역사적 · 사회적 관계가 이 기술 속에 내재되는 방식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여성에게 동기유발을 시키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여성이 선택하는 기술 자체가 사회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토론자는 많지 않다."

체외수정, 난자기증, 인공수정 그리고 대리모와 같은 테크닉은 유전적으로 부모라는 개념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고 그에 따라 가족관계도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오직 '자기 자식'을 갖는다는 가치관, 즉 자신과 유전적으로 연관된 자식을 갖는다는 가치관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술들만 개발되고 있다. 패트리샤 스펠론이 주장하듯이, 워노크 위원회는 이러한 가치관에 근거해서 여성에게 허용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범위를 평가했다(Spallone, 1987, pp. 173~74). 갖가지 위험에도 불구하고, 워노크 위원회는 난자기증을 통한 체외수정을 남편과 유전적으로 연결되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자궁세척을 통한 난자기증 테크닉(배아세척 혹은 배아이동)은 신체적으로 위험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이 절차는 의료 차원에서의 위험부담이 확실히 크다고 할 수 없으나, 난자를 기증한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을

시킬 위험이 있다. 그렇게 되면 두 명의 여성이 임신을 중심에 둔 일련의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난자를 기증한 여자에게 존재하는 일반적인 부작용에서 오는 위험, 난자를 기증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불임여성에게 더욱 부담스럽게 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난자기증 테크닉은 계속 개발되고 있다. 그것은 이 기술이 여성의 모성기능을 강화시키고 여성에게 모성역할을 더욱더 내재화시킨다는 점에서 가부장적 사회에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려를 하기 위해 기술을 단순히 남성모사는 역학에서 규정할 필요는 없다. 현재 하나가 말했듯이, "기술적 장비 그것이 의사들로 하여금 여성의 몸을 바라보는 것이 곧 여도적인 동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여성전장에 대한 위험을 확대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피

수 있게서 용인하지 않고 새롭게 설립된 산부인과 병원에 거의 유일
한 하녀 된 경을 들 수 없다. 그러나 초기의 기술적인 융통성으로 도구
의 발명은 남성 의료시술가에게 결정적인 장애로 되었다. 남성이 초
산을 돕거나 분만을 주도하는 산파로부터 배워야 했던 도구의 사
용 문제 같은 것은 문제로 되지 않았다. "아이의 조산시술은 여도 그
기술적인 측면에 관한 토론으로 설명하였다. "아이의 조산시술은 여도 그
구를 가진 사용하여 분만을 일부분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는 인체 신체가 해를 입거나 해야가 아기도 없다. 가능한(Duv's
hospital)의 유명한 의료시술자 제임스 블룬델(J. Blundell)이 다음
과 같이 확신을 요청하고 있었다. 주요소 할 세력(J.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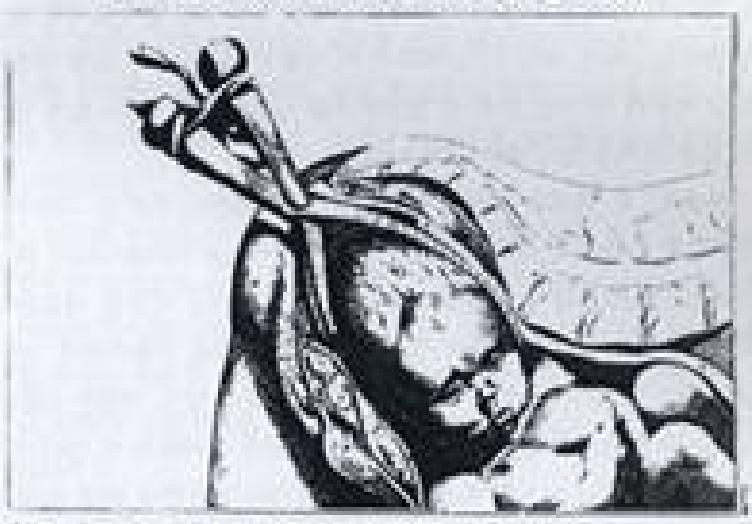
[crown]가 설명하고 있듯이, 이 사건은 통계분석에 대한 논쟁의 계기를
요 제공하는 훌륭한 예이다. 의사는 출산과정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정
을 장악하여 올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산부인
과에서 분만하는 것을 요구한 여인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이
과정에서의 여성의 통제문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일어났다 해
도, 그것은 모순적이게도 "출산거부를, 19세기에 그러했던 것처럼 더
욱 더 많은 여성들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
지만 통사적 패러다임으로 출산이 자연적인 과정에서 병리적인 과정

여할을 통해 생계를 이어갔다. 산파들은 전통적인 산모에게 와서 출
산하는 과정을 도와주었다. 출산과 출산과정을 도와주는 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의 여성들에게 전수되었다. 18
세기 동안, 여성산파와 새롭게 출현한 남성 중심의 의료적 사이에 누
가 출산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으며
그에 관한 기록이 잘 정리되어 있다(Ehrenreich and English, 1979;
Donnison, 1977). 이 기록들을 살펴보면, 특정 기술이 논쟁의 결과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영국에서는 1720년대 이후부터 점점 더 많은 수의 남성이 여성과
직접 경쟁하는 조산술 분야에 진입했다. 그전까지는 단지 자연분만
이 불가능한 위험한 상황일 때만 외과의사(전적으로 남성의 직업)를
요청했었다. 외과의사들은 13세기에 외과의사 조합을 결성하여 외과
수술용 도구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미 이 영역
을 개척해 놓았다. 그러나 산부인과용 핀셋(forceps)이 발명되기 전
까지는 외과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갈고리나 칼는 가위를 이용하
여 태아를 조금씩 옮기거나 산모가 죽은 후에 제왕절개를 하여 태아
를 꺼내는 일밖에 없었다(Donnison, 1977). 산부인과용 핀셋은 스코틀
랜드의 약제사인 윌리엄 스멜리에 의해 1730년대에 도입되었다(그
림 3-2) 참조).

핀셋을 사용함으로써 이전에는 태아 아니면 산모가 죽었을 경우에
태아를 살려서 받을 수 있고 또 지루한 진통시간을 줄일 수도 있게
되었다. 관습에 따라, 산파는 자신에게 허용되어 있는 시술범위 내에
서 핀셋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핀셋은 불가피하 외과
의사나 외과의사의 영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며, 이 핀

표준 용어인과정 없는 수 를 고려하는 인공분만 그림 3-2



자료: William Smellie, A Setter of Anatomical Tables, 1754, plate 16.

셋의 사용은 의료직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핀셋이 도입됨에 따라 남
성의사는, 손으로 아이를 받는 일에 능숙하고 출산과 출산과정에 대
한 모든 실제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여성산파보다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이 기술이 도입되자 곧바로 의사들은 이 기술을 장악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당시 그 기계를 발명한 발명가의 권한에서 보더라
도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였다. 뒤이어 전개된 의사와 산파 간의 투쟁
은, 산파는 출산과정의 개입에 대한 독점권을 잃어버리고 출산과정
은 의료직의 영역으로 되어버리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항상 '여성의
일'로 간주되었던 출산이 역사상 처음으로 남성에 의해 장악되었다.

남성 산파학(產科學)이 우세하게 된 것은 분명히 서로 연결되어 있
는 수많은 요소들의 산물이다. 그 가운데 중요한 요소 하나로, 더 이

으로 변형되어 버린 데 대해 비관적이었다.

아주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산모 및 신생아의 사망률이 감소된 것은 직접적으로 병원에서의 출산 비율과 임신 · 진통 · 분만에 대한 기술적용의 비율이 증가한 결과라고 일관적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산모는, 일각에서 출산을 수동적이고 소외된 경험으로 변질시켜 버렸다고 주장한 그 체계를 참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대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분만시 과도한 기술개입은 불필요하다는 점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위험부담이 큰 분만과 제왕절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기술적 개입은 신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기술개입은 산과(産科) 상황 내부의 의사결정과 권력구조를 반영한다.

최근의 사회학연구와 의학연구들은 의료기술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기여한 정도를, 영양상태와 위생 같은 사회적 요소들이 기여한 정도와 비교하여 재평가하고 있다. 질 레이프슨과 닉 데이빗슨의 연구에 따르면, "신생아 사망률이나 신체장애율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를 들라면 다름아니라 그것은 포괄적인 빈곤퇴치 프로그램일 것이다"(Rakusen and Davidson, 1982, p. 152)." 실제로 어떤 의료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빈곤층 여성이 그 이용을 가장 못 받고 있다.

전문적인 의료지료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이 지니는 강점은 의료-기술적 치료에 대해서뿐 아니라 과학적 · 의료적 지식 그 자체가 성별화되고 있는 방식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의학이 출산을 다루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구 사상과 의학의 발전에서 몸은 하나의 기계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식하

는 것이 중요하다. 17세기 들어와서 몸은 기계로, 의사는 기술자나 기계공으로 바라보는 데카르트식 모델이 부상하여 생명의료 과학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런 기계론적인 비유는 여전히 현대 의료시술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리고 기술을 적용하고 수술을 하는 것이 치료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에 깔려 있는 사고이다.

내가 제1장에서 지적했듯이, 젠더 상징주의와 성차이의 재현은 18세기와 19세기의 과학 및 의학 교재의 중심을 이루었다. 남성의 규범과 대조적으로, 여성의 몸은 연약하고 신체적 · 정신적 질병에 잘 걸리기 때문에 의료적 개입을 해야 할 대표적인 대상으로 묘사되었다. 루디 조르다노바(L. Jordanova)의 최근 저서 『성적 시전』(Sexual Visions, 1989)에는 18~20세기의 생명의료 과학이 묘사한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대한 놀랄 만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생명의료 과학은 자연의 신비를 밝힌다는 생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연과 '타자'가 의인화된 것으로 간주된 여성은 남성들의 해부 실습용으로 합당한 시체가 될 수 있었다. (비록 여성의 몸이라는 이미지가 주도적이긴 했지만, '타자성'을 드러내는 데는 인종적인 기준을 택했다). 조르다노바는 여전히 젠더가 의료적 비유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시대 의료잡지에 실린 광고를 분석하여 어떤 방식으로 질병에 '남성질병' 혹은 '여성질병'이라는 꼬리표가 가시적으로 붙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두통증이나 불안, 불면증, 편두통은 주로 여성에게 관계되는 질병으로, 그리고 격렬한 운동이나 운동을 유지하는 것을 감할 수 있는 신체장애는 비유적으로 남성성과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다."(Jordanova, 1989, p. 144)

오늘날에도 생명의료 과학의 언어는 성차이의 이미지와 암묵적 가

설들로 가득하다. 예컨대 어떤 여성의 재생산기관에 남성의 재생산기관이 삽입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리고 여성을 하나의 이기를 생산하는 기계로, 그리고 여성을 하나의 문화적 문법이 나부나 투입하게 프라브라는 사실을 망각하였다(Owens, 1987). 즉 여성기관을 지칭할 때는 항상 복잡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비유를 사용한다면, 이와 대조적으로 남성기관을 지칭하는 은유적 관련과 공적인 파생을 함축하고 있었다. 여성의 월경과 폐경 같은 생리적 과정은 병리적 상태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출산은 "분만 … 그 밖에 위험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Owens, 1987, p. 49)." 산

과기술과 오히려 의료적 남성 재생산기관을 결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싶어하는 경향이다.

특히 통증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여성들이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 나는 분만시 통증 완화에 의료 혁신이 기여한 바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좀 더 복잡하다. 분만시 통증 완화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는 의료기술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그 기술들은 여성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분만시 통증 완화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는 '자연스러운' 출산에 대한 욕구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의료기술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여러서 우리는 재생산 기술이 남성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역사

기술과 전문화

오늘 종합적 지향성의 전문적인 기술적이론 그 적절히 전문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필연적 요청에 의해 산부인과 여성환자 간호를 위한 특별한 훈련과정이 설치되었다. 또한 산부인과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련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의사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기술이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의료기술의 다양성과 효율성이 확장되기 전에, 심지어 그 기술을 사용해야 할 근거가 설립되기도 전에, 그 기술의 발전과 사용을 촉진하는 상호 연결된 수많은 사회적 · 경제적 요소들이 있다(Mendelsohn, 1981). 의료기술의 덕목을 설명할 때, 어떠한 확장과정의 동력을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 전문가주의를 도구라는 데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기술이며, 이 전문가주의는 다음 두 가지 중요한 측면과 연결되어 있다. 첫째는 의사와 환자 관계에 전혀 새로운 권력을 가지는 것이다. 만약 의사와 환자 사이에 권력의 분배가 변화되었다면, 의사는 일찍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확장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둘째는 의사들이 자신들의 전문적 지식을 확장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

적출했다가 다시 제 위치로 돌려놓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발상은 전혀 뜻밖은 생기가 아니다."(*The Guardian*, 1989. 1. 1에서 재인용)

1989년 3월에, 수정된 지 며칠 안 되는 수정란에서 남성베이와 여성베이를 구별해 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현재 유전자 검사의 임계역은 무궁무진하며, 이로써 '유전자 치료'로 알려진 유전자 이식 실험이 가능해진다. 미국과 유럽,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연구 기금을 유치한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유전자 코드에 포함된 모든 염색을 밝혀내는 것이다.

몇몇 비평가들은 생명공학 혁명의 범위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자본주의 발전단계로 간주하면서 반도체 혁명과 범위와 비유하기도 한다.[20] 신장과 안구, 냉동태아, 생식체 같은 인간의 신체기관이 국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듯이, 이미 우리는 인간의 몸이 새로운 방식으로 상업적 거래에 휘말려 있음을 목도할 수 있다. 배아연구가 불러일으키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개개인이 어떤 입장을 취하든, 그것은 늘 인종, 계급 그리고 젠더에 근거한 착취관계들에 의해 구조화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세균전에 대비한 미국의 군사연구에 한국인 태아들이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적절한 예이다.

비록 여성이 의학실험의 첫번째 표적이긴 하지만, 재생산기술은 가부장제적 음모라는 용어만으로 분석될 수 없다. 오히려 여기에는 복잡한 이해관계의 망들이 얽혀 있다. 즉 전문가의 이해관계와 자본가의 이해관계가 젠더관계와 중첩되어 있다. 성별분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다음 절에서는 지금까지 다룬 기술들보다는 오래되었고 그런 만큼 관련자료도 더 많은 기술의 역학을 살펴볼 것이다. 피임에 관한

여성 자신의 경험을 빛나 묻히고 오히려 당연기에 나타난 폐쇄적 자세로 더 쉬운하게 만든다. 몇몇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비근의 열광은 일부의 초기실패를 간과하게 만든다. 결국 체외수정과 배아이식은 불임의 원인을 규명해 내거나 다른 치료방법을 개발하는 데보다는 선택사라는 측정 없이 점점 더 널리 이용되고 있다.[21] 이러한 흐름속에서 여성은 점점 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체외수정과 배아이식 같은 새로운 기술의 원칙은 이 책을 잘 소개해준다. 확실히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비근의 열광은 일부의 초기실패를 간과하게 만든다. 결국 체외수정과 배아이식은 불임의 원인을 규명해 내거나 다른 치료방법을 개발하는 데보다는 선택사라는 측정 없이 점점 더 널리 이용되고 있다.[21] 이러한 흐름속에서 여성은 점점 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21]Rowland & Ince, 1987, pp. 7-8)

체외수정, 무엇이 문제인가? 이러한 이유로 우생학? 여성계 내의 이 '성공적이지 못한' 기술에 대항적 거절이 있고 있는 것일까?

새로운 기술은 환영의 목적지기 쉽지만 일반적으로 실패율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있어서는 '여러 효율적'이 있다는 주장한다(Rowland, 1987).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체외수정 시술에 있어서 '여러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는 주장한다(Rowland, 1987).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출산조절 역사기록물을 보면 기술결정론적 시각에서 의료용을 알 수 있다. 역사학자와 인구학자들이 공유하는 상투적인 생각은, 산업사회가 도래하기 전까지 여성은 출산의 생산력의 획득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오늘날 "계획과 복용 시대의 시작"에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산업사회가 도래하는 19세기의 발달로 산부과 전문의들이 출산조절 수단을 어떻게 통제하는 과정이 존재했다.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중의 하나는 의학적 권위였다. 이 기록물이 주장에 따르면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출산조절 방법을 통제하는데,

정구피임약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기술이기도 하다. 여전히 일상에 대한 확실한 주도 여성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구피임약은 피임책임을 남성과 나누어 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들이 그 사용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선호되고 있다. 또한 여성들 스스로가 정구피임약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정구피임약의 인기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이 밖에 여느 피임기구를 사용할 때처럼 남성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설득하기 힘든 여성들이 '자연스러운' 성행위를 가능하게 한다는 이점을 지닌 덕이나 생리혈이 줄어들고 피임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이 정구피임약을 선호하는 이유로 들 수 있다.[1]

성행위를 이성애주의적인 관점으로 정의 내리고 그 덕택에 많아서 피임방법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판매·사용된다. 피임방법을 사용하거나 실외사정을 하지 않고도 별 어려움 없이 남성들이 성행위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여성들 스스로도 정구피임약은 효과적인 산아제한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이제까지 여성들이 지고 있던 임신부담을 남성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정구피임약은 여성의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피임기구를 사용할 때처럼 남성들을 부탁하는 것도 아니다. 정구피임약을 통해 여성이 성적인 독립성을 누린다는 것은

연구에서 여성이 사용할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은 남성들이다. 흥미롭게도 콘돔을 개발하는 동기가 되었던 것은 가족계획이 아니라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남성들의 필요성이었다. 여성과 남성의 성행위 형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차이가 피임기술의 설계에 반영되지 않겠는가? 실제로 롤락은 이와 같은 기술들이 "남성의 성적 즐거움을 강조하고 여성이 지켜야 하는 대가는 평가하는 가부장적 관점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활용 가능한 피임방법과 피임용구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남성의 성적쾌락"이라고 주장한다(Rollack, 1985, p. 76).

확실히 남성들은 설령 그로 인해 여성의 건강과 즐거움이 훼손된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성적 경험에 최소한의 '방해'만 주는 것이라면 그 피임방법을 선호한다. 이설에자 남성들이 콘돔을 사용하거나(에이즈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정관수술을 받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여성이 부딪히고 있는 의료적 위험부담보다 자신들의 성적 쾌락을 더 우선시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남성용 피임기술 몇 가지가 개발되었지만, 그 기술이 뒤집 수 있는 위험한 영향에 대한 설명은 여성용 피임방법의 경우에서보다 결코 소홀하게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다.[2] "사실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정관수술을 받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의 남성용 피임기술이든 자발적으로 그 실험대상이 되는 것을 지금까지 몹시 꺼려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앞으로 남성용 피임방법 개발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남성들에게 피임도구를 사용하라고 설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Newman, 1985, pp. 141–42)

지원을 제3세계 원조물자의 주요 분야가 되게 만들었다."[3]

그렇다면 호르몬 조절방식의 정구피임약의 개발이 장려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체외 피임방법은 구식으로 분류되면서 거의 완전히 무시되어 버리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 동안 피임연구에 쏟아부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적어도 열 가지 정도의 다양한 체외 피임방법이나 어쩌면 성교 후에 먹는 정구피임약제품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체외 피임방법 두 가지와 여러 가지 호르몬 조절방법, 자궁 내 피임장치(intrauterine device) 몇 가지와 임신중절 기술 그리고 수적으로는 적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영구불임 기술들이 있을 뿐이다."(Newman, 1985, p. 135)

정구피임약이 가장 효과적인 피임방법이긴 하지만, 이것은 여성의 건강에 때로운 위험부담이 있으며 부작용을 동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정구피임약을 선호하는 이유는, 정구피임약은 원치 않는 임신이나 낙태 문제와 같은 윤리적인 딜레마를 피켜갈 수 있게 해주며 또 최소한의 시간과 기술로 피임문제를 확고하게 의사의 통제 아래 둘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정구피임약은 복용 동안에도 환자에게 별로에 자주 오도록 할 필요가 없으며 또 환자에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이점이 더 있다. 뿐더러 정구피임약의 수익성이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구피임약은 경제적으로 생산과 시판을 할 수 있는데다 매일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약을 공급하는 제약회사들에 높은 수익성을 보장해 준다.

판매기업의 이해관계와 별도로, 대부분의 의료피임 방법에 관한

---

[1] '재생산기술'이라는 용어에 어떤 다양한 기술들을 혼재해 부른 뒤우먼에 관한 자는 Snowden, 1987(pp. 10–11) 참조.

[2] 이를 스펜서스데이비슨 Spencer(s)가 지적한 바와 같이, 역사적 센프먼, 스데이비슨, 1983) 역시 가장 여성을 혼란한 일상을 지적하고 있다. 스

성은 자신의 인체의 최상자이며 20세기 의료기술은 이런 여성을 해방시켜 남자와 동등해지게 했다는 쇼이어스킨의 입술에 동조하고 있다.

33 최근의 평가에 의하면, 해외수정의 성공률은 단 10%에 불과하다(Rowland, 1988).

34 물론 독신여성이나 레즈비언의 모성본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영국의 워노크 위원회(Warnock Committee, 영국 정부에 체외인기술에 관한 자문을 해주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는 체외수정, 난자기증, 배아기증 그리고 인공수정 같은 테크놀로지는 조직 밖에 살고 안정된 이성애 커플에게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35 체외인기술을 기술사회학의 맥락에서 위치짓는 McNeil, et al.(1990)에 독자들이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나는 나의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고 나서야 맥닐 등의 이 책을 알게 되었다.

36 보편 페미니스트들은 특히 최근의 제3세계 여성들을 상대로 함께 방구들임의 한 형태로서 특히 "오랫동안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으로서 자궁절제술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밝히는 데도 관심을 기울였다(Stanworth, 1985, p. 5).

37) Arney, 1982; Richards, 1978 참조.

38) 이들 의료계서의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극단적인 자기분열을 포함하여 여성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에 스며들어 있긴 하지만, 여성들은 또 이 이미지에 저항하기도 했다. 이런은 여성들이 계급과 인종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점을 분석함으로써 여성들이 자신의 월경이나 폐경, 출산을 어떻게 풀어 자존적인 방식으로 의미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런은 백인 중산층여성이 흑인이나 백인 노동계급 여성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여성신체에 관한 지배적인 의료모델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39) 이 설명은 Reiter, 1978에서 인용한 것임. 그리고 Foucault, 1973; Jewson, 1976도 참조.

40) 그렇다고 해서 그후 정신기가 기술적으로 '해어나게' 된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41) 여성의 보험회사들이 상업적으로 사용자들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전자 검사법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42) 실제로 Haraway(1985)와 Yoxen(1986)은, 생명의 씨이 지배가 변형된다는 점에서 이 생명공학 혁명은 문화혁명도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전공학의 맥락으로, 자연에 대한 지배적인 이미지는 다시 프로그램화될 수 있는 정보의 체계로서의 유기체가 된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는 설계과정을 통한 인간의 개입을 점점 더 강조해 나가게 된다."(Yoxen, 1986, p. 30)

43) 그 고전전인 예가 Hines, 1936이다.

44) 심지어 기술결정론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가로 알려진 토렌버그조차 이 함정에 빠진다. "…따라서 여성해방운동은 본질적으로 한편으로는 출산에의 강요이상은 또 부분적으로 보능이 더 높은 피임기술에 힘입어, 다른 한편으로는 가사노동의 분자화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일면적다. 반드시 기술결정론자가 아니더라도 미국사회에서 여성들이 새롭게 누리게 된 자율라는 사회적 이익은 대부분 기술혁신의 산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Rosenberg, 1979, p. 50)

45) 예를 들어 인공수정은 체생산기술들이 발명되고도 그것이 널리 사용되기까지는 종종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우리는 인공수정이 성행위를 하지 않고도 임신을 할 수 있는 혁명적인 새로운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공수정은 이미 1770년에 처음 시행되었다(Mckenna, 1984, p. 13).

46) Doyal, 1979, 특히 4장 "의학과 해독주의" 참조.

47) 이 점은 Spare Rib(Vol. 93, April, 1980, p. 9)에 실린 새로운 남성용 피임기술을 풍자한 카툰에 잘 나타나 있다.

용납할만 할과 그렇 사람

최근 맨 아버 매디컬 센터에서 개최된 미국여성과학자의 심포지엄에서 남성용 피임에 관한 최신 개발연구가 소개되었다. 버턴 병원의 소파 버턴 의사는 중서부에 있는 한 주립대학의 남학생 7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의 초기 결과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서 버턴은 새로운 피임도구 DPD(자궁 내 피임장치 IUD를 패러디한 용어로 남근 내 피임장치라는 뜻 — 옮긴이)가 남성용 피임의 신기원을 이룩했다고 설명했다. DPD는 '우산델리(Umbrella)'라는 상표로 판매될 예정이다.

DPD남근 내 피임장치)는 아주 작은 밸브 우산처럼 생겼는데, 이것을 남근의 귀두로 삽입하여 피스톤과 일종의 도구를 이용해서 음낭까지 밀어넣는다. 이 아주 음낭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부위에는 혈초신경이 거의 분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있어서 음낭제거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우산의 안쪽에 정자를 죽이는 젤리가 들어 있다고 해서 그 이름이 '우산젤리'가 되었다.

대학병원에서 1천 이러의 흰 동고래에게 실험을 해본 결과(흰 동고래의 정자기관은 남성의 생식기관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산젤리'는 정자 생성을 막는 데 100%의 효과가 있으며 또 임신의 정적 쾌감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의 만족감을 해주 놓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9장

성폭력 의미 구성과 여성의 차이

I. 들어가는 말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사회는 보이지 않았던 '어떤 것'에 이름을 주게 되었다. 여자가 동의하지 않는 성적 언동을 남자가 하였을 때 그 행위를 '성폭력'이라 명명하였으며, 그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을 제정, 제정하는 구체적 성과를 올렸다. 성폭력 문제에 관한 비판 의식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는데 우선 대다수의 여성들이 스스로 성폭력의 잠재적 피해자로 느끼면서 이 문제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전까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즉 성폭력은 어떤 특정한 (병리에 문제가 있는) 여자들이 남자들의 성충동을 자극하여 일어난다는 통념을 바로잡아 주는 이론적 작업이 설득력 있는 사례와 함께 제시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장필화a, 360쪽).

물론 성폭력이 성관계가 아니라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킨 것도 성폭력에 대한 이슈를 여성 문제로 정치화시키는 데 공헌하였다. 성폭력 문제에 대한 각성은 여성 억압의 주요한 요소로서 성을 문제화하였으며 동시에 우리 사회에 성담론을 확산하는 데 큰 몫을 하였다. 그런데 성폭력의 위험성을 각성시키는 초기의 담론들(여성단체, 국가 기관, 법, 언론, 학계 등에서 발표된 글들과 말들)은 모든 남성을 (잠재적인) 가해자, 모든 여성을 (잠재적인) 피해자로 이분화하여 설명하였다.

끔찍한 성폭력의 실상을 강조하고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은 모든 여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 효과는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여성(의 성)을 더욱 통제하게 만들었다. 성폭력을 가시화시킴으로써 그 피해와 위험성에 대한 각성은 던져 주었으나 동시에 전 여성을 피해자로 만들어 그들의 섹슈얼리티[1]를 통제하는 역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성폭력적인 성이 도처에 깔려 있는 위험한 사회에서 여성은 성욕이 없어야 하고 표현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된다. 또한 성폭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은 유혹하지 않았음을 확실히 해야 하니 여성은 적극적으로 성적 표현을 하거나 폐쇄를 이야기할 수 없게 된다. 혹시 여성이 유혹(?)한 사실이 발견되면 그것은 성폭력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화간으로 분류되며, 그 여성은 정계해야 할 '꽃뱀'으로 낙인찍힌다.

또 한편 기존의 성폭력 담론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강간 사례에서 가해자뿐 아니라 그 부모들은 너무 억울하다고 할변하며(서로 잘 놀았는데 일이 꼬여서 여자애들이 신고하

1) 1장 「한국 페미니즘 성연구의 현황과 전망」(조명기) 참고. '섹슈얼리티(sexuality)'는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를 갖는데 성적 욕망, 실천들, 정체성을 포함하며 대체로 여성 또는 남성으로서의 우리 자신에 대한 의식을 포함하기도 한다. 주로 성적인 중요성을 갖는 개인적·사회적 삶의 측면들에 관한 개념으로 쓰인다. 즉 우리의 성적 느낌과 경험들, 우리가 자신을 규정하는 방식뿐 아니라 우리가 타인에 의해 성적으로 규정되거나 규정되지 않는 방식들을 포함한다(Jeffrey Jackson and Sue Scott, 1996). 이 글에서 성은 섹슈얼리티를 말하는 것이다. 가끔 성과 섹슈얼리티가 혼재되어 쓰이는데 섹슈얼리티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는 박탈적 시각 아동은 알려지 않은 '남자 무모들은 '별 문아서 인정 고 했다'

그러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무엇을 성폭력이라고 규정하는지 묻거나 답을 구할 수 없다. 우리는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해 어떤 전제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무엇이 '문제'고 피해야 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적 언어는 폭력을 옹호시하는 여성차별적인 일은 여성이 성폭력을 우연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은폐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여성'이라는 범주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를 무시하고 '여성'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여성 내부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될 수 있다.[3]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여성'이라는 범주를 해체하고 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들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작업은 '여성'이라는 범주

이 당시 강간 등 성폭력이 떡밥, 안심 떡볶 등과 혼재되어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80년 법무부 보고서 사건이 여성계를 비롯한 각종 언론의 이슈화를 통해 1989년 형법 개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강간죄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이 사회적 관심과 여론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109]

[109] 이 부분은 1980년대 후반에 성폭력 문제 운동을 전개하면서 대학생 위주 활동 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들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했던 여성운동 단체들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1989년 형법 개정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의 3장 「한국 페미니즘 성담구의 형성과 전망」(최영아) 참조.

성폭력이라 함은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무형, 유형의 정서

적 그리고 육체적 폭력을 말한다. 폭력은 강간, 성추행, 성희롱, 음란전화, 음란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그 심각성에 비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이러한 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나눔터」, 1호, 1991.

1991년 4월부터 1992년 7월에 성폭력 대책에 대한 학생회(연)이 만들어지기까지 성폭력추방 예정을 돕고자 여성 단체들이 모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모이게 되었다. 이것이 는 성폭력을 크게 강간, 여성 구타, 매춘, 인신 매매 등으로 규정한 것이다. 초기의 상 담 활동 경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성폭력이라 함은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무형, 유형의 정서

적 그리고 육체적 폭력을 말한다. 폭력은 강간, 성추행, 성희롱, 음란전화, 음란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그 심각성에 비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이러한 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나눔터」, 1호, 1991.

1991년 4월부터 1992년 7월에 성폭력 대책에 대한 학생회(연)이 만들어지기까지 성폭력추방 예정을 돕고자 여성 단체들이 모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모이게 되었다. 이것이 는 성폭력을 크게 강간, 여성 구타, 매춘, 인신 매매 등으로 규정한 것이다. 초기의 상 담 활동 경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폭력은 강간을 비롯한 성적 희롱, 추행 등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느끼는 불쾌감, 공포, 두려움을 포함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나눔터」, 1호, 1991.

결국 성폭력의 정의에 대한 논쟁은 '성적인' 의미를 강조한 폭력으로 종결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violence / violence against women)이 아닌 강간, 성추행 등(sexual violence)으로 종결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민 정서상 성폭력을 강간, 성추행 등 성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만약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한다면 범위가 너무 넓어져 성폭력 안에 아내 구타뿐 아니라 노인 문제, 아동 문제까지 포함되어 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 셋째, 운동의 전문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여성 단체들이 힘을 합쳐 성폭력을 사회 문제로 제기하고, 다음 기회에 아내 구타 등의 가정 폭력을

이슈화하면 여성 문제를 여러 면 사회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성적인' 폭력의 문제를 성별만의 문제가 아닌 '성적인(sexual)' 문제로 가시화할 수 있었다. 이때 '성적인' 것의 의미는 성별(gender)의 하위 범주로 개념화되었다.[110]

나. 성폭력특별법 제정 및 개정

성폭력특위의 3년간의 활동과 일반 시민, 정치권의 공청회 등을 통해 1994년 1월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후 1995년 1월과 1997년 8월 두 차례 개정(1997년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여 점차 그 실효성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111]를 안고 있다.

특별법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적 자유 및 건전한 성도덕 감정을 보호하여 국민의 인권 신장과 건강한 사회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전에는 처벌의 선례를 찾기 어려웠던 근친 성폭력 문제를 사건화하고 여린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법원, 경찰, 언론 매체에서도 성폭력을 단순히 개인간의 이해 문제가 아니라 커다란 사회 문제라는 시각에서 다루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96년 4월 14일 서울고등법원(형사 5부 최병학 부장판사)은 성폭력 피해자가 범행이 끝난 후 가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우산을 주는 등 호의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해도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한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1996년 3월 18일

---

[110] 1장 「한국 페미니즘 성담구의 형성과 전망」(최영아) 참조.
[111] 이 문제는 3절에서 다시 다룬다.

석는 이 법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강간을 모면하려고 가해자를 오히려 적극 옹호하는 현직 판사가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13]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 판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판사 개인의 가치관이 사회 전체의 가치관과 동떨어진 것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성폭력을 드러낸 여자는 젊은 여성 단체의 활발한 활동과 성폭력 법률의 제정 및 개정으로 이제 더 이상 성폭력은 숨겨진 범죄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신고 되어야 한다. 신체 침입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만들어져 있다(1990년 2월 10일 MBC 9시 뉴스).

성폭력은 드러난 여자는 젊은 여성 단체의 활발한 활동과 성폭력 법률의 제정 및 개정으로 이제 더 이상 성폭력은 숨겨진 범죄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신고 되어야 한다. 신체 침입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만들어져 있다(1990년 2월 10일 MBC 9시 뉴스).

[13] 우리 모든 사람 사회 단체는 특별한 제2조 2항, 제253조 3항, 제305조 규정에 따라 우리 모든 보호 시설에 있어 성폭력 소송사건 변호를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런 법률 조항에 대한 홍보 등 정책적 지원 및 기관 등 모든 것이 없다. 그것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들은 무료 변호사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성에 대한 폭력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성적인 부분에 폭력을 당한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도 일부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성적인 부분'이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히 잘안이다.

그렇다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남성으로부터의 폭력은 과연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성관계를 결각할 때 장안이 아닌 성관계는 드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폐나하면 여성이 꿈리한 거룬한 성관계가 성행되었다 할지라도 그 동안은 합법적으로 장요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니까 성관계를 하자 사랑하는데 무엇이 두려우냐.'는 것은 나를 못 믿는다는 이야기이다.' 석의 존재 설존 이후 한번이라도 합의한 적이 있다고 남편에게 대한 석무로 성관계를 한다고 했을 때 여성의 '동의' 하는 의미와 백학은 새로운 폭력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여성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은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나의 육체에 대한 성관계' 를 장는다는 것은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대부분의 여성은 남성에 경제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동의'의 철회는 다양한 형태의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은 '동의'를 철회하기 어렵다. 결혼 · 성교 · 사기를 이용하여 여성과 불법적 관계를 맺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은 자신의 성관계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 모든 성관계에서 동의를 느끼거나 거절하는 것에 대해 피해를 느끼는 경우, 즉 여성이 이러한 이유로 성관계를 갖는 경우가 있다. 아니면 단순히 힘 앞에 굴복하여 동의하는 경우도 있다. 강간은 강간범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다. 강간범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을수록 피해자는 강간범을 신뢰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충격은 더욱 커진다. 강간범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을수록 피해자는 강간범을 신뢰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충격은 더욱 커진다.

맞물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규범적인 여성상'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규범적이지 않은 여성들을 위한 대책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강간 피해자의 보호와 성폭력 이슈와 관련해 보다 법적이고 제도적인 변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폭력의 한 형태로 규정된 강간의 의미는 여성의 성은 위험하며 여성성을 통제하는 형태로——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로——학생들의 보고서에서도 공공 드러난다.

> 무서운 사회인데 남자가 여자를 집에 데려다 주어야지요. 우리집은 신촌이지만 여자가 상계동에 살기 때문에 두 시간이나 걸리는데도 거는 2년간이나 빠짐없이 꼭 데려다 주었지요. 남자의 의무라고 할까요? —ㅇㅇ대 '여성과 성 단상', 1997.

> 남자 친구가 데려다 주는 것이 싫기도 하고 좋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늦어지면 공포가 있어요. 특히 고등학교 때 지나가는 사람에게 상추쌈을 당한 적이 있어서 엘시 넘어 집에 들어갈 때는 남자 친구가 데려다 주거나 아빠나 엄마가 꼭 나오십니다. 가끔씩 여자로 태어난 것이 싫어요. 여자는 여행도 혼자 다니기 겁나고 밤늦게 다니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여성의 현실이지만——, 여성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ㅇㅇ대 '여성과 성 단상', 1997.

나. 성관계 연속선으로서의 '성' 폭력

성폭력을 폭력으로 규정하는 여성 단체의 정치학은 보이지 않았던 강간을 보이게 만들었으며 어린이 성폭력을 가시화할 수 있었다. 분단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강간당한 피해 여성들이 수치심을 극복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남성의 폭력적 성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많은 여성들은 (많은 남성들 역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성의 작동 방식 때문에 '성관계'를 폭력에 가깝게 경험한다.

성관계와 성폭력이 구분되지 않는 현실에서 폭력적인 성관계는 성에

영해야 한다. 성폭력을 설명할 때 어린이 성폭력을 인물화기가 쉬운데, 유혹할 수 없는, 성적이지 않은 어린이가 성폭력을 당한다는 사실은 성폭력의 위험성을 각성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피해자 유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좋은 예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도 강간, 어린이 강간과 같이 피해자가 유발하지 않은 성폭력의 피해를 강조한다는 것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예외적으로 당하는 피해는 제수 나쁜 일이지만 그 외의 강간은 그것을 유발한 여성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 여성이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가정하는 이러한 방법론은 여성을 위계적으로 이분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구나 여성이 유혹했다 할지라도 강간까지 해 달라고 유혹하지는 않았을 것임에도 남성을 유혹한 여성의 성폭력 피해는 증명할 방법이 없다. 과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성은 자신의 성적인 느낌과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폭력으로서의 성폭력을 강조하는 여성 단체들은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해야 하는 또 다른 현실과

성폭력	친구 프롤/이성 재생산의 물적인 통제	인프라노 여성주의	통합적 · 여성주의적 접근
성기적 행위를 강조하는 폭력을 인정	범주의 없는 성은 위험한 퀴스 에너스 두 위험 인정	위험 인정(성인 여성이 생각해 프로노그라프 등)	위험을 인프라나 정책 체제에 대한 여성의 권리 주장
성의 성폭력 통상할 두려	기술을 통해 주어지는 통상할/성은 수술과 예방 수술, 인공 수정 비교)	생리에 기초한 성적 통상할적 대처법 주장	생리에 기초한 성적 통상할에 대처법 주장
행동과 생각 강조	행동과 생각 강조	(주관적으로 작용할지라도) 외적과 객체 강조	여성의 심체적 현실을 인정하기와 객체 인간
생리학(Agnes)로서의 여성상성 통상적 폭력에 초점하는 여성)	폭력을 설명하기 위한 예상, 수단으로서의 여성상구 정책의 대상)	폭행자(정체적 표상자) 로서의 여성	예방된 기능을 인해서 작용하는 행위의 로서의 여성
고통자	수행자(practitioners)	공동자(survivors)	수행자와 공동자
여성에게 해당되는 위험을 주시함으로서 여성의 행동을 주시하는 문제	폭력 발생을 위해 생리에 기초한 생적 문제 주시	내재적인 악함적으로서의 문제적인 남성 폭주별의 비 : 피해자로서의 여성 이미지 강조	여성의 주인적인 요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장기적인 사회 변화를 목상 여성을 폭력화할 수 있는 문제 구성

데이트 강간이란 낯은 데이트는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을 또한다 즉

성적 느낌과 욕구에 화상되어 성관계를 가지지는 않겠다고 거부하기가 쉬운 이해하기가 쉽다. 그러므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동의의 여부로 성폭력을 규정하는 것은 남녀의 불평등한 성문화를 강화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강간 피해자의 보호와 성폭력 이슈와 관련해 보다 법적이고 제도적인 변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폭력의 한 형태로 규정된 강간의 의미는 여성의 성은 위험하며 여성성을 통제하는 형태로——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로——학생들의 보고서에서도 공공 드러난다.

> 무서운 사회인데 남자가 여자를 집에 데려다 주어야지요. 우리집은 신촌이지만 여자가 상계동에 살기 때문에 두 시간이나 걸리는데도 거는 2년간이나 빠짐없이 꼭 데려다 주었지요. 남자의 의무라고 할까요? —ㅇㅇ대 '여성과 성 단상', 1997.

> 남자 친구가 데려다 주는 것이 싫기도 하고 좋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늦어지면 공포가 있어요. 특히 고등학교 때 지나가는 사람에게 상추쌈을 당한 적이 있어서 엘시 넘어 집에 들어갈 때는 남자 친구가 데려다 주거나 아빠나 엄마가 꼭 나오십니다. 가끔씩 여자로 태어난 것이 싫어요. 여자는 여행도 혼자 다니기 겁나고 밤늦게 다니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여성의 현실이지만——, 여성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ㅇㅇ대 '여성과 성 단상', 1997.

나. 성관계 연속선으로서의 '성' 폭력

성폭력을 폭력으로 규정하는 여성 단체의 정치학은 보이지 않았던 강간을 보이게 만들었으며 어린이 성폭력을 가시화할 수 있었다. 분단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강간당한 피해 여성들이 수치심을 극복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남성의 폭력적 성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많은 여성들은 (많은 남성들 역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성의 작동 방식 때문에 '성관계'를 폭력에 가깝게 경험한다.

성관계와 성폭력이 구분되지 않는 현실에서 폭력적인 성관계는 성에

[16] 데이트 강간 예방 대책 : 여성들이 할 일(우수경찰여성모임 커뮤니티로 가입하세요 참여)
① 혼자 가지 주점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는다
② 구속적인 분위기 속에 많은 돈을 투자 받았을 시점으로 의존을 덕 받지 않는다
③ 데이트 장소를 선택 하는 데에도 남자 쪽에 전적으로 맡지 않는다
-맛있을 뿐만 아니라 분위기 있고 주차시설도 있는 식당 예약을 하는 남자
-맛있어 보이는 술집 예약하는 남자
-여성 입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남자
-소음과 술꾼이 많아서 산만 - 만약으로 주택인 남자
-술이나 맛있는 식사보다 분위기 좋은 곳 예약을 하는 남자
④ 상대를 잘 모르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및 아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그 장소 가서 그를 꼭 감시해야 합니다
⑤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수 등은 절대 먹지 않는다
⑥ 모든 데이트 비용을 상대가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데이트 비용도 반드시 여성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과감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
⑦ 술에 취해서 여성의 몸을 만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⑧ 혼자 집에 돌아올 때 주위를 살피고 조심해야 한다
⑨ 만약 데이트 강간을 당했을 때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위에 알리고 상담을 해야 한다
⑩ 모든 데이트 비용을 상대가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⑪ 술에 취해서 여성의 몸을 만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⑫ 혼자 집에 돌아올 때 주위를 살피고 조심해야 한다
⑬ 만약 데이트 강간을 당했을 때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위에 알리고 상담을 해야 한다
⑭ 모든 데이트 비용을 상대가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⑮ 술에 취해서 여성의 몸을 만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⑯ 혼자 집에 돌아올 때 주위를 살피고 조심해야 한다
⑰ 만약 데이트 강간을 당했을 때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위에 알리고 상담을 해야 한다
⑱ 모든 데이트 비용을 상대가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⑲ 술에 취해서 여성의 몸을 만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⑳ 혼자 집에 돌아올 때 주위를 살피고 조심해야 한다
㉑ 만약 데이트 강간을 당했을 때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위에 알리고 상담을 해야 한다
㉒ 모든 데이트 비용을 상대가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㉓ 술에 취해서 여성의 몸을 만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㉔ 혼자 집에 돌아올 때 주위를 살피고 조심해야 한다
㉕ 만약 데이트 강간을 당했을 때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위에 알리고 상담을 해야 한다
㉖ 모든 데이트 비용을 상대가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㉗ 술에 취해서 여성의 몸을 만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㉘ 혼자 집에 돌아올 때 주위를 살피고 조심해야 한다
㉙ 만약 데이트 강간을 당했을 때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위에 알리고 상담을 해야 한다
㉚ 모든 데이트 비용을 상대가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㉛ 술에 취해서 여성의 몸을 만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㉜ 혼자 집에 돌아올 때 주위를 살피고 조심해야 한다
㉝ 만약 데이트 강간을 당했을 때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위에 알리고 상담을 해야 한다
㉞ 모든 데이트 비용을 상대가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㉟ 술에 취해서 여성의 몸을 만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㊱ 혼자 집에 돌아올 때 주위를 살피고 조심해야 한다
㊲ 만약 데이트 강간을 당했을 때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위에 알리고 상담을 해야 한다
㊳ 모든 데이트 비용을 상대가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㊴ 술에 취해서 여성의 몸을 만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㊵ 혼자 집에 돌아올 때 주위를 살피고 조심해야 한다
㊶ 만약 데이트 강간을 당했을 때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위에 알리고 상담을 해야 한다
㊷ 모든 데이트 비용을 상대가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㊸ 술에 취해서 여성의 몸을 만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㊹ 혼자 집에 돌아올 때 주위를 살피고 조심해야 한다
㊺ 만약 데이트 강간을 당했을 때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위에 알리고 상담을 해야 한다
㊻ 모든 데이트 비용을 상대가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㊼ 술에 취해서 여성의 몸을 만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㊽ 혼자 집에 돌아올 때 주위를 살피고 조심해야 한다
㊾ 만약 데이트 강간을 당했을 때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위에 알리고 상담을 해야 한다
㊿ 모든 데이트 비용을 상대가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은 피억압자 성적인 친밀관계(sexual intimacy)이 있는 상태에서 이성과의 계획된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강간을 뜻한다. 상대를 정복하기 위해서 일단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데이트 강간은 강간범이 피해자를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강간과 다르

로 맞는 주장 성향을 띠으로 성폭력을 이슈화한다. (표 3)에서처럼 여성 단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 운동으로 투 가지 방법론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폐쇄적인 나이나 계에 정도, 냉용 중심으로 폐쇄를 드러내기 때문에 유리 사회에서 성적인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성폭력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는 어떤 어성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 없다.

물론 여성 단체들은 성폭력이 성관계가 아닌 폭력이라 주장하면서 권력 관계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을 우동한다. 성폭력이라는 것은 '성 + 폭력'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절의 폭력'의 의미 이상이며, 성 '폭력' 이라기보다 '성 폭력 — 성적인 부분에 가해진 폭력 — 으로 가톨의 폭력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남녀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가 다르다는 점을 부각한다.

그리므로 여성 단체에 성적행동 피해자가 떨어진 사회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폐쇄적 계층이 있다면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보수주의 경

<table>
<tr><td></td><td colspan="2">폭력으로서 성폭력</td><td>성관계 연속성으로서 성폭력</td></tr>
<tr><td>인식하는 여성</td><td colspan="2">무성적 여성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정체적</td><td rowspan="2">폐쇄 여성/성적 각성의 폭력성</td></tr>
<tr><td></td><td colspan="2">폐쇄 여성</td></tr>
<tr><td>정치적 맥락</td><td colspan="2">정책 제도적 개선</td><td>성문화 변화</td></tr>
<tr><td>정책적 효과</td><td>성폭력은 주로그램을 성관계가
여성 — 성폭력 신고를 높임
모든 사람에 적용 성폭력
여성의 모든 주 가치화</td><td>남녀에 따른 성관계적 구성을 편향/
성폭력적 성관계를 크려짐/
낙태도 모든 가치화</td><td></td></tr>
<tr><td>정책적 한계</td><td>여성 폭력적인 성폭력
정책 적용 범위 확대
현행—여성의 처벌 폭력 감소
폭력으로 여성 보기능성 있음</td><td>남성적 성적 대상으로서 모든 여성을
이 포함/여성의 수동적 소극적 방법
존적인 요청</td><td></td></tr>
</table>

<표 3> 여성 단체의 정책적 : 성폭력의 개념

표 3)에서처럼 여성 단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 운동으로 투 가지 방법론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폐쇄적인 나이나 계에 정도, 냉용 중심으로 폐쇄를 드러내기 때문에 유리 사회에서 성적인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성폭력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는 어떤 어성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 없다.

물론 여성 단체들은 성폭력이 성관계가 아닌 폭력이라 주장하면서 권력 관계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을 우동한다. 성폭력이라는 것은 '성 + 폭력'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절의 폭력'의 의미 이상이며, 성 '폭력' 이라기보다 '성 폭력 — 성적인 부분에 가해진 폭력 — 으로 가톨의 폭력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남녀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가 다르다는 점을 부각한다.

그리므로 여성 단체에 성적행동 피해자가 떨어진 사회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폐쇄적 계층이 있다면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보수주의 경

[16] 예를 들면 여성 단체에 접수되는 부녀 사례에서 그런 익숙하지 않은 부부간의 성

지적해 오는데도 예를 들어 권력 관계가 개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폭력이 아닌 폭력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공포의 하기도 하고 그러나 성폭력의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법에 호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 주목했다

물론 강우 법로 위협하는 경도에 그치지 않고 폐쇄적인 성도로 나아가 폭기도 하지만 '공포의 하기도 하고 그러나 성폭력의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법에 호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러므로 성폭력, 특히 강간의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 성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즉 어떻게 여성의 성기가 성적인 장소로 부호화되고 강간범은 정상적인 남성으로 간주되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성폭력이 여성의 성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여성의 성적 부위가 남성의 성기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기 중심의 성관계 개념은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를 '정복'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를 '정복'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를 '정복'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16] 예를 들면 여성 단체에 접수되는 부녀 사례에서 그런 익숙하지 않은 부부간의 성

지적해 오는데도 예를 들어 권력 관계가 개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폭력이 아닌 폭력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공포의 하기도 하고 그러나 성폭력의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법에 호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 주목했다

물론 강우 법로 위협하는 경도에 그치지 않고 폐쇄적인 성도로 나아가 폭기도 하지만 '공포의 하기도 하고 그러나 성폭력의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법에 호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러므로 성폭력, 특히 강간의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 성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즉 어떻게 여성의 성기가 성적인 장소로 부호화되고 강간범은 정상적인 남성으로 간주되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성폭력이 여성의 성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여성의 성적 부위가 남성의 성기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기 중심의 성관계 개념은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를 '정복'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를 '정복'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성을 드러내며 그러한 욕망을 구성하게 하는 권력들과 문화적 부호들을 탐구하여 그것이 기존 사회에서 권력 관계를 아기하고 강화시키는 데 수행하는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것도 아니며 현 가부장제 구조에 의해 모두 성적 대상이거나 욕망이 없는 피해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만약 가부장제라는 문화 결정론에 의해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전적으로 규정된다고 설명한다면 성에 대한 사회적 금제를 하나의 부정적 힘으로 개념화함으로써 차별적 억압의 측면을 제외한 성적 차이들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가부장제는 여성을 한결같이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만드는가? 여성의 성은 남성보다 더 억압적인가? 그렇다면 이러한 가부장제 문화는 누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억압되지 않은 남성의 성을 기준으로 한 페러다임에서는 '정상적 성은 건강한 이성애' 이며, '문제 있는 성은 이성애적 성차별주의' 이다.

물론 '여성을 구성하는 공통의 물질적 기반' 이 있다는 가정은 여성들간의 연대를 도모하고 남성과 차별되는 독립적 범주로서의 여성 정체성 확립에 기여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정체성은 생물학이라는 단일 변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급, 나이, 결혼 여부, 학력, 지역, 성적 선호 등이 교차되면서 복합적으로 구성되므로 여성들간의 차이는 당연하다. 그럼에도 이제까지는 여성 정체성 내에 존재하는 차이들, 불연속성과 정체성들간의 유기적 관계에 주목하지 못해 여성들의 삶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과도한 공통성이 그들의 특수성을 은폐하기도 하였다. 남성들의 억압이라는 공통성 아래 그 밖의 변수들을 부차적이고 의미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여성 범주 안에서의 동일성과 차이의 긴장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체성이 더 이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통일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15] 여기서 말하는 '폐쇄적'이라는 것은 사회적 금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폭력의 문제로 정부되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 장간을 이슈화하는 것이 성폭력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Hite, L. L., 1990, pp. 118-120).

정체성들간의 관계 속에서 유동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 사실은 (모든 여성이 아닌) 여성의 내용과 주제를 지시하는 한정된 수식어를 통반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젠더는 어느 공간에서나 모두에게 같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들간의 관계 설정, 여성과 남성 간의 관계 설정은 달라질 수 있으며, 성폭력의 의미 구성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질적인 정체성의 정치학의 한계를 제시하고 차이의 정치학(비본질적인 정체성의 정치학)을 제기하는 것은 다양한 정체성들과 권력 관계를 민감하게 의식함으로써 (성의) 정치학의 기반을 새롭게 구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원이다.

3. 새로운 정치학의 구성 : 여성 단체 거듭나기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을 중심으로 여성 억압의 현실이 드러나면서 섹슈얼리티는 하나의 정치적 이슈로 개념되었다. 서구처럼 성혁명은 없었으나 많은 여성들이 자율적인 여성주의 운동 안에 성을 하나의 중요 이슈로 규정해야 한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 결과 여성에게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문제 제기하기보다는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성폭력을 폭력이라고 전제하면서 어느 정도 정치성을 확보하였고 남성 권력하에서의 성차별의 문제를 가시화하였다.

최근에 와서는 현재의 문화 내에서 권력이 성애화되는 방식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소수의 페미니스트들이 성폭력 위협의 강조는 중요하나 폭력으로서의 강조가 성적 폐쇄를 희생시킨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하였다(조주현, 1997/고갑희, 1997/김은실, 1998).

특히 여성 단체의 성폭력 담론은 여성들간의 차이에 의해 문제 제기되지도 않았지만 단지 폭력으로서의 성폭력 범주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아

카데믹한 담론의 생산이 아닌 '새로운 여성'을 구성해야 하는 상의 정치학을 요구한다. 이것은 페미니스트들이 섹스, 젠더, 세슈얼리티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과거의 작업을 재평가하고 그것의 효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현실과도 맞물린다.[19]

그렇다면 기존 성폭력 근절의 정치학이 여성(남성)에 대한 본질적이고 정적인 정체성에 대한 발화 시작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여성들간의(여성 내의) 차이를 고려하는 새로운 정치학이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일단 새로운 정치학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현실과 세슈얼리티 구성에 대해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즉 여성을 규정하는 사회 문화적, 정치 경제적 조건들과 여성의 다양한 세슈얼리티 경험이 분석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성폭력 근절의 정치학이 대변하고 있는 권력 구조를 드러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여성 단체가 주장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여성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한 몇 가지 사례들을 제시하려 한다. 이러한 작업은 앞으로 지속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1) 성적 자기 결정권의 의미와 재구성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기 전 성폭력 관련법은 '정조에 관한 죄'(형법 제32장)라는 형의의 용어로 집약되었는데, 입법자가 필요할 때마다 개

19) 서구의 경우에는 1980년 이후 성적 피해를 전제로 여성들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급진적인 여성주의자들이 계급, 인종, 민족, 성적 지향, 문화, 교육 정도, 종교 등에 의한 여성들의 성적 차이가 등장하면서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페미니스트 사이에서 여성들간의 차이는 생물학적 결정론, 본질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안일한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다. 본질주의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우선, 그것은 말 수 없는 어떤 것, 문화적 영향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가설된 '자연적' 상에 의존한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인간의 상에 있는 문화적 - 역사적 다양성을 특별히 설명할 수 없다. 게다가 그것은 상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하나의 무형적 힘으로 개념화하고, 남성다운/여성다운 성의 차이들을 설명할 수 없다. 남녀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상하는 변화될 수 없거나, 여성의 상은 남성보다 더 취약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정하였던 것으로 체계를 상실한 채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다. 그래서 성폭력과 관련된 법들은 다른 범죄와는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부 중복되어 있는 법들을 개선, 보충, 강화하기 위하여 한곳으로 묶어 특별법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20] 전근대적이고 여성 차별적인 '정조'라는 개념으로 성폭력을 표현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당시의 자료집을 보자.

> 성폭력은 정조 문제이기 이전에 폭력의 문제라는 것, 그러므로 '정조……'는 성폭력, 성범죄, 약자 폭력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때 피해자의 정조는 상실한 것이 아니라 폭력 범죄의 피해를 당했음을 인지시킴으로써 가해자에게는 법적 의식을, 피해자에게는 수치심과 죄의식을 덜어 주고 신고율을 높이게 할 수 있다. 또한 정조로 되어 있음에 해당한 여자와 더러운 여자로 이분화되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전력이 추궁당하여 해당한 여자가 아닐 경우, 그의 정조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정조로 판단해 버려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성폭력특위, 1992년 내부 워크샵 자료.

특히는 성폭력은 여성들에게 사회적으로 부여된 부담을 전제로 한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남녀를 가리지 않는 헌법상 인정된 기본권으로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하는 범죄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전에 성폭력이 폭력 범죄가 아닌 정조에 관한 죄로 인식됨으로써 보호받아야 할 정조와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정조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유발시켜 많은 문제를 양산했는데도 특별법은 정조의 개념을 여전히 존속시켰다.

물론 1995년 형법 개정시 '정조에 관한 죄'는 '강간과 추행의 죄'로

20) 법체계상 기존 형법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이나 상세한 내용, 그리고 절차법 등을 특별법에 담아야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기존 형법이 갖고 있는 지엽적인 문제점이 그대로 남게 된다.

성폭력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강간뿐 아니라 추행, 성희롱 등 모든 성적 폭력을 포괄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은 모두 성폭력이라 규정할 수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Flyer, 1994.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여성이 몸에 대한 결정은 자신이 내려야 한다는 근본적 의미에서의 신체의 자유 개념에서 도출된다. 즉 육체적 개인으로서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여 이것에 반한 모든 성폭력이라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은 개인의 육체, 또는 여성, 남성과 다른 여성, 남성보다 약한 여성, 보호해야 할 존재를 가진 여성 등에 대한 폭력이라는 여성운동 진영 주류 시각에 입각한 것으로 남성 또한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이 '남성과 다른 여성, 남성보다 약한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유발시켜 많은 문제를 양산했는데도 특별법은 정조의 개념을 여전히 존속시켰다.

물론 1995년 형법 개정시 '정조에 관한 죄'는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었으며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의 정조는 법조문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정조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이념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것은 성폭력 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정조'라는 개념은 여성 단체가 주장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조건이 내재되어 있는지를 검토해 보자.

> 작년에부 설문 느닷이면 면제나 "설어요"하고 뛰어가 버린다. —여성 단체 활동가

텍이트 장간을 세우하기 위해서는 N이를 분명히 한다. —레이프 반대 캠페인 구호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정조 주체로 구성' 되기 위해서는 성별 구조 내에서 피지배성 및 예속성의 상징으로 작용하는 정조 개념을 해체하고 여성 스스로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의 정조는 여성과 남성의 인격 모두를 존중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러나 여성 당사자 여성을 막론하고 피해자론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로서의 여성 정체성과 대항 상징 언어를 폭력 남성 문화에 맞서 발전시키기 위한 여성주의 전략이다.

그러나 여성 당사자 여성을 막론하고 피해자론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로서의 여성 정체성과 대항 상징 언어를 폭력 남성 문화에 맞서 발전시키기 위한 여성주의 전략이다. 주 피해 여성의 문화적 입장이 아닌 것이다. 주 피해 여성의 입장은 이미 '피해자'로서 '말할 수 없는' 존재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피해자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경험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 여성 문화 안에서 또 다른 억압이 되는 것이다. 여성 문화 안에서 '피해자'로서 말하는 것은 '피해자'로서 말할 수 없

티이그넬 판슨주 경찰관 직업구 및 남자를 다 만난다 백상을 송이기 위해 자신이 남성과 직장 송을 어서기도 한다. 경우에 대해서는 남자에 송 받고 있다. 특히 전혀 모르는 남성이 갑자기 접근해 오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런 경우 여성은 불안감을 느끼고 심한 경우 공포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여성의 감정은 남성이 자신에게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과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남성이 자신에게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과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남성이 자신에게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과는 다른 것이다.

다른 설명해 봅다. 그러나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기도 싫고 이해 못서 자신이 강간당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해도 만약 자신을 인정받기 더 곤혹스럽고 힘든 사실을 몰랐을 때가 훨씬 다고 했다.

DNA로 추적한 3년의 연쇄 범죄 결론입니다. 혼전 성관계가 있었으며 성범죄 아이 동일 가능한 추적이다. 혼전 관계는 남자의 리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고 수단이다 이러한 남자들은 정신병이 아니다. 그에 상황에 따라 성폭력(강간) 손상의 의미는 피해자마다 같지 않으며그래서 성폭력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으며 때로는 성폭력이라 정의할 수도 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여할 권리를 갖는 하나의 적극적인 활동가(새로운 여성)가 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듯 여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층위에 따라 (성의 의미 구성이 다양하듯이) 성폭력 경험을 다양하게 의미화한다면 이렇게인 층위들이 교차하는 여러 차이들을 보여 줄 수 있으며 동시에 공통점도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즉 젠더, 계급, 나이, 성적, 결혼 여부…… 등의 여성을 구성하는 요소일 때 그 여성이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여성으로 하여금 성폭력의 의미를 각각 다르게 해석하게 해준다. 이때 성폭력을 가시화할 수 있는 조건은 '피해 여성이 느끼는 몸의 고통에 따른 피해 여성의 진술'이다.

'몸의 고통'은 피해자들이 성폭력의 의미를 해석할 때 일정한 준거점을 제공한다. 이성의 농락이 아닌 고통을 받고 있는 몸이 세상을 만들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육체적 고통은 권력을 보여 주는 것이며 권력으로 읽히기도 한다. 고통받고 있는 몸의 연약함은 권력의 영역에서는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E. Scarry, 1985, p. 33). 이때 몸은 볼 수 있는 장소이며 차이를 표시하는 중요한 소재이다. 몸은 느낄 수 있는 장소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느낀다. 성폭력은 '여성'의 몸에 표의되는 고통이며 맥락에 따라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몸(의 고통)은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정치학의 매우 독특한 장소가 될 수 있으며 성적 주체를 구성해 낼 수 있다.[21]

21) 성의 재도의 결과로서 존재하는 성차라는 모든 결국 몸의 형태에 관한 설문이고 성차화된 몸의 생산과 규범을 의미한다. 성차와 몸이 갖는 물질성성, 그것들의 관계가 규정되는 방식은 결국 몸이 행하는 것 그리고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주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성차와 주체가 생산되고 다인되는 몸을 문제화할 수 있다(E. Grosz(1993) | 김은실, 1996, 51쪽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권력이 작동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여성 몸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실천에 의해 주체성을 생산하는 곳이다. 예를 들어 보자. 피해자의 몸을 손상시키는 강간범은 피해자의 몸을 대상화하는데 이 대상화는 피해자에게 몸과 정신이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때 몸은 자아와 신체적 경험을 재통합하기 위한 의미의 장소로 작동한다. 피해자들은 강간 후 손상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신체적 반응, 몸의 느낌과 생각 간의 불일치를 경험한다. 몸은 손상을 통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이면에 놓인 의미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강간 손상 맥락과 그 의미에 대한 이해는 성폭력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며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사회 문화적 지지 체계의 정도——예를 들면 성폭력특별법과 그 내용——에 따라 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기도 한다.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의 성폭력 관련법은 강도 강간과 윤간을 제외하고는 제3자가 신고할 수 없고 피해 당사자만이 신고할 수 있는 '친고죄'로 되어 있었다. 성인의 경우는 성적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조'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친고죄가 유지되고 있었으며, 어린이가 피해자인 경우 동화했다 할지라도 의제 강간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성폭력특별법의 제정과 두 차례의 개정 끝에 친고죄 부분은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이유에서 수정되었다.[22] 그러나 성인의 경우에는 아직도 친고죄이다.

그러므로 위의 사례들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특별법의 입법 취지는 피해자 보호에도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형법 등 기

22) 13세 이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 추행 등의 죄를 가중 처벌하고 이를 비친고죄로 규정함으로써 아동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며 18세 이만의 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사실의 복임자 및 관계 종사자가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이 법 또는 형법에서 비친고죄로 규정된 성폭력 범죄를 당한 사실을 안 때에는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보호를 강화한다(성폭력특별법 3조 개정안).

그러나 역사 안에서 여성의 행위를 문제화 할 가부피되지 않는다. 여성이 어떤 조건에서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이유로 가해자가 되는지 다각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여성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도 성폭력을 다른 방식으로 문제화 할 수 있게 한다.

역사 속에서 여성의 행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상호 연결된 복잡한 맥락의 고려이다. 제국주의도 한 여성의 행위/언어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며 여성의 행위성이 남성의 이해 내에 포섭되는 것도 아니다. 여성의 행위성은 남성의 이해나 사회 구조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이 연결 속에서 여성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 이 전략은 때로 남성의 이해와 충돌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성의 이해를 위해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다양한 전략 속에서 여성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남성을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성을 협박하기도 한다.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사실은 방설였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은 싸움의 와중에서 뭔가 그것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에 대한 갈등도 있었지만, 공영방송의 기자에다가 막강한 대규모 방송사의 노조 간부인 싸움의 상대에게 또다른 빌미를 주어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 되지 않을지, 걱정되었다는 게 더 솔직한 이유다. 하지만 글을 시작하기 전부터 원고료를 받으면 다음달 월세를 낼 수 있다는 안도감보다 발에채은으로 또다시 고소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고백하는 진짜 이유는, 어쩌면 이러한 두려움이 이 글이 비판하고자 하는 바를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약생들이 살족

성폭력은 남성의 경험이다. 피도적이든 그 상황에서 출동적이든 성폭력은 이제까지의 남성의 성인식, 신념체계, 가치관 등을 반영한다. 그들에게 하나의 성적 실행일 뿐이다. 그들의 의지와 태도에 의한 실천이다. 그런데 이것을 여성들이 성폭력이라 주장하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설명 좀 이해하고 이제 와서 소리쳐야지 하는 그들의 입장은 일견 타당한 듯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경험을 '누가 체험하기 시작' 했으며 또한 '누가 좋아했다고 규정하느냐'의 문제이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성적인 흥분, 욕망, 지배—또 언제 성폭력을 체험하고 상대편이 좋아하고 있다고 하니 나는 해도 좋다라고 판단한 주체는 바로 성폭력 가해자라고 지목받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3]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의 절대 다수가 남성이며,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해석하는 주체 역시 남성이다. 남성들은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입각해 성폭력을 '해석'하며 그것이 우리 사회의 성폭력 담론을 지배한다. 해석의 틀 자체가 남성적인 한, 피해 여성들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예상되는 사회적 비난이라도 피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침묵은 '선택'이라기보다 '강요'라고 말하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깝다. 말망을 적극적으로 '학습'시키는 사회, 그것이 우리 사회다.

운동사회, 침묵의 아르텔

'진보'를 지향하는 '운동사회'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

3) 변혁해보, 「누구의 입장에서의 성폭력 개념인가: 성폭력 대부분에서 성폭력 문제이로」, 『운동사회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방식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2001. 5. 22), 여성행), 2쪽.

등을 입학증하는 침묵의 카르텔은 한층 더 강고하다. 이번 KBS노조 성폭력 사건을 사회적으로 공개했던 '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이하 100인위)와 그 회원들의 경험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100인위는 '이제는 말하자, 운동사회 성폭력'이라는 토론회(2000. 6. 20)를 계기로 결성되었다. "이제는 말하자"라니, 토론회의 제목이 왕으로 슬프고 처절하다. 우리의 시작은 성폭력을 '해결하자'도 '근절하자'도 아닌, '말하자'는 제안으로 출발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출발은 너무도 현실적이고 정당한 것이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주위 남성들에게 '위협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여성을 동등한 사회적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는 기존의 가부장적 위계구조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무엇보다도 성폭력 사건이 말해진다는 것 자체가 필연적으로 그들 자신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에 그렇다. 따라서 남성들은 성폭력 사건을 말하는 여성들의 입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데, 그 중 하나는 성폭력 사건을 말하고 사건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에 대해 신경질적이고 호들갑스럽게 반응함으로써 여성의 주체적 행위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특히 '운동사회'에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화되는 방식은 몸으로 음미하기 싹이 없다. 수많은 운동사회 성폭력에서, 조직 내부에서의 해결을 기다리다 못한 피해자가 외부의 여성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공따로 나오는 말은 '반조직 행위자'라는 비난이다. 가령 지난 1999년에 발생했던 보건의료노조 간부 출보순 성폭력 사건에서도, 조직 내에 횡행하던 파곡된 소문과 음모론 등에 시달리다 못한 피해자가 노조 지도부에 사건의 투명한 진상공개를 요구하자 노조 임원회의에서 "조직 외

력적 한 사무실에서 상사·부하직원 관계로 근무해야 하는 끈끈함 같은 것을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노조 간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 대부분은 '조직보위론 · 올모론 · 배부설 이 맞는다', 노조 내에서 친executive적인 가장 먼저 '조직보위론'을 들고 나온다. 2000년 12월 15일에 열린 총무위원회 회의에서는 기세등등하게 '올바른 일도인 것에 대한 정보를 내려고 모든 전산조사 결과를 비롯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조직보위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리고 기세등등하게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는 침묵을 강요당하는 이 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피해자 행실'을 운운하거나 그럴 듯한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거나 더 나아가 '피해자 옹호론'까지 들이미는 세 겹 철책인 수순처럼 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지엽한 남성 중심적 시각 속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침묵을 강요당해왔던 것이다.

그러던 중, 피해자들이 어쩌면 영원한 비밀로 남겨졌을지도 모를 이번 성폭력 사건을 KBS노조 안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게 된 계기는 가해자가 노조 정·부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한 것이었다. 실습적 성폭력범의 노조간부 입후보! 이는 가해자가 여성의 인권을 짓그리 짓밟는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얼마든지 '노동운동가'로 '노조 고위간부'로 부활하여 그럴 듯한 직함을 달고 행세할 수 있는 소위 '공동사회'의 장고한 가부장적 구조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고, 또한 당선될 경우 피해자가 가

4) KBS노조 성폭력 사건은 지금 내 피해관계 및 공동사회에서의 전문적 신뢰를 악용한 명백한 사건이다. 이번조사당 피해한 내용에 대해서는 100인위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http://bbs.jinbo.net/write/pdsbest.php?board=wom100-1&id=4&ftab=1).

비명을 지르다

여성들에게 절망없이 침묵을 학습시키는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적 담론과 '공동사회'에 굳게 뿌리내리고 있는 침묵의 카르텔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왜 그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제기했는가를 설명해 준다.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나선 것은 2000년 10월이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 4~5년 전인 1996~1997년 경이었음을 상기할 때, 그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고립 속에서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몸부부어야 했을 노력은 차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주위로부터 가해지는 2차 폭력들, 즉 '피해자 행실'을 운운하거나 그럴 듯한 핑계론을 갖다붙이며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거나 더 나아가 '피해자 옹호론'까지 들이미는 세 겹 철책인 수순처럼 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지엽한 남성 중심적 시각 속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침묵을 강요당해왔던 것이다.

그러던 중, 피해자들이 어쩌면 영원한 비밀로 남겨졌을지도 모를 이번 성폭력 사건을 KBS노조 안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게 된 계기는 가해자가 노조 정·부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한 것이었다. 실습적 성폭력범의 노조간부 입후보! 이는 가해자가 여성의 인권을 짓그리 짓밟는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얼마든지 '노동운동가'로 '노조 고위간부'로 부활하여 그럴 듯한 직함을 달고 행세할 수 있는 소위 '공동사회'의 장고한 가부장적 구조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고, 또한 당선될 경우 피해자가 가

3) 이러한 비난들은 내적 사유에 깊은 논의구조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가해자의 소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 ② 실명공개하는 행위는 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③ 따라서 100인위는 철저한 사실 조사(가해자 조사도 없이 실명공개를 해서 마치 사건으로 본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사이비 해바라기다 라고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실상 철저히 가해자적 관점에 입각해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가해자의 입장 피해자의 말을 철저히 한 상태에서가 아닌 '판단 할 수 있다는 방금에서 나온 것이며, 이는 대부분 경인이 겪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증거나 증언 확보가 어려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증거주의'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억압해온 보수적 법논리의 변형된 논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주장해왔듯이, 성폭력을 '일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로 접근하는 이상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할 기준 그 자체이고 객관적인 주체는 바로 피해자 여성이며,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우선인지는 피해를 당한 여성의 입장에 입각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고 있는 한(限)성폭력 문동희 역사에서 중론이 있었다. 부정서 설고문 사건, 뛰통수 사건 (대부분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송씨문 사건, (대표적 · 전형적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강정도 사건 (우 최초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등등 과수 사건 등으로 성폭력 발생률 세계 1, 2위를 다투는 우리나라 성문화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는 침묵을 강요당해왔던 것이다.

- 가장 보인 인권의식과 평등의식이 부재하고 예방에 대한 법적 의무도 지키 지 않는다.
- 성폭력은 조직 보위의 이름으로 은폐, 축소, 왜곡하여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공유했다.
- 성폭력 피해자가 계속 사실을 증명하면 받을수록 더욱 상처받게 된다는 것을 주기로 하였다.
- 가해자는 조직 내 권력(예 · 인사 · 승진 · 각종 상벌 · 직위 등)을 주기로 하였다.

아닌가 하는 것은 오랫동안 논쟁거리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의 범위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뒤흔들어 놓았다. 이 사건 이후 '우리'는 '나'와 '너'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를 배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나'와 '너'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를 배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수많은 온라인 공동체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주저'의 이유로 공포와 불안에 '조직 보루'의 논리로 옹호하려는 사건 발생의 발생과 온 온라인에서 속출되어오는 동안, 가해자는 아무 성도 없었다는 듯이 '멀쩡'하게 지냈다. '직도부'가 지워 집회에서 아이피를 알고 구호를 외쳤다, 더러서 온 혹여도 '설로 하여 '성보존'의 보로 을 말해'의 폭력 사실을 소내부는 온라인 공동체의 오랜된 '우'을 '말'했다면, 작성의 폭력 사실을 소더러 말한다는 것은 자신의 폭력 '설명'에 대한 '말'이라는 이야기이다.

성폭력 사건을 공개한 후, 혼은 일이 일어난다?

- 이석 자사 2명 19일 KBS노조 무위장 성폭력 사건을 사퇴적으로 폭력을 지원합니다.
- 가해자는 시간이 흐른수록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거나 폭력에 면책 하여 가해자 됩니다.
- 가해자 주인가 가족들은 해서 많이 피해자를 비난하여 가해자를 비호합니다.
- 피해자의 고통을 시간이 흘러도 식지적 않으며 활동을 중단하고
- 해결 과정에서 조직은 해주 관심과 피해자 보호 필요를 무시합니다.
- 해결 과정에서 조직은 수동적으로 책임자인 당연해야 한다며 수

어떤 상황을 가정해보자. 한 여자에 한 남자가 있다. 술을 마셨다. 남

공격한 이후 일어난 일들에 대해 기록해야 할 사례이다.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말'이다. 조직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조직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조직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조직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100인하는 이 사건을 '서서역님(2000년 12월 14일) 기사에 언명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을 만나 상이한 분에 2001년 2월 19일 인터넷을 통해 사건을 공개했다. 2000년 12월 폭력적인 한국을 통이 있으로였던 16인의 온라인 설문에 대한 기록과 설명문에 이후 2개월 남짓 만에 실제한 두번째 설명문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직접 공론화' 이후 떠나신 댓글은, '말문이 열릴 수 는으로 폭력의 보고도 다시 그 장에을 손들으로 삼고 변손으로 두드리는 것 이에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추천 사례 여성 인터넷 성폭력 사건을 목격하는 '말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이라고 말해지기 때문이다. "사건 현장을 눈으로 목격한 것이 아니므로 진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혹자의 말은 피해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이 사회의 남성적 성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준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피해 사실을 법화하자에게 가장 먼저 말하고자 했던 장벽은 성폭력 피해 사실 자체를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인식이었다.

불공정하기 짝이 없는 이러한 인식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선 짚어야 할 것은 역사 이래 지속되어온 가부장

제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이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말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찾기란 길다에에서 바늘 찾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여성을 남성보다 덜 합리적이고 덜 이성적이며 비정상성을 수시로 넘나드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가정하는 여성 비하적 인식은 학교와 직장 법원과 대중매체를 통해 매일매일 재생산된다. 게다가 가해자 남성이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왔거나 그럴 듯한 공인의 위치에 있는 자일 경우 피해 여성에 대한 불신은 한층 강화된다.

또한 사람들은 성폭력의 편재성(遍在性)을 좀처럼 믿으려 들지 않는다. 우리 나라가 성폭력 사건 발생률에 있어 세계 수위를 다툴 정도로 성폭력 범죄가 만연하다는 것, 그 중 70%가 면식범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것, 평범한 회사원부터 교수·성직자·경찰·검찰·국회의원·기자 심지어 사회운동가에 이르기까지 가해자의 직업이 여지지 않는 범위가 없다는 것, 이 모든 '사실'들을 못 본 체하고 단지 눈앞의 사건을 '없었던 일'로 만들려는 데에 급급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바로 가해자 남성이다. '끝까지 부인하기'가 성폭력 가해자들이 가장 애용하는 전략으로 굳어진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릴 때 (물론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는 가해 사실을 부인한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정' 받기 위해 치러야 할 고통은 어마어마하다.

주위의 입막 - 잊어라, 용서해라, 그만해라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로자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싸움을 계속하려 할 경우, 주위의 압력은 또다른 형태로 변형되어 피해자들을 억압한다. 말하자면 '잊고, 용서하고, 사건을 조용히

널으라"는 주문이다. KBS노조 부위원장 시절의 피해자들이 노조 내에서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후, "공제 를 명목으로 "용서 를 종용하는 주변인들의 인간적인[7] 충고와 가해자의 복반하장의 명예훼손 고소에 사실상 굴복하게 되었던 것은 어쩌면 정해진 수순이었을지도 모른다. 노조 안에서 피해 사실을 밝힌 직후 한 간부가 찾아와 "이 건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서 접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라"거나 "나라면 이렇게 무모한 행동은 안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과, "공제자 를 걱정하고 나선 또다른 간부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한 번만 용서해 줘라, 선물주는 셈 쳐라"고 하면서 용서를 강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단지 '말하기만 해도' 어떤 식으로 또다른 폭력이 자행되는지를 똑똑히 보여준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처음 지침서를 쓴 앨런 베스와 로라 데이비스는 이와 같은 '용서 강요하기'가 얼마나 잔인하고 부당한 요구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 생존자에게 가해자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욕이다. 용서하라는 말은 생존자의 감정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축소시킬 뿐더러 심지어 이를 부정하기까지 한다. 또한 용서는 당신의 분노에 심기가 불편해지거나 당신을 다시 그들의 통제 아래 두려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주제이다. 영원히 죄가 난 상태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가 당신의 분노를 '고차원적인 선(善)'인 용서로 마무리고 말하도록 내버려두어서도 안 된다.[7]

우리는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그렇다면 가해자는 언

7) 앨런 베스 · 로라 데이비스, 『아주 특별한 용기』(동녘), 230쪽

제 용서받을 수 있나요?"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멀미가 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이 담고 있는 가장 분노할 만한 점은, 그것이 철저히 가해자의 입장,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시각, 심지어는 가해자가 오히려 '희생양'이라고 바라보는 어처구니없는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절대로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완전히 치유될 수 있나요?"라고 묻지 않는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바로 피해자이며, 따라서 그녀의 회복과 치유야말로 가장 일차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가해자가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뒤,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성애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사회에서, 피해자의 고통은 눈에 보이지조차 않을 테니 말이다.

가해자 전략 - 밝힐 테면 밝혀 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테니!

모든 상황이 피해 여성에게 불리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말못을 반성하고 공개 사과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사회운동가에 대한 '신뢰'와 조직 내에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벌어지는 운동사회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는 가해 이후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면서 입막음을 위한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해두었다가, 사건이 공론화되면 일단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여 사건 해결을 지연시킨 후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지세력을 확보한다. 그리고 일정한 지지세력이 확보되어 가해자를 비호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 발언이 나오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자신의 가해 사실을 부인하는 전략을 취한다. 즉, 가해자는 단순한 '과거의 행위'가 아니라, 성폭력 사건이 발화된 이후부터 그 사건이 해결되는 그 순간까

지 현재나 미래의 일상적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현재형 행위'인 것이다.

> 1) 본 글은 '우혜형 오빠 사는 곳에 와서 가해자의 범죄 사실 알리기' 및 2001년 2월 27일 피해자들의 기자회견 이후 KBS노조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 대한 기록과 기억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 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기록은 2000년 12월 1일 KBS노조 성폭력 사건 해결 투쟁위원회 편, 『우혜형 폭력 사건 자료집』(2001년 2월 27일) 참조. 이 글에서 '우혜형'이라는 이름은 가해자의 실명이 아니라 가명이다.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명예훼손으로 피소하겠다는 협박을 빌미로 보도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현재 아직 KBS노조 성폭력 사건의 결말, 가해자가 구속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글을 쓰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가해자 우혜형은 자신을 구속시키는 것은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구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글을 쓰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 글은 가해자 우혜형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KBS노조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을 방해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해결 과정에 대한 기록과 기억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러한 기록은 2000년 12월 1일 KBS노조 성폭력 사건 해결 투쟁위원회 편, 『우혜형 폭력 사건 자료집』(2001년 2월 27일)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항상적으로 용산주도세력 밖의 가해적 관점을 대변하고 있다. 우선 떳떳 노가예 단순히 '적인 을 대변하고 있다. 우선 떳떳 노가예 단순히 '조직 전체 속

[제목] 사이의 폭력

만약 kbs인이 아닌 경우라면 무슨 권리로 사실 확인 중인 일을 가지고 사과하라느니, 사과하라느니, 도저히 나의 머리로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 또 하나 kbs인이라면 어버이에 kbs의 명예와 kbs 노조를 지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묘히 kbs를 욕되게 하고, kbs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일까? 의심이 든다. 잘못된 판단인지는 몰라도 게시된 글의 종위를 보면 무언가 이 건과 관련된 자들의 문들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제목] 이제 판단한다

이제 판단한다. 성추행 의혹이든, 본화기관이든 죽자살자 잘못 되었다고 하는 자들, 이들이 배후사실심을 그리고 노동조합을 파괴하고자 하는 자들임을, 겉으로는 노동조합을 위한다하면서 속으로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 대다수의 침묵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은 이렇게 알고 있음.

[제목] 당신의 판결 필요 없소

대의 일아나 멀심히 하세요 kbs노조 직멸하지 마세요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kbs입 우리가 알아서 잘할 것입니다. 염려 놓으십시요.

[제목] KBS인만 보세요

KBS와 KBS노조를 비칠하지 맙시다. ... 사내 문제를 왜 여기까지 와서 떠들니까? 부부싸움도 동네방네 한가운데서 하시나요? 집안으로 들어와서 합시다. ... 우리 이렇게 외부인이 보는 앞에서 우리 내부 문제 미주 알고주알 다 이상 공개하지 맙시다. 호소드립니다. 그건 누워서 침뱉기 아니겠어요? ... KBS 노동조합도 우리 KBS입니다. 우리 얼굴에 왜 먹칠해요?

[제목] 제발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얼굴 들고 나와서 얘기하세요. 숨어서 떳떳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비겁한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당신들 KBS 직원이기는 한가요?

당신들 KBS 직원이기는 한가요? 진정하십시오. 더 이상 스스로에게 침뱉는 행위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이러한 '조직 논리' 중심의 도돈 구도는 '성폭력 사건'이라는 핵심을 멀리 비켜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위에서 보듯이, '조합원' 이라고 밝힌 사람들 사이에서 오갔던 논쟁은 놀랍게도 결국 '조직에 해가 되니 조용히 해라' 대 '조직에 해가 되니 사회하라'는 구도로 빨어졌다. 어떤 이들은 명백히 피해 여성들을 옹호했고 어떤 이들은 사건을 조용히 덮을 것을 종용했지만, 둘 다 기반하고 있는 논리는 '조직을 위해서' 이다. 이러한 논의를 속에서 '성폭력의 문제'가 어떻게 온데간데없이 실종되어 버리는지는 다음의 게시물에서 잘 드러난다.

[제목] 객관적 읽으시오

성폭력범이든, 성추행범이든 이 조직을 떠나 개인 입장에서 하라는 얘기오. 왜 KBS다니는 누구 누구 또는 KBS노조의 누구 누구 하면서 우리 전체를 도매금으로 넘기는데, 당신은 분하도 않소.

즉, 가해자를 비판하거나 퇴진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비판조차 그 관심은 전혀 엉뚱한 곳을 향해 있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비판하며, 무엇 때문에 비판하는가? 그들이 말화 상대자로 생각하는 것은 누구인가? 얼핏 보기에는 그럭저럭 점잖게들 논쟁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느새 '성폭력 사건'이라는 사태의 본질이 사라져버렸다.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이런 방식으로 논점이 흐려지는 양상은 쉽게 볼 수 있다. 성폭력 사건을 앞에 놓고서 그들이 말했던 것, 그것은 '노조

그리고 이들의 글에서 특히 주드러지는 것은 남성 화자(話者)들의 소
설적 · 영화적 · 논평자적 포지션이다. 실록의 사건과 자기 자신을
겹쳐 연관짓지 않으며, 따라서 남성으로서의 삶과 정치, 가부장적 체
제에 대한 추로도 실질을 생각해 봤다는 기술 것이
없다. 실록의 사건이 발생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고 있을 것이
사실관은 이들은 별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그것 이
말하는 것은 실록의 사건의 본질과는 한참 거리가 먼 '조작 이라는 최후
이거나 이에 자기 자신을 실록의 사건이 일어나는 세상의 '외부' 에 위치
시킴으로써 남성적 권력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처 행위는 드물었고 또
피해자의 관점을 가진 이들의 연속 또한 곤궁함기 때문에 계사람이 '조
작'이 되는 당당하면, 고발을 들었는, 최초 실록의 박영선 '논

(예시) 조소하거나 무관심

먹인 것은 사실과 멀었을 때에서 피해자들이 경험적 이떻은
로이지 않게 떨어졌다.

최근가 '아이어 어트레이 리고까지 사용 좋인 곤라인 공간에서 부
성적 성향이 현저한 여성 공동체에 많이 아니다. 박살 사인
사건에서, 공가성을 논쟁에서, 이메이에 공개 실질 분석에서 그리고 공
론화된 이러 실록의 사건에서 이들 '실록'은 아닌 그것이 핵심이 아니
록의 공격했다면 그 내용이 핵심 '아내 남편' 로 '아니라도' 핵
그리고 여성 핵심 '실록의 조롱시켰다라는 점이 더를 뜻이다. 여럿 가해
사람이 가부장적 남성권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 순간, '실록된
된 것은 아니든 '우아한 폭력들' 그것은 피해자들에서 같은 상처를

남긴 후 더 멀리 날아가 궁극적으로 성폭력을 은폐하고 재생산하는 데에 기여한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합리적이며 가장 말이 해운 자들이 바로 그 복수에 가담한다.

KBS노조 부위원장 성폭력 사건이 지나온 과정에는 혼란 폭설도, 사이버 마초들 폭동의 폭탄도, 가해자의 직설적 비방과 인신공격도 드물었다. 그러나 그 대신, 피해 사실을 드러낸 여성들에게 보복하는 새로운 '운동권다운/지식인다운' 변종이 있었다. 노조는 '조직적 으로 '진보' 와 '도전 조합원 의 이름으로 피해자들을 짓밟았고, 익명의 온라인 게시판에서 휘둘러진 초법적 논평자들의 합부랑은 창으로 우아했으며, 가해자는 '합법적으로' 피해자들을 공격했다. 그들은 '진보' 와 '조직' 을 내세우며, '법' 과 '전문지식' 을 들이대며, '객관' 을 가장하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드러낸 여성들에게 대한 사회의 복수에 공모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너무나 적다. 소송도 돈이 있어야 한다. 언론을 타려면 줄이 있어야 한다. 자신을 단지 지키기만 하기 위해서도 너무 많은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능력을 가진 여성은 세상에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해서 무력감은 학습되고, 폭력은 재생산되며, 절망은 대물림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성폭력 사건의 해결, 즉 피해자가 원래당한 인권을 회복하고 피해에서 완전히 자유되는 그 날까지,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아니, 지금까지 묻혀져왔던 모든 성폭력 사건들, 피해 여성들을 침묵시키고 역사의 어두운 뒤편으로 축출시켜온 이 사회의 가부장적 구조가 끝장나지 않는 한, 어떠한 싸움도 모두 현재진행형이다. 도대체 여성들은 언제까지 이 끝나지 않는 싸움에 자신의 삶을 저당 잡혀야 하는가.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 사회 전체를 '성폭력 피해

"회식자리서 두차례에 걸쳐 강제 성추행"
"사실내 성폭력 적발하여주는 전형적 사례"
"피해자의 조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성폭력 의혹 4건, 모두 사실로 인정
"당소서로 자살예방 공익적 목적서 다룰 수 있어"
"성폭수위 경중 피해자을 요구 방향이 최우선"

KBS노조 부위원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실조사위원회 3개월 여에 걸친 민실조사 결과, "일부 사실로 인정" (미디어오늘, 2001년 5월 17일)

자에 대한 남성적 복수의 공모자 로 고발하려고 한다. 웃는 얼굴로 동참을 제 행하는 데러도 그것이 폭력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상 다를 것이 없다.

성적 괴롭 사실을 드러낸 여성들. 남학의 장벽에 끈질을 넌 여성들에 서 사회는 언제나 가장 선두에 떨어도 가장 선두에 떨어도 옵수없다. 그리고 어다한 복수를 가능하게 해주는 조직, 문화, 이념, 법, 제도, 미디어, 관 습. 우선 그리고 이 모든 불평등을 공기처럼 받아들고 당연하게 느껴는 어도 당신이 '성폭력의 공모자'다.

여성혐오

'죽이고 싶은 여자'가 되는 법

여성 혐지에 논란에 나타난 남성지배 문화

군가산점,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사건을 다시 살펴보기 위해 군가산점이 어떤 점에서 여성과 장애인에게 차별적이었는지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군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지원법에 의거, 1961년부터 시행되어왔다. 1987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병역비리로 인해 병역 기피가 확대될 것을 우려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1988년 5월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강화된 보상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강화된 내용의 주요 골자는 7급 이하의 국가공무원 시험에 한정되어 있던 군가산점을 5급 국가고시에 확대해서 실시하고, 20인 이상 민간기업체에서 초봉과 승진에서 군대 경력을 근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군필자 우대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3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이 개정안은 1998년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알두고 있었다. IMF로 인해 실업률이 치솟고, 정리해고 한파에서 가장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던 여성 노동자들에게 이 개정안이 주게 될 타격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었다.[1] 높은 실업률과 몽땅 얼어붙은 채용시장에서 정couple은 더욱 높아지겠고, 급기야 만삭을 맡고 1% 내외의 가산점이 부과되는 자격증까지 딴 여성이 불합격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리고 1999년 12월 23일, 대법원은 군필자에게 채용시 5%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법 제8조 1항에 대해 군가산점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 직후부터 여성 혐오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성적 폭언들이 헌법재판소와 이화여대 홈페이지 등에 쏟아졌다.

물론 군가산점 논란 이전에도 여성 혐오는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소동처럼 여성 혐오가 대단히 광범위하게 일어난 적은 없었으며, 또한 여성 혐오 혹은 차별을 '정당화' 하려는 언설들이 쏟아진 것도 매우 예외적인 일이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여성들을 극도로 비난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어떤 방식으로 여성(집단)에 대한 욕설이 자행되었나? 또한 왜 이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희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째서 제도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에는 관심이 없었던 걸까? 병역이 순수하게 희생이었다면 어째서 징집을 명령한 국가가 아닌, 징집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 분노가 집중되었을까? 나는 이 소동의 소용돌이에서 몇 가지 키워드를 짚고 비밀의 문을 열어보려 한다. 추악한 욕설이 빠져 나간 후 상자의 밑바닥에 무엇이 남아 있지 않을까, 더듬거리는 관도라가 되어서 말이다.

[1] 이홍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본 군가산점제', 『여성과 사회』 11호, 118쪽.

여성 혐오의 양상들

한국에서 "죽이고 싶은 여자"가 되는 법은 간단하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군대와 관련된 비판을 하면 된다. 그러면 즉각 "여자가 어디서!"라는 말과 함께 수많은 감정적인 분노를 목도하게 된다.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 편집위원으로 있는 김신명숙은 군가산점 문제와 관련된 토론에 나온 이후 지금까지도 분노의 표적이 되고 있다. 나 역시 비슷한 시기 남성들의 보복문화에 대해 『한겨레』에 6개월 동안 칼럼을 썼다가 수없이 많은 욕설 메일을 받았다. 그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여자도 군대 가라. 하지만 신체적으로 모자라니 정신대나 가라"라는 내용의 글이었다. 당시 군가산점 위헌 소송을 제기했던 이화여자대학교 출신의 5명에게는 '이화오적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술한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면서 페미니스트들이나 여성단체를 희두들 거리 하지 않는 편안스러운 이기적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 "군필자를 모욕했다"는 등의 가상 시나리오를 마치 사실처럼 유포하며 가상의 적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들은 여성(집단)을 비합리적인 피해망상 집단으로 분류하고 마녀사냥에 나섰다.

> [예시] 멍석말이 대상이요___
>
> 자기들에게 이득이면 남자들이 위선만 떨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싶은 욕망이 충만해 보이는 글들이 넘쳐나는군요___ 이런 이유로 자기들이 손해 보는 일에는 절대 나서지 않는 이기적 집단이 여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
> 이 대권토의 테이블은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쉬쉴 뛰어나고 있다. 작은 군가산점 폐지에 집착했던 한국여성민우회와 여대생 대표들 또한 대학교와 더불어 모성보호전담팀 보론장. 요주에 폐지를 하는 이화여대 여성부 등 여성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 대표 토론

거세졌다.[1] 호주제, 모성보호관련법 등 여성문제를 토론하는 토론장 어디에서나 군가산점과 병역의 의무에 대한 의견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 그런데 여성정병제와 관련해서 남성들의 의견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여자도 군대를 가봐야 남자의 고생을 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힘든 일을 여자에게 시키고 싶지 않았던 남성의 보호에 대해 고마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여성이 국방의 의무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은 '보호받는 여성'과 '보호자 남성'이라는 구도를 만들어내고, 이 구도는 '보호받아야 할 여성'과 '보호받을 필요 없는 여성'으로 여성을 이분화시키면서 정교해진다. 보호받아야 할 여성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여자친구와 어머니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결코 평등을 요구하지 않고 남자친구와 아들의 고생스러움을 심본 이해하고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대변한다.

> 남녀 공동 징집이 이루어지면 현재의 군복무 기간이 반으로 줄어든다. 고로, 아들이 있는 여성이라면 남녀 공동 징집을 지지해야 한다. 물론 여성운동가들은 남녀 공동 징집을 반대한다. 그들은 루저집이 박힌 남성에 대한 적개심으로 인해 아들 사랑이라는 천륜을 저버렸다. 여성운동가들은 나중에 늙어서 아들에게 봉양 받을 자격이 없다.
>
> -여성정병추진위 게시판에서

"아들에게 봉양받을 자격"이나 "아들 사랑"이라는 천륜을 말할 수 있는 감정은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의무가 아

[1] 일어나 입법안에 대해서는 권김현영, 「군가산점 소송과 여이의 배치」, 『여성과 사회』 11호 참조.

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에서 기인한다.

한편, 병들을 주장하는 여성들은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고 간주된다. 이들은 보호받는 위치를 벗어나 동등한 자격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보호받는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여성 역할에 대한 남성 판타지는 평등을 요구하는 여성들이 여성성을 잃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정신대 갔다 온 미나 하라"고 메일을 보낸 이는 아마도 여성성(비너성기)을 잘 제모하지도 못했다는 의지가 표출된 것이리라.

> [제목] 여성혐회에게 선물하고픈 것.
>
> 된 목이 그거 한 대 맞고, 누구 탓을 건데..공무원 시험 몇수 몇 십 몇을 때..하긴 보므지 정○○한데 나네 같은 멀쩡한 여자 1000명 강간당해도 그깟 일쭉이다..
>
> -나무누리 클라자

통상 군인은 적의 침략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받는데, 이때 '보호'는 신체조건상의 우월성(남성성)으로 쉽게 증명된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신체조건상의 우월함이 남을 침략하기 용이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다시 말해, '전시'의 생존을 위해서는 항상 '평화' 시의 폭행등을 견뎌야 한다는 논리가 배태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폭력에 대한 승배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다.

> [비전] 이대 앞에서 정모 합시다!!
>
> 소지품 : M16, 대검1, M61, 클로, 베레타 등등 기타 BB탄등의 총기!
>
> 계획 : 정문과 후문으로 조를 나눠서...

여성의 결혼과 병역의무

군가에 대한 의무는 곧장 영역에서의 희생(전투)과 남성역할을 가리킴. 그 이것은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여성의 기여는 남성 개인에 대한 봉사로 축소되거나 은폐되었던 것이다. 여성의 기여에 대한 이 같은 평가절하는 여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무상한다는 '이기적인 여자들'에 대한 잔정을 증폭시킨다.

> [제목] 여성의 권리에 의무
>
> 먹을주는 여성과 남성이 권리행사를 주장하기 이전에 남자들에 목숨을 희생해야 주장해야 한다고 본다. 직업이나 여성우대가를 소리를 외치는 여성들이 군대에 가서 남성들과 똑같은 훈련을 받고 제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군대를 갔다 온 남성 여성들에게 혜택이 있다면 갔다 온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유효기에 여성들을 위해서기업이 남성의 특혜를 손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에 여성들은 병역의무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 군인정신은 적을 향해서 전투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
> -여성부 홈페이지 정책토론방

전투적 관점 이외에도 '여성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니다'라는 믿음 등 여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면 주장할 수 없다. 한다를 주장할 수 없다. 한다를 주장할 수 없다. 한다를

가 발생한다는 흥미로운 점은 현실에서 보편적으로 오인되는 것과 같이 여성이 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군사정권 시절 군복무가 사회적 특권으로 작용하였던 부분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우선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였고 사회적 특권을 부여하였던 부분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군사정권 시절 군복무가 사회적 특권으로 작용하였던 부분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우선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였고 사회적 특권을 부여하였던 부분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같은 맥락에서 '군복무 논 문제인 동시에 정책적 동원에 대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는 병역에 남성들을 동원함으로써 국가의 공익인 하기에 대한 긴장감을 환기시키고, '성별 분업의 역할'이라는 '구별짓기'의 확립'을 강조해왔다. 이는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곧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의무이자 헌법상의 권리라는 생각을 심어왔다. 국가는 정집과정이 '선발한다는 점'을 강조함에 국민주가의 정당성 형이 되기 때문에 국방을 위해 필요한 병력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는 병역의무가 '선발'을 위한 장치로 작용하는 것보다는 '배제'의 장치로 작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남성들에 국민의 보기 쉽기 때문이다. 이에 정집 대상자들은 매년 모집기 때문에 병역의무이행을 반증한다. 그러나 준거집단과 선택이 병역의무를 수행하기보다는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수많은 남성들이 병역의무를 수행하기보다는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수많은 남성들이 병역의무를 수행하기보다는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정집 대상자의 성별 격차은 해당 시회가 얼굴적 인간(정상인)을 누구로 규 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상이라를 단적한다.

남녀의 기본적 역할 반응기본은 보편적으로 학교에 선생님과 1~3살이던 때 이후에는 학교 선생님 보통여(우리근무요원) 한정을 받는다. 중등교로 중학교는 선생님과 완전하게 보충적으로 한정된다. 중등 이하, 고아, 혼혈아, 1년 6주밖 이상 실형선고자, 귀화자는 당연으로 공업에 지원중을 면제받는다. 최근 스페인은 19 70 이상으로 공업에 지원중을 낮게 논란이 되고 있다.[1] 고용 이상이 학에 신체상의 결격사유가 없을 때 현역으로 입대 가능하다는 것은 군대 시스템의 인환성에서 정당화한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는 손톱깎기도 오른손으로 용을 보도록 훈련하고, 평균 체격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모든 군사장비가 만들어져 있다. 이상을 정립하는 것이 경제적 용병을 더욱 합리적이라는 근거는 바로 이런 사회이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1] 한국 역할 스페인 군대는 징병 및 직업 군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병은 1991년 이후 폐지되었다. 그러나 스페인은 유럽 국가에서 징병 반대 운동이 가장 활발한 나라 중 하나이다. 스페인 정부는 2002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였다.

군대와 평등개념과 병역의무

나는 여성징병제를 요구하는 남성들의 합리한 목소리를 들으면서이 비로소 근대국가에서 평등한 성원권(成員權)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병역을 필(畢)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는 믿음을 남성들이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토록 당당하게 커다란 목소리로 여성들을 욕하고 무시하고 협박하는 이면에는 여성과 남성은 결코 동등해질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였다.

자국의 징집제는 근대국가 형성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유럽의 경우 15세기 경부터 봉건적 민병대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근대적 의미에서의 상비군 제도가 확립되어 나갔다. 이 시기에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많은 인적 소요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지원제 대신 징병제를 도입하게 된다.[2] 역사적으로 볼 때 군의 관료화는 군복무가 유산자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영예로운 특권으로부터 무산자에게로 전이[3]되면서 이루어졌다. 근대 이전의 군대는 특정한 지역공동체의 방위를 위한 자위군의 성격이 없으며 이 공동체를 소유하고 있는 귀족과 유산자들에 반해서 군복무가 의무화되었던 데 반해, 근대 이후의 군대가 중앙집권적 국가조직에 통합되면서 군복무가 일반 시민들에게 확장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군복무를 평준화하는 데 성공한 근대국가 체제는 장애 동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평등한 의무가 평등권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가정이 필요했다. 물론 식민지 과정에서 근대화를 경험하고 자국의 국토

[2] 노스키(2000). 홍두승, 「병역 군대의 사회학」(서울, 1992)에서 재인용
[3] 마스 베버, 『지배의 사회학』(문을 여러해서).

[10] 이재은 우리아이, "남주역사/남주은 2003. 1월.

[계속] 이상민에게 대통하는 데이트에

이상민은 주민하여 예행을 늦어 없고 만을 선포합니다. 수술 을 나무기 구출하면 그리고 단계가 될 것입니까? (--) 빈약한 모여 해야 같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갈 가 가능 가 가능 가 가능

어 있다.

[제목] 여기서 군대문제를 논하면 무얼하냐...

중요한 건 보여주는 거야. 군도 파업을 하자? 자자.. 누가 먼저 시도할래? 너_너_너? 먼저 선동하면 국가 내란죄로 최소 무기징역일텐데? 10년 300년을 논해도 바뀌지는 않을껄... 국가주의의 망령에 시로잡힌 여기분 대한민국...

-나무누리 톨아자

병역비리 등 남성들 사이의 경쟁의식은 군사화와 징병제에 대한 비판의 칼을 무디게 만든다. 징병을 거부할 권리를 제기하는 '징병제를 반대하는 모임(이하 징반모)'는 현재의 강제징집제하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국가에 의해 침해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며 현재의 강제적인 군복무가 헌법에 명시된 기본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개인 사정에 따라 군복무나 사회봉사, 국방세 부담 등 자율적인 의무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모병제를 채택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징반모'의 주장은 개인의 권리가 모든 권리에 선행된다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권리가 집합적으로 구성되어 '공적 부조'를 합의한 것이라면 때로 공동체에 대한 의무는 개인의 권리에 실제로 배치되기도 하지만, 개인들이 그것을 합의하거나 동조하고 있는 이상 그것은 대립이나 배치가 아니라 공동체의 합의에 의거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제하고 자율적 의무를 보장하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인권의 우선성을 주장한다기보다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에 근접해 있는

것이다.

'징반모'와 양심적 병역기피 등 징병제도에 대한 비판이 여성들이 제기한 군가산점 문제 이후에 등장한 것이 우연일까? 여성들의 입을 다지게 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여성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군대를 둘러싼 오랜 침묵의 카르텔이 무너졌다고도 할 수 있다. 언젠가 조금 더 진화하면, 이들도 자신이 지지르고 있는 "바엘림"을 생활할 수 있게 될까?

'죽이고 싶은 여자'가 되기

최근 부산대 여성주의 웹진 『밥상』(home.pusan.ac.kr/~wolsang)은 에이즈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가 엄청난 봉변을 당했다.[11] "에이즈의 명예를 훼손한 죄"[12]라는 명분으로 "××를 찢어죽이겠다" "강간해 버리겠다"는 등의 성폭력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개인정보가 음란 사이트에 공개되어 폰섹스를 하자는 등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13]

군사문화는 이처럼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공공연한 협박도 "분노의 표현"의 일종이라고 할 만큼 폭력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군대는 초법적이고 폭력적인 남성만의 성역이 되었다. 예비군복을 입었을 때나, 군대 가기 전날에 기념삼아 정병의 징도로 정말에 신고되

(11) 조이제을 지어, '밥상 '밥상' 사이버테러 통보', 『여성신문』, 2001년 5월 18일자
(12) 에이즈 X-파일은 "조국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수고한 에이즈들을 욕되게 한 밥상을 영구 이단하라"며 안티밥상 카페사이트(www.freechal.com/antiwolsang)를 개설했다. 밥상 카페사이트는 www.freechal.com/wolsang
(13) 여성에 대한 사이버 분노와 폭력에 대해 한신대 '군사주의와 여성: 정병제도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탈성도의 평화와 인권 세미나, 한국성문제연구, 2001년 군대 경험으로 여성 세계적인 남성 세도 비교가 발생하여, 군사화된 남성성은 성폭력의 아주 일상적 문제에 깊이고 문제하기도 한다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본 여성에 대한 폭력

정희진

1. <Fucking USA> – 생물화된 민족 범주와 평화운동의 반(反)평화

2002년 주한 미군의 장갑차에 희생된 두 중학생을 추모하는 촛불 시위에서 열창되었던 노래 <Fucking USA>와 고 윤금이 씨 사진 전시는 평화운동가를 포함한 한국 남성이 이 사건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는 1992년 10월 기지촌 성산업에 종사하던 여성 윤금이 씨가 미군 케네스 마클에게 살해되어 '미군 범죄사의 전대일'이 되었을 때의 상황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의 평화운동, 반미운동의 남성 중심성은 별로 변화하지 않은 것 같다. 여성을 탈젠더화하여 민족의 범주에서 재의하는 이러한 방식의 평화운동은, 어떤 의미에서 '민족 전체'가 참여하는 '철저한' 반미투쟁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지향한다고 볼 수도 없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표적으로 한 반미, '평화'운동—<Fucking USA>의 정치학은, 남성에게는 평화를 위한 실천이 여성에게는 성폭력을 선동하는 폭력, 공포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비단 민족 모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집단간 갈등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로로 간주된다는 사실은, 성폭력이 여성의 몸을 통해 남성간 정치를 실현하는 가부장제의 기본 구조라는 것을 말해준다. 전쟁시 발생하는 피점령 집단의 여성에 대한 집단 강간이나 최대적인 가문간 갈등시 상대 집안 여성의 얼굴에 황산을 붓는 동남 아시아 지역의 황산 테러(acid terror)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제작된 '한미 혐로'를 표방한 영화 <태극기를 휘오며>는, 여중생 사망 사건과 촛불 시위를 접하고 울분을 느낀 한국 청년이 주한 미군 사령관과 부시 대통령의 아들을 생 노예로 만들어 SOFA 개정에 성공한다는 이야기이다.[1] 영화는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아 원본대로 출시되지는 못했다.[2] 일본 국민국가내의 지역적 타자인 오키나와인들은 1970년 전후의 전쟁 범죄를 규탄하는 인질극 사건으로 유명한 '도쿄타워투쟁'에서 "전투 희로희로를 교수형에 처하고, 전투의 무인 미치코[美智子]는 만주의 매춘부가 되어 전쟁 범죄를 사죄하라"고 외쳤다.[3]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백인 여성의 성기에 한국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꽂아 제국주의 미국에 복수한다는 남성 판타지는 남정현, 안정효, 황석영 등 민족문학 계열 남성 작가에 의해 반복적으로 묘사되어온 것이기도 하다.[4] <Fucking USA>나 <태극기를 꽂으며>를 실천하는 현대 한국의 남성성도 이 같은 성별화된 민족주의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지촌 지역의 성매매 제도, 전쟁시 성노예(정신대) 문제는 국가가 남성 조직인 군대를 위하여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직접적으로 착출, 동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가 민족주의든 지방적 민족주의든 남성 중심적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미군에 의한 기지촌 여성 살해는, 한국 여성에 대한 미국 남성의 성폭력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가한 폭력이 된다. 이때 여성,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남성 국가의 소유라는 인식하에 비가시화된다.[4] 여성은 국가, 민족, 가족의 개별 주체-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표상하거나 남성 공동체의 안녕 여부를 증명하는 척도로 간주되는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재생산 능력과 성 활동은 여성 자신을 위해 기능하지 않는다. 때문에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그 여성을 소유한 남성에 대한 폭력으로 의미화된다. 즉 성폭력이 여성 인권 침해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국가 등 남성 중심적 집단간에 갈등이 있을 때 상대편 집단의 재생산 기능, 문화, 정체성을 파괴하는 '궁극적' 승리의 쟁취 수단이자 그 결과라고 간주된다. 성폭력은 그 여성이 속한 공동체의 가장 치명적인 상처, 위협, 모멸을 의미한다. 정신대 문제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침묵되어온 것,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집안의 수치를 걱정하여 폭력 사실을 스스로 은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바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비정치화, 비가시화되고 영속되는 기제이다.

성별화된(gendered) 사회에서 사람은 인간이기 전에 여성과 남성이어야 하며, 성별 관계의 물질등 논리에 의해 사회적 약자는 여성화된 호칭을 갖게 된다. 오리엔탈리즘의 핀더화는 잘 알려진 예로서, 서구와 아시아와의 관계에서 서구는 남성이고 아시아는 여성이다. 또, 한미 관계에서 한국은 여성이고 미국은 남성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고려시대 조공으로 바쳐졌던 환관나노婢女, '화냥년'의 어원나 일제 시대 정신대의 예를 잊는 오늘날 기지촌 지역 성매매가 한국이 외세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한 불가피한 문제로 인식된다. 즉 국가간 세력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자동적으로 약소국 여성이 강대국 남성에게 종속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미국은 군사력, 경제력 등에서 이탈리아보다 훨씬 강력하지만 미국인들이 더 "사고" 싶어하는 것

1) <한겨레>, 2002년 12월 27일자.

2) 최민희, '광주항쟁과 오키나와와 천황제', '광릉 광주, 한반도의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로',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한국위원회 자료집, 2000, 17쪽.

3) 일제인 편, 최정무 공편, Dangerous Women, 박은미 옮김, '위험한 여성—한미와 한국의 민족주의', 삼인, 2001.

4) 김은실, '서구화, 국민국가 그리고 여성의 섹슈얼리티', <여성학논집> 제19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2.

다. 이때 여성,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남성 국가의 소유라는 인식하에 비가시화된다.[4] 여성은 국가, 민족, 가족의 개별 주체-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표상하거나 남성 공동체의 안녕 여부를 증명하는 척도로 간주되는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재생산 능력과 성 활동은 여성 자신을 위해 기능하지 않는다. 때문에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그 여성을 소유한 남성에 대한 폭력으로 의미화된다. 즉 성폭력이 여성 인권 침해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국가 등 남성 중심적 집단간에 갈등이 있을 때 상대편 집단의 재생산 기능, 문화, 정체성을 파괴하는 '궁극적' 승리의 쟁취 수단이자 그 결과라고 간주된다. 성폭력은 그 여성이 속한 공동체의 가장 치명적인 상처, 위협, 모멸을 의미한다. 정신대 문제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침묵되어온 것,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집안의 수치를 걱정하여 폭력 사실을 스스로 은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바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비정치화, 비가시화되고 영속되는 기제이다.

성별화된(gendered) 사회에서 사람은 인간이기 전에 여성과 남성이어야 하며, 성별 관계의 물질등 논리에 의해 사회적 약자는 여성화된 호칭을 갖게 된다. 오리엔탈리즘의 핀더화는 잘 알려진 예로서, 서구와 아시아와의 관계에서 서구는 남성이고 아시아는 여성이다. 또, 한미 관계에서 한국은 여성이고 미국은 남성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고려시대 조공으로 바쳐졌던 환관나노婢女, '화냥년'의 어원나 일제 시대 정신대의 예를 잊는 오늘날 기지촌 지역 성매매가 한국이 외세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한 불가피한 문제로 인식된다. 즉 국가간 세력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자동적으로 약소국 여성이 강대국 남성에게 종속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미국은 군사력, 경제력 등에서 이탈리아보다 훨씬 강력하지만 미국인들이 더 "사고" 싶어하는 것

4) 김은실, '서구화, 국민국가 그리고 여성의 섹슈얼리티', <여성학논집> 제19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2.

일 것인데에 여성이 아니라 이탈리아인 가능 계몽이다. 미국인들 및 일국민 전체가 갖고 있는 이탈리아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이러한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기반하고 있다. 이탈리아인 남성은 여성적이고 나약하며 게으르고 무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이탈리아인 남성이 미국 남성에 비해 여성적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결국 남성은 한국 남성이나 미국 남성이나 모두 강간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되지만, 한국 여성이나 미국 여성의 몸은 남성 집단간 싸움의 대리 전쟁터로 제공된다. <Fucking USA>의 논리는 바로 로완다, 구(舊)유고, 동티모르 등 모든 전쟁터에서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집단 강간의 면죄부였다. 이러한 남성 이데올로기에서 여성은 '인간'이 아니라 남성 국가가 소유한 기호(icon), 상징, 판타지, 가족, 민족 그 자체가 된다. 그러므로 강간하는 남성의 입장에서는 여성을 강간하는 것이 아니라 적국을 강간한 것이 된다. 제1차세계대전 당시의 전쟁 독려 포스터들은 국가 자체를 여성의 몸으로 간주하여, 독일이 "벨기에를 강간했다"며 연합군 동원 논리를 만들었다.[8] 이렇게 국가가 여성의 몸 자체라는 남성 논리는 11년 전 윤금이 투쟁 당시에도 그대로 재연되었다. 당시 수많은 등장인물들은, "미국이 한반도(윤금이)를 강간했다," "윤금이 몸에 뿌려진 하이다노(제초제)는 한반도에 뿌려진 미군의 정액이다"고 주장했다.[9]

이러한 논리는 여성의 몸을 대상화, 수단화한다는 점에서 여성 인권 침해이기도 하지만, 여성을 끊임없이 타자로 만드는 이러한 남성 중심적 민족주의로는 – 근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자체가 실적, 지역적, 인종적 타자의 존재를 전제하는 배제와 포함의 정치라는 것은 자치하더라도 – 실상 미국에 제대로 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타자를 필요로 하는 주체는 온전한 주체일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과 공존할 수도 없지만 여성 – 타자 없이 살 수도 없는 남성 주체는 여성에게 희생양으로서만 생존 가능하다.

<Fucking USA> 심천이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논리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남성 주체성이 둘 다 매우 생득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이 되는 것, 남성이 되는 것은 모두 미국 여성이든 한국 여성이든 여성과의 섹스(강간)를 통해 생립된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10대 남성들이 남성성을 획득하는 집단적 통과 의례로서 윤간(gang rape)을 행하는 것, 군대 입대 전 '진정한 남자 되기(총과 박지 빠개)' 과정으로서 매춘 독려와 같은 남성 일상 문화의 연장선상에 있다(총과 박지 빠개'라는 말의 배타적 정복의 정치학 남성에게 섹스가 성인 되기의 완성 수단이라는 것을 함의한다). 기지촌 여성으로서 윤금이가 살았던 삶의 모순과 억압성에 대해, 상처받은 전혀 문제화되지 않고, 미군에게 죽었다는 사고를 문제삼는 민족의 이익이 우선인가, 남성의 이익이 우선인가라는 질문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남성이 우선이라는 대답 역시 윤금이 투쟁 당시에도 그러했듯이 여성을 민족의 상징이나 남성 주체의 부속물로 간주하는 것이다.

2. 성별화된 평화운동

모든 재현(re-presentation)은 현실을 구성하는 담론의 일부이며 실천이기 때문에, 현실의 권력 관계를 반영한다. 현실에서 권력과 지위가 있는 집단은 포르노그라피의 대상으로 구성되지 않으며, 이러한 재현물은 '홈랑'에도 실재한다. 현실 세계에서 인간성을 박탈당하고 열등한 자로 낙인찍힌 사람이 최면에서 고문당하는 경우와, 권력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고문당하는 경우 관객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다. 전자의 경우 쾌락을 느낀다면 후자의 경우는 심한 불쾌감으로 다가온다. 나치 독일의 선전 장관 괴벨스가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더욱 증폭되리라는 효과를 기대하며 (유대인 만큼이나 여성이 아니라) 유대인 남성 장교를 살해하는 내용의 스너프(snuff) 필름을 제작했을 때 관객의 저항으로 상영되지 못한 일은 그

[8] 필유진, 제시된 룸, 김은실 외, 정희진 엮어 기록, '국가의 반토가 개인의 반토는 아니다: 미국의 군사주의와 기지촌 여성', <당대비평> 18호, 삶인, 2002.

[9] 당시 윤금이 투쟁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정희진, '죽어야 사는 여성들의 인권, 한국기지촌여성운동사', '한국 여성인권운동사', 한울, 1999.

[10] 안드레아 드워킨, '포르노그래피: 욕구를 소유한 男子들', 유혁 옮김, 동문, 1996.

[11] 여성 대한 자연 논리는 정유진, '민족의 이름으로 순혈의 혼혈-수잔 브라운밀러 여성', <당대비평> 11호, 삶인, 2000.

대한 서로 운동과 이념기로도 한국의 평화운동 역시 발상적 성별 질서에 기초하고 있다. 운동 방법에 이용적으로 여성이나 어린이 같은 사회적 소수자의 희생적인 상징을 강조하는 경우든, 한다를 대한 사회의 모순의 해부 구조, 영향을 '받는' 구조적인 상황하는 평화운동은 근거를 갖는다. 다만 이러한 성별 대상화수기이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설득 요소

것이다. 그래서 평화는 늘 정적이고 고정화된 이미지로 존재한다. 이에 비해 전쟁은 능동적, 영웅적, 남성적이다. 평화는 이런 저극적인 것들의 부재를 의미한다. 그러나 전쟁과 같은 국가 폭력뿐만 아니라 남성 폭력의 위협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여성에게 일상과 전쟁의 구별은 무의미하다.

이처럼 평화와 전쟁에 대한 성별화된 이미지를 문제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현재 한국의 평화운동은, 여성에게는 폭력 구조의 일부가 될 수 있다. 평화는 '새로운 사회상'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운동이 젠더라는 가장 일상적인 억압 구조에 기반하여 진행된다면, 평화는 진보의 가치가 될 수 없다.

여성'도' 참여하는 평화운동의 의의가 적지 않지만, 여성주의 시각의 평화운동과 여성이 하는 평화운동은 구별되어야 한다. 일부 여성운동 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여성평화운동에서의 민족주의의 동원력'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주의 시각의 평화운동이 갖는 어려움과 한계를 보여준다. 몇몇 여성주의자들은 "민족주의가 남성주의인 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중운동을 끄나가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는 민족주의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여성주의의 영향력이 민족주의의 동원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한국사회현실에서, 이 주장은 언뜻 설득력 있게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옳고 그름을 떠나 근본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성별 관계에서 '한국의 여성상'의 특징인, 희무를 권리로 생각하는 일물의 착각이라고 생각한다. 약자가 강자를 이용할 수 있다는, '노예'가 '주인'을 동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실현 가능할까? 한국사회에서 마르크시즘, 국가주의, 가부장제, 민족주의, 유교주의가 혹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남성 중심적 해석이 지금 여성을 억압하는 직접적인 논리로 작동하고 있는데, 피억압자가 자신을 압박하는 세력을 자기편으로 '동원'할 수 있을까? 자신이 동원, 이용되고 있으면서 자신이 동원하고 있다는 이 착각은 어디서 연유한 것일까? 여성 이슈를 민족주의의 동원력을 이용해서 해결하려는 시도는, 여성운동의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할 수는 있을지언정 실상은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구상은 관념의 세계에서나 가능하다고 본다. 그것은 '민족주의를 이용한' 여성운동이 아니라, 성별 권력 관계의 변화 없는 민족주의의 해결일 뿐이다. 결국 여성운동이 민족주의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 운동에 여성이 동원되는 것이며, 수단이 목적을 압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3. 성폭력 개념을 둘러싼 성별 권력 관계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여 성차별이라고 하듯이, 성폭력(gender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의미한다. 1993년 유엔이 채택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제1조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적,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 해악과 여성에게 고통을 주거나 위협하는 강제와 자유의 일방적 박탈 등 성별 제도(gender)에 기초한 모든 폭력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1995년 4차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는 여성 폭력에 대한 행동 강령을 채택하였는데, 그에 근거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의와 종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아동구타, 강간, 여아 낙태, 근친 강간, 생식기능에 해한, 음부 통합 등);

②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강간, 성희롱, 성적 위협, 인신매매, 강제 매춘, 포르노, 음란 전화, 성기 노출, 황산 테러(acid attack), 지참금 살인(dowry death), 산부 화상(bride burning), 아내 순사(殉死), 전족(foot binding), 과도한 다이어트와 성형 수술 등);

③ 국가에 의해 자행되거나 묵인되고 있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정신대, 기생 관광, 기지촌 성매매 등);

④ 특수 상황에 있는 국가에 대한 폭력(소수민족, 피억압 민족 여성에 대한 폭력 또는 무장 분쟁 시 모든 여성에 대한 폭력).

⑤ 일신 관련 폭력(우리 법상 강제 낙태, 직장에서 강제적 성적 사용, 여아 및 아동 성폭력, 인신매매(trafficking) 등).

또 남 선 사회 문제가 되었던 고려대 학생회 이해에에 속해 남자 선배들이 신입생 여학생들에게 술을 드려는 문화를 강요하는 것이다. 그것은 남성 선배가 후배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폭력이다. 이러한 폭력 개념 정립을 통해 1985년부터 1996년까지 12년 동안

---

15) Ofelia, Mara R. "Radicalizing of Time: Cerebral Violence in Feminism and Women in Cinema and Buenaventura." *Modern Anthropology*, Vol.12, No. 1, March, 1996.

사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성폭력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라 '가부장제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다.

4. 여성의 몸은 욕망의 대상 인가

여성 운동Feminism movement는 기존의 시각에서는 비가시화된 문제가 대부분이다. 그것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의 피해를 비가시화시키는 남성의 논리를 비판, 해체할 수 있어야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여성 스스로 문제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남성 중심적 언어로 표현되는 기존의 틀에 갇혀 있다. 여성이 '내가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남성 중심적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 속에서 여성은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라는 피해자로 규정되어 버린

이성적인 언제나 피해자일 것입니다 그것보다 그 여성이 속한 집단이 얼마나 관심적으로 그러한지 밝혀 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성 운동가들 스스로 이것을 더 강조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성심현실 2003, 「가해자 중심 사회에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원칙」, <나눔터> 43호, 한국성폭력상담소 편지

김혜원, 윤덕경, 박현미 1999, 「성폭력범죄 재정 이후 성폭력 방지에 관한 법률 연구」, 대법원 연구, 대법원재판연구 66-76쪽

김은실 2001,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김은실 2002, 「국가폭, 국민국가 그리고 여성의 폭력경험」, <여성학논집> 제19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민도혜이 크리스 1996, 「포스트그라의 로즈를 소유하는 것구들」, 유혁린 옮김, 문문선

우에노 지즈코 1999, 「대서양전쟁과 젠더」, 이승미 옮김, 박종철출판사

일본의 식, 최정무 공편 Dayeon Kim, 박은미 옮김 2001, 「쉬쉬한 여성-일본여 현국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여성성」을 인식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여성은 언제나 성적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성주의 입장에서 볼 때 성폭력 사건 문제의 심각성을 역설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성폭력 사건이 여성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여성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과 공포, 우울증, 수면장애, 대인기피증, 자기혐오, 자살충동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들은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거나 심지어 배척당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으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한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며 사건 자체를 잊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반응

나는 이 사건의 공론화 과정을 주도한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100인위원회'(이하 100인위 위원회)서 2년 반 동안 피해자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원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억고소를 당했던 '당사자'이다. 따라서 KBS사건을 기록한다는 것은 2년 반 동안의 싸움을 해석하는 것과 동시에 기록자인 나의 3년간의 변화 또한 설명해야 함을 의미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을 '미해결'로 남게 한 권력 관계와 구조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건 해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에서 어떤 담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다시 성찰해보고 싶다. 강○○가해남성의 성폭력 가해,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자행한 2차 가해들은 명백했는데, 어떻게 이 사건은 가해자 처벌 없이 '미해결'로 끝나야 했던 것일까? KBS사건의 정치적 의미는 바로 이렇게 '명백한' 사건이 '미해결'로 끝나는 과정에 개입된 법·제도·문화 권력의 성별성을 여성주의 시각에서 다시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얻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 문제의 과정

1) 2000년 10월, 끝내도 끝나지 않았다

KBS 노조 성폭력 사건은 1996년과 1997년 당시 노조 간부였던 가해자로부터 각각 강간 미수 및 성추행 피해를 당한 두 여성이 2000년 10월 말 가해자가 노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가해자 강○○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이 사건을 공개한 피해자들 외에도 더 있다. 피해여성들은 대부분 KBS 노조에서 채용한 '여직원' 신분이었고, 노조 전임 간부였던 가해자는 업무상 상사-부하 직원 관계와 '노동운동가'로서의 신뢰를 악용하여 여러 차례 성폭력을 저질렀다.[7] KBS 노조는 예전부터 2~3명

7) 사건을 고용해결로 이끈 피해자들은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100인위원회'(이하 100인위 위원회)와 '성폭력상담소 새움'의 상담원들이다. 이들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가해자 강○○의 노조 위원장 선거 출마 저지를 위해 노력했으며, 가해자 강○○이 당선된 이후에는 노조 내부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가해자 처벌을 위한 싸움을 계속해왔다. 이 사건을 고용해결로 이끌어낸 것은 피해자들의 끈질긴 싸움의 결과이다. 2002년 7월 4일 열린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KBS 노조 간부 강○○의 성폭력 가해 사실을 알고 있는 노조 집행부가 강○○의 당선 이후 피해자들에게 가한 2차 가해 행위들"을 폭로하였다.

에 재위치시키는 작업이며, 따라서 '형제'의 시절, 입장, 맥락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KBS 노동조합 간부 성폭력 사건이라 'KBS 사건'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작업은 나에게 적잖은 괴로움과 고민을 안겨준다. 2년 반이 넘는 기간 주머니를 털어 후원금을 보내준 이름 없는 이들로부터 여러 운동 단체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함께 열심히 싸웠지만, 피해자들의 삶 속에는 아직 피해의 여파가 남아 있다. 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기는커녕 작년에 KBS에서 승진했으며, 가해자 징계권을 가진 KBS 사측은 3년 전과 똑같이 여전히 "성폭력 사실 여부에 있어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공론화를 통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리게' 할 수는 있었지만, 애초에 피해여성들이 원했던 가해자의 사과와 징계는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 사건인 것이다.

이렇게 끝났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 큰 분노이자 상처였기 때문에, 이 장의 제목을 '결론 없는 사건을 다시 생각하며'로 정했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초고를 보여줬을 때 '결론 없는 사건'이라는 표현에 대한 최서린(가명) 씨와 손유영(가명) 씨의 의견은 달랐다. 손유영 씨는 지금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너무나 맞는 표현'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묻어둔 억울함과 분노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고 했고, 최서린 씨는 '결론이 없다'는 것 자체가 가해자 중심의 시각인데 그것을 비판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는 두 분의 말이 모두 맞다고 공감하면서, 동시에 내가 이 사건에서 어떤 위치positon에 있고 지금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를 객관화할 수 없게 되었다. 해결할 수 없게 한 사회에 대한 분노와 해결할 수 없었던 지원자로서의 자책감이 동시에 있었다. 사실 최서린 씨와 손유영 씨의 입장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피해 사실을 말하고 오랫동안 싸웠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성폭력 사건의 생존자들이 느낄 수 있는 당연한 감정들이고,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고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유하기 위한 하나의 실마리로 보아야 한다.

100인위는 2000년 6월 30일에 개최되었던 <이제는 말하자 순天시 성폭력> 토론회를 계기로 2000년 7월에 결성되었다. 토론회는 순天시내 기부상납과 성폭력 문제 구조에 대해 분석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6개 단체(총무에서인권위원회·새움여성노동자회·상담소 나눔·순天대학교 학생회·순天여성의전화·순天YWCA)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그러나 가해자는 토론회 직전 사퇴하고 올해 선거에 출마하였으며, 토론회는 공개적으로 가해자 강○○의 성폭력 가해사실을 확인하였다. "당신들 말이 맞다"는 피해자들의 공감과 지지 속에서 피해자들은 "당신들 말이 맞다"는 확인을 통해 "우리가 겪은 것이 성폭력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내가 겪은 것이 성폭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너무 괴로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 토론회 이후 피해자들은 가해자 강○○의 성폭력 가해사실을 확인하고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하기로 결심하였다.

2) 100인위 사건 공개 공론화 과정 약술

100인위는 2000년 6월 30일에 개최되었던 <이제는 말하자 순天시 성폭력> 토론회를 계기로 2000년 7월에 결성되었다. 토론회는 순天시내 기부상납과 성폭력 문제 구조에 대해 분석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6개 단체(총무에서인권위원회·새움여성노동자회·상담소 나눔·순天대학교 학생회·순天여성의전화·순天YWCA)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그러나 가해자는 토론회 직전 사퇴하고 올해 선거에 출마하였으며, 토론회는 공개적으로 가해자 강○○의 성폭력 가해사실을 확인하였다. "당신들 말이 맞다"는 피해자들의 공감과 지지 속에서 피해자들은 "당신들 말이 맞다"는 확인을 통해 "우리가 겪은 것이 성폭력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내가 겪은 것이 성폭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너무 괴로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 토론회 이후 피해자들은 가해자 강○○의 성폭력 가해사실을 확인하고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하기로 결심하였다.

고 생각했다. 사건 공개와 동시에 연좌시를 하는 거의 모든 단체 앞으로 "공대위 결성을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2차 실명 공개 직전에 제일 먼저 여성단체에 제안했던 공대위 결성이 좌절되면서 초반부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다.

당시 공교롭게도 정신대 피해여성을 위한 '나눔의 집' 실무자의 성폭력 사건-일명 '혜진 사건'[8]의 파장이 커지고 있던 시기에서, 여성운동단체들과 접촉 자체가 어려웠다. 또한 당시만 하더라도 100인위와 실명 공개 운동에 대한 여성단체 내부의 갑정과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100인위가 공개한 사건의 공대위에 참여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다. 여성운동가들의 100인위에 대한 복잡한 감정은, 가해자 실명 공개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미칠 구체적인 영향을 걱정하는 입장에서부터 100인위가 진보 진영을 흔들 내는 '프락치'가 아닌지 의심하는 입장에 이르기까지 세대와 정체성에 따라 다양했다.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100인위의 1차 실명 공개가 3개월 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100인위가 공개한 사건에 연대한다는 것은 곧 모든 영점에 대해 100인위 입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와 부담도 있었을 것이다.

연대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어떤 여성단체는 "일단 노조의 자정 능력을 믿어보자"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를 '진보적' 여성운동, '남성 진보 진영'의 일원으로 정체화해왔던 여성단체들의 역사에서 나온다. '진보 진영'과 여성운동단체의 친밀성과 위계 관계는, 여성단체 활동가 중에서도 100인위를 '인기부 프락치'로 생각한 이들이 있을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 '노조 내 해결' 과정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보

8) 100인위가 여성단체들에 연대를 요청했던 2001년 2월 초~중순 시기는, '혜진 사건'이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되어 비공개로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하던 차에 2001년 2월 17일 가해자의 소위 '항심도에 기자회견'으로 사건 해결에 커다란 혼선과 파장이 빚어졌던 시기였다. '혜진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자료실에 등록된 <혜진 스님에게행한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를 참조(http://www.womenlink.or.kr/archive/list.php?mode=content&category=100&subcate=&id=1012001050&page=1&search=&search_cate1=&search_cate2=&search_cate3=&key=).

실제라는 형식적 절차가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들은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다. 사건의 공론화가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건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이 피해 사실을 말한 이후 더 큰 피해와 고통을 당하게 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2001년 2월 8일, 100인위는 총회와 온라인 투표를 거쳐 KBS 노조 성폭력 사건을 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월 12일부터 KBS 노조 사건 대응팀[7]이 한 사회과학연구단체의 사무실을 임시로 빌려 '상근'을 시작했으며,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2월 19일 100인위 온라인 게시판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을 공개했다. 가해자 추억 의해 '반대파의 정치적 음모'로, '가해자·노조·진보운동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배후 세력의 사주를 받고 하는 거짓말'로 매도되었던 피해자들의 경험을 '성폭력'으로 명명하고 공표한 것이다.

가해자 실명과 함께 사건을 공개하면서 100인위가 요구했던 것은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징계, KBS 노조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 들이었다. 당시 성폭력특별법 고소 기간1년, 여성부 제소 기간1년, 노동부 제소 기간3년을 모두 넘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해결'-최소한의 피해자 보호와 권리 회복, 가해자 징계, 재발 방지 조치 등-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은 KBS와 KBS 노조에게 있었다. 그러나 KBS 노동조합은 새로 부위원장이 된 가해자의 편에 섰고, KBS 사측은 이 사건을 모르는 척 했다. 아예 100인위는 사건 공개 이전부터 여성운동단체와 여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다른 사회운동단체들을 광범위하게 아우르는 '공대위'를 결성하여 대항 담론과 사회적 압력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7) 재벌 여성활동가들의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한 100인위에는 단체 대표도, 수직적인 의사결정체계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차 공개 이후에는 100인위 내부에 '대응팀'이 만들어져 속각적인 결정과 대응이 필요한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2차 공개의 경우 당시 가해자가 KBS기자이자 노조 부위원장이라는 권력 자원을 지니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다양한 차원의 압력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KBS 노조 사건 대응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하였다. 나는 2001년 2월 초 'KBS 노조 사건 대응팀' 결성 여부의 결정하여 최근까지 100인위 활동가로서 이 사건을 지원해왔다.

다는 오히려 혼돼해왔던 구조에 대한 분노에서 출발한 100인위로서는 어려운 입장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미 KBS 노조 내에서 2차, 3차의 피해를 당하고 있었던 피해자들 역시 절망감을 느꼈다. 결국 예초의 목적과는 달리 '공대위'는 21개 단체로 구성된 'KBS 노조부위원장 장○○ 성폭력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되었고, 여기에 참여한 여성단체들도 있었지만 주요 실무 활동은 사회운동단체가 주축이 되었다. 공론화의 내용과는 별개로, 공론화의 주체가 100인위였기 때문에 사건 지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공대위 결성이 어려웠다는 생각으로 나는 오랫동안 무척 괴로웠다.

3) '연행자'가 돌아다니게 하는 모든 곳이 '여성접근권 성폭력'

어렵사리 결성된 공대위는 여론화 작업을 통해 가해자 징계 등을 강제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2001년 5월 13일 홈페이지를 개설했고(http://antikcg.jinbo.net), 5월 말부터는 정기적으로 KBS 본관 앞 아침 집회를 개최하였다. 또 기자회견[10] 10여 차례의 성명서 발표, 각종 공문 발송, 서명운동 등을 통해 여론화에 힘을 모았다. 공대위와 더불어 많은 여성단체들과 여성주의 연구자·활동가들, 사회운동단체, KBS

[9] '공대위'에 참여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경남여성회·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동아대학교인주동문회·또하나의문화(여성주의연구회)·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사회진보연대·언니네·운동사회내가부장성폭력문화주의철폐를위한여성활동가모임·운동사회성폭력투쟁기100인위원회·한국학생회협의회·진보네트워크센터·청년생태주의자 KEY·청년진보당·페미니즘연대·학내성폭력근절과여성권확보를위한여성연대회의·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사)한국여성연구소·(가나다순, 총 21개 단체, 2001년 4월 28일 당시).

[10] 2001년 4월 9일 100인위·100인위문화 공동변호인단·공대위의 공동 주최, <KBS 노조 장○○ 부위원장의 성폭력 사건 전면부인과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공동기자회견>, 한국일보 느티나무 카페. 이 기자회견은 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에 대한 사회적·법률적 대응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자리로서, 공동 주최 3개 조직 각자의 입장과 함께 개인 연명 피진서가 처음 발표되기도 하였다 (김은실·김현미·김효선·박혜란·유승희·이소희·조혜정).

노조 안에서 피해자들을 돕는 조합원 모임 등이 여름에 함께했다. 이에 힘입어 4월 중순에는 KBS 노조 8대 집행부에 대한 탄핵 투표가, 그리고 2001년 5월 10일 전국언론노조의 가해자 중징계조합원 자격 박탈 결정이 이어졌다.[11]

그러나 가해자 및 8대 집행부는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상황을 전국언론노조와 KBS 노조 간의 '노-노 갈등'으로 몰고 가며 전국언론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얼마 안 있어 KBS 노조는 자신들이 악의했던 손유영 씨에 대한 '특별 휴급 휴가'를 철회하고 손유영 씨에게 '출근명령 통보'를 보내왔다. 손유영 씨는 이 일방적인 악속 철회에 대해 '가해자와 함께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출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항의했지만, 8대 집행부는 아무런 답변 없이 7월부터 급여 지급마저 중단했다. 결국 KBS 노조 내부의 징계도 받아들이지 않고, 언론노조의 '진상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징계에 대해 노조 규약상의 재심 청구도 하지 않으며, 오로지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초지일관 주장했던 가해자는, 재탄핵 투표에서 탄핵이 가결되고[12] 이에 대한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다음 날인 2002년 2월 22일에 이르러서야 노조 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난다.[13] 100인위 실명 공

[11] 전국언론노조, <KBS 장○○ 부위원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진상조사보고서-축약본>, 2001년 5월 10일, 언론노조 홈페이지(http://kuon.jinbo.net/mayibbs/view.php?db=kfpu&code=bd04&n=344&page=3) 참조.

[12] 8대 정·부위원장에 대한 1차 탄핵 투표는 2001년 3월 21일 KBS 노조 대의원 94명의 탄핵 발의에 따라 2001년 4월 17~19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결과는 탄핵 찬성 43.2%로 3분의 2 찬성 기준에 미달하여 아깝게 부결되었다. 2차 탄핵투표는 2001년 10월 17~19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90.75% 찬성으로 정·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었다.

[13] 2001년 10월 8대 노조는 언론노조의 징계와 2001년 10월 KBS 노조 조합원들에 의한 재탄핵투표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언론노조를 상대로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와 '임시총회결의 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 민사50부는 2002년 2월 21일, 위와 가처분 신청(2001카합2776)을 기각하였고, 바로 다음 날인 2월 22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가해자 측은 '사의를 표명'한다.

과정은 철저히 가해자 시각에 따라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 검찰은 우리가 제시한 여러 명의 중요 참고인들 중에서 단 한 명만 조사하였고, 100인위가 검찰에 제출했던 자료들 중 일부는 기록에 편철하지 않거나 참고하지 않았다. 특히 2001년 4월 9~10일에는 피해자들에게 사전 고지조차 없이 적대적 분위기에서 가해자와 대질 심문을 벌이는 등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 과정상 권리를 침해하였다.

학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100인위는 대표자 없는 '개인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명예훼손 피소의 부담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고민했다. 공동 책임의 방법이자 실명 공개 운동의 공익성을 주장하는 시위의 일환으로 2001년 4월 10일 1차 검찰 소환 당시 회원 다수가 함께 검찰에 출두하였다. 물론 "우리 모두를 조사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실명공개 당시 보도자료에 담당자로 명시되었던 나를 100인위의 대표로 지명해달라는 가해자의 의사에 따라 명예훼손 학고소 사건의 피의자는 피해자 2명과 나, 이렇게 3명이 되었다. 검찰은 2001년 7월 중순 참고인 조사를 마지막으로 별다른 조사도 없이 4개월을 끌다가 11월 30일에 어느 허위사와 같작스럽게 피해자들과 100인위 활동가로 지목된 나를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사들의 노고, 후원금을 모아 재판 비용에 큰 도움을 주었던 KBS 노조 내부의 조합원들,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진술서를 써주었던 많은 사람들, 2,000여 명에 이르는 일반 시민들의 서명, 여성 단체와 각계 인사들의 의견서, 여성단체 대표들의 담당 검사 면담 등 수많은 노

로 이루어졌으며, 주심은 이상희 변호사가 담당하였다. 2001년 4월 9일 공동기자회견에서 공동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100인위원회 공동변호인단은 이 사건에 있어서 100인위원회의 실명 공개는 사회적·법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100인위원회의 실명 공개는 법률적으로도 명예훼손이라기보다는 피해여성들의 '자구적 노력'을 지원해준 정당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성폭력을 고발한 여성들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오히려 고소를 하는 상황에서, 용기 있는 고발자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인권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는 100인위원회에 소속된 여성들은 마땅히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들에도 불구하고[16] 말이다. 우리의 혐의는 '3인이 공모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17]

최시린, 손승영 씨와 나는 요즘도 가끔 만나면 "이럴 줄 알았으면 검찰 조사받을 때, 하고 싶은 말이나 마음껏 할 걸" 하며 술꾼을 모하곤 한다.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서 향후 인생의 몇 년을 재판으로 보내느냐 아느냐 여부가 결정된다는 생각 때문에 위축되어, 검사의 편견과 불공정 수사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억울함 때문이다. 법학자 최금해 씨 허조하듯 취임직으로 조사하면 검사 앞에서 말 하나하나를 신경 쓰며 6시간 넘게 조사받던 날 나는 거의 녹초가 되었다. 피해여성들은 눈앞에서 가해자의 뻔뻔한 거짓말과 그것을 의심 없는 사실로 간주하는 검사의 태도를 견디며 해고 없는 대질 신문을 한 후, 정신적·육체적으로 완전히 소진되다시피 했다. 당시 검찰 수사 기록을 살펴보면 검찰이 문제삼았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음을 알 수 있다. 첫째, (4~5년 전에 있었던) 피해 날짜나 교통편 등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 둘째, 다시는 강○○와 대면하지 않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강○○와 회식을 하거나 인사를 나누는 등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검찰은 피해자들을 일차적으로 의심했고, 지속적으로 의심했으며, 끝까지 의심

16) 2001년 4월 9일에는 여성학자 김현미·조혜정·김은실·김호선·박혜란·윤승희·이소희의 의견서가, 2001년 4월 25일에는 여성 지식인 67인의 의견서, 서울대 대학원생 17인의 의견서, 남성 지식인 24인의 의견서가, 2001년 5월 2일에는 권인숙·서곡숙·이학래경·이숙경·최보은의 의견서가 발표되었다. 한편 2001년 4월 18일에는 7개 여성단체가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그 다음 날에는 3개 여성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들과 100인위에 대한 조사가 끝난 직후인 2001년 4월 26일에는 당시 여성단체 대표 3인(이경숙·정강자·최영애)이 서울지검 남부지청의 차장 검사 및 담당 검사를 면담하였다. 그 밖에도 공대위와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들도 검찰의 물리소 처분을 요구하는 다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7) 적용된 법조는 형법 제 307조 2항(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1항(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제 30조(공모)였다.

[15] 서울지방 남부지원 2001고합194호판결 양진환 사건 공판 조서 중 증인 이○○ 진술부분

○○에 대한 신문 내용 기재

[16] 2001고단8142, 서울지방 남부지원 단독3부판사 우진환

[17] 2001고합194호, 서울지방 남부지원 합의3부판사 양진환

검찰의 기소로 피고인이 된 우리는 이제 법정에서 두 가지-성폭력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과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를 입증해야 했다. 기록상가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된 것이다. 재판은 검찰이 내놓은 3페 이루어졌는데도 특히 가해자가 증인으로 나왔던 2차 공판이 끝나고 최시린 씨와 밤새 대책 회의를 했던 기억이 난다. 피고석에 앉아 있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가해자의 거짓말을 논박해야 한다는 것이 떨린 분통, 변호사들의 냉정하고 신문에 따라올 거짓이 밝혀지는 과정의 흥미감, 모두 한꺼 섞여 있지 않아 해야 할 말을 분명하게 대변 하는 이 모든 것이 처벌받지 않은 가해자 지지자들에 대한 적대감 등이 뒤섞여 있었다. 특히 재판 때마다 방청석을 꽉 메워주었던 이들은,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정에 서야 했던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점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은 이후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이야기하겠다.

2.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해결'의 의미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해결'의 의미였다. 검찰은 우리가 '해결'을 위해 가해자와 만나고 대화하고 술을 마시고 심지어 가해자의 생일을 챙겨주었다는 점을 들어 '해결'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해자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과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은 가능한 것이었을까?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가해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다.

3. 수많은 사건들의 한 장면들

KBS사건의 정치적 의미는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할 수 있다. 박용석이 사건은 '음모사회 실체'의 전형으로 공론화되었고, 여론 '가해자에 의한 명예훼손 언소주'라는 보고 성폭력 사건의 투쟁적 쟁점에 서용된 사건 피해자 및 고소 기간이 서난 성폭력 사건이라는 이유로 뚜렷한 정치·구체·사법 모두가 불가능했던 사건으로서, 박용석 사건에 문제점을 던진 중요한 계기 사건으로 분석할 수 있다.

1) 음모사회 실체로 '언론 책임 면제 여성 인권 문제'로 그

(1) 100인위원회의 공론화

KBS사건이 공론화된 배경의 정치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100인위원회가 사건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는 이 사건이 '음모사회 실체'로 문제화된 데에는, 성폭력방지와 직장 내 성희롱 등 현행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비가시화시키는 '공동사회'라는 맥락이 있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남성사회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은 KBS사건을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 속에서 동료적인 실천적 지속성과 연대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100인위원회는 사건 발생 후 약 1년 반 동안 KBS 노조 내부 및 언론계 전체를 대상으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공개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100인위원회는 사건 발생 1차 성명 중 국회 공동사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청원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건 발생 1년 후

가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운동 조직은 (자본-미국-기독권 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법의 외부에 그리고 그것에 대립하여 존재해야 한다고 설정된다. 따라서 조직 내 성폭력의 법적 고소나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등과 같은 법률상 의무 이행 등은 당연히 무시된다. 가해자를 비호했던 KBS 노조나 가해자를 징계했던 언론 노조나,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상담 창구, 관련 규정 등을 갖추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KBS사건에서 보듯이, 현행법보다 나은 원칙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도 현행법을 무시하는 운동사회의 문화는 피해자들의 손발만 묶을 뿐, 가해자의 멱에채운 고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진보'의 의미를 독점한 '운동권'이 스스로를 '지의법권' 지대로 설정하고 대의, 조직 보위, 동지애의 이름으로 성폭력을 은폐·재생산해온 것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남성 중심적 운동 문화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잠재적 피해자로 인식하며, 기존 '진보'의 의미를 비판하고 '진보 진영'이라는 단일화된 상상적 공동체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나아가 100인위는 그간 당연시되어왔던 '진보'라는 범주가 여성 활동가의 인권을 무시, 희생시키면서 구축된 남성의 정힘·매석·세계관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음모론'과 '조직보위론'이 팽배하여 배정의 실어리가 보이지 않았던 KBS사건을 100인위가 공개하게 된 것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공론화의 주체가 '진보' 자체를 문제삼는 100인위였기 때문에 KBS사건은 초기 언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남성 주체가 독점한 "진보"의 정의 속에서, 여성의 비판은 '운동사회 내부의 자정과 지속을 위한 고언' 정도로 처부되거나 진보의 바깥 '안기부 프락치의 소행'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100인위 운동은 두 가지 시각을 모두 거부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남성 '진보' 세력에게는 물론이고, '진보' 진영과 복잡한 관계를 맺어온 여성운동단체까지 불편하게 한 정치학이었다.

(2) 음모론–남성간의 권력 갈등으로 치환되는 성폭력

운동사회 성폭력을 문제화할 때 항상 제기되는 대표적 담론인 '음모론'과 '조직보위론'은, 남성의 정힘에서 정의된 '진보'의 대의·조직이 어떻게 여성의 경험을 주변화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우선 '음모론'은 성폭력을 여성 - 남성의 문제가 아닌 남성 - 남성의 문제로 환원하는 방식의 하나이다. KBS사건에서 피해자들의 경험은 가해자와 대립하는 다른 남성집단의 음모로 끊임없이 치환되었다. 2000년 말 노조 선거 당시에는 "상대 후보의 조작"으로, 2001년 2월 100인위 공개 당시에는 "막 출범한 노조의 단합을 훈들려는 세력의 발흥"으로, 2001년 3월 언론노조의 가해자 징계 당시에는 "비리를 감추기 위한 언론 노조 일각의 비이성적 저해"로, 가해자는 전기의 보도처럼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러한 해석 속에서 피해여성들은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배후 세력'의 조종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수단"일 뿐이며, 성폭력은 여성 인권 침해가 아니라 남성간 권력 투쟁에서 활용되는 "힘"일 뿐이다.[10] 피해자들과 친한 주변 사람에서부터 기자, 검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을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논리를 쉽게 받아들였다.

(3) 조직-개인 관계의 상실성, 조직보위론

'조직보위론'은 운동사회 성폭력 메커니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담론으로서, '진보의 대의'를 위해 활동하는 운동 조직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위'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이 조직 밖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이 논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고, "조직 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고립시킨다. 이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심지어 피해자에게 '공지에'를 갖고 가해자를 용서하도록 종용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고 무화無化시키는 행위구조가 정당화되어왔다.

10) "사태로운 이익을 위해 "두 여인"을 이용하고 노동조합을 훈들려는 검은 음모세력들." KBS 노조 8대 집행부가 발표한 2001년 3월 27일 성명서 중

11) 여기서 '성폭력 관련 세도'란 세성교육, 관련 규정 및 신고 창구, 사법 절차의 용이한 활용, 위원 멀문화 등 통틀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상세한 내용은 본문 및 사례분포에서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시키고 있으며 조직 내부 갈등을 심화·확대시켰기[36] 때문이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사유가 "조직 질서와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히고 조합 활동을 저해"했다는 이유였다는 점 역시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즉 과거의 운동 조직들이 성폭력 사건의 문제화 자체를 '조직 위상 추락'과 '내부 갈등 심화'로 보고 피해자를 침묵-축출함으로써 조직을 보위하고자 했다면, 언론노조는 동일한 상황 인식에 기반하되 가해자를 제명함으로써 훈련된 조직을 보위했던 것이다.

언론노조의 가해자 징계가 높이 평가되는 이면에는, 그동안 조직 내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 징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징계가 조직의 책임이나 의무로 간주되지도 않았다는 역사적 배경이 놓여 있다. 많은 연구 및 조사 결과들이 밝혀졌듯이 직장과 같은 특정 집단-관계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서는, 형사상 처벌과는 별개로 그 집단 안에서의 '신속한 가해자 징계'가 필수적이다. 그것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즉 가해자를 방치하는 것이 피해자의 2차 피해로 직결되는 상황에서는 가해자 징계가 '권한'이 아닌 '의무'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37] 그러나 KBS사건에서 책임지고 가해자를 징계했어야 할 사용자들은[38]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피해자 손승연씨가 가해자와 한 달 이상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했던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사회운동단체들의 공식·비공식적 요구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특별유급휴가'라는 임시적 조치가 취해졌을 뿐이다. 언론노조의 가해자

34) 2003년 3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사항. 이민우 기자, "언론노조, KBS 노조 간부 성폭력의혹 해결 촉구," ≪오마이뉴스≫ 2003년 3월 8일자

35)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현행법상 '사용자 책임' 강화 방안 모색(나눔국회세미나, 2003) 100인위가 성폭력 사건 해결 원칙으로서 가해자 소속 조직의 '의무'를 강조했던 것은(100인위, 2000), 가해자 징계가 '의무사항'으로서 일반사회에서 통용 사회적 상식으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36) KBS사건의 경우 고용관계로 보면, 피해발생 당시 KBS기자였던 가해자의 사용자는 KBS 사장이고, 노조 해을 근거로 근무했던 피해자들의 사용자는 KBS 노조 위원장이다.

징계 조치가 '최소한의 책임'이기보다 '최대한의 효과'로 높이 평가되는 것은, 운동사회의 여성 억압 현실에서 반사된 효과이다.

2) 명예훼손 역고소: 언론의 위계, 명예의 성별성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반反성폭력 운동은 "보이지 않던 것에 이름 주기"이자 여성의 경험에 대한 여성의 해석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었고,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사건화를 중요한 방법론으로 채택해왔다(박혜정, 2000; 배지선, 2001). 이때 공론화는 그동안 '개인의 문제',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어왔던 성폭력을 '공적인 사안'으로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1980년대 이후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던 많은 사건들이나 1990년대 후반 대학에서 많이 활용되었던 '실명 공개 대자보'를 통한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 그리고 100인위의 가해자 실명공개운동은 이런 맥락에서 매락을 같이한다. 『그런데 최근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가 가해남성의 권리'명예', '인권'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이 표출된 것이 바로 '명예훼손' 역고소이다.』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 무고, 모욕, 심지어 간통 등으로 역고소한 예는 이전에도 있었다.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명예훼손 역고소), 1988년 장정순 씨 피해 사건(무고 및 간통죄로 피해자 구속), 1993년 서울대 신정휴 성희롱 사건[37]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현상은 '성폭력 피해 말하기'를 범죄로 만듦으로써 성폭력 근절 노력을 사회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때 피해여성의 성폭력 문제 해결 노력은 남성 특권에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주목해야 할 것은 100인위가 공개한

37) 피해자 루조교가 1993년 8월 피해 사실을 알리는 대자보를 서울대학교 안에 붙이고 이것이 언론에 알려지자, 가해자 신정휴는 루조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사건번호 1994형제73417호). 이에 대해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나" 루조교가 '24세의 처녀로 초범'이라는 점과 검찰에서 '반성의 뜻'을 표명하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1994년 10월 31일)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이후 신정휴는 1994년 11월 30일 검찰에 탕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파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수용되었고, 인터넷 게시판의 모욕적인 글을 신고했으나 경찰 사이버수사대는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KBS시간의 공론화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하루인 법적·제도적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감행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행상에서 가해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명예와 남성의 명예가 포괄한 의미와 중요성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남성의 명예는 늘 법의 보호를 받고 세인의 관심사가 되며 보호해야 할 가치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여성의 명예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명예'로조차 보이지 않는다.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 과정에서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을 당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고소하는 경우는 드물고, 고소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명예훼손 관련 법 조항은 외견상 '모든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압도적으로 특정 집단사회의 권력을 지닌 남성의 명예만을 보호하고 있다.[40]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 과정에서 정작 '명예'를 훼손당하는 것은 피해여성들임에도 그것은 '명예훼손'으로 보이지 않는다. 예나하면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명예'를 가진 주체가 아니며 여성 자신이 국가·민족·조직·가족의 명예를 대표하는 기호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3) 억고소의 문화적 각본—'가해자의 인권'

명예훼손 억고소를 정당화하는 문화적 각본은 흔히 '가해자의 인권'이라는 말로 압축적으로 표현된다. 역사적으로 '인권'은 개인의 권리를 의미해왔으며, 가부장제 사회에서 '개인'은 남성을 의미한다(베커넌, 1993: 120-121). 남성은 '개인'이며 '개인'으로서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은 '개인'에 비유하는 존재로 간주되기 때문에, 단순히 한 개인일 때는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여성은 항상 다른 조건이 있을 때—'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거나 '사회적공적 문제로 공론화'될 때—만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우리 사회에서 인권은 그것 자체로는 긍정적이며 진보적인 가치·규범이라고 간주된다. 그러나 한남의 승인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인족 혹은 가족과 같은 집단의 규범이나 사회적 강자의 지배 기저들과 정합하게 허용 인권의 구체적 실현은 사회적 혹은 문화적 관행 속에서 사소하고, 유보될 수 있는 부차적인 문제로 사라져버린다. 우리 사회는 자유로운 인간으로 사는 데 제한을 주는 사회·문화적 조건에 저항하는 개인들의 노력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공동체의 생존과 유지를 더욱 중요시하는 입문의 지배적이다. 그래서 사회공동체에서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권의 가치가 위계화된다(김은실, 2000: 116).

나는 KBS사건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문제제기의 이유로 '가해자가 부위원장이 되면 노조의 도덕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더 이상 모다른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설명할 때 늘 마음이 아팠다. 그러한 '공익적 목적' 없이는 피해자들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피해 공개는 피해여성 개인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해졌을 때에만 정당화된다.[41] 여성 개인의 인권은 공익적 가치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여성이 억고소를 당했을 때 그녀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

40) 해금자 변호사는 우리나라 공직자 명예훼손 소송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명예훼손 제도가 정당하게 보호를 받아야 할 개인의 명예 손상에 따른 구제수단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오히려 정부, 정당, 공직자, 정부기관 등이 자신들의 공적인 업무 수행에 관련한 비판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탈루로 의혹제기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금사(2003), 조순경(2002: 87-88)에서 재인용.

41) 장○○의 억고소로 인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우리 측 변호인들이 주장한 핵심 요지도, 공개 내용(성폭력 사건이 '진실한 사실'이라도는 사실로 입증한 '상당성'이 있으며 사건을 공개한 것은 '공익을 위해서'였다는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형법 제310조)에 그대로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피해자가 처벌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공익'과 '인권'의 협의 자체를 문제화하지는 못한 방어의 대응이었다고 생각한다.

해 운동이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성 특권이 작동하는 많은 구조 자체를 해체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 있다. 가령 '공론화'라는 운동방법은 (비도벤존 그렇지 않은 간에) 성폭력을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라고 주장해왔는데, 이러한 주장은 공·사 분리와 '개인', '인권', '범죄'를 정의하는 기존의 방식에 도전하기 어렵다. 여성운동은 기존의 '인권' 개념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그것에 호소해야 하고, '인권'에 호소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재구성해야 하는 과정이었다.

3) 성폭력 피해의 객관성-'진실'을 구성하는 성별정치학

(1) 가해자 중심 사회에서 피해를 입증한다는 것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대다수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맞닥뜨리게 되는 질문이다. 질문이 제기되는 방식이 "정말 성폭력이 없었을까?"가 아니라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성을 보여준다. 가해자는 끝까지 부인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끝까지 피해 사실을 말해도 결코 피해를 인정받을 수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없다.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한 피해자와 지원자들은 흔히 "피해자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공개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대다수의 가해자가 성폭력 가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확인"해야 성폭력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가해자가 인정하는 것만 피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될 때, 피해여성의 정합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는 피해자 자신에게 있지 않은 것이다.

피해여성들은 말하기 전까지는 그동안 침묵했던 것을 후회하고, 말한 후에는 계속 침묵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된다. '명백한' 증인·증거가

서만, 남성은 국가가 법적으로 그러한 힘을 허용하지 않아도 오래 여성들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훨씬한 힘을 가진다"(MacKinnon, 1991: 122).

없고 피해 발생 후 4~5년이 지난 상황에 있었던 KBS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가장 '가까운' 관계(가족·파트너·회사 동료)부터 가장 '먼' 관계(경찰·검사·판사)에 이르기까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피해자들은 KBS 노조의 진상조사(2000년 11월), 100인 위 면담조사(2001년 1월), 언론노조 진상조사(2001년 3~4월), 집행 조사(2001년 3~5월), 재판 과정(2002년 4~10월) 등 2년 내내 끊임없이 사실 입증을 요구받아왔다. 그리고 기존 남성 언어의 틀 속에서 '입증'을 하기 위해, 증인 진술 확보, 교통편 예약 기록 확인, 관련 사진 자료 제시, 심리 진사, 정황 진술의 제시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문제제기 이후 다양한 불이익과 피해를 당해왔다. S대 집행부는 피해 사실이 법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 손유열 씨를 가해자와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한 달 넘게 방치하였고, 이후에도 약속했던 특별유급휴가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임금을 체불했다. 가해자 퇴진 이후 들어선 보궐 집행부 역시, 그들만 체불된 임금을 '휴업 수당'으로 명목 전환하여 총액의 70~80%만을 지급하였으며, 압박적 분위기를 통해 퇴직을 종용하는 등 고용 불안을 조성하였다. 최서진 씨는 성폭력을 문제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에서 누락되는 등 고용상 불이익을 당했고, 피해 자체를 최소화하는 모욕적 언사와 시선에 시달렸다. 그러나 이 지난한 과정을 거치고도 여전히 KBS사건은 KBS 노사 일부에서 '사실'이 아닌 '의혹'으로 간주되고 있다.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렇다면 '법적인 판단'의 내용은 무엇이며, 최후·최신·최고의 근거로서 '법적인 판단'이 갖는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2) '법적인 판단'의 성별성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지적해왔듯이, 법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 "모든 법의 뒤에는 결국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다."[43] 수사 기관은 수사의

---

43) MacKinnon(1993: 108). 따라서 "문제-정치와 역사의 문제에 따라서 법의

사실 인적 없는 곳에서의 칼도, 힘센 아저씨 치기, 한기부 고문 등 따로 증거나 증인이 없고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상황은 성폭력 외에도 얼마든지 있다. 즉 어떤 면에서 모든 범죄가 다 '특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에서만 유독 피해자 진술이 말연시되는 것은 남성의 경험을 '보편'으로 간주하는 권력의 효과다. 수많은 '증거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수사기관이 많은 경우 '자백만 받는 수사'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성폭력 사건에서만 '증거-증인의 무제와 진술 배치'가 부각되어왔던 이유는, 다른 사건과는 달리 성폭력 사건은 '그 정도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그 정도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수사 기관·사법 기관의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무엇을 '증거'로 인정하는가, 어떤 내용과 어떤 요건을 갖춘 진술을 '신빙성 있는 진술'로 받아들이는가 자체가 성별화되어 있다는 것이다.권희정, 2003).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의 '객관성'이란 남성의 경험에 입각해서 피해여성의 진술을 심문함으로써 구성된다. 즉 가해자의 진술이 아닌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 '일관성', '신빙성'을 심문하는 방식으로 '사실'이 구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가 "끝까지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폭력을 '특수'한 경험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외심하는 가부장제 권력을 문제화하지 않은 채, "특수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판단'이 남성 권력으로 작동하는 방식인 '보편 - 특수'의 구분을 해체하기 어렵다.[49] 여성 피해 진

[49] 다음과 같은 페미니스트 법학자들의 통찰은 여성주의가 문제화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여성들에게 일어난 일은 너무 특수해서 보편적이지 않거나 너무나 보편적이어서 특별할 수 없거나 둘 중의 하나이고,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여성적일 수 없거나 또는 너무나도 여성적이어서 인간적일 수 없는 것 어느 하나를 뜻한다"(MacKinnon, 1993: 109); "'특정행동강령'은 (합법적인 인권 기준을 여성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여성의 (보편적인 인권과, (여성들에게만 특수한 관련성을 지닌 권리들을 의미하는) 여성의 (보편적이지 않은) 권리 두 가지를 구분한다"(Charlesworth, 2005: 87).

승의 '객관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중심 법원의 "객관성"을 문제화해야 한다. 가부장제 사회의 질문에 '특수성'으로 답하는 것은, 피남성의 경험은 '보편'으로 간주되는자에 대한 비판적 해체 및 상대화와 함께 이루어질 때 그 진정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KBS사건에서도 '법적 판단'이 갖는 권위의 내용과 효과는 다양했다.

> 장○○의 성폭력 의혹 건은 지난 1996년과 1997년에 발생한 것으로, 2000년 제기 이후 피해자와 장○○ 간의 성폭력 사실 여부에 있어 현재까지도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장○○의 성폭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KBS 사규상 징계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2003년 5월 28일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여성단체의 '공동조구안'에 대한 KBS 감사실의 최신 공문 중

이러한 입장은 KBS 사측뿐만 아니라 진상 조사를 했던 언론노조와 KBS 노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례로, 가해자의 퇴진 이후 들어선 KBS 노조 보궐 집행부는 노조 채용 직원으로서 '특별윤급휴가' 중에 있던 손솔영 씨의 권리 회복 과정에서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다양한 피해자 불이익 조치를 정당화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법적인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진보'를 자처하는 노동조합이 상급 단체인 전국언론노조의 진상 조사 결과를 부인하면서까지 법적 판단을 우선시했다는 것은,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 법적 판단이 갖고 있는 막대한 권위를 보여준다. 고소 및 제소 기간 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논쟁적 쟁점을 담고 있어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을 이슈화할 때, 여성운동단체를 비롯한 사회운동단체들이 이를 다루어온 주된 방식은 '진상조사'였다. 그러나 사법적 판단의 절대적 권위가 상대화되지 않는 한, 그리고 '진상조사' 활동이 법의 한계를 극복하기보다는 법을 모방하고 대신하고자 하는 한, 사건 해결에 기여하기 어렵다.

객관성은 권력의 성격이 아니라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기술이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여성의 대응은, 피해여성의 경험이 객관적이라는 주장

게 끝난 이유와 과정에 대해 새로운 사유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성폭력 피해와 피해의 문제화 경험을 새롭게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야말로 '여성주의 시각에서 성폭력을 문제화한다는 것'의 의미와 방법론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역사화·맥락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국어예, 2003,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용자 책임 강화 방안」,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은실, 2000, 「일상의 억압과 인권」, 한국인권재단 엮음,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제주인권학술회의 2000』, 사람생각.

김혜숙·조순경, 1995, 「인류민주운동과 가부장제」, 『교육부 창복 50주년 기념 학술논문집』, 제18권 여성편.

김현철, 1998, 「내면화된 지배질서, 성별화된 위계질서」, 서울대학교 교지 편집위원회 『관악』 1998년 겨울호, 서울대학교.

대검찰청, 1999, 「성범죄 수사 및 재판시 피해자 보호 지침」, 1999년 2월 23일.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성폭력가해자역고소대책회의, 성폭력추방운동에대한 명예훼손역고소공동대책위원회 주최 토론회,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2002. 10. 22.

배금자, 2002, 「공적자의 명예훼손 소송과 그 법리」, 『언론중재』, 2002 여름, 통권 83호.

배은경, 2001, 「'100인위 활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화연대신문』 2001년 2월호.

사법연수원, 2003, 「수사절차론」.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100인위원회, 2000, '100인위원회 입장글', 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 세상 100인위원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http://go.jinbo.net).

_____, 2001, 'KBS 노조 강○○ 성폭력 사건을 공개합니다', 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 세상 100인위원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이박혜경, 2001a, 'KBS 노조 8대 집행부는 여성들의 정견으로부터 배우라', 여성주의 커뮤니티 사이트 '언니넷' 칼럼, 2001년 3월 10일 (http://www.unninet.co.kr/spch_view.asp?sort0=3&sort1=1&sort2=7).

_____, 2001b, 「여성주의, '권보'를 묻는다」, (사)한국여성연구소, 『여성과 사회』 2001년 상반기 제12호, 창작과 비평사.

이상희, 2001,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실명공개는 부당」, 월간 『말』, 2001년 5월.

이소라, 2000, 「돌을 던질 수 있는 자 누구인가?—"장원 씨 사건"에 대한 인터넷 담론 분석」, 『경제와사회』 제48호(2000년 가을), 한울.

장임다혜·한은영, 2001, 「검찰은 왜 장○○ 성폭력 사건에 관한 심층공개를 '피의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는가?—현행법의 명예훼손죄 적용과 해석 및 성희롱 수사의 한계와 문제점」,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비교여성노동』 연구보고서.

전희경, 2000, 「사회운동의 가부장성과 여성주의 정체성의 형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_____, 2003,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의 성별정치학」, 이화여대 대학원 학생회, 『이런 학술논문』, 2003년 가을, 제1집.

정희진, 2000, 「진보 남성의 성폭력」,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소식지 『여성의 눈으로』 2000년 3-4월호.

_____, 2002, 「성폭력 피해의 대관상에 관한 고찰」, 이화여대 여성학과 20주년 기념 학술제 "피해 경험을 '말하고' '듣는다'는 것: 여성의 삶과 폭력에 대한 몇 가지 고민들" 발표문.

조국, 2003, 『형사법의 성 편향』, 박영사.

한국성폭력상담소, 2002, 「사건지원 과정에서 그녀들이 하고 싶은 말」, 『나눔터』 2002년 가을, 제42호.

황정미, 2001, 「성폭력의 정치에서 젠더 정치로—운동사회 내 성폭력과 100인위 활동에 대한 논란을 보고」, 『경제와사회』 제50호(2001년 봄), 한울.

Charlesworth, Hilary, 2003, "Feminist Approaches to Human Rights,"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김옥길 기념강좌 위원회 주최, 『제1회 김옥길 기념강좌—새로운 지구질서와 여성주의 인권 자료집』.

Cudd, Ann E., "Analyzing Backlash to Progressive Social Movements"; Martha Chamallas, "The Backlash against Feminist Legal Theory".

Julie E. Mayhew, "Protecting the Personal and Other Tales from the Front Lines," in Cudd, Ann E. and Anita M. Superson(eds.), 2002, *Theorizing Backlash: Philosophical Reflections on the Resistance to Feminism*,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Pollak, Susan, 1991, *Backlash: The Undeclared War against American Women*, New York: Crown.

Robinson, Cameron, 1991, "성희롱의 정의, 행위자에 따른", Stephen Shute and Susan Hurley (eds.), *On Human Rights: The Oxford Amnesty Lectures*, Basic Books,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옮김, 『현대 사상과 인권—옥스포드 앰네스티 강의』, 사람생각, 2000.

6장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

1. 무엇이 문제인가

성매매는 새로운 이슈도 새삼스런 역사도 아니다. 없는 듯이 존재되다가 한 번씩 선정적으로 파헬쳐지기도 하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해 왔고 진부하리 만큼 늘 '문제'가 되고 있다. 존폐를 따라는 사람들은 말한다. "매춘(賣春)은 남성의 충동적인 성욕 때문에 존재하는 사회의 필요악"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인데 이제 와서 어떠겠나"고 말이다. 그렇다면 한 번쯤 '왜 그토록 성적 능력이 탁월한 남성들이 매춘부라는 직업을 담당하지 않았는가' 반문도 해 볼 만하다. 왜 대부분의 매춘부들은 여성이었으며 왜 그러한 성적 행위가 필요한가를.

사실 다른 성적 행위와 마찬가지로 성매매는 고정 불변한 특성을 갖거나 동일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며[1] 그 자체로 여성 억압의

1) 예를 들어 뉴기니아의 한 부족(Dani)은 아이가 잘 자라려면 정액의 맛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남자 아이에게 성인 남성(대부분 친척)의 성기를 펠라티오(fellatio)하도록 하는 관습이 있다. 우리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관습은 근친 상간, 어린이들의 성폭력

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성매매는 고대 바빌론의 성스러운 예식도 아니며, 매춘부들은 중세 프랑스에서처럼 아내로 선망되는 존재도 아니다. 지금 '성매매'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수면 위로 떠오르는 단상들을 생각해 보자. 정육점 같은 시뻘건 등이 켜진 사창가뿐 아니라 이발소, 여관, 목욕탕, 술집, 산, 고속도로 등 남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 그 화려한 무명을 열면 거지촌 골목이다 방치된 혼혈 아이들, 제3세계에서 온 여성들, 빛과 싸움의 늪, 인신 매매와 확대, 폭력과 살인, 희춘을 위해 배제되는 어린이들 그리고 에이즈로 죽어 가는 여성들이 뭍아진다.

성의 거래를 위해 다양한 만남을 주선하는 신종 상품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욕은 한계점을 넘은 듯 새로운 자극과 해소의 방식을 팔기시키는 상산업의 메커니즘 속에서 고무되고 있다. 다방에서도, 전화방에서도, 매체에서도 상을 피워 준다. 한층 더 열악한 국가의 여성들은 브로커에 의해 바다 건너 더 나은 국가로 거래된다. 이제 성매매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나 단순한 생물학적 욕구의 문제를 떠나 거대한 상산업의 메커니즘 속에 존재하고 있다.

다양한 양상의 성매매 현상을 접하다 보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우리는 왜 성매매를 문제시해야 하는가? 성매매의 무엇이 여성에게 해로운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아는 것, 그것은 성매매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과 대안을 가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양하게 얽힌 성매매 현상의 실타래를 풀고 새로운 역사를 짜는 데 '관점'의 정립이야말로 그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동성애 등으로 이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섹스'가 아닌 '나와 키로가'의 일부에 속해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이렇듯 한 문화에서 섹스라고 규정하는 행위는 다른 문화에선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성적 관습에 도덕적 잣대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Bengt, 1989, 339-351쪽). 성매매 역시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수없이 변화되어 왔고 사회 문화적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성매매의 문제를 논할 때 성이 놓인 사회 문화적 맥락을 배제하고 성적 '욕구' 만의 문제로 단순화하거나 고정된 도덕의 틀로 평가하는 관점들은 지양해야 한다.

의 용어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관점을 담을 수 있는 용어를 선별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게 되며 그 자체로 하나의 실천력을 갖게 된다.

먼저 이제까지 주로 사용되어 온 용어들의 의미를 살펴보자.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윤락이나, 매춘이나 매음 등은 '성을 파는 행위' 만을 규정하는 용어들이다. 물론 이러한 용어들에서 '성을 사는 행위'는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을 파는 행위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도덕적인 비난을 돌린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윤락'이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낙인은 성을 파는 사람에게만 찍힌다. 우리 사회에서 법이 정하는 윤락 행위자, 즉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리는 자는 성을 파는 사람이며, 손님은 윤락 행위자가 아닌 그저 '상대방'일 뿐이다.

대부분의 매춘부가 여성임을 감안할 때 윤락이란 결국 여성에게 부과되는 용어이며 상대가 되는 자는 도덕적 면죄부를 받는 셈이다. 이는 성을 사는 사람이 대부분 남성임을 해아려 볼 때 이중 규범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윤락, 매춘, 매음 등의 용어는 성매매의 문제를 '파는 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성을 파는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함축하고 있는데, 실제 성매매는 성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성을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슈웨이하(L. Shrager, 1989, 349쪽)는 성매매를 "남성이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과 관련된 행위"로 정의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성매매 문제의 근원을 성을 사는 남성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페미니스트나 매춘 여성을 위해 일하는 현장 활동가들은 성매매

---

7) '몸을 팔다', '몸을 사다'라는 용어 또한 '몸'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성'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성매매'라는 용어는 이후 매체, 언론 등에 등장 빈도가 '거래'보다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문제적인 용어이다. 만약 우리가 '성매매'라고 할 때 다른 누구를 떠올리지 못하게 된다면, 여기에는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등 일반적으로 성을 거래할 때 넓게 사용되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의 문제는 그것이 일본식 한자어라는 사실을 분명 상기 시켜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몸'으로 간주하는 사람을 '물건'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풍토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가. 성매매는 성폭력을 예방한다?

많은 사람들은 성매매가 없어진다면 남성의 성폭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성매매는 남성의 빌기된 성욕을 해소하는 통로이고 여성의 순결을 보호하는 사회적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매매는 성의 평등의 한 측면으로 매우 매력적으로 남성들을 수용하기 쉬운 사회적 필요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용어 사용의 정치적 파장에 대해 '몸'을 '성'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거래'라는 용어 또한 성매매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래'라는 용어는 상품의 교환이라는 경제적 관계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즉 성을 사는 사람이 지불하는 돈이 성을 파는 사람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성매매'라는 용어 또한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앞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성매매가 '왜 여성에게 억압적인가'라는 질문을 여성 내부의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 성매매를 문제로 다루어 온 연구물이나 사회적 시각은 매춘부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러한 시각에서 도출된 전통적인 물음들은 왜 여성들이 다른 직업이 아닌 성매매를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사회학적 상상력이 빈약한 성과학자나 범죄심리학자는 그 답을 매춘부들의 병리학적 요소나 일탈적 속성에서 찾았으며,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려는 사람들은 경제적·문화적 원인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물들이 매춘 여성의 경제적·심리적 현실을 잘 드러내 준다고 할지라도 성매매의 전체 구조를 알기에는 '매춘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조각 그림에 불과하며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성매매야말로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 존속되고 유지되기 때문이다.

2. 성매매에 대한 기본 관점 갖기

1) 용어 읽기 :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용어와 규정들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prostitution)는 일반적으로 호입(蠔入), 윤락(淪落), 매춘(賣春), 매음(賣淫), 매매춘(賣買春), 매매음(賣買淫) 등의 용어로 불린다. 이러한 용어와 규정에는 성매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누구의 눈으로 다양한 성매매의 현실을 보는가 등의 관점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성매매 문제의 원인과 현실, 그리고 대안을 모색할 때 용어 사용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1] 따라서 우리가 기존

---

1) 예를 들어, 역사적인 한 사건이 어떠한 명칭으로 불리는가는 역사에 의미를 새롭게 하는 장이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광주 폭동, 광주 사태 등으로 불렸던 시대에 그 의미에 대

에 대해 제이트먼(Patterson, 1988, 197-199쪽)은 음식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욕스의 필요와 대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식단적 욕을 들면 인간은 음식만큼 수단으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성욕의 충족은 문화적 습관에 따른 것이고, 성에대를 통해 남성이 여성의 성을 사용료 하는 것으로 성욕을 끊충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한다.

"성에대가 성폭력 범죄를 에방한다"는 누구나 믿고 있는 이 신화에 대한 근거라고 하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다. 성에대를 통해서 성폭력 범죄를 에방할 수 있다는 것은 성에대가 강간 충동을 가진 남성들에게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강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폭력을 충동적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 범죄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강간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Warshaw, 1992, 209쪽). 남성에게 "포르노는 이론이고 강간은 실천"(성폭력 드워킨 드워킨, 1989이라면, 성에에는 돈을 주고 할하는 '멍청 계산'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논리를 따르자면 매춘 여성들은 스스로 파괴되길 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자기 파괴를 경험하면서 폐라을 얻는 존재가 되고 만다. 성에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으므로 매춘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착취는 또한 그 자체로 선택되어 버린 것이 된다. 스스로 파괴되길 원하는 사람은 언제도 최소한의 시민권도 없는 존재를 의미한다. 매춘 여성은 강도나 강간을 당하고 신고하여 조사를 받을 때도 "한 번 당하나 여러 번 당하나 마찬가지일 텐데 뭐 이런 걸 가지고 신고까지 하느냐"고 경찰로부터 모욕을 받는다.[4]

매춘 여성에게도 인권이란 것이 있는가? 매춘 여성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논리는 성에매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을 매춘 여성들에게로 돌리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성에매가 존재하는 이유도, 매춘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나 착취 등의 인권 문제도, 모두 다 매춘 여성의 과학적인 취미로 인해 '선택'된 것이라는 논리다. 성에매에서 여성의 자발성 논의가 추상적이며 극단적인 환상에서 벗어나 실제 매춘 여성의 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선택을 구성하는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매춘 여성의 자발성에 대한 질문은 '여성은 자발적으로 성에매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비생산적인 물음이 아니라, '여성은 다양한 대안과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성에매를 선택하는가, 매춘 여성은 성에매 행위 전반에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가, 매춘 여성은 자발적으로 성에매를 그만둘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질문만이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특정한 개인의 일탈적 문제로 지부하지 않으면서 개인이 자신의 조건과 사회 조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선택의 점점을 만들어 내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성에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첫걸음이기도 한데, 이러한 질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론이 아닌 여성의 실제, 성에매

을 자발하기도 하였다.

4) 시에 제인들(윤이에, 1997, 96쪽).

나 성산업을 중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한국의 기생 관광, 태국의 매춘 관광, 서양의 백 등 많은 개발 도상국가들은 경제적 부를 위해 성산업을 육성하였다. 그러나 동남아의 피로써 성산업으로 관광 산업을 발전시킨 것을 국가의 경우, 그 사회가 치르는 대가는 심로 엄청납니다. 태국의 경우 섹스 관광으로 국내 성산업의 종사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으며, 필리핀 등 많은 국가 또한 국내 성산업의 발전은 국민의 복지와 관계된 문제가 되었다. 또한 성산업은 전 사회적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성산업 종사의 대부분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당연으로 아무 학교 학생계획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실업자, 심각 등 주변 사람들 가운데 성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다. 이들은 성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더러운 여자'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성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자신

이성은 내 성적매를 선택하는가? 대중부의 대답수가 여성이라는 응
답률 내 성적매력 관련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경제가 호황일 때 온갖 종류의 생산업과 성매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사회적 · 경제적 문제가 발생될 때 여성 생산업으로의 전업 현상이 증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경제적 빈곤과 남성 폭력 등 남성들로부터 오는 억압이 남성이며, 피해의 우선 순위는 언제나 여성에게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국가의 주요 수입원이 여성의 몸에서 창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남성들이 경제적 부의 정도와 상관없이 성매매를 해야만 한다는 것은 경제 논리만으로는 남성 문화에 접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성매매가 존재하는 것은 남성의 여성의 몸을 살 수 있다는 대중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수는 감소하는가? 그렇지 않다.

한국 사회의 경우 1990년대 1990년대 초까지 경제적 호황을 누렸
던 성산업이 증가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경제가 하락되고 IMF 위기
가 닥칠을 때도 여성들의 성산업 유입이 늘어났다. 여성들은 일자리인
잡힌 대상이 되어 노동 시장에서 퇴장당한다. 산업에는 '경제를 떠받'
의 중개에 대한 보도가 잦아질 때였다. 전국 사창가의 보전 관리를 맡고
있는 한 관리자는 "현재 사창가는 살을 사는 사람보다 팔아는 사람들로
넘쳐난다"고 경제 위기의 심대를 설명했다. 전쟁중에 생매를 하는 여
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미심리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성은 내 성적매력 · 경제적 문제가 발생될 때 여성 생산업으로의 여성
유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경제적 빈곤과 남성
폭력 등 남성들로부터 오는 억압이 남성이며, 피해의 우선 순위는 언제나 여성에게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국가의 주요 수입원이 여성의 몸에서 창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남성들이 경제적 부의 정도와 상관없이 성매매를 해야만 한다는 것은 경제 논리만으로는 남성 문화에 접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성매매가 존재하는 것은 남성의 여성의 몸을 살 수 있다는 대중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여성의 몸이 아니라 여성의 노동이다. 성
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매
매 자체가 아니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구조에 의해 강요된 것이다. 성
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매
매 자체가 아니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구조에 의해 강요된 것이다.

3. 성매매의 특징과 문제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도 '노동'일 뿐만 아니라 어엿한 '직업'이라고 말한다. 생산 중심의 '노동' 개념에서 벗어나 보면 성매매는 여성의 다른 노동과 명백성을 갖기보다는 더 많은 유사성을 갖는다. 그러나 성매매가 추상적 개념 차원에서 노동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기 전에, "성매매가 노동이라면 어떤 노동인가, 우리는 그러한 노동을 사회적으로 정당한 '노동'으로 이름붙일 수 있는가"의 문제로 시각을 돌려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이라는 개념에는 사회적인 가치에 기반을 둔 '윤리', '억압'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필도, 사기 등을 사회적인 노동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경제적 목적만으로 어떠한 행위를 노동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노예 노동을 정당한 '노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는 것처럼 매춘 여성의 성노동은 흔히 '노예 노동', '일급 노예'에 비유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성매매가 어떻게 노예 노동과 비슷한지를 구체적인 현실을 통해 살펴보자.

1) 몸에 대한 자기 통제권의 상실

남성 손님과 매춘 여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매매 행위의 전반적인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성매매는 남성 손님이 여성의 몸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이 어떻게 성매매 공간에서 매춘 여성을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하는가를 보도록 하자.

먼저 성매매는 화대 지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춘 여성은 자신에게 화대를 지불하는 남성 손님과 권력 관계에 놓이게 된다. 남성 손님은 여성의 신체에서부터 체위, 콘돔 사용 여부 등 성매매 행위 전반에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매춘 여성은 성행위의 조건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남성들이 성매매를 이용하는 욕구에는 '먹을 보주'과 '재보존 여성에 대한 로기성'이 전제되어 있다. 이때 남성 원하는 남성의 욕구와 남성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동일한 여성에 성매매

21 익명성 속 : 섬뜩해진 비가시성과 사회적 환대의 단절

남성 손님이 성매매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여성에 대한 지배와 여성이 대상이라는 점에 있는 한, 매춘 여성에 요구되거나 기대되는 남성 손님의 욕구는 소멸되지 어렵다. 뿐만 아니라 남성이 폭력을 거절하는 권리 관계에서 매춘 여성은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을 보호할 수 있는 법리를 확보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남성 손님이 성매매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여성에 대한 지배와 여성이 대상이라는 점에 있는 한, 매춘 여성에 요구되거나 기대되는 남성 손님의 욕구는 소멸되지 어렵다. 뿐만 아니라 남성이 폭력을 거절하는 권리 관계에서 매춘 여성은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을 보호할 수 있는 법리를 확보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매춘 여성에 대한 지배와 여성이라는 의미를 담아내는 '비가시성'이 여성의 성욕을 억압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육체적 접촉을 동반하는 직업 분야, 관련 분야가 발전되면 남성 손님으로 하여금 매춘 여성을 찾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매춘 여성은 남성 손님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자신의 성욕을 억압하고 남성 손님의 욕구에 맞추어 자신의 몸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8] 이러한 비가시성은 매춘 여성

성매매 공간에는 성적 대상물로서 가장된 여성의 정체성만이 존재할 뿐이다. 특히 여성이 가족 관계에서 고립되어 있는 조건은 익명적 특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성산업의 착취자들에게 주요한 미끼가 된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들이 받는 부당한 억압이나 폭력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올바른 없는 가족 출신이거나, 폭력적인 환경 속에 무기력하게 노출되어 온 여성들이다.[10] 아버지나 남편의 폭력, 근친 강간, 성폭력의 경험 등 여성을 가정 밖으로 내모는 상황들은 여성이 성매매 공간을 익명적 '도피처'로 이용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 대부분 여성들의 많은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가출과 순결 상실은 여성이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11]

한편 유입 이전의 경험들은 일선자들과 업계 친밀감을 가지는 미끼가 되고 대부 여성에 대한 통제, 착취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전제가 되고 있다. 업주는 남성 손님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자신의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해 대부 여성들의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사회적 관계로부터 그들을 '고립화, 원자화' 하는 전략을 피한다. 사회적 관계나 친밀한 관계로부터 차단되고 고립된 대부 여성은 쉽게 폭력이나 착취의 대상이 되지만 성매매의 익명적 특성 때문에 모든 사회적 관심의 영역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결국 성매매의 '익명적 공간'으로서의 특징은 '존재하는' 성매매를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고 여성을 사회적 관계로부터 차단, 고립시켜

10) 대부 여성 대부분(91.6%)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윤은희, 1994, 61쪽), 이러한 경향은 성산업의 착취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현장 활동가 '가'의 조사에 따르면 성산업에 유입되기 전에 강간을 경험한 대부 여성 가운데 90% 이상이 근친 강간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11) 한국교회여성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 여성의 가출 동기 중 39%가 돈을 벌기 위해서였고, 남자 친구로부터 순결 상실이나 근친 강간 또는 강간이 24%에 이르렀으며, 가정 불화는 20%로 나타났다(김기원, 1996, 10쪽). 이와 같이 가출한 여성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들을 유혹하는 성산업의 광고 문구 가운데 하나인 '숙식 제공'은 여성의 중요한 미끼가 되고 있다.

여성들에 대한 손님과 포주의 통제, 착취를 더욱 쉽게 하는 전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관계로부터 분리된 익명의 공간에서 '익명'으로 존재하는 대부 여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과거와 정체성으로부터 단절된 여성들은 시민권을 갖지 못한 무력한 존재가 되어 남성과 업주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3) 성산업의 역이사슬 : 성매매와 성산업

현재 우리 사회의 성매매는 유흥업소나 일선 업체 등의 성산업을 매개로 하지 않는 경우가 드문데 이는 대부 여성이 남성 손님과 일 대 일의 관계로 계약을 맺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 여성은 포주집부터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업소, 남성 손님과 각 업소에 여성을 알선하는 직업 소개소나 보도 사무소 등에 고용된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들 업소에서 대부 여성이 생활하는 형태는 나이와 경력, 미모, 강제성 등에 따라 감금 형식에서, 숙식하는 여성, 출퇴근하는 여성, 일시적인 아르바이트까지 다양하다. 여성이 이들 업소에서 인신 매매나 감금에 의해 강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통제와 착취는 극도로 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대부 여성 개인에게 그 동기가 자발적이든, 강압에 의한 것이든, 실산업은 여성을 성적 -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성산업으로부터 빠져 나갈 수 없도록 그들의 삶을 옭아매는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선 공통적인 성격을 갖는다.

형식적으로 볼 때 업주와 대부 여성 사이에서 맺어지는 계약은 상당히 높은 금액을 상정하고 있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고용 관계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대부 여성들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 속에 놓여 있거나 빚을 지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다. 대부 여성에 대한 경제적 착취는 최대에 대한 직접적인 착취나 업소에서 부과하는 벌금,[12]

12) 예를 들어 미셸 다양에 경우, 여성복 다양 업주는 보통 한 달 단위로 계약을 맺는데, 이

또한 여성의 성적 대상화로 성산업 종사에 있어 직도적 강제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성매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성매매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성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회적 관계로부터 차단되고 고립된 상태에서 성산업에 유입되고 있다. 이들 여성들은 성산업에 유입되기 전에 이미 강간을 경험한 여성 가운데 90% 이상이 근친 강간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10] 아버지나 남편의 폭력, 근친 강간, 성폭력의 경험 등 여성을 가정 밖으로 내모는 상황들은 여성이 성매매 공간을 익명적 '도피처'로 이용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 대부분 여성들의 많은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가출과 순결 상실은 여성이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11]

한편 유입 이전의 경험들은 일선자들과 업계 친밀감을 가지는 미끼가 되고 대부 여성에 대한 통제, 착취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전제가 되고 있다. 업주는 남성 손님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자신의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해 대부 여성들의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사회적 관계로부터 그들을 '고립화, 원자화' 하는 전략을 피한다. 사회적 관계나 친밀한 관계로부터 차단되고 고립된 대부 여성은 쉽게 폭력이나 착취의 대상이 되지만 성매매의 익명적 특성 때문에 모든 사회적 관심의 영역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결국 성매매의 '익명적 공간'으로서의 특징은 '존재하는' 성매매를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고 여성을 사회적 관계로부터 차단, 고립시켜 성적 대상물로서 여성의 정체성만이 존재할 뿐이다. 특히 여성이 가족 관계에서 고립되어 있는 조건은 익명적 특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성산업의 착취자들에게 주요한 미끼가 된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들이 받는 부당한 억압이나 폭력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올바른 없는 가족 출신이거나, 폭력적인 환경 속에 무기력하게 노출되어 온 여성들이다.[10] 아버지나 남편의 폭력, 근친 강간, 성폭력의 경험 등 여성을 가정 밖으로 내모는 상황들은 여성이 성매매 공간을 익명적 '도피처'로 이용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 대부분 여성들의 많은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가출과 순결 상실은 여성이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11]

한편 유입 이전의 경험들은 일선자들과 업계 친밀감을 가지는 미끼가 되고 대부 여성에 대한 통제, 착취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전제가 되고 있다. 업주는 남성 손님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자신의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해 대부 여성들의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사회적 관계로부터 그들을 '고립화, 원자화' 하는 전략을 피한다. 사회적 관계나 친밀한 관계로부터 차단되고 고립된 대부 여성은 쉽게 폭력이나 착취의 대상이 되지만 성매매의 익명적 특성 때문에 모든 사회적 관심의 영역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

10) 대부 여성 대부분(91.6%)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윤은희, 1994, 61쪽), 이러한 경향은 성산업의 착취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현장 활동가 '가'의 조사에 따르면 성산업에 유입되기 전에 강간을 경험한 대부 여성 가운데 90% 이상이 근친 강간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11) 한국교회여성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 여성의 가출 동기 중 39%가 돈을 벌기 위해서였고, 남자 친구로부터 순결 상실이나 근친 강간 또는 강간이 24%에 이르렀으며, 가정 불화는 20%로 나타났다(김기원, 1996, 10쪽). 이와 같이 가출한 여성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들을 유혹하는 성산업의 광고 문구 가운데 하나인 '숙식 제공'은 여성의 중요한 미끼가 되고 있다.

이성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매춘 여성은 돈을 주고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적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미지 속에는 우월한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믿고 있는 '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원칙들이 숨겨져 있다. 그렇다면 먼저 여성이 성적 존재로 취급되는 것이 매춘 여성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여성이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취급되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맥락에서 일어난다. 먼저 우선 사회에서 남성의 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다르다. 일단 남성은 성욕에 '대상'이나 성적 '존재'로 규정되지 않는 서로 다른 남성적 정체성을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남성은 기술에 따라 평가되지 않는다. 남성들은 적합성으로나 결합으로 대상화된 육체로 인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적 능력은 오히려 명예가 되기도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성은 자신이 하는 일에 관계없이 항상 성적 존재로 취급된다. 여성은 자신의 성적 능력을 이용하여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 성적 존재로 보여지기 위해 노력한다. 여성의 이러한 성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여성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여성은 자신이 성적 존재로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

부부들은 성행위에 본능을 장르비엔서 여성의 몸을 서 왔다. 남성들은 정보 매춘부처럼 자신의 몸을 파는 행위로 그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몸을 파는 것, 그 행위자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몸에서 떨어질 수 없는 더욱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가 남아 있다. 그렇다면 남성들이 성매매를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인가?

성매매가 부정 거래의 시점에서 당당하는 여행은 서점의 발매금을 확립한다는 것이다(홍세화, 1993). 성매매를 통해 모든 여성들을 공간적 쾌락 공간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남성들은 그 안에 있다. 성매매는 남성이 거래적인 관계의 행동을 이어 나가려는 수단이다. 이 사회에서 모든 남성들은 그 남성이 성매로 매춘을 하든 안 하든 '여성'을 인식으로 여성의 사회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는 가부장적 선입견에 기반을 둔 것이다.

돈을 지기 위해 남성들이 원하는 대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들과 결국 남성에게 종속되어 살게 살롱으로 데려지기 때문에 남성보다 훨씬 지위를 차지할 수 없다. 또한 여성 손님이 오면 여성 종업원은 모두 그 손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남성 손님은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성매매는 단순히 사회적 '빌딩에 세워 놓은 건축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남성의 인식이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이다.

성매매는 단순히 사회적 '빌딩에 세워 놓은 건축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남성의 인식이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이다.

남성들이 공공연히 성적 대상으로 존재하는 데에 익숙한 나머지 여성 손님에게 '영업'을 하는 것이다. 이로써 여성은 자신도 모르게 성적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여성은 성매매 종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여성이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성매매를 하는 것은 결국 개인적인 가부장적 논리에 편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여성을 위한 직업으로 성매매를 옹호하는 논리는 남성이 여성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는 가부장적 선입견을 강화시킨다. 성매매는 단순히 사회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5. 성매매에 대한 거짓과 끊임없음기

성매매 문제에 대한 거짓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짓과 유착해 기초를 두고 있다. 명백한 증명된 같은 것이 아니라 인간들인 존재와 존재 사이의 구속될 수 있도록 하는 세계관이다(Wittgenstein Tractatus, 1993). 성매매에 관련된 법률도 사회적 거래성 큰 법률이 여러분으로 성매매에 대한 인식 정보은 성매 거래를 가능하는 법률이다. 이것을 '성매매 방지법'이라고 한다. 이것은 성매매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종사자들을 처벌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매매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종사자들을 처벌하는 것이다.

매매 시설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는 완화하거나 없애는 폐지주의(Abolition)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일제 시대의 공창이 폐지되고 1961년 '윤락 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하여 표면상 성매매에 대한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1962년 4월에 성매매 행위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 매매에 따르는 폐악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며 개인과 가정, 공동 사회의 복지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규정한 '인신 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관한 유엔 협약'에 서명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 1992, 90쪽).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된 이래로 1989년 4월이 되어서야 최초 여성소에서 성매매를 요구한 남자 손님 두 명이 경찰에 입건되었을 뿐이다(『동아일보』, 1989년 4월 26일자).

성매매를 범죄화한 후, 매춘 여성은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었고, 일방적인 희생양이 되었다.[16] 특히 여성들은 선도 보호, 사회 복귀라는 명목 아래 10개월 이상 열악한 보호소로 강제 입소되었다.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들을 '요보호자'라는 특수한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여 실제 취업의 가능성이 없는 기술 교육, 연장 가능한 수용 기간, 군대식 훈련과 강요된 예배 등의 열악한 환경과 구타와 기합, 독방 감금 등의 인권 침해를 가했다. 이러한 상황은 1995년 10월 원생들의 방화로 희생당여 감금되어 있던 원생 40명이 사망, 12명이 부상한 '경기도 여자 기술 학원 방화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윤락 행위 등 방지법이 제정된 이듬해인 1962년 내무부, 보사부, 법무부 등은 합동으로 전국 104개소에 특정 지역기지촌, 사창가을 설치 운영하였으며,[17] 공중 보건이란 명목으로 강제 성병 검진을 시행했다. 지

16) 1956년 제정법은 성을 팔고 산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명시했고 남성 손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이전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여성' 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7) 1994년 국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기지촌 및 성매매 집결 지역의 수는 56지역, 여기에 있는 여성들의 수는 5022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여성특별위원회, 1994).

금도 매춘 여성에게만 국한된 성병 검진은 계속되고 있다. 보건 검진에서 성병된 여성들은 무조건 감금되어 치료를 받지만 여성들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남성들은 통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성(특히 미군의 경우)들에게는 매춘 여성이 자신에게 성병을 옮겼다고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이들 지역에서 여성의 존재는 남성에게 깨끗한 생기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그야말로 '성적 대상'인 것이다.

많은 남성을 상대하는 매춘 여성은 에이즈와 같은 심각한 병에 노출되어 있지만 국가는 성매매 행위가 여성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홍보하지 않으며, 에이즈 예방에 콘돔이 얼마나 필요한지, 매춘 여성이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성매매를 그만두는 일이라고 교육하지 않는다. 남성 손님과 가족, 미군을 위해 감염된 매춘 여성을 색출하는 대한 협력이 되어 있을 뿐 매춘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앞에서 언제했듯이 성매매와 관련된 법과 정책의 내용은 가부장적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의심스러운 것은 '도대체 이러한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성매매를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이다. 이러한 모순된 정책이 가능한 것은 규제, 폐지, 금지라는 법 자체의 속성에 있기보다는 정책 운영 과정에서 일반인의 인식이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이다.

성매매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실행되었던 정책들은 그 실행 과정과 결과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구소련의 경우 성매매에 대한 전쟁이 매춘부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당국이 성매매 현장을 덮칠 때 그곳에 있는 남성의 신원을 기록하여 공공 빌딩의 외벽이나 광장의 게시판에 눈에 띄게 붙였다. 또한 1차 세계 대전 당시 유럽 전선에서 미군 당국은 속화을 폐쇄하고 성병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매춘부 검진에서 군인 검진으로 정책을 바꾸었는데 이는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보니 벨로, 1993, 427쪽). 이처럼 성매매를 단속하는 정책에서 관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매춘 여성을 처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현실에서 대다수의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규제, 처벌이 철폐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를 반대하는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매춘에 대한 금제 폐지를 통해 성산업에서 매춘 여성이 주도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선 성매매는 이미 고도의 성산업화된 자본주의 체계에서 남성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과 매춘 여성의 대부분이 펨프 등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에 있다. 즉, 펨프가 없어 자신의 성을 거래하는 매춘 여성들이(특히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독립적이고 자율롭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폭력배나 마약상들에 의한 권력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다(J. Miller, 1995).

배리(K. Barry)는 성매매가 금지되는 영역뿐 아니라 비범죄화된 영역에서도 펨프의 교묘한 변화와 가부장적인 법률에 의해 매춘 여성들이 착취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성매매의 완전한 합법화를 통해 이득을 얻는 집단은 매춘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점을 강조한다(K. Barry, 1995, 236쪽). 이들은 매춘 여성에 대한 범죄화나 금제가 폐지되어야 하고, 남성의 폐학과 이익을 위해 여성의 몸을 지배하려는 손님과 알선자를 처벌하는 이른바 '차별적 범죄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배튼(R. Matthews)는 성매매를 탈범죄화하는 것은 대규모의 성산업을 창출하고 열악한 여성을 자본주의의 착취 구조 속에 더욱 취약한 상태로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보수적 또는 자유주의적인 정책과는 다른 '급진적 규제주의(radical regulationism)'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20]

매춘에서 수익성과 생산업을 통제하는 이러한 대안적 금제 체계는 가장 취약한 상황에 있는 여성에 대한 강압과 착취를 감소시키고 매춘 여

20) 그는 사회적 정책으로 입법화할 수 있는 원칙을 다음 네 가지로 제안한다. 첫째, 여성의 성적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상품화되어서 된다는 만연된 남성의 관념에 대한 타성. 둘째, 공공적인 소란이나 추행 소동. 셋째, 학교나 학생에 대한 처벌. 넷째, 성산업화의 감소.

성의 파트너뿐 아니라 법적 제도로부터 가해지는 추행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한다(L. Shrage, 1994, 83-87쪽).

성매매의 근절을 위해 매춘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반면 성매매의 해악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매춘 여성을 지원한 성공 사례로 스웨덴의 말모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다른 대안이 제공된다면 매춘 여성들은 성매매 일을 그만둘 것이다"라는 전제 아래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말모(Malmo)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1977-1983년)는 매춘 여성들에게 경제적 도움과 주거에 대한 지원, 직업 알선 서비스 상담과 의료 서비스, 펨프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도움 등을 매춘 여성이 성매매 행위를 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제공하였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과 더불어 대중 매체를 통해 성산업으로부터 빠져 나온 여성들의 경험을 가시화하고 여성의 탈매춘을 지원하는 단체와 조직의 목소리를 드러내 보이는 대중적인 성매매 반대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81년까지 72.5%가 성매매 행위를 그만두었는데 나머지 여성들은 대부분 마약 중독자였고, 1983년 최종적으로 남은 여성은 겨우 60명이었다. 이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성매매는 여성에게 해가 된다는 기본적 전제 아래 매춘 여성을 갈보, 창녀로 전락시키는 성산업의 합리화를 근절함과 동시에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지원으로 가능했던 것이다(Barry, 1995, 248-249쪽).

물론 이러한 성공 사례는 사회 복지 정책이나 성문화가 우리 나라와는 다른 '스웨덴'이라는 사회적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사례는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은 대안이 주어진다면 성매매를 그만두길 바라고 있는 현실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성매매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데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여성의 성매매를 보는 시각을 전환하는 것이다. 성매매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다. 웰기에 장관의 말대로, "문제는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 존엄성에 대해 민감해지도록 만드는

라는 말을 하나 희피가 아니라 문제를 최소화할 신중한 태도와 준비,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는 용기이다.

여성의 인권을 증먹는 성매매. 그 가부장제의 비겟덩이가 우리의 몸속에 누적되어 숨통을 막게 될지, 우리 인식의 구석구석을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성매매 반대는 인권을 향한 첫걸음이며 그 자체가 힘이다. 이는 여성이나 남성 모두가 각자 선 자리에서 풀어 가야 할 과제이다.

나는 여러분이 여성의 존재에 대한 문제인기의 첫걸음으로 주변의 사물가를 방문할 것을 권한다. 3-4명 정도가 한 조가 되면 좋다. 지나가는 남성들의 모습이 오빠, 동생, 애인, 아버지처럼 얼마나 우리에게 친숙한지를, 성매매가 남성들에게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인지를 느껴 보자. 성매매라는 특정한 성행위를 문제 삼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어떤 사회 속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위급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성과 다른 여성의 생은 뭐가 다른지, 성매매가 더 이상 혐오와 공포의 문제가 아닌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가슴에 안아 보자.

꽃다발의 꿈 이야기

나는 지난 10년 동안 성매매가 점점에으로 일어나는 여러 지역의 여성을 프루터 거신들의 지녀 조직이 손여였다는 말을 들어 왔다." 하지만 그 조직은 사회 일반에 드러나 있었고, 적극적 기사를 거는 기록을 남긴 예도 극히 드물다. 다만 성매매의 언저리 삶의 깊이 서럽 깊이가 서럽 큰 어성들의 일에서 일으로 전환하여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왔다.

오랜 성부터 집단 조직에 손여였던 여성들이 지녀 조직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 놓지 못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이러 활동 문제의 핵심이었다. 언제을 떨었던 어성들로부터 지녀 조직에 대해 적극적으로 취재할 수 있었던 오랜 시간은 나 스스로 그것이 지나온 과거를 떠올려 정리 포였다. 나는 주로 여성을 겨냥한 성산업 이야기에 비중을 두어 인터뷰하여 기록으로 남겨 둘 뿐이다. 그 중언이 작업, 어성들의 삶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는 일에서 유일한 우먹에 없었던 곧이 그 언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레에 관해서 소설이 있어서 있다. 내가 이 성들의 일상 자체에 레이를 두고 질근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 전부터였다.

이 글은 서울 용산 거역에서 1961년부터 1965년까지 활동했던 여성들의 지지 조직 '꽃다발'에 관한 이야기이다. 내가 꽃다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이 글을 쓰기 3년 전쯤부터이다. 이 이야기를 더욱 자세히 알고 싶어 하고 있을 때 우연히 한 여성을 소개받게 되었다. 그 여성은 꽃다발 조직의 중심 인물이었던 분이었다. 그분은 나에게 꽃다발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나는 그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그분은 꽃다발 조직의 중심 인물이었던 분이었다. 그분은 나에게 꽃다발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나는 그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이 '합주'는 지역 정화위원회 출범 및 지역에서 일 년 남짓을 함께 보내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 게 있었지. 본 봉투 갖다 주면 입이 벌어지던 정찰들이 단속입네 하면서 뜯다갔다하는 것하고 정화위원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뭐가 달라. 내 생각에는 정화 교육 받아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보주들이었다구. 그 사람들의 작업이나, 사생활, 태도, 어느 모로 보나 지역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지. 지역 정화 하기 전에 우선 그 사람들 가정부터 정화해야 하는 거였어."(성은아, 기혼, 당시 36세)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성은아 씨에 의하면 사회정화위원회 자체에 대한 불신도 높았지만, 위원직을 지지하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거의 신뢰가 없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사회정화위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회의를 하고 또 정기적으로 지역을

1) 일부 용어에 대해 부업녀 업어만 여성들의 표현을 따라 쓰기도 했다. 이를테면 '보주'(업주), '가정사정', '이주여', '불법'(매춘에) 등의 용어가 그러하다.

고 생각한 여성들의 노하이다. 이것이 여성들 안에 존재했던, 지금껏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스스로의 힘'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지금껏 여러 연구와 NGO의 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는 여러 대안이나 심에에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에 앞서, 여성들 스스로가 현실적으로 느끼던 삶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들여보고 싶은 것이다. 이런 취지으로 나는 여성들의 자식 조직 계나리화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소집

1980년대 초반, 전두환 정권은 대대적인 사회 정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사회를 깨끗이 만든다는 의미의 '운동'이다. 하지만 사실 그 운동의 내부를 들여보면 단지 더러워 보이는 부분을 그럴싸하게 잡추고 정비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정권의 사회 정화 대상은 부랑인, 건달을 비롯해 심에에 지역의 여성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듯 보이는데, 그 과정을 보면 근본적 해결책 없이 일시적인 '정소'의 의미가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사회 정화 운동의 정당성은 제대로 성립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매우 비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전두환 정권의 대대적인 사회 정화 운동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자아냈으며, 실제로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축감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심에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저가 당시자 여성이든 '가정사정'이든 '보주'든 간에 구분 없이 모두 다 어이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1980년에는 삼청교육대 소문을 듣

2) 오래된 심에에 밀집 지역에서 본의 사용되는 이 말은 성을 파는 행위 혹은 성을 팔도록 중용하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 어이가 담겨 있다. 정부에 따라 업주 여이에서만 이루 끝 어둠이 되는 행실을 포장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게 결성된 일반인은 그 자체에서 최의를 얻어 지식적 이름을 '거나니다' 라고 것도 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자유롭 원칙을 '거나니다'라는 이름은 성운이 하가 짝합한 것이었다.

"거나니가 된 동아면, 거울 거나고 봄에 세일 먼저 마는 것이 거나니를 이. 그러니까 최장 이런 것도 비슷하지고. 우리 속에서 세일 먼저 꺼나야 장 하기도 하고. 이거를 지식을 바슷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장하게 최장을 거래 보자는 거였지. 그러니까 장 그래요 이거래들의 것이었다."(성운이)

내가 알고 있는 또 다른 거식의 여서 '민들레', '장밋빛 장 꽃과 손잡고 이를이었던 것 마음이었다. 고수희 씨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것 이건 이거래들의 최장이. 이거래. 씨. 이거, 그러면 꽃이라."(고수희)

거나니의 최원의 거식은 이름이 표현한 것처럼 '마거래 세일 가능했다. 여기서 주장 표현되는 '마거래 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비나 좋은 이거의 농업뿐 의 이야기 아니라 그 거래 이름의 거래 최장 세일 가능한 모든 이식이었다.

'이 중장 거 공식서 말했는데 '마거래 한다는 이거래들 스무 명이 모여서 무료를 먹이. 그게 말 이거들도 최장으로 추천받아서 참장했 장(그)거 씨 거래이 했었어. 씨 말 거식 나식서 거기가 최장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씨, 이런 거 말 표도 하고. 나는 참대로 최장을 안 하겠다. 필으니까. 최장 씨 말 했었고. 네가 다른 여자 한 명이랑 부최장을 하고. 총무 한 명. 각 구역 대표도 했었겠."(성운이)

어. 그래서 속으로 몰록하지 않았다고 자랑하려면 너다 해봐라. 어디 한번 정면으로 부딪쳐서 얘기 해보자, 그런 심산이었지. 사무실에 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글쎄, 한 스무 명 정도가 먼저 와서 모여 있던데, 아는 아가씨 얼굴도 있고. 정화위원 하던 남자 중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따로 불러내는 부탁이 있다고. 아가씨들 권익을 위해 함께 일해 보지 않겠냐는 거야. 난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 있던 다른 사람들도 다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야. 하지만 난 나서서 한다는 게 너무 두렵더라구."(성운아)

1980년 초 삼청교육대에 소집될 것을 우려해 동료 몇 명과 인근 지역으로 도피한 경험이 있는 성운아 씨는 자신에게 그런 제안이 들어온 것이, 스스로의 표현에 의하면 늘상 '꼴통 짓' 만 하던 자신의 '정다구' 때문이었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주변 여성들에 의하면 성운아 씨는 당시 여성들이 피아야 하는 상황에 누구보다도 많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자신의 주장을 똑바로 내세우는 이상이었다. 더러는 업주나 펨프와의 마찰도 심심찮게 일어났는데, 그런 경험이 거듭될수록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될 여자' 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업주들과는 반대로 동료 여성들이 보내는 성운아 씨에 대한 신뢰는 두터 깊었다.

성운아 씨는 그날의 분위기를 "무척 진지했다"고 표현했다. 제안을 받은 자신이나 제안을 한 주변 사람들, 정화위원직을 사퇴하지 않은 업주와 동료 여성 모두가 그러했다고 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 자치조직을 만들자는 것에 깊이 공감했다. 하지만 "당신이 나서서 무슨 회를 맡아 이끈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성운아 씨는 거기에 동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화위원들이나 여성들 사이에서 한참 동안 이런저런 말이 오가더니 누군가가 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회장단만큼은 우리 손으로 직접 뽑겠다"

원는데 게는 모주니가 세의했고 나한테 온 거지."(고수희, 가명, 당시 50세)

1974년부터 울산 지역에 정착해 생활하던 고수희 씨는 여성들 사이에서 꼴통 짓 부리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는데, 그의 '꼴통 짓'은 주로 업주나 정화위원들을 향한 것이었다. 정화위원들이 고수희 씨를 제일 먼저 찾아가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가 여성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얼마 후 그들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각 골목을 대표할 만한 여성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했다. 그 자리에 불려 나간 여성들은 몸내에서도 '한 가닥 한다는, '만만치 않은' 부류들이었다. 이 의미는 손님에게건 업주에게건 고분고분하지 않은 여성을 뜻했다. 정화위원들은 자신들이 모임을 주최한 의도를 설명했다. 그들은 여성들끼리 자체적으로 '정화'를 위해 활동해 보라고 제안하면서, 그러려면 이를 이끌 사람이 필요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보자고 했다.

"나는 성운아를 추천했어. 나랑 별로 친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제일 나았어. 그 당시 그 사람말고 할 사람이 없었어."(고수희)

고수희 씨가 말하는 '제일 나았다'는 말이 무엇을 기준으로 이르는 것인지 궁금했다. 어떤 사람이 회장이 되느냐에 따라 여성들의 자치회 성격이 판가름 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학벌, 아줌 씹물이, 인정, 똑똑하고, 세고, 우선 세다는 거, 세지 않으면 못해. 친달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버티 내냐. 그리고 교지하하고, 거짓이 없었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자유에는 힘들더라도 이겨어 나갈 것 같았어, 내 짐작이."(고수희)

고수희 씨가 그를 처음 추천한 것은 정화위원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부터였는데, 정작 성운아 씨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모임에 참석했다.

"난 처음에 내가 정화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아서 나를 부르는 건 줄 알았

대해 한결같이 부정적으로 희상했다. 성은이 씨는 단속에 걸려서만이 아니라 '꿀풍 짓'을 부리는 등에 경찰들에게 입보여 수용소에 입소했던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 단속에 걸린 여성들을 부녀보호소에 입소시켜 직업 교육을 받게 했다. 하지만 그곳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감옥 같은 곳'이라 부를 만큼 그곳은 '계몽'보다는 수용의 기능이 더 컸다. 따라서 많은 여성들이 자다의 경찰에게 돈을 주면 없지 수용소는 절대로 갈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 상황은 1980년대 내내 성을 파는 여성들이 직면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작용하였다.

도전

개나리회 임원단이 회의를 거듭할수록 회장에 대한 물산이 커져 갔다. 그러던 중 첫날 회장으로 선출된 여성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며 사퇴를 하자 부회장으로 참여하던 성은아 씨가 다시 회장 후보로 거명되었다. 결국 그는 회장직을 맡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임원 회의를 소집하면 목소리 큰 사람들만 중구난방으로 떠들다가 끝나갔는데, 나중에는 제법 회의가 됐지. 그때 목적, 사업 내용 이런 걸 정했어. 내가 생각한 거 몇 가지를 적어 가서 질문에 적고, 그런 식으로 회의를 했는데, 첫째가 권익 옹호를 위해 힘을 해보자는 게 제일 컸어."(성은아)

개나리회 임원들은 나름대로 회의 체계를 갖고 개나리회의 목적과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정했다. 거기에는 회장 성은아 씨가 제안한 내용들이 크게 중심을 이루었다.

나는 그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당시 개나리회의 목적과 활동 내용이 적힌 간략한 문서를 건네받았다.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수동 타자기로 작성된 이 문서에는 누군가 도문으로 밑호를 치고 빈칸을 보충하느라 고심하며 남긴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나는 이 문서를 건네받고 적잖이 놀랐다. 이 문서가 지금껏 보관되고 있었다는 것, 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자료였다는 점 때문만은 아니었다. 20년 전에 그들이 자신들 자신 조직의 구성 목적과 활동 내용으로 명시해 놓은 사항들 때문이었다. 우선, 그 내용의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개나리회의 구성 목적 및 활동 사항

목적

1. 자체 정화: 정부의 사회 정화 사업에 동참
2. 회원의 권익 보장
—포주, 펨프, 기둥서방, 공무원으로부터의 착취 방지
—억압에서의 해방
3. 회원간의 친목 도모
—불우한 동료나 아픈 자를 돕는다
4. 빠른 자립(직업 전환)
5. 건강 관리(성병, 자나친 출연,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에서 오는 정신 착란증)
6. 관(정부)으로부터의 독인(보호나 인정이 아님)

활동 사항

1. 1인 1통장 갖기 운동(자립을 하기 위한 가장 첫째 조건)
2. 건강 관리
3. 기둥서방 없애기, 펨프 손님 안 받기
4. 상습 도박 퇴치 운동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오늘이 오늘이 오늘이
아니길 바랐어, 그게 주은 발인가 알아?

있었다. 여성들 사이에서도 그의 따뜻한 처지는 늘 화젯거리가 될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임원단의 그 제안은 죽석에서 성금을 걷어 함께 발족식에 참여해 있던 그 여성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데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다.

이 날의 일은 이후 개나리회 활동의 핵심 활동 중 하나가 되었다. 이들이 개나리회를 구성하여 가장 크게 염두에 두었던 것은 업주, 경찰, 가동서방, 펨프 등으로부터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는 것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동료 여성을 돕고, 소외 계층을 위해 자원 봉사를 하는 것이었다.

견제와 대항

개나리회는 발족식을 가진 사흘 뒤인 7월 25일부터 사업 내용으로 정한 것들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첫 사업은 용산역 광장에서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역 이용자들에게 얼음 넣은 시원한 보리차를 제공하는 일이었다. 그 시절 용산역은 식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던 터였다. 또한 오가는 여행객들이 남긴 쓰레기와 갈 곳 없는 노숙자들이 뿜어낸 혼잡들로 늘상 지저분했다. 여성들은 새벽마다 용산역과 인근 거리 청소하는 일도 시작했다.

발생 명업을 한 여성들로서는 자신들의 수면 시간을 온전히 그 일에 투자하는 것이었는데도 참여율이 무척 높았다. 용산역에는 개나리회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매일같이 걸렸다. 초창기 이런 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들에게 천 원씩 걷은 것으로 충당했다. 이 일에는 업주들도 여럿 참여했는데, 여성들에게 수고한다면서 음료수를 사 주기도 했다. 몇몇 업주의 참여는 여성들의 사기를 더 북돋워 주었다.

"다들 싱글벙글이었어. 업주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우유나 요구르

제 여성, 여성과 손님, 여성과 가동서방, 여성과 사이 주인 관계에서 온다. 모순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사랑가이다. 하지만 그곳이기에 그녀이 무리들을 감아들며 생활할 수 있다는 여성들의 특색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직면하기에는 너무도 두모한, 여성들이 처아 직면하기를 여러했던 수많은 경제신들이 높고 두텁게 처져 있었기 때문이라라.

나는 특히 '회원의 권익 보장—업주, 펨프, 가동서방, 공무원으로부터의 착취 방지, 억압에서의 해방'이라는 문구에 주목하였다. 대군다나 개나리회의 태생이 당시 정부의 정책에 루리를 두던 정화위원회에 기인한다고 본다면, 이 문구는 가히 파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셈이었다. 그럼에도 도움을 준 업주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나로서는 연못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동료 여성을 위한 활동 내용에 여러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자치회가 이미 태생적 한계를 충분히 떠어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지 일선 위원회의 과행을 포장하기 위해, 정화위원회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 부류, 특히 업주들에게는 이 개나리회가 품고 있던 목적과 활동 내용이 거의 도전에 가까운 것이었다. 따라서 개나리회와 업주, 펨프, 가동서방 사이에서는 이미 적잖은 마찰이 예견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 목적과 활동 내용을 정한 개나리회는 1981년 7월 22일, 인근에 있는 용산카비레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임원들은 개나리꽃을 상징하는 샛노란 티셔츠를 단체로 맞춰 입고 행사장으로 향했다.

"되게 많이 모였지. 그때는 업주들이랑 그렇게 사이가 나빠지기 전이었으니까 자기네 아가씨들 다 동원해서 오고 그랬어."(성은이)

발족식에서는 의례적인 인사말과 개나리회의 취지 등이 발표되었다. 이때, 임원단이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장애인으로서 화랑아니를 모시고 사는 동료를 도와 주자는 것이었다. 그 여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연을 알고 이 그녀 같은 목적에 쉽게 힘이될 수 있었던 까닭이기도 했다.

"박말도 몇 년 전 종 같은 업소에 있다 안에서 내가 손님에게 타일으로 만들어 준 선물 받으려 오신 분들 포주에게 부탁하기 전에 조용히 찾아와 '우리들의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말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인 셈에 어른이 '사랑구 에 모여든 여성들은 그곳에서 쌓여를 해우면서도 헌법으로는 그 어느 곳보다도 편안함을 느낀다. 업주

"그 회가 생기고 나서 여성들이 단체로 집이랑 주차장 다 폐쇄해 서울 어디에서 행사를 하든 쉬운 게 없어요.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큰 아픈 여자들 아니라도 개인적 회원들도 다 모이면 엄청나죠.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정숙자)

이런 방법은 개나리회 창립을 빼고 모두 성공적이었다. 개나리회 창립 때는 정부 당국이 여성들의 집회 자체를 불허하는 바람에 장소 섭외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결국 여성들은 서울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회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창립 장소를 알려야 했다. 그 과정에서 회원들 사이에 '혹시 이러다 모임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했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창립 대회 당일 모인 회원들은 그 모든 불안감을 떨쳐 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많았나?" 하고 놀랄 정도로 많은 숫자였다고 한다.

"그렇지 않았어. 누가 알아볼까봐 오자 복 눌러 쓰고 했지만 그런 생각은 없었어. 우리도 신청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했지.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는데. 용산에 가면 우리처럼 자매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야. 택시 기사들도 우리가 시원한 음료수 나눠 주면 그거 받아 마시면서 아, 정말 수고한다고 그리고, 근데 사람들이 원수박보고 저 개나리회가 뭐하는 데냐고 물어 보면 그냥 지역 봉사회라고 얼버무리곤 했어."(성은이)

처음에는 자신들이 '그런 여자들'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 어느 순간 이후 단절된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증오가 교차하는 그들로서는 자신들의 존재가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자신의 존재를 여전히 가슴속에 품고 있을 가족과 지난 날 앨범을 함께 장식했던, 어느 순간 이후 단절된 가까운 이들에게 말하는 심리는 낯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작동하였다. 그럼듯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은 그들 모두가 거의 비슷했다. 혹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지지는 않으려나, 혹시 저 사람이 내가 어젯밤 상대했던 손님은 아닐까, 내 배우네가 '그런 여자 딸' 을 내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는 어느덧 사회 전반에 대한 두려움이 되기도 했으며, 그 두려움의 두께만큼 사회에 대한 반감도 커졌다. 이런 여성들이 스스로 '홍등가' 가 아닌 또 다른 거리를 향해 나간 것이다.

개나리회 활동이 여성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발족의 배 어려운 처지의 동료 여성을 도왔던 것을 시작으로 무분별 동료들에 대한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런 자세는 발족의 이후에도 한결같이 지속되었다.

"아픈 아가씨들 입원시키고, 집집마다 돈 갚아서 도와 주고. 아가씨들 아프면, 개나리회 회원 아니라도 아프면 다 했어. 또 아가씨 두들겨 패면 우리

것 같아. 경찰들 아니라 손님이나 쏠표. 가둥. 업주이니 한쪽에서 그런 적도 많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특히 업주들은 그렇게 하면 일하는 아가씨들이 돈을 많이 벌어 주는 줄 알아. 술 많이 먹이고 그러면 자기들이 돈 버는 줄 알아. 그래서 아가씨들 스카 내서 사장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돈을 다시 받게 되니까 업주들이 아주 많이 괴롭히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업주들 모임에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어. 그러면 업주들이 우리 말을 듣는 척하다가 또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또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또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없다.

"넌 사람이라는 말이 세탁해, 하면서도 계속 말이 섞으로 피부이 옷을 다 벗겨. 그러면서도 한 번도 끝이 없이 계속 섞이고 전염이면 전달. 섞 주면 없음, 분하이 설득하고 그러니까 안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 외피에 귀."(은소영, 가명, 당시 23세)

은소영 씨는 이미 겨울이가 어느 정도 활동을 시작하고 난 뒤, 같은 섞 소속 친구의 소개로 겨울이를 섞게 된. 그녀 표현에 의하면 '옷에 홀 조'라기에 함께 활동을 시작한 여성이었다. 그는 성은아 씨나 정숙자 씨 같이 아무런 직책도 없이 많았음에 활동 경력도 6개월로 꽤 짧았다. 그러한 최연으로서 겨울이를 활동에 참여했으나, 이후 활동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섞도 싸, 탐험 맞을 정도였어. 어디선가로 막 나가는 게 다 무서웠죠. 섞 주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 오토바이로 소문난 최장이 뒤에 타고 나가는 걸 꾸어서한 적이 있었어. 해안 도용을 받은 섞이었어. 그런데 겨울이를 섞게 되면서 그녀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다. 은소영 씨는 섞 활동을 한 심정이 겨울이를 활동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말한다. 은소영 씨는 겨울이를 활동을 하면서 '여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불편했다고 말한다.

정숙과 씨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에게 콘돔을 나눠 주는 것이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을 단지 성매매를 인정하는가 혹은 성매매를 장려하는가 하는 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이분법적인 발상이다. 문학 높은 사회적 자원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당장 오늘밤에 활용할 수 있는 콘돔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현실을 여성들의 이기성으로 몰아붙여서도 곤란하다. 그것은 지금껏 성을 파는 여성을 위한 사회 복지 개념조차 변변히 마련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나리회는 건강 관리 차원의 성병 검진을 정기적으로 펼치는 한편, 손님들에게 콘돔 착용을 요구하자는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게나리회에서는 실제로 여성들에게 콘돔을 나눠 주며 홍보하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여성들의 호응은 무척 높았다. 하지만 그런 요구를 '남성 고객' 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보건소와 공동으로 비정기적인 '교양 강좌' 를 몇 차례 개최하기도 했다. 그 내용은 주로 성병 예방 교육에 관한 것이었는데, 당시 조금씩 언급되곤 하던 에이즈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다.

여성들이 성병 관리를 하는 것은 업주 처지에서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었다. 그들 표현을 빌리면 '깨끗한 남비' 를 공급하는 것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도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게나리회의 성병 검진 활동을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그것은 이마도 성병 검진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여성들의 집단적 움직임에 대한 견제였을 것이다. 이러한 견제는 게나리회뿐만 아니라 이들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던 보건소 소장에게까지 확대되었으며, 급기야는 성병 검진을 통보하여 다니던 업소들에게 이유의 업무 폭행을 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선언에서 일상으로

활동이 안정되면서 이들의 관심은 여성의 일상 생활에서 더욱 필요한 문제들로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다. 이들의 활동 영역은 역 광장과 성매매 거리뿐 아니라 여성들이 겪는 하루하루의 생활로 옮겨갔으며, 대항하고 투쟁하는 것보다는 동료 의식을 키우며 서로간에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쪽으로 점점 바뀌어 갔다. 정조사 생기기, 물건 싸게 팔고 싸게 사기, 계산 잘해서 받기, 1인 1통장 갖기, 약 줄이기, 서비스 개선하기, 고운말 쓰기, 놀을 화투 줄이기[9] 등의 항목은 당시 여성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들이었다.

"우리는 순 깡다구로 똥친 여자들이었지만, 역전에서 보더래도 나눠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눈길이, 이게 살아가는 이웃의 장이로구나 했지. 초상 나면 열 입을 제쳐놓고 와 주고, 무슨 날 챙기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었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단한 억압에 대한 대항 그런 거였지만 점점 보편적인 걸로 바뀌어 간 거야." (정숙자)

정숙과 씨의 표현처럼 게나리회 활동은 "억압에 대한 대항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바뀌어 갔는데, 이는 "선언적인 것에서 일상적인 것으로" 변모해 갔다는 의미이다.

회원들의 경조사를 챙겨 주는 일은 결속력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대부분의 여성이 자신의 생일조차 잊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런 여성

9) 「게나리회의 구성 목적 및 활동 사항」에는 '상습 도박 퇴치' 로 명시되어 있다.

들에게 콘돔 착용을 요구하자는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게나리회에서는 실제로 여성들에게 콘돔을 나눠 주며 홍보하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여성들의 호응은 무척 높았다. 하지만 그런 요구를 '남성 고객' 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보건소와 공동으로 비정기적인 '교양 강좌' 를 몇 차례 개최하기도 했다. 그 내용은 주로 성병 예방 교육에 관한 것이었는데, 당시 조금씩 언급되곤 하던 에이즈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다.

여성들이 성병 관리를 하는 것은 업주 처지에서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었다. 그들 표현을 빌리면 '깨끗한 남비' 를 공급하는 것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도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게나리회의 성병 검진 활동을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그것은 이마도 성병 검진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여성들의 집단적 움직임에 대한 견제였을 것이다. 이러한 견제는 게나리회뿐만 아니라 이들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던 보건소 소장에게까지 확대되었으며, 급기야는 성병 검진을 통보하여 다니던 업소들에게 이유의 업무 폭행을 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선언에서 일상으로

활동이 안정되면서 이들의 관심은 여성의 일상 생활에서 더욱 필요한 문제들로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다. 이들의 활동 영역은 역 광장과 성매매 거리뿐 아니라 여성들이 겪는 하루하루의 생활로 옮겨갔으며, 대항하고 투쟁하는 것보다는 동료 의식을 키우며 서로간에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쪽으로 점점 바뀌어 갔다. 정조사 생기기, 물건 싸게 팔고 싸게 사기, 계산 잘해서 받기, 1인 1통장 갖기, 약 줄이기, 서비스 개선하기, 고운말 쓰기, 놀을 화투 줄이기" 등의 항목은 당시 여성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들이었다.

"우리는 순 깡다구로 똥친 여자들이었지만, 역전에서 보더래도 나눠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눈길이, 이게 살아가는 이웃의 장이로구나 했지. 초상 나면 열 입을 제쳐놓고 와 주고, 무슨 날 챙기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었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단한 억압에 대한 대항 그런 거였지만 점점 보편적인 걸로 바뀌어 간 거야." (정숙자)

정숙과 씨의 표현처럼 게나리회 활동은 "억압에 대한 대항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바뀌어 갔는데, 이는 "선언적인 것에서 일상적인 것으로" 변모해 갔다는 의미이다.

회원들의 경조사를 챙겨 주는 일은 결속력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대부분의 여성이 자신의 생일조차 잊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런 여성

9) 「게나리회의 구성 목적 및 활동 사항」에는 '상습 도박 퇴치' 로 명시되어 있다.

떠난 1명을 상회

개나리회 당원들은 특히 1인 1통장 갖기 운동에 남다른 의욕을 쏟아내고 또 자부심도 갖고 있었다. 이 활동은 '거림을 준비하고, 업주와 기꺼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직원이 되어 보자'는 그들 스스로의 학습을 통한 운동이었다. 계산 잘해서 받기 운동이 단기적 투쟁 성격에 공간에서 스스로를 하루 종일 한다를 위한 운동으로 시도해 본다는 넓다른 의미가 있었다. 아울러이 계 통장을 가입하고, 계약 를 프맛보기 서클하는 것, 당시로서는 통장을 위했는 시도이기도 했다.

정수가 속는 개나리회의 1인 1통장 갖기 운동 배경은 당시 기꺼이를 이번 속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처음에 생활하는 어려움이 서서, 손님들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 보고 그런 걸 하는 것도 없고 해서 화장도 하고 옷도 사고 머리도 해야 하는데 돈도 없고 적금 같은 거는 생각도 못 하고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은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막 써버리는 거예요. 계를 들어 적금 같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번 만큼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정순이)

계산 잘해서 받기 운동에 대한 어려움이 오히려 더 커지는 계기를 만들어 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계산을 잘해서 받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들이 계산 잘해서 받기 운동을 벌인 것은 손님만 아니라 일부 업주를 겨냥한 것이기도 했다. 손님에게 비용에 통정된 '가격'을 받아들지 못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업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액수를 제한 뒤 셈해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었다. 셈에 느리거나 자기 몫을 제대로 챙기 받지 못하는 경우는 그만큼 혼했던 것이다. 이상을 통해는 개나리회에 그런 문제를 호소해 오는 이들이 많았다.

"그런 일이 많이 생겼지. 주로 주인하고 싸우고 화대 계산 안 해준 거, 그런 거 많아 주고. 회장이 해줬지. 지금은 많은이지. 지금은 예절이 똑똑하잖아. 옛날에는 노골적으로, 질문이돌만 왔지, 시골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몸뚱어리나 팔고, 밥이나 먹고, 밥도 제대로 안 해줬어. 계산 안 해주는 사람들 많았지. 그걸 어떻게 따졌겠나? 게다가 그때는 업주가 백이 센데, 옛날에 수동소에 잡아넣어 버린다고 하면 그럴 수 있나?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럼 가서 막 따지고, 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고, 회장이 알장서서 했지. 그럼 해줘야지 어떻게 할 거야. 몸에서 그런 경우가 없어. 우리 개나리회가 해준 거지."(고수희)

처음에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직접 해당 업주를 찾아가 담판을 지어 계산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던 것이 점점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당시에는 업주랑 한 달에 한 번씩 계산을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주가 얼만큼을 떼어먹어도 아가씨들이 그걸 몰라. 계산 본 걸 받

실에게 이익국을 대접하며 생일을 기억하게 하고 아플 때 찾아가 위로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다. 은소영 씨는 이 일에 대해 깊은 인상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활동을 주도하는 임원들이 자신들과 같은 처지인 '아가씨'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몸전 세계 돌고 세계 사기

개나리회 임원들은 처음, 수건, 속옷, 비누 등 생활용품을 도매값에 떼어다가 처음 내 걸 판매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여성들에게 팔았다. 이때 남은 이익은 개나리회의 재정으로 관리하며, 다시 여성들의 경조사 행기기와 같은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썼다. 인근 상인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아예 개나리회 활동의 하나로 인식하게 되었다.

"처음, 비누, 그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싸게 팔았어. 빨래비누, 세숫비누 그런 건 꼭 필요하니까. 세니까 사기도 했지만 개나리회에서 파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이, 도움되라고 그걸 샀지."(은소영)

성매매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이른바 '사창가' 지역은 물건값이 비싸다. 그 지역의 경제는 성매매로 인해 활성화되면서도 정작 그 중심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물가는 일반 주거 지역에 비해 턱없이 비싸다. 그것은 여성들이 다른 지역에 나가 교류할 수 없다는 점, 여성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업주들의 감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이용한 현상이기도 하다. 여성들 역시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효율한 방법을 찾지 못한다. 그런 지역에는 오래 보따리 장사들이 다니는데 그들이 파는 물건은 '홈복'을 비롯해 속옷, 신발 등 일상에 필요한 온갖 생활용품이다. 이 역시 여성들이 밖으로 쉽게 나가지 않는(혹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것인데, 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들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소비를 하게 만들기도 했다. 보따리 장수들이 들고 다니는 품목이 조금 바뀌었을지는 모

"처음에 되는 거라곤 오직 용감뿐이었지 씨. 약속 하나 있을 뿐이라도 의로운 도모고 정의한 것도 모르니까. 하루에 오십 개도 후고 육십 개를 만을 넘 도 있었어. 투명지랑 붙은 게 없다고 생각했지. 유 넣는 손님이 설어내기 주 유 대신 사용 하는 거야. 유 먹는 손님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래도 씨,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어. 눈뜨면 손님 받고, 손님 받아야 다시 유일 먹고. 약 기운으로 기분이 좋아지면 또 손님 받고."(양순이)

그렇게 벌어 넣는 '유일 이 성매매도 수십 년을 넘어 이어졌다. 유흥업이 장한 환각제를 동반하는 것은 성매도 단기간에 큰 성과를 보이기는 힘들었다. 그런 약물에 '잘못 손 대어 이용당하지 않으려 가는 것이다. 만일 그런 목소리를 냈다 하더라도 화학물의 오용은 엄격 포렛을 것이다.

"그 당시는 약물이었어. 주구었대. 약을 하도 먹어서 누구 하나 가 어리가 좀 이상했어. 정신 씩. 그런 일으켰어. 옛날에는 어떤 주인이 그런 먹으라고 먹어 줬어. 일반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 게 좀 많은 손님이 아야 하니까 약을 먹는 거야."(순녀)

복용하지 않는 사람 손에 들어도 될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환각제를 이용했다. 영업 나온 용기를 얻기 위해 한 알 두 알 먹던 '투명 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가 늘어났다. 영업 분위를 위해 먹어 넣고, 맛을 맛은 손님이 먹어 넣고, 먹어가 이래서 먹어 넣고, 영업사원이 기분 나쁜 말을 들어서 먹어 넣은 그런 식이었다.

성매매 여성들이 환각제를 복용함으로써 얻는 것은 많은 돈이 벌어지는 것뿐이었다.

"옛 그렇게 식이구나를 테레비 세월는데 봤어. 이랬도 좋고 사람도 좋은 사람이 있어. 글은 이 영업은 그러 요속이 많이 있었어. 그렇게 생각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도무지 모르겠어. 약 먹고 좋 나면 좋은 그렇게요. 그렇게 세워줬는데 도무지 모르겠어. 약 먹고 좋 나면 좋은 그렇게요. 그렇게 생각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들의 활동 영역은 역 광장과 성매매 거리뿐 아니라
여성들이 겪는 하루하루의 생활로 옮겨갔다.

사랑스러운 무궁화 인쇄기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낄 수 있던 어느 활동가의 모습.

"우리들이 우리 손으로 인쇄를 한 그날 얼굴을 제 그날 얼굴을 해야 돼요. 땀이 흐르고 있고 눈이 충혈이 되어 있고 이런 얼굴을 해야 돼요. 그 얼굴이 우리 얼굴이 아니라 우리 얼굴이 아니라 우리 얼굴이 아니라

별과 우주 생명체

별의 탄생

별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별은 우주 공간에 떠돌아다니는 가스와 먼지가 모여 만들어진다. 가스와 먼지가 모여 별이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스와 먼지가 모여 있는 곳에 중력이 작용하면 가스와 먼지가 중심으로 끌려가 뭉치게 된다. 이때 가스와 먼지가 뭉치는 것을 '성운'이라고 한다. 성운 속에서 가스와 먼지가 계속 뭉치면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이 높아진다.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면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별이 탄생한다.

별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질량이다. 별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강하게 작용하여 가스와 먼지가 더 많이 모이게 된다. 따라서 질량이 큰 별일수록 더 빨리 탄생한다. 반대로 질량이 작은 별은 탄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별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온도이다. 별의 온도가 높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 별의 온도는 별의 색깔로 알 수 있다. 별의 색깔은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다르다. 온도가 높은 별은 파란색으로 보이고, 온도가 낮은 별은 붉은색으로 보인다.

별의 탄생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스와 먼지가 모여 성운을 이룬다. 성운 속에서 가스와 먼지가 계속 뭉치면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이 높아진다.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면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별이 탄생한다. 별의 질량이 클수록 더 빨리 탄생하고, 별의 온도가 높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

별의 진화

별은 탄생한 후 어떻게 변화하는가? 별은 탄생한 후 일생 동안 끊임없이 변화한다. 별의 일생은 별의 질량에 따라 다르다.

질량이 작은 별은 수소를 천천히 태우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빛을 낸다. 태양과 같은 별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별은 수소를 다 태우고 나면 중심부가 수축하면서 온도가 높아지고, 바깥쪽은 팽창하여 적색거성이 된다. 적색거성은 표면 온도가 낮아 붉은색으로 보인다. 적색거성은 중심부의 헬륨을 태우다가 마지막에는 바깥쪽 층을 우주 공간으로 날려 보내고 중심부만 남아 백색왜성이 된다. 백색왜성은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고 서서히 식어 간다.

질량이 큰 별은 수소를 빠르게 태우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매우 밝게 빛난다. 이러한 별은 수소를 다 태우고 나면 중심부가 수축하면서 온도가 매우 높아지고, 바깥쪽은 팽창하여 초거성이 된다. 초거성은 중심부에서 헬륨, 탄소, 산소 등 무거운 원소를 차례로 태우다가 마지막에는 철을 만들게 된다. 철은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심부가 갑자기 붕괴하면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킨다. 초신성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큰 폭발 현상 중 하나이다. 초신성 폭발 후 중심부에는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남는다.

중성자별은 매우 작고 밀도가 높은 별이다. 중성자별은 1초에 수백 번 회전하기도 한다.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천체이다. 블랙홀은 직접 관측할 수 없고, 주변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측한다.

별의 진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별은 질량에 따라 일생이 다르다. 질량이 작은 별은 적색거성을 거쳐 백색왜성이 되고, 질량이 큰 별은 초거성을 거쳐 초신성 폭발을 일으킨 후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된다.

우주 생명체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할까? 이 질문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체가 무엇인지 정의해야 한다. 생명체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거나 외부에서 양분을 얻어 에너지를 얻고, 성장하고, 번식하고, 환경에 반응하는 존재이다.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액체 상태의 물이 필요하다. 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당한 온도와 압력이 필요하다.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우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다.

지구는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지구는 대기가 있어 온도와 압력을 적당하게 유지한다.

우주에는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진 행성이 많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주에는 수많은 별이 있고, 각 별마다 행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주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사람은 아직 없다. 우주는 너무 넓고,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이다. 현재 과학자들은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외계 행성을 찾는 것이다. 외계 행성은 태양계 밖에 있는 행성을 말한다.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해 과학자들은 별의 밝기 변화를 관측한다. 외계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별의 밝기가 조금 어두워지기 때문이다. 이 방법을 통해 지금까지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다.

두 번째 방법은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는 것이다. 외계 행성의 대기에 산소, 메탄, 물 등이 존재하는지 분석하여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판단한다. 이 방법은 외계 행성을 찾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밀한 관측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방법은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것이다. 외계 지적 생명체는 우리와 같이 지능을 가진 생명체를 말한다.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기 위해 과학자들은 전파 망원경을 사용하여 우주에서 오는 전파 신호를 분석한다. 외계 지적 생명체가 보내는 신호를 찾기 위해서이다. 이 방법은 외계 지적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언젠가는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실했으며, 회장의 리더십이 자신들의 활동에 가장 핵심적인 바탕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회장이 아주 잘했어. 통솔력도 있었고, 정이 많은 사람이지. 회장도 돌봐 주라면서 그런 사람인데 지가 먼저 출산수발을 하고 변하는 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이끌린 거지."(정숙자)

"사람들이 말을 잘 따랐어. 그 말이라면 법벽 갔으니까. 옛날에는 정말한. 뭐 경찰서에 가서 저기 할 정도로 엉해 갈았대. 그런데 완전 돌돌이 아니고 의리파 돌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른 거야. 여자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어. 베나면 정당하게 옳은 일로 올분해서 돌돌 부리는 거니까 다 좋아했지."(손소영)

"어휴, 개나리 그만큼까지 왔던 거지. 노력을 정말 많이 했지. 아픈 애들 있으면 다 찾아다니고, 자네 집 대해다 놓고 밥해 먹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라도 좋게좋게 하고, 모이면 재있는 얘기 해주고, 엄청 노력했지. 내가 사람을 제대로 봐었다니까. 잔 내가 말하한 거야."(고수희)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는 성은아 씨는 개나리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를 '책임 많은 사람' 이라고 인식하며 업주나 기둥서방, 경찰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여유 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개나리회 말아서 할 때는 옛날의 내가 아니지. 구청이나 파출소에서 불러다 훈계하고 그러면 속에서는 끓지만 묵묵 놀라야지. 적어도 200명 넘는 회원들을 이끌어면 뭔가 달라도 달라야지. 생각하면 그땟 화 참는 건 어렵지 않았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활동을 중지시키려 해도 그게 우리 맹 땅이서 정한 거였나? 회원들이 모여서 결정한 거고, 그거 결정하던 날 우리나 회원들이 모두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 맛을 알아 버려서. 경고 몇 마디에 그만 둘 거면 시작도 안 했을 거야."(성은아)

나 역시 성은아 씨뿐만 아니라 주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실 그의 리더십이 아니었다면 개나리회가 그 숱한 난관을 이겨내며 꿋꿋이 활동해 내기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별들

개나리회의 활동이 인정되어 가고, 여성들 스스로 '우리들의 회' 라는 인식이 커져 갈수록 일부 언론에서 이런 개나리회의 활동을 취재하여 소개하기도 하였다. 언론에 소개되는 일은 여성들에게 몇 가지 의미가 있다. 이전에 자신이 속해 있던 모든 걸 버린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가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도 했으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받고 혼혼한 미담의 주인공으로 알려지는 데 대한 자긍심이 함께 교차했다.

이들의 활동이 언론에 알려지며 개나리회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다. 언론인, 작가, 종교인, 대학생 등이었는데, 이런 과정은 결코 유쾌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지는 않았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제법 찾아왔어. 기념품 같은 거 몇 상자 갖고 와서 사진 찍자고 그러고, 누가 그걸 좋아해? 그럼 내가, 딴 애들은 절대로 그런 대안 나설 테니까, 대신 내가 억지로 웃어 가면서 사진 찍고, 애들한테는 다 좋은 말만 전하고 그랬지. 지금도 기억나는 건 자기가 무슨 전도사라며 찾아온 남자가 우리 앞에서 큰소리로 기도를 하며 막 울더라고. 우리가 무슨 죄인이라면서 이걸을 통서해 달라는 거야. 정말 가증스러웠지."(성은아)

성은아 씨는 당시 자신들은 '악지 못했다' 고 했다. 신문기자나 작가 혹은 종교인이 찾아오면 그저 순수한 마음에서 그들을 맞았다. 지금이야 상해해

숙이라는 여성이었다.

소식을 들은 성은아 씨는 자기 방에 들어가 손에 잡히는 대로 돈을 챙겨 회원들과 함께 병원으로 갔다. 기가 막힌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지금까지 업주와 경찰, 그리고 동료 여성 내부에서 순탄치 않은 순간은 많았지만 이런 사고는 처음이었다. 성은아 씨는 마음속으로 '제발 죽지만 말아 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기는 했지만 별다른 기대는 하지 말라고 했다. 일행들은 그 여성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소지를 수소문해 그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얼마 뒤 가족이 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그 여성은 수술받은 지 사흘 만에 저 세상으로 떠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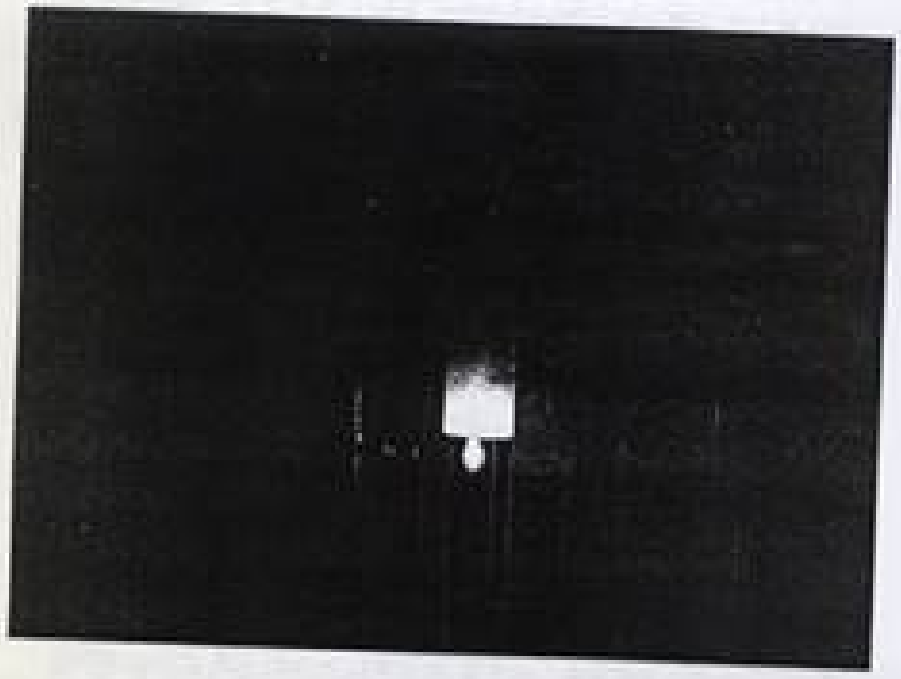
가족들은 개나리회에서 장례 절차를 맡아 치러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정작 그 여성의 장례식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서야 치를 수가 있었다.

"그때 장례 과정이 또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아? 화우지간 해결이 안 돼 가지고 한 달인지 50일 가까이 엄청나게 걸렸어."(정숙자)

성은아 씨는 그때 장례를 치르지 못한 것은 사고를 낸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였기도 하지만 달랑 장례 치를 비용조차 없어서였다고 말했다. 사고를 낸 측은 동대문시장에서 운반 일을 하는 남자였는데 아무런 보상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곧바로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땅 돈이 없어 여기저기 돈을 마련하러 다니며 영안실을 지켰다. 일반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영안실은 죽은 조영숙 씨의 가족과 개나리회와 청년회 회원들로 매일같이 붐볐다.

"문상 정도가 아니라 출퇴근을 했어. 아예. 영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마음이 공빌에 가 있으니까 업주들한테 욕을 되게 먹었지. 영업이 문제였지. 우리가 몰몰몰이기는 했지만, 하여튼 인간적인 면에서는 좋았어. 말하자면 희생심이랄까? 봉사 의식……"(정숙자)



개나리회 한 사람이. 몸 파는 년이라고 손가락질하던 한 아가씨가 그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병원 영안실을 지키는 한편으로 장례를 치러 주었다. 사람이 죽은 안타까운 심정보다도 그 주검을 서러운 개나리회의 동료의 모습 같은 생각에, 그리고 '몸 파는 여성' 한 명의 죽음에 그렇듯 각별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람들에 대해 예기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경찰에 의해 강요된 거나다름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이 나중의 각

그들은 병원 영안실을 지키는 한편으로 장례를 치러주기까지 했다. 사람이 죽은 안타까운 심정보다도 그 주검을 서러운 개나리회의 동료의 모습 같은 생각에, 그리고 '몸 파는 여성' 한 명의 죽음에 그렇듯 각별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람들에 대해 얘기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경찰에 의해 강요된 거나다름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이 나중의 각

그들은 병원 영안실을 지키는 한편으로 장례를 치러 주었다. 사람이 죽은 안타까운 심정보다도 그 주검을 서러운 개나리회의 동료의 모습 같은 생각에, 그리고 '몸 파는 여성' 한 명의 죽음에 그렇듯 각별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람들에 대해 예기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경찰에 의해 강요된 거나다름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이 나중의 각

무심코 소외감, 그리고 삶에 대한 공허감만 확인시켜 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을 사무실은 추가 서류정리원이 사용하던 곳으로 꽤 넓어 보였다. 혼자 그

들이 교민됐지. 그랬기 때문에 서로 많이들 자극을 주었지. 점촌도 이고 성서도 이고. 봐, 회장도 얼마나 노력을 했어. 후회를 해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당사에는 여기 용산에 오기 전에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내 용산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시계가 멈추어 버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여기에 이 몸로 있어야 될 사람처럼 생각을 했던 거야."(정숙자)

정숙자 씨의 답에는 이제 자신은 용산이 아니어도 살고 있지 않느냐는, 세 삶에 대한 자평의 의미도 숨어 있었다. 그들도 잘 알고 있었다. 사실 자신들이 염두에 두었던 '복론 자립 (작업 환환)이라는 말이 얼마나 요원한 것인지를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시도했다. 그들이 시도했던 것은 생계에서 벗어나거나 직업을 바꾸는 단순한 시도가 아니었다. 생계에 제계 안에서 말인 자존와 체념, 주변으로부터 가해지는 여러 굴레로부터의 자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편적 의미에서의 재활 혹은 전업의 의미로 국한 지을 수 없으며 또 그렇게 전주어져서도 안 된다. 자립은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생계에 공간을 벗어나는 것만이 자립은 아니다. 따라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흔히 요구했던 단순한 의미의 전업을 염두에 두었을지도 모르는 내 질문은 우문이었던 셈이다.

나는 자신들이 했던 활동의 제목을 얘기해 줄 때마다 무슨 운동, 무슨 운동이라고 했던 그들의 표현이 무척 흥미롭게 느껴졌던 터였다. 처음 그 문건을 건네받았을 때는 나도 모르게 설핏 웃음을 흘리기까지 했다. 사실 그 말은 생경스러울 수 있다. 기둥서방 없애기, 폐프 손님 안 받기, 고운말 쓰기, 계산 잘해서 받기 운동, 1인 1통장 갖기 운동, 약 줄이기 운동, 놀음 화투 줄이기 운동 등.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이미 일상 곳곳에서 자립을 시도하는 데 필요한 단편적인, 그러나 절실한 근거들이었다. 만나고 얘기 듣기를 무수히 되풀이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알 수 있었다. 그들이 그 대단하지 않은 문구들에 왜 고딕고딕 운동이라는 표현을 달았는지를 말

이다. 하지만 당시 용산역에서 일하던 여성의 수가 250명, 그 중에서 일반의 직책을 맡아 적극적으로 활동한 여성의 수는 고작해야 십여 명이었다. 개나리회를 보람과 자긍심으로 추억해 내는 이들에게 나는 그것이 '그들만의 조직'이 아니었느냐는 의심을 담아 보았다.

"그래, 우예넘게 무슨 고아원, 양로원엘 몰려가고, 무슨 운동을 한다고 그러고, 사회 객관적으로 보면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고향을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가면 푸근함을 느끼는 그런 거, 외출했다 돌아오면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 안정감 같은 거, 용산에 와서 진짜에 딱 내리면 아, 우리 동네에 왔구나 하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어. 하여튼 재밌었어, 우리도 정말 속수무책인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250명이 다 함께 한 것은 아니지. 하지만 그 절반만 동조를 한다 해도 의미 있는 거지."(정숙자)

정숙자 씨는 두려움과 막연함으로 마냥 주저앉아 있었던 용산이 개나리회 활동을 거치며 어느덧 푸근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 되었다고 했다. 대비되는 이 말은 언뜻 모순처럼 느껴졌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일상 속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되뇌던 시절, 그때는 용산이 끌해였다. 하지만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게 된 또 다른 일상 속에서는 푸근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고향이 되어 있었다. 그에게는 밤마다 낯선 사내에게 몸을 내주어야 했던 용산이 개나리회 활동을 통해 그토록 다른 의미로 여겨졌던 것이다.

나는 유독 '절반의 동조'라는 말에 힘주던 정숙자 씨의 아이기가 오래도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것이 비록 절반에 그쳤다 해도, 자신들은 그 절반의 동조를 얻어내지 않았느냐고 그는 단호히 말했다. 반론의 여지가 없는 말이었다. 성매매와 관련된 정책과 시행, 이를 둘러싼 무수히 많은 논쟁의 말, 그리고 몇몇 NGO로부터 시작된 여러 시도들에서 그런 동조를 얻

지만 여성들 사이에서 존재했던 자치 조직의 경험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 3년은 결코 짧지만은 않다. 개나리회는 '감히' 그 시절에 자신들의 처지와 마음을 선언했고, 비참하다고 판명하기만 했던 스스로의 삶에 비로소 용기를 부여 보았으며, '함께' 자신들만의 일상을 꾸려나는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립을 시도했다.

이는 비단 이 개나리회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발굴되지 않은 또 다른 자치 조직과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자생적인 움직임과 목소리 내기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존재했을 것이며 지금 이 순간도 진행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여기에 소개한 개나리회 이야기는 단지 그들만의 역사에 머물지 않는다.

개나리회가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보는 시도에는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하다. 어쩌면 낯설고 생경한 이 기록이 지금껏 우리가 지니고 있던 판념들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3년의 경험이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들이 용기를 부여한 우리도, 우리 사회도, 다시 그들 스스로도 새로운 지점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1] 영화 <A Woman of Property>(1954)에서 Paul Bogart 감독이 Gloria Grahame이 연기한 Linda Brown 역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 영화에서 Linda Brown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영화에서 Linda Brown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성에게 성적 정체성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반면, 남성은 행위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한다. 성애화된 사회는 몸뿐만을 성별화한다. 성 본질주의는 불평등을 촉진하는 것을 넘어서 억압을 생산해 낸다. 가부장적 지배는 여성들을 사회간에 구분되지 않는 존재로 만들면서, 남성과는 구별되고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도록 만든다.

사회 정치적으로 구성되지 않고 생물학적으로만 주어지는 섹스는 없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조건은 생물학적 조건보다 우선한다. 성적인 욕망은 욕구와 필요성의 상호 작용 속에서 구축된다. 남성이 여성의 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섹스는 문화의 사회적 구성물이며 성별 위계 질서의 정치적인 산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남성 권력의 조건이다. 성애화는 대중 매체, 포르노

다. "여성은 인간인가?"

사회 전체가 성적 담낙에 빠져 있을 때 섹스는 여성의 몸과 동일시된다. 그것은 가질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성애화된 사회 속에서 여성은 섹스를 위한 몸뚱이일 뿐이다. 성애화된 사회는 여성성을 그 핵심으로, 획득물로 구성한다. 그것이 섹스이다. 여성은 섹스화된 몸으로서 보편화되었고, 섹스를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성들은 서로 구별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성 본질주의sexual essentialism이다.

이와는 반대로 남성은 섹스를 필요로 하고 또 추구할 것이다. 그들은 섹스를 얻고 가지며 자주 오용한다. 심지어 섹스를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남성은 성애화의 대상물이 아니다. 집단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들은 결코 섹스 또는 섹스화된 몸이 아니다. 사실 남성들은 몸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그들의 생물학의 특성이나 충동 그 자체로도 환원되지 않는다. 남성의 성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왔던 것인데, 이렇게 그들의 성적 욕망이 아무리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 몸의 기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에 의해서 형성된다.

여성에게 성적 정체성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반면, 남성은 행위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한다. 성애화된 사회는 몸뿐만을 성별화한다. 성 본질주의는 불평등을 촉진하는 것을 넘어서 억압을 생산해 낸다. 가부장적 지배는 여성들을 사회간에 구분되지 않는 존재로 만들면서, 남성과는 구별되고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도록 만든다.

사회 정치적으로 구성되지 않고 생물학적으로만 주어지는 섹스는 없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조건은 생물학적 조건보다 우선한다. 성적인 욕망은 욕구와 필요성의 상호 작용 속에서 구축된다. 남성이 여성의 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섹스는 문화의 사회적 구성물이며 성별 위계 질서의 정치적인 산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남성 권력의 조건이다. 성애화는 대중 매체, 포르노

실로 후에 수간에 구역질을 해대는 여성들도 있었다. 싸구려 술집이나 몇 오스트레일리아 남성을 위해 운영되는 이 끔찍한 소굴은 한 곳의 예일 뿐 곳으로 구분되어 있었다에 있는 여성들은 '세 구멍'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것은 관례와 구매자의 침입으로부터 인간 신체의 어떤 구멍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었다.[1]

펠리컨의 전형적인 이름 한낮 더위실에 10도 속에서 우리는 마날라의 '절친 정책'과 상관없이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는 방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내가 만난 술집 여자들한테로 되돌아가 있었다. 그 가운데 몇몇은 내가 참관 들렀을 때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다. 내 몸료가 "여성의 권리가 인권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려고 할 때, 나는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이제 막 본 현실과 지난 13년간 계속해서 보아 왔던 현실 앞에서, 나는 거리 두기를 통해 학문의 객관성이라는 가면을 쓰거나 중립성을 가장한 자유주의적인 법에 이르기가 얼마나 쉬운 일인지 알게 되었다.[2]

이전의 경험들로 인해 내재는 이 폐적한 방 안에 모여 있는 인권 활동가와 법률가 들의 열정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나는 15년 전 파리의 매춘 다마다주루근을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파리에서, 필리핀에서, 타이에서, 매춘업소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길거리 창문에서 여성의 인간성이 철저하게 부서져 내리는 것을 나는 그때도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다. 여성의 인간성에 대한 이러한 무시는 남성과 정부, 그리고 그들이 만든 정책과 제도 앞에 보다 적절적으로 던져져야 했음에도 단 한 번도 던져지지 않았던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1] 이 단락은 전공회자의 입장이 아닌 한 지역에서 하는 경험하를 다른 지역에서는 알 수가 없다. 펠리컨 주위 해군 기지의 미군들을 위한 매춘업소들은 각기 다른 것을 파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세 구멍'(Three Holes)은 특히 주변에서 알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곳은 술집가로나 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보다 비싸다.

[2] Patricia J. Williams, *The Alchemy of Race and Rights: Diary of a Law Professor*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p. 87 참조.

성애하는 섹스를 위한 몸뚱이로 철저히였고, 그것은 곧 세종으로 바뀌고 말았다. 성적 서적적 그녀는 거기에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곳에도 예외는 없었다.

펠리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례에서 이전에 빈번히 성적 학대 혹은 폭력을 경험한 여성이 동의하에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과거는 그녀가 또한 섹스를 위해 그녀를 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자이기 때문에 섹스를 위한 몸으로 팔릴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업자이 확연 흔들리고 황폐한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은 심각한 수준이다. 살인은 흔한 일이다. 살인자가 체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살인자가 체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살인자가 체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살인자가 체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시키기 위하여, 폭력을 결정짓는 거의 유일한 기준인 동의나 강제냐로부터 은연히 인간학이고 상호적인 몸의 경험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인간 경험의 전체성에서 보자면 여성이 그들의 몸으로 환원될 때 그리고 섹스화된 몸에 대한 성적 착취가 이루어질 때, 여성들은 열등한 사람으로, 타자로, 결국 종속된 자로 취급된다. 이것이 성적 착취이고, 혼영성과 폭동이라는 여성 인권의 침해이다. 따라서 포르노그라피 배후들은 성적 탐닉에 빠져 있는 사회의 도구이며 강간은 성 착취의 전형적인 증거인 한편, 매매춘은 여성의 동의가 있건 없건 여성 억압의 제도적 · 정체적 · 성적 모델이다.

억압자들에게 성적 차이, 인종적 차이는 백인 남성과는 다른 모든 여성과 유색인 들은 타자이며 열등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여기에 성적 탐닉에 빠져 있는 사회에서 여성을 섹스화된 몸으로 환원하는 것의 심각성이 있다. 여자가 무엇을 하든 또 누구이든 상관없이 여자는 그렇게 여겨진다. 이러한 "타자성" 속에서 피억압자들에게 시간이 멈춰 있게 된다. 피억압자들을 생물학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다르다고 표현함으로써, 차이라는 수단을 통해 그들을 "타자"로 환원함으로써, 가부장제의 권력은 여성들을 그들의 역사로부터 단절시킨다. 바로 이것이 인간으로부터 인간성을 빼앗는 방식이다. 역사를 만든다는/행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인간의 사회적 행위가 일어남으로써 이루어진다. 반면에 피억압자들에게 억압은 역사적 조건일 뿐이다. 억압 속에서 시간은 한 순간으로 축소된다. 그것은 역사를 빼앗긴다는 것, 시간 밖에 존재한다는 것, 마음속에서만 앞어날 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정복의 형태이다. 이것이 인종 차별주의, 인종 격리주의, 식민주의의 권력 관계들의 토대가 되는 이데올로기적 정당화이다.

성적 억압은 생물학적 결정론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여성 운동을 멈추게 하고, 그럼으로써 여성들의 진보와 변화,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전멸시키려

고 시도한다. 성적으로 종속된 여성은 더 이상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성들은 억눌린 비식간성을 내재적인 특성으로 다양한 정도로 내면화한다. 이러한 조건에 의해 종속된 자들은 인간성의 잠재성과 혼연함을 확실하게 박탈당한다. 남성들은 인종과 성별을 통해 물리적으로 자신들과 구별해 놓은 사람들, 그들이 "타자"로 만들어 온 사람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자신들을 역사적인 존재로 만든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성들은 그저 다른 몸이 아니라 섹스화된 몸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 여성들이 역사를 만들어 감으로써 역사 속으로 들어가려 할 때, 남성들이 복수심에 불타 여성을 섹스를 위한 몸뚱이로 선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런 복수심은 포르노그라피를 통해 사회에 스며들어 있고, 성적 착취를 통해 여성의 몸으로 침입한다.

살, 인종 그리고 문화에 의한 지배는 인간 내부에 기호화되어 있다.[5] 몸은 인간 개인의 내면 세계와 사회적인 외부 세계, 우리 자아와 사회의 연결점이다. 몸은 문화구분 짓기, differentiation의 물리적 공간이며, 분리된 독특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알게 하는 자기 바깥 세계와의 연결점이다. 세계 그리고 타인과 상호 작용하면서 인간성이 성취되고 유지될 때, 몸은 인간의 정체를 담고 있으며 나아가 그 자체를 초월한다. 모리스 비안은 "몸의 이미지는 몸의 경계를 넘어서 확장된다"고 지적한다.[6] 그는 폴 실더Paul Schilder를 인용하고 있다. "몸의 이미지가 구성되는 데 있어서 거기에는 무엇이 몸에 통합될 수 있을 것인가를 발견하기 위한 끊임없는 실험이 있다. 몸은 사회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이미지의 차원에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7] 몸은 상호 작용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벌어진,

[5] Maria Bevan, *Coming to Our Senses: Body and Spirit in the Hidden History of the West* (New York: Bantam, 1989), p. 23에서는 문화적 역사가 우리의 몸에 각인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6] Ibid., p. 37.
[7] Ibid., p. 38.

문화적 사용로 이해할 수 없다. 반면 다른 사람이 지배하는 "나는 존재한다"는 것은 몸에 근거하고 있다. 오히려 육체는 사람이 지배하는 것을 넘어서 존재한다. 육체는 자아가 사회에 살고 작용을 통해 자신을 가장 확실한 것으로 수단이다. 인종 인종적 차별은 사회적 차별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세계인이 살 목적도 없을 때에 인류가 서른 회용을 넘어 온 서난 20년에 걸친 세이니를 연구가 없었다면, 특히 세월이나 기술의 발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보다 다른 방식으로 구성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나는 세계들이 여성이 내성적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것은 진정한 자기 정체성과 자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그것은 자아를 분할한다. 그러나 사실 자아는 분할될 수 없다. 자아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 융이 다른 무분별은 보호되는 가운데 존재할 뿐이다. 어떤 심적인 행위든 환해를 위해 버려질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일이 빈번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자아에 대한 폭력적 작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기만 자아가 분할된 것을 보호 그것은 자아에 각 부분들을 분리된 존재로서 사용한다. 자아의 분할은 생존을 위한 자신만의 방식이다. 섹스는 인간 주체의 핵심적인 자원이다. 섹스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된다. 대상화는 인종을 실체를 뜻한 아니라 인종의 근본 조건인 인간의 손상을 제외한다. 아마도 이들을 선택할 수 있을까? 아직 어떤 백색이라는 성에 대상화된 자아의 부인간과를 선택한다는 이 과학은 원래의 문제가 아닌 것을 사이에 먹지로 자아를 만들어 내는 방식을 선택한다. 비로 이처럼 어떤 이유인다른에만 분명 없이 문화에 사용하여 자아의 분할은 생존에 사용하는 자신들의 사회적 생활을 주지 않는다는 로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동시에 자아 전체인 것이 로이드와 하는 것은 생존을 선택 하나의 요소이다. 구체자와 함께 가는 것에 용해로 존중 받고 투명한 행위를 하는 것은

[15] ibid., p. 61.

[16] Cecile Hoigard and Liv Finstad, *Backstreet: Prostitution, Money and Love*, trans. Katherine Hanson, Nancy Sun, and Barbara Wilson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2), p. 65.

세실 호이가드와 리브 핀스태드는 최근 노르웨이의 매매춘에 관한 연구에서 매춘 여성들은 남성들이 구매하는 자신들의 성 거래로부터 이탈한다고 보고하였다. 파이Pia는 "나는 그것을 하기 전에 마약을 좀 하지. 난 내 감정을 완전히 한쪽으로 밀어 둬야 하거든. 말도 없이지고 아무 신경도 안 써."라고 말한다. 엘리자베스Elisabeth는 "넌 감정을 완전히 꺼 두어야 할 거야. 그 일을 해야 하니까."라고 말한다. 제인Jane은 "나는 내 자신에게 신경 쓰지 말자고 다짐하고 감정을 단지 버렸죠. 거기에 돈이 있는 한 개의치 않아요. 감정과는 아무 상관 없죠."라고 말한다.[16] 여러 나라에서 많은 경우에 여성들은 멍을 이 감정이 없어진다고 보고한다. 그들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요구하는 구매자와 암묵적으로 동의한 '매춘 계약'에 따라 아양을 떨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순간에도 구매자들을 경멸하며 바라본다.

성적 권력 관계에서 여성의 몸을 통해 여성의 몸과 남성[것]을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과의 행위가 동반되기 때문에, 여성은 이탈하기를 통해 자신의 진짜 자아와 하나의 상품으로서 섹스를 위해 사용되는 자아를 구분하기 위해 감정적 거리를 둔다.

매춘 여성은 장벽을 구축한다. 이탈하기를 통해 매춘 여성은 구매자에 대한 한계, 즉 사용될 수 있는 자아와 자신의 몸 그리고 사용될 수 없는 것 사이에 한계를 설정한다. 이러한 경계들은 매우 강력하게 실행된다. 자아의 어떤 부분은 사용을 목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이 말은 곧 어떤 특정한 행위는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몸의 특정한 부위는 출입 금지 구역이다. 종종 매춘 여성들은 키스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고, 자아를 구분하는 장벽으로서 콘돔 사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자신의 진짜 자아를 위해 반드시 지켜지는 것들이 있다. 한 트랜스 매춘 여성은 "절대로, 절대로 남자가 내 입과 위에 누울 수

매춘 옹호 그룹은 정말이지 단순한 차원에서, 만약 매춘이 정상적인 여성의 일로 받아들여진다면 매춘 여성은 더 이상 주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을 상품화하는 매매춘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여성에 대한 성 착취를 정상화한다고 해서 성 착취를 덜 착취적인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오히려 더 착취할 수 있게 만들 뿐이다. 실제로 만약 여성이 자기 자신, 자신의 정체성,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성 상품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지식 안에서 통합되도록 조장된다면, 매매춘을 비롯한 성적 대상화의 해악성은 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거리 두기는 여성을 매춘부로 만들어 가는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 이것만으로 여성이 매춘이나 다른 어떤 형태의 성 착취로부터 살아남을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거리 두기는 이탈하기의 단계로 나아간다.

이탈하기

이탈하기는 매춘 여성의 중요한 전략이다. 매춘이라는 성행위를 하는 여성들은 자신들의 몸과 섹슈얼리티가 수반되는 상품의 교환에서 자신을 분리시킴으로써 감정적인 거리를 만든다고 보고했다. 이것은 심지 여성, 애인, 아내들이 대상화된 섹스를 경험하고 나서 보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강간 피해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들은 반복적으로 자신이 "그곳에 있지 않았다"고 보고한다. 그들은 이탈된 것이다.

이탈하기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이다. 이것은 매춘 섹스에서 핵심적인 것이다. 섹스는 상호 작용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상품으로 재생산되기 위해서 여성은 그곳에 있을 것과 '행위하기'를 요구받는다. 여성의 입장에서 그것이 그들 안에서, 그들 위에서, 그들을 통해서 행해질 때 그들은 "그곳에 없다." 그곳에 없다는 것은 그들이 구매자에 의해서 생겨난 매춘의 권력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방식이다.

[15] 세분 주석에 상응 논문을 위해서는 Chris Bewley, The Social Cancer Obsession, Medical Quarterly, 1991, pp. 178–210 참조.
[16] Elaine Chase, Personnes Achieving Acts Amongst Agents Obsessions Lives, 1991, 그에게 상응 주석 사용에 대한 연구 참조.
[17] Traylor and Russell, et al., p. 11.

먹어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선택의 필요성은, 이 단계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자신에 자아를 모두 팔아버릴 수도 있는 폭력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이 단계에서 필수적인 것은 생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근본적인 투쟁은 단계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매춘 여성들 개입시키고 분석하고 적응하는 단계들을 수용하도록 하고 이러한 선택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17]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세스가 한 인간으로서의 여성과 아주 관계가 없는 남성의

[21] Quoted in Rosemarie Morewedge Gerstenberger, "Sexual Chaos," *Christian Century* 107 (June 20–27, 1990): 619.

[22] Emma Goldman, "Female Prostitution: Public or Domestic," in Alix Shulman, ed., *Red Emma Speaks: Selected Writings and Speeches by Emma Goldman* (New York: Vintage Books, 1972), p. 175.

[23] Alice Walker and Pratibha Parmar, "Recognition and Sexual Abuse of Women," *Ms* (July–August 1990): 32–33.

[24] Ibid., p. 33.

사회 생위로 판원될지라도,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매춘 여성에게 연인처럼 가장하거나 또는 환상을 가장하여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몰입한 것처럼 행동하기를 요구한다. 매춘 여성은 정녀처럼 연기하기도 하고,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연기하기도 한다. 한편 성 도착적인 소재들도 많은데, 특히 "오줌이나 똥을 싸는" 환타지를 행함으로써 구매자는 섹스를 오물, 더러운 것, 대변과 연관시킨다. 다른 한편으로, 매춘 여성에게는 복종적이고 순종적이며 온순하고 이질하는 듯한 성적 행동을 기대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일반적인 강간범이 그렇듯이 매춘 구매자들도 "평균적인 성적 만족을 원하는 평범한 남성"이라고 지적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19]

남성들은 자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아처럼 행동하는 몸을 사는 것인데, 이러한 자아는 가장 해롭고 피해가 심한, 인종 차별적이고 성 차별적인 개념과 잘 맞아떨어진다. 서구 남성들, 특히 개방적인 남성들은 서구 여성들에게 감정적으로 몰입할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적극적이고 반응적인 연기를 요구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통적인 서구 남성들과 아시아 남성들은 아시아 매춘 여성에게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노예 같은 성행위를 요구한다.

매춘에서 구매자의 요구는 광고되고 판매되는 외부색과 문화적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성 착취와 마찬가지로 인간을 비인간화하고 대상화하는 인종 차별주의도 매춘 산업의 토대이다. 매춘에서 유색인 여성은 섹스화된 몸뿐 아니라 '색깔이 있는' 몸을 팔게 된다. 유색인 여성은 자신의 일부로서 자기가 팔고 있는 색깔이 있는 몸으로부터도 역시 분리하기를 실행해야 한다. 인종은 섹스와 함께 팔린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다른 문화들로 나아간다. 문화적 백화이 무엇이든, 섹스의 거래 속에서 매춘은 여성을 팔 수 있는 부분들로 쪼개는 가운데 그 자체로 가장 반동적인 인종 차별적 · 성 차별적 관행성을 만들어 내고 수행한다.

[19] Ibid., p. 33.

탈신체화 그리고 가장하기(Dissembling)

매춘에서 남성은 여성에게 정서적 · 성적으로 몰입하는 시늉과, 기뻐하면서 스스로 바라는 것처럼 행동할 것 그리고 상품을 거래하는 순간에 마치 진짜인 것처럼 대할 수 있는 시늉을 기대한다. 이러한 생각에서 그들은 매춘 여성들이 마치 매춘 여성이 아닌 아내, 애인, 여자친구처럼 행동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매춘 여성들은 자신이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성한 자아를 육체로부터 이탈시키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중속되고 비인간화된 자아가 재구성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자아는 사랑에 빠진 것처럼 연기함으로써 마치 몸 안에 있는 것처럼 행위해야만 한다. 구매자에게(여성이 그들을 정말로 좋아하든) 관심이 있는 것처럼 연기함으로써, 성적으로 연기함으로써, 성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성적으로 느끼기를 원하는 것처럼 연기함으로써, 무심결에 성적으로 반응하게 될 때 성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과 대로 실제로 성적으로 느끼는 것을 구분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그리고 나서 인종 차별적 · 성 차별적 행위가 여성이 스스로 선택한 한계—모든 것 속의 모든 것인 것처럼 행위함으로써,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내정함이 아닌 것처럼 연기함으로써, 그렇게 행위해야만 한다.

자신의 자아와 거리를 두는 것은 탈신체화 하기 위한 것이며, 그러한 경험이 체화된 것처럼 행위하는 것이 매춘의 섹스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생각에서 여성은 포르노 매장에서 파는, 삽입과 사정을 위해 구멍이 나 있는 실물 크기의 플라스틱 인형으로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인형은 '반응'을 꾸며 내고 연기할 수 없다. 구분을 짓는 요소로서 외지의 개입 여부에 강박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자유주의의 법적 가치에 따라 반응은 선택의 지표로 간주된다. 자신을 비인간화하는 성행위 내에서 여성이 반응한다는 것은 정상적 섹슈얼리티가 가부장적으로 구성된다는 증거이다.

여성의 경험 속에서, 익명의 상품 교환에서 일어나는 육체적이고 성적인

한계는 무너지고

매춘에서 말신체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자아와 거래를 하는 것은 꽃을 한계를 설정하고 구속에 대한 벗어남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다. 또한 자신이 만들어 낸 상품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기 위한 노력이다.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아를 지키기 위해 통제를 하려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다. 이 한계가 무너지면 내면 자아는 버려진다. 강간이 매춘에서 자신의 육체와 자아가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그것은 육체 자체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간은 육체와 자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한다. 그것은 육체를 상품으로 만들어 버리고 자아는 버려진다. 강간이 매춘에 대해 갖는 의미는 이것이다. 강간은 매춘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자아와 육체 사이의 관계를 파괴한다.

매춘에서 상품은 육체이다. 육체는 자아와 분리되어 있다. 강간은 매춘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자아와 육체 사이의 관계를 파괴한다. 강간은

데이비슨 커디스의 연구는 아직 결론 내리기에 이르다. 포주의 통제를 받는 경우가 많은 거리 여성들의 실상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매춘 국면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문화적 맥락을 무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마약 중독자들이 거리에서 경험하는 가능한 수입 창출의 기회구조 안에서 움직인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는다. 또한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얻기 위해 매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매춘을 통해 마약을 얻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72]

데이비슨 커디스의 연구는 마약 중독과 매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연구는 마약 중독자들이 매춘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그 연구는 마약 중독자들이 매춘을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연구는 마약 중독자들이 매춘을 통해 얻는 것이 마약 중독자들이 매춘을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연구는 마약 중독자들이 매춘을 통해 얻는 것이 마약 중독자들이 매춘을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연구는 마약 중독자들이 매춘을 통해 얻는 것이 마약 중독자들이 매춘을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데이비슨 커디스의 연구는 1970년대에 마약 남용과 관련해서 일고 있던 매춘 폭력에 대한 드라마틱 코커인 상태에서의 폭력과 정신과적 질환을 연결시키는 흔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데이비슨 커디스는 마약 중독자들이 매춘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연구는 마약 중독자들이 매춘을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연구는 마약 중독자들이 매춘을 통해 얻는 것이 마약 중독자들이 매춘을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연구는 마약 중독자들이 매춘을 통해 얻는 것이 마약 중독자들이 매춘을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포주들은 여성들이 마약을 얻기 위해 매춘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장우보다 가장 가혹한 비인간화 조건 안에 놓이게 되는데, 한 가지에 다른 사람의 몸을 파는 노예 상인과 달리 이 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파는 것이다. 그들에게 남아 있는 삶이란 없다. 자기 자신을 배출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여성들과는 달리, 이러한 여성들은 배출 여성이 되는 것 이외에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영역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살인

체계적인 성 착취는 여성의 삶의 가치를 '쓰고 버리는 여성들'의 가치로 만들어 버린다. 이것은 일회용 병이나 상자처럼 내버리고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1970년대 후반 내가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경찰이 찍은 배출 살인 사진들을 몇 장 보았다. 어떤 파일은 나를 난감하게 하고 공포스럽게 했다. 거기에는 낡은 발달의 지하에 있는 커다란 쓰레기통이 있었다. 죽은 소녀의 몸이 그 통 안에 거꾸로 처박혀 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몇 분 동안 이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머리 위에 구부러진 팔만이 보였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뉴욕 시에서 1975년 한 해에만 71건의 배출 살인 사건이 보고되었다. 그 중 54건은 포주나 남성 구매자들에 의해 자행되었다.[11] 이러한 숫자는 의심할 바 없이 어림잡은 추정치일 뿐이다.

메이허와 커티스는 뉴욕 시의 두 동네에서 적어도 네 명의 배출 여성이 그들이 연구하는 기간 동안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 여자는 경찰에게 쫓기던 트럭에서 추자 요금 표시기로 세게 연지게 있었다. 다른 여성은 가슴이 도려내어져 있고 목이 잘려 나간 시체로 철도 위에서 발견되었다. 다른 여성은…… 데이트중에 구타당해 죽었다."[12]

[11] Homicide Analysis, Office of Management, Analysis of Crime Session (New York, 1976).
[12] Maher and Curtis, op. cit., p. 30.

이런 배출 여성들의 죽음은 거의 표면화되지 않는다. 아리스크리스 시오손(Aristocris Sioson)은 일자리를 위해 일본으로 이주했다가 일본 야쿠자의 수중에 들어가 술집 여성이 된 8만 명의 필리핀 여성 중 한 명이었다. 매장을 위해 시오손의 사체를 필리핀으로 송환하면서 일본 의료진이 사인으로 진단한 기관 손상(organ failure)만으로는, 그녀의 신체에 자행된 극도의 잔인함을 드러내기에 부족했다. 심한 두부 손상과 그녀의 다리를 비롯한 다른 신체 부위에 남겨진 상처들을 통해 명백하게 증명되는 잔인성은, 시오손의 부모가 언론에 부검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밝혀지지 않은 채 남겨져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키노 대통령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 조사단을 급파한 이후 보고서는 과실의 확인을 얼버무리기 시작했다.[13]

외국 이민자든 자국 내 도망자든, 살인 사건과 배출 여성의 자살을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누구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배출 여성들이 예전 친구, 가족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그들을 익명으로, 보이지 않게 만든다. 아무도 모른다. 배출 세계 안에서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

수요 역시 공급과 같이 중요하다. 그러나 수요 측면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수요자들은 "익명의 연쇄 살인범들"과 같이 포르노그라피에 빠져들어 있는 중오하는 이용자들이다. 그들은 또 그들 자신이 어떻게든 다르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을 학대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배출 여성들을 "쓰고 버리는 여성들"로 만들어 버리는 데 일조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여성혐오의 배출구이다.

[13] Colin Nickerson, "A Dark Binge Hards Light on Japan's Dark Sub," Boston Globe, October 20, 1991.

난 뒤 남편의 스포츠에서 3명의 매춘 여성이 죽었다고 보고되었는데, 몇몇 사람들은 60명의 여성과 소녀를 죽인 살인범 '그린 리버 킬러'가 다시 한 번 '활동을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했다[42]

제인 카튜다는 "성적 연쇄 살인은 외부 세계의 악마나 원인 불명 정신병의 설명할 수 없는 폭발/전염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살인은 가부장적 역할, 가치, 욕구 그리고 힘의 법칙의 과정 속에 진행되는 형저하게 논리적인 단계이다."라고 지적한다[43]

살인, 밀매매까지 벌어지는 짓, 강간, 그리고 매매춘 자체는 비인간화된 섹슈얼리티의 결과이고 억압의 조건이다. 인간의 욕지에 대한 자유주의 법 구조가 언제 어디에서 폭력이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할 때, 가부장적 억압을 통한 섹슈얼리티의 비인간화는 개인에게 발생한 폭력으로부터 분리된다. 원인과 결과가 분리된다. 지배는 계속된다.

내가 『여성 성 노예제』에서 발견한 것과 같이, 그러한 권력의 행위자는 남성이다. 남성들은 단독으로 또는 여러 명이 협력하여 기능한다.

> 포주, 알선업자, 범죄 조직의 구성원, 노예 상인, 매춘업소의 경영주, 마사지 업소, 성 목적 산업 관련 광시자, 포르노그라피 공급업자, 아내 구타자, 어린이 성추행자, 근친 강간의 가해자, 매춘 구매자, 강간범인 남성의 수를 고려할 때, 여성의 성 노예화에 참여하는 남성 인구의 거대함에 어느 누구라도 순간적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에 참여하는 남성들의 수가 막대하다는 사실은 국가적·국제적 위급 상황, 성 폭력으로 인한 위기를 선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목록에는 포르노그라피를 표현의 자유라 주장하고, 매춘을 합의된 섹스라고 주장하는 성 자유주의자도 포함시켜야 한다.

내가 『여성 성 노예제』에서 확인한 위기 상황은 아직까지도 인식되지 않고 있다. 20세기 말의 남성 우월주의 사회는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속에서 매춘의 정상화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 여성 인권의 정체는 여성의 몸의 로 확인되는 정상적인 섹스의 조건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18세기 사드 백작이 던진 "자유로운 노예를 찾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제 발전은 성 산업을 동반한다. 산업화와 중적 부문이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여성들이 사회인 가정을 떠나 주로 도시 지역에 있는 공적 영역에 직업을 찾아나선다. 산업 경제가 국내 생산에서 수출 지향적 생산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서구의 성 산업체들이 해당 지역의 생산자들과 거래하기 위해 많은 수의 남성 관리자들을 파견하는 것도 이들 여성들이 더욱 많은 기회를 얻게 되는 요인이 된다.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성 산업은 어느새에 수출 생산 노동력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된다. 성 산업은 여성 인구의 상당 부분을 고용하는 것으로 이들 서비스 부문 종사자들은 조직화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다. 가족 내에서의 노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사 노동을 공적 부문에서도 찾게 된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가족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적 상품화

경제 발전은 성 산업을 동반한다. 산업화와 중적 부문이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여성들이 사적인 가정을 떠나 주로 도시 지역에 있는 공적 영역에 직업을 찾아나선다. 산업 경제가 국내 생산에서 수출 지향적 생산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서구의 성 산업체들이 해당 지역의 생산자들과 거래하기 위해 많은 수의 남성 관리자들을 파견하는 것도 이들 여성들이 더욱 많은 기회를 얻게 되는 요인이 된다.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성 산업은 어느새에 수출 생산 노동력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된다. 성 산업은 여성 인구의 상당 부분을 고용하는 것으로 이들 서비스 부문 종사자들은 조직화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다. 가족 내에서의 노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사 노동을 공적 부문에서도 찾게 된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가족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광객의 역할

관광 거점이나 대규모의 군 주둔지 있는 지역에서 군대 매춘은 관광산업 촉진을 목적으로 정부가 장려하는 경우도 있다.[6] 한국, 필리핀, 타이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정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매춘을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 관광객들은 이들 나라에서 많은 돈을 쓰는 부유한 계층에 속하며, 이들 나라의 여성들은 이들 관광객들을 위해 매춘을 포함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관광객들은 이들 나라에서 많은 돈을 쓰는 부유한 계층에 속하며, 이들 나라의 여성들은 이들 관광객들을 위해 매춘을 포함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인종적 편견

이는 추가 산업 사회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는 산업 사회에서 여성이 경제 목표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믿는 경제적 · 정치적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부장적 권력 구조를 유지하는 이러한 부정적 편견에 맞서 싸워야 한다.

성 착취의 역사적 단계

가부장적 권력은 여성을 성으로 환원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단일하지만 성적 종속을 발생시키는 정치적 · 경제적 전략면에서는 다양함을 보여준다. 성 착취는 각 지역의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 여성을 종속시키기 위해 성이 어떻게 구성되고 전개되는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가부장적 권력과 성 정치학에는 단일한 권력만 있는 것이 아니다.[1] 성 착취의 네 가지 단계들은 한 나라의 특정 경제 발달 단계나 역사적 시기에서 발전되지만, 경제 발전 및 변동과 더불어 서로 이어지는 점진적 진행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여성에 대한 매매

이것은 특히 일차적으로 농경 사회로서 여성이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는 전(前) 산업 사회 및 봉건 사회에서 우세하다. 여성이 성으로 환원되는 것은 남편의 소유물이라는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하에서는 남편의 권력에 의해 집에서 무임 노동, 재생산 기능, 성 관계로 착취된다. 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사적 존재가 되며, 집 밖에서의 노동도 공적 경제에 포함되지 않는 비공식 경제 부문으로 제한된다. 남편의 소유물이라는 지위에 기인하는 성적 종속과 경제적 의존은 결혼 봉건제(marital feudalism)라고 할 수 있다. 봉건제하에서 남성은 아내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힘을 두고 매춘부를 사도 법을 받지 않는데, 이는 그들의 행동을 보장해 주는 남성 지배 체제의 특권이다. 반면에 여성은 남성의 성적 소유물이기 때문에 강간과 강제 매춘을 포함하여

1) 성적인 종속이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임을 무시한 채, 여성의 열세화(powerlessness)를 문화적인 현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성 정치의 복합성을 포괄하고자 동질화시키는 입장이나 성 정치를 문화적 생산으로 축소시키는 입장은 모두 남성 지배 권력과 여성에 대한 차구적인 착취의 비이를 축소시키는 입장이다. 급진주의적 페미니즘을 문화적 페미니즘으로 환원시키는 전통적 사회주의 페미니즘에 근거하여 가부장제를 문화적 관점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Thanh-Dam Truong, *Sex, Money and Morality: Prostitution and Tourism in South-East Asia* (London: Zed, 1990), p. 98을 보라.

도착하자마자 매춘업소로 보내졌다. 불법 거래된 여성들의 일반적인 경우처럼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도망치기 위해 구매자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것밖엔 없었다. 1993년에 한 구매자가 러시아 아이기를 듣더니 도와 주겠다고 했다. 이것은 경찰이 현장을 몰시 단속하기 2년 전의 일이다. 러시 매매은 자유의 몸이 되자 네덜란드에 있는 필리핀 단체들, 그곳의 여성 단체들 그리고 필리핀 여성 단체들의 후원을 받으며 1985년에 법정 투쟁을 시작하였다. 1988년에 안 쇼만(Jan Schuman)은 필리핀에서 추방되어 네덜란드 법정에서 불법 거래에 대한 승의 판결을 받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필리핀 법원은 1991년, 그의 필리핀 거래 상대자였던 전직 국가 공무원 네스토리아 플레이서(Nestoria Plaza)를 석방시켰다. 담당 판사는 도리어 "부정한 성에 대한 별난 취향 때문에 나타난 그녀의 명백한 비그덕적 행동"이라고 러시 매매을 비난하였고, 반대로 플레이서에 대해서는 "그의 성격은 흠잡을 데가 없고 그의 공적 생활에는 오점이 없다"고 하였다.[2] 1995년에 그 사건은 항소심에 있었다.

시골의 가난을 벗자고 나온 여성들이 처한 취약한 조건에서 러시 매매은 매춘으로 매매되었다. 그와 동시에 그녀의 나라에서 매춘은 산업화되어 가고 있었다. 군대, 특히 미국의 수빅(Subic) 해군 기지와 클라크(Clark) 공군 기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성 산업이 개발되고 있었다. 러시는 필리핀에서 네덜란드로 매매되었는데, 네덜란드는 후기 산업 국가들에서 매춘을 합법화시키는 데에 앞장섰던 서구 나라들 중의 하나이다. 러시 매매이 매춘을 통해 달한 착취는 이 책에서 밝히는 성 착취의 네 가지 단계, 즉 ① 여성에 대한 불법 거래, ② 군대에서의 매매춘, ③ 성의 산업화, ④ 매춘의 정상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2) Paola Pinagsaka, *From Factory Girl to Bangkok Prostitute*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1992), p. 22.
3) Gabrielle Watson's Confession, "Highlights of the Court Decision," Manila, March 25, 1991. Decision of the Manila Regional Trial Court, Case of Nestoria Plaza, p. 32 - 34.

다시 성적 존재로 귀결시킨다.

이것이 바로 아니타 힐Anita Hill이 경험한 것이다. 저명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변호사인 그녀는 클라렌스 토머스Clarence Thomas라는 사람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을 국회 위원회에 보고하여, 1991년 그를 미국 대법원에 서게 하였다. 힐이 국회에서 증언했을 때 국회는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 성으로 환원되고 성애화된 몸이기를 거부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성적인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는 그녀의 태도는 하나의 도전이었다. 즉 백사회으로 흑인 여성 노예가 백인 남성의 성적 소유물로 환원되었던 인종 차별주의의 성 관념에 대한 도전이었다.[6]

아니타 힐에 대한 위원회의 심문, 특히 콘실베이니아 주의 상원의원 스펙터Specter)의 협박은 단지 한 명의 여성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었다. 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텔레비전을 통해 아니타 힐을 모든 여성의 본보기로 삼았다. 미국 여성들을 향해 던져진 메시지는 바로 후퇴하라는 것이었다. 그녀의 주장에 대해 진실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기보다 강도 높은 교화 심문을 통해 말할의 지위를 찾아내려고만 하는 가차없는 노력에 그녀가 동감하고 못못하게 버텨 냈을 때, 전 미국의 여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타 힐과 같은 여성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자신들 중 어느 누구의 말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클라렌스 토머스를 보호하던 남성 국회의원들의 곤혹한 유대가 만들어 낸 인종 차별주의적 메시지였다. 힐의 사건이 이토록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상징으로, 인종적으로 차별받는 육체로 환원되기를 거부하는 여성의 전형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다는 사실로 인해 이러한 거부는 하나의 커다란 도전이 되었다.

6) Patricia Hill Collins, *Black Feminist Thought: Knowledge, Consciousness, and the Politics of Empowerment* (New York: Routledge, 1990), p. 167.

성문화와 섹슈얼리티의 구성

성의 관리은 사회이고 통관적인 형태나 공적이고 산업적인 형태로,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의 형태로 여성의 삶을 조건 짓는 정치적인 것이다. 각각의 역사적 시기마다 결혼 통관제에서 성 산업화와 정상화된 매춘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경제적 조건들의 기반하에서, 섹슈얼리티는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또 사회적 규범과 가치들을 통해 그 사회의 특정한 가부장적 조건에 부합하도록 형태 지어진다. 사회가 섹슈얼리티보다 선행하며(생물학이나 종족, 필요, 욕구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 경험을 구조화 · 맥락화시키는 것이다.

섹슈얼리티는 사회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성적 교환의 행위들 속에서 지배 관계가 생산되며 이러한 행위들은 생리적 성 충동, 욕구 등을 형태 짓고 만들어 낸다. 성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즉 성 충동이 선천적인 현실로 먼저 나타나서 성 행동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크리스틴 델피가 지적했듯이 "억압이 센더를 만들어 냈고 센더는 다시 해부학적 성을 만들어 냈는데, 이것은 하나의 동질적인 것을 두 개의 위계적인 것으로 나눔으로써 (그 자체로서는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해부학적 차이를 사회적으로 유의미하게 구분되는 단위로 변화시켰다."[1]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성 과학 및 그 반대 급부, 즉 매매춘의 시각적 재현물인 포르노그라피를 통해 '섹슈얼리티'라는 사회적 · 문화적 생산물, 즉 정상화된 매매춘의 섹슈얼리티가 발전하고 전개된다. 푸코는 "19세기 이래로 성과학(scientia sexualis)이……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성애술(ars erotica)로 기능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2] 성은 공적 · 사회적 섹슈얼리티로서 전개되어 "욕망들을 만연시키고, 혁신시키고, 발할하고, 창조하고, 정

1) Christine Delphy, *Close to Home*, trans. Diana Leonard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84), p. 144.
2) Michel Foucault, *History of Sexuality*, vol. 1 (New York: Vintage, 1980), pp. 70–71.

것으로 규정한 것은 단지 그것이 난폭하기 때문만이 아니라포르노에서 여성은 물건이나 동물에 의해 삽입당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살해당하고 폐 훌리고 망든 모습으로 보여진다. 그 핵심에 있어서 포르노그라피가 집해하는 성적을 갖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탈인간화된 성적 대상, 물건이나 상품으로 제시된다."[1]

법적으로, 드워킨과 매키넌은 포르노그라피의 주제가 "사진 그리고/또는 단어들을 통해 여성의 종속을 생산하는 성적으로 명확한 그래픽 표현"이라고 규명했다.[2]앞으로는 인용자 매춘은 포르노그라피를 실행에 옮긴 버전이다. 여기서 여성 종속의 시작적 재현은 살아 움직이게 된다. 매춘의 정상화는 사적인 삶과 관계를 속에서 포르노그라피가 전개되는 것을 말한다. 매춘의 정상화는, 하나의 계급으로서 여성들이 남성에게 상업적인 성적 서비스로서 이용된다는 것이 확인되는 일상적 · 주관적 경험일 뿐 아니라 섹슈얼리티의 매춘화를 통한 경험이기도 하다.

성을 자유의 한 형식으로서, 그리고 그것이 인간적 경험을 증대시키는 데몹게 하든 상관없이 그저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서만 장려하였던 성적 자유론자들은, 남성 지배를 옹호하기 위해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시민권적 접근을 비난하려고 움직였다. 1990년대에 이르면서 포르노그라피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매매춘이 성적 행동의 정상적 모델로 자리 잡는 남성주의적 성 문화가 등장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육체를 식민화하는 이러한 서구 남성주의적 성은 서구적 헤게모니의 주요한 차원이 되었다. 미국 · 유럽 · 오스트레일리아의 남성들은 군대에서, 사업에서, 관광객으로서 이러한 성을 제3세계 여성에 대한 시장 수요의 형식으로 요구한다. 미국, 유엔 또는 여타의 점령군들이 제3세계 여성들을 강간하고 매춘을 하게 할 때 그들이 이런 종류의 섹스를 처음 발견한 것도 아니고, 이들이 고향의 애인과 아내에게로 돌아갔을 때 이것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여성이 성적 대상으로 환원되는 과거의 역사적 시기들—전쟁, 산업 사회, 후기 산업 사회—에다 여성의 종속은 다음의 세 가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① 여성을 생물학으로 환원시킨다. 즉 여성을 자신의 몸이 박탈되어 사물화되는 제급적 조건에 놓이게 하며, 여성의 성을 사회적 현실로서가 아니라 본질적 현실로 취급한다. ② 인간을 육체적 기능으로 환원하여 여성을 역사 밖으로 내몬다. ③ 초시간성. 여기서 여성은 시간 속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성 차원에서 여성은 보편화되므로 역사적이지 못하게 되고, 생물학으로 환원되므로 사회적이지 못하게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캐서린 매키넌은 성이 종속의 조건이 아닐 경우에 가능해지는 법적 · 사회적 현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 만일 평등하다면 여성들은 성적으로 배속되지 않을 것이다. 성적 권력은 비위계적일 것이고, 성 관계에 동의하는 힘은 일상적인 현실일 것이며, 상호평당한 여성의 말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일 평등하다면 여성은 경제적으로 배속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평등과 주권성이 배당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상호된 자존이 성적 · 경제적으로 착취되지 않을 것이다.[3]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매춘이 정상화되면 존의 고환이나 상대를 몰라 10분 정도 대했다는 점에서의 악명성만으로는 더 이상 매춘 여성이 경험하는 성 관계를 일반 여성들, 심대들, 소녀들의 경험과 구별할 수 없다. 1990년대에 이르면 매춘 행위로

(1) Catharine MacKinnon, *Toward a Feminist Theory of the Stat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p. 243.

(2) Dworkin and MacKinnon, *Pornography and Civil Rights: A New Day for Women's Equality* (Minneapolis: Organizing Against Pornography, 1988), p. 1.

(3) Ibid., p. 36.

Copyrighted and published by authors, 1988), p. 33.
(2) Ibid., p. 36.

(1) Dworkin and MacKinnon, *Pornography and Civil Rights: A New Day for Women's Equality* (Minneapolis: Organizing Against Pornography, 1988), p. 1.

(2) Catharine MacKinnon, *Toward a Feminist Theory of the Stat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p. 243.

(3) Ibid., p. 36.

는 게이 남성과 더 유사하다. 레즈비언이나 이성애 여성이 자기 게이나 이성애 남성과 비슷한 정도보다 오히려 레즈비언이 이성애 여성과 유사한 정도가 더 크다."[16] 이들의 결론은 권력 · 통제와 관련된 성행위에 대한 선호도에 상당 부분 기반해 있었다. 섹슈얼리티의 성별화에 있어서 남성들은 자신들의 성기를 성행위의 주요 포커스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보다 많은 섹스는 보다 많은 성적 대상화를 가져오고 이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적인 경험과 섹스를 분리시킨다. 이런 섹슈얼리티가 로르노그라피에 의해 모습을 드러냈는데, 특히 「목구멍 깊숙이」(Deep Throat)가 그렇다. 여기서 린다 러브레이스는 실제로 포주/포르노 제작자인 척 트레이너에게 성적으로 노예화되어 있었다.

시로에게 상호적이지 않으며 상대로부터 분리된 섹스는 경우에 따라 여성을 관계로부터 이탈시키고 분리시키고 탈신체화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성적 관계에서 상호성을 중시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커플 연구에서 이상에 여성들은 성 관계를 상호적 참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점이 그들의 성적 만족에 중요한 점이었다. 그러나 안드레아 드워킨이 지적하듯이,

> 여성들은 성 관계가 자신들에게 황홀과 열정, 환능과 친밀성의 경험이 되기를 바랐다. 여성들이 사랑에 대해 갖는 비전에는 인간으로서의 남성도 포함된다. 여성들은 남성의 인간적인 특성이 성 관계 행위 속에 포함되기를 원한다. 동등한 권력을 통해 존엄성을 얻지 못할 때조차, 여성들은 사랑에 구원의 잠재력을 믿었다.[17]

[16] Philip Blumstein, Pepper Schwartz, *American Couples: Money, Work, Sex* (New York: William Morrow, 1983), p. 305.
[17] Andrea Dworkin, *Intercourse* (New York: Free Press, 1987), p. 128.

사회의 성애화 과정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생활에서 성 억압이 심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은 상이한 지점에 도달해 있다. 드워킨의 말을 계속 인용하면, "생물에 기반한 인간의 관능에 대한 이러한 비전이 여성들의 열망 속에 있다. 그리고 성적 열등함의 악몽조차도 이것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18] 선택과 욕망에 있어서 남성 섹슈얼리티는 관계가 소원한 섹스, 인간적 경험과 상호 작용으로부터 분리된 섹스 그 자체를 둘러싼 섹스 등을 중심으로 배치된다. 이것은 성적 상호 작용을 파괴하며, 섹슈얼리티의 배출화의 원인이 되는 대상화된 섹스를 고무한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섹스로, 바로 섹슈얼리티가 성 차별주의적인 권력 관계의 요소가 되도록 하는 조건이다.

만약 자아가 성적 사물로 환원되는 섹슈얼리티의 배출화가 성인 여성에게 점점 많이 요구되고 있다면, 십대들에게는 이것이 훨씬 더 강한 압력으로 부과된다. 사회가 성애화되면서 보다 이른 나이인 십대에 첫 섹스를 하게 된다.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대이프에서 성적인 용어들은 매매춘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루디다, 낚아채다hooking up[19]"라는 말은 섹스를 목적으로 하는 대이프를 의미한다. 1981년에 미혼 소녀의 19퍼센트는 15살 경에 성 관계를 가졌다. 1988년에 그 수치는 27퍼센트로 증가하였다. 1991년에 15~19세의 미혼 여성 50퍼센트와 미혼 남성 60퍼센트는 성 관계 경험이 있었다. 성적으로 활동적인 15~19세 소녀 3명 중 1명이 임신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20]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과 십대 임신의 위기로 인해 1990년대 십대 중반 청소년들의 성적 절제를 권장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나타났다.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소녀들에게 섹스에 대한 압력과 "낚아채기"에 저항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마약을 권하는 압력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지를

[18] *Ibid.*, p. 129.
[19] "Teenage Sexual and Reproductive Behavior," in *Facts in Brief* (New York: Alan Guttmacher Institute, 1991).

가르치는 마약 예방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전자들은 그들 자신의 목표를 확실히 하고 또래 압력을 오히려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또래 집단의 압력이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고 있다. 네부론 텍사스 대학의 한 · 상위층 학생들은 1991년 성 행동 양식은 불륜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다. 이러한 인간 발달에 초기 섹스의 해로움에 직접적으로 맞서지는 않는다. 실제로 많은 프로그램들은 십대들의 성적 자율성, 성적 자기 결정권을

섹슈얼리티의 변화라기 공살되는 과정에서, 여성이 단지 새로운 노동이든 부업로 간주된다는 사실은 놀랍지도 않다. 백송을 또 하나의 노동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종류의 노동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노예 노동인가, 봉건제의 부역 노동인가, 자본주의의 계급 착취인가?

노예 노동은 보편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고 노동의 결과물을 박탈하기 때문에 비난받고 있으며, 여성이 노동을 자유에 대한 투쟁이며 인간 활동나타 이를 시기의 노동이라고 여겨진다(단일 동아를 기준으로 노예 계도가 인간의 존엄성과 연대를 침해한다는 여부를 가렵다면, 노예 계도는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여겨질 것이다. 백나라고 노예 소스로 자신의 조건을 수용한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여종 중의 하나가 자발적으로 여성을 노예로 팔았다면 그 여종은 노예 계도에 대한 어떠한 인종 차별적 함의 없이 노예 소유주의 성적 대상이 될 것이다.

수많은 노동 이론과 노동 시장 분석은 불평등과 이중 노동 시장을 폭로하면서 자본주의적 노동을 싫어 거식을 옥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대량해고 시스템 생산에서 노동을 재조직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다른 모든 종류의 성 착취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원형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것은 또한 모든 종류의 성 착취를 폭로하는 무엇이 분명한 일련의 정치적 행동을 촉발시키는 것이다. 불행히도 그 용어 대신 더 좋은 어떤 성 착취로 환원하여 인정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사실 이 분야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섹슈얼리티 개념을 확장하여 성적 착취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으로서의 섹스

매매춘은 이성애 섹스로 환원시키는 가장 폭력적인 예로이다. 이것은 여성에게 대한 모든 성 착취의 모델이다. 이것은 다른 모든 종류의 성 착취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원형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것은 또한 모든 종류의 성 착취를 폭로하는 무엇이 분명한 일련의 정치적 행동을 촉발시키는 것이다. 불행히도 그 용어 대신 더 좋은 어떤 성 착취로 환원하여 인정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사실 이 분야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섹슈얼리티 개념을 확장하여 성적 착취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

당하고 하거나 집에 갇이 가 달하고 해서 성적 학위자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단들이 있지 말라고 장조했다. 몇몇 소녀는 어린 보호가 곡단적인 반응처럼 보이거나 자신들을 약하고 긴장된 모습으로 보이게 해, 도리어 성적인 압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조기 섹스 경험이 청소년기의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는 거의 없다. 그러나 강제가 갈수록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진다면 여기서 우리는 여성 희존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자율성, 독립성 그리고 몸든 평등을 위한 기초로서 소녀와 여성 들이 그들만의 개별적인 정체성을 계획하기가 어려운 것은 자연적이거나 본질적인 여성성 때문이라기보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조건들 때문이다. 이것이 현대의 성적 종속과 젠더 불평등의 모태이다.

성 착취를 촉진시키는 사람들이 매춘과 포르노에 참여하는 여성의 선택을 강조하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성폭력에 대항하는 정책인이 여성의 동의를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다. 이 두 접근은 모두 남성의 성적 권력을 가부장적 억압의 체계, 즉 계급으로서의 남성들이 여성들을 섹스 계급으로 환원하여 종속시키고 있는 체계로부터 분리시킨다. 동의되도적인 승낙이든 거부든가 억압을 규정하거나 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폭력을 억압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이해한다면, 여성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동의의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형식주의의 피해자 개념은 가부장제의 정치적인 억압을 인식하는 데 실패하면서, 여성과 소녀 들을 끊임없이 야만적인 힘에 의해 움직이고 폭력당하는, 비상호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서 성폭력을 당하는 위치에 배치한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폭력에 종속되는 것은 성 착취와 억압의 연속체 속에서 발견되는 한 측면일 뿐이며, 아주 빈번히 발생하는 내용은 아니다. 폭력에 동의했다는 것은 억압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그것이 어떤 식의 억압이든 간에, 모든 억압에는 폭력에 대한 동의가 있다.

소년의 12퍼센트는 학교에 가고 싶어하지 않으며, 소녀의 32퍼센트와 소년의 13퍼센트는 자신의 정힘 때문에 학급 내에서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특히 여학생들에게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성적 괴롭힘을 당하고 나서 학교 생활에 집중하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여학생들의 20퍼센트는 점수가 떨어졌고 17퍼센트는 전학을 생각하고 있다.[22]

고등학교 교사인 에드 도넬란Ed Donellan은 매년 14~17세 연령대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23] 도넬란은 성 착취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는 데 이 조사를 활용한다. 1992년에 조사한 70명의 학생 중에서, 17퍼센트는 그들의 의지에 반하는 섹스를 해야만 했다고 대답했다. 57퍼센트는 원치 않는 키스를 당했고, 25퍼센트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성기 접촉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1993년에는 여학생의 9퍼센트가 원치 않는 섹스를 당했고, 78퍼센트는 억지로 넘적다리나 가랑이에 신체 접촉을 당했다.

도넬란의 조사에 학생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인다. 14살 먹은 한 여학생은 개인적으로 도넬란에게 와서 자신이 지난 9개월 동안 13명의 남자아이와 섹스를 했지만 "전 그 짓을 좋아하지도 않는 걸요"라고 말했다. 포르노그라피와 언론 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된 여성의 성애화는 십대 남자아이들의 섹스에 대한 기대를 극대화시켰고, 십대 여자아이들에게는 자신들은 절코 "싫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믿음 속에서 성적으로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의 정힘을 극대화시켰다.

내가 도넬란의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몇몇 학생들은 아이 돌보기 아르바이트를 할 때 포르노그라피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 왔다. 나는 친구나 신뢰할 만한 가족 중 누군가를 전화로 불러 그들에게 같이 있어

22)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 Educational Foundation, "Hostile Hallways: The AAUW Survey on Sexual Harassment in America's Schools," researched by Louise Harris and Associates, June 1993, p. 7 - 8 - 13 - 16.
23) Correspondence and survey results from Ed Donellan, 1991–93 and 1993.

소수이긴 하나 시프리은 백래슈 등 운동에서 일부 여성들은 그들이 택한 '일 노동'이라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으며 만족스러운 삶은 섹스 경험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이들이 성적 욕망에 순응하는 일부 이성애적 페르미니스트들의 여성들을 위한 성적 행위로서 포르노그라피를 수용하는 태도와 같다. 포르노그라피를 조장하기 위한 이 용어 그들은 FACT가 이들이 있으며, 최종 책스에 같은 이름이 이어진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은 그들 삶의 선택된 영역에서 포르노그라피의 섹슈얼리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이다. '작은 정책'을 공정으로 주장한다. 이들은 이런 분석을 통해 비인간화된 것인가 아니면 단순 생활으로 선택한 것을 정책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포르노그라피와 섹슈얼리티 역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포르노그라피를 통하여 여성들은 섹스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그 섹스가 선택된 것이라는 이유로 어떤 것이 없다고 간주할 수 있는가? 만일 우리가 만약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포르노그라피에 참여하는 것을 오로지 인간의 여러 선택 사항들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분석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들이 선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바람직한 성노동

성산업과 제3국에서의 여성에 대한 억압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논리는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포르노에 대항하는 여성운동의 모든 가정들을 심각하게 문제시하고 있다. 우 섹스가 행위 혹은 그것은 인간적인 경험이 될 것이고, 현행 세상 그리고 인간적 존재성을 가리키는 개인적인 상호 작용이 될 것이라는 점에 반박하는 것들 것이다.

내 성의 권력의 차원의 문제가 된다. 그러나 섹스가 또 다른 노동의 형태로 수용될 때, 인간은 인간의 성적 경험이 파괴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인간의 몸은 자아가 머무는 곳으로서 그 연약함과 취약성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 몸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내면 세계에서 외부 세계로, 자아에서 타자에게로, 스스로를 넘어서 현실에까지 확장되며, 이러한 인간의 몸에는 연약함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우리)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가?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인 지배와 국제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자본주의 시장은 우리를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로 인도한다. 감정, 섹스, 재생산 활동이 (상품화되는 것이 가능한가를 물을 것이 아니라) 상품화되어야 할 것인가?

나의 작업 원칙은, 여성 작업자로서의 매매춘에 대항할 때 여성의 섹스와 재생산이 노동과 시장 교환의 범위로 환원되는 것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는 일에 대해서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니스 레이몬드는 『자궁으로서의 여성』(Women as Wombs)에서 재생산의 아케익을 비판하였다.[272] 페미니즘이 여성을 해방시키려면 여성의 섹스와 재생산이 그들 스스로의 선택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과 취약성을 침해하기보다는 그것을 보호하는 경험으로서 섹스와 재생산을 다루어야 한다. 나는 성적인 동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이 존엄성을 가진 인간적인 경험으로서의 섹스 안에 있어야 하며 존중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하지만 가부장적 지배 구조로서 결혼이나 매매춘은 제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남녀가 인간적 존엄성과 개인적 존중을 침해하지 않는 섹스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경험은 구조화된 가부장적 권력의 외부에 놓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 때문에 섹슈얼리티의 매춘화에서

일한다면 누구나 사회 보상과 임금을 충분히 받으면서 일해 할 수 있는 직업 또는 노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가와 남편들이 지배하는 노동 작화에 대한 정치적 의식이 결여된 채 '성 노동'이라는 용어는 정상적인 여건들 부여받는다.

이 논쟁의 기저에는 보다 거대한 질문이 깔려 있다. 감정 노동이 착취적인 것은 무보수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정서적 - 성적인 생활이 단순한 서비스로, 젠더 권력 관계를 유지시키는 노동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인가?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여성 종속, 특수하게는 성 착취가 이전부터 제기해 온 질문이다. 평범하한 인간 경험의 나열에서 우리는 무엇을 노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착취적이지 않은 노동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가?

섹스를 노동으로 환원시키는 문제를 넘어서, 성 노동의 옹진은 특별히 성별화되어 있다. 서비스는 남성들에 의해 구매되고 남성들을 위해 제공되는데, 성적 서비스는 남성 지배의 특권일 뿐 아니라 지배의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경제적인 발전과 더불어 공동체, 가족 그리고 개인 들을 위한 물질적 조건이 줄어듦에 따라 생활 내부, 감정, 개인적인 것이 강조되고 있다. 자아는 생활 내부와 정서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발전된다.[271] 감정, 내부 생활, 개인적 영역은 성별화되어 남녀에게 각기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감정 노동과 성적 서비스는 남자가 여자에게 요구하는 것의 일부가 되었다. 남성의 정서적 이탈과 성적 요구는 단순히 남성주의적 사회화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남성의 정서 생활 발육 부진과 성생활의 대상화가 권력의 배치 속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권력의 배치 속에서 감정과 섹스는 노동으로 전락되고, 이것이 바로 여성에 대한 착취이다.

섹스가 가정의 의무라는 맥락에서 요구될 때, 그것은 일종의 노동이자 결혼

271 Richard Sennett, *The Fall of Public Man: On the Social Psychology of Capitalism* (New York: Vintage, 1978), p. 27.

270 Dana Cassell, Eleanor Hadaway, et al. Anonymous, Allyson Jule, Rosanna Hall, 1978), p. 12. Based on Cassell, Eleanor Hadaway, "Unbearable as Theory and Develop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3 (Dec. 1958): pp. 464–470.

포르노그라피의 정상화와 섹슈얼리티의 예술화 속에서 섹스에 정말은 정치적 고양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대중문화 속에 편재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술화는 섹스를 정치적 영역에서 분리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섹스를 정치적 영역 속에 더욱 깊숙이 끌어들이는 것이다. 예술화는 섹스를 정치적 영역에서 분리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섹스를 정치적 영역 속에 더욱 깊숙이 끌어들이는 것이다. 예술화는 섹스를 정치적 영역에서 분리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섹스를 정치적 영역 속에 더욱 깊숙이 끌어들이는 것이다.

푸코는 섹슈얼리티를 그 각각의 경우로 상대화시킨다. 섹슈얼리티가 "복잡한 다양한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되고 "복잡한 도구망을 꾸며왔다"는 것은 우리를 아무것으로도 이끌어 주지 못한다. 아니면 성적 관계와 다른 실제 사이에 아무런 유형이나 일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푸코는 관계이다. 이것은 언급하여 퍼덕거리 모두를 복잡성으로 뒤섞어 버린다. '권력 관계의 다중성' 안에서 권력 개념을 좀 더 정확히 규정하려는 노력 없이, 인종적 계급적인 용어 인종, 그리고 성 계급분석의 대상이 사용하는 수인들 노동력 재생산 성과 의존성 노력 이론스의 분석은 무엇을 설명해 주는지 알 수 없다.

이것 이론적 대상을 구성하는 및 사회적으로 기대되고 생산되는 성적인 관계 자체가 다양성 속에서 기발하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이 된다. 푸코에 있어 권력 개념의 노동자 인종적 계급적 노동력 재생산 노력 노동력 재생산 노력 이론스의 분석은 무엇을 설명해 주는지 알 수 없다.

푸코는 권력을 그 각각의 경우로 상대화시킨다. 섹슈얼리티가 "복잡한 다양한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되고 "복잡한 도구망을 꾸며왔다"는 것은 우리를 아무것으로도 이끌어 주지 못한다. 아니면 성적 관계와 다른 실제 사이에 아무런 유형이나 일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푸코는 권력이다. 이것은 언급하여 퍼덕거리 모두를 복잡성으로 뒤섞어 버린다. '권력 관계의 다중성' 안에서 권력 개념을 좀 더 정확히 규정하려는 노력 없이, 인종적 계급적인 용어 인종, 그리고 성 계급분석의 대상이 사용하는 수인들 노동력 재생산 성과 의존성 노력 이론스의 분석은 무엇을 설명해 주는지 알 수 없다.

이것 이론적 대상을 구성하는 및 사회적으로 기대되고 생산되는 성적인 관계 자체가 다양성 속에서 기발하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이 된다. 푸코에게 있어 권력 개념의 노동자 인종적 계급적 노동력 재생산 노력 노동력 재생산 노력 이론스의 분석은 무엇을 설명해 주는지 알 수 없다.

로 구조화된 위계로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이론은 결국 그가 피하려고 애썼던 그 지점에 도달하고 만다. 권력에 대한 푸코의 정의는 국가 차원의 권력을 무산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가부장제 권력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남성주의적 권력 이론을 강화시킬 뿐이다.

그러나 푸코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능동적으로 행위하고 지배자에 의해 만들어진 피지배자는 단지 수동적인 존재로 행위한다고 보는[7]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단순한 이분법적 대립[8]이 없다고 지적한 것은 정확하다. 권력의 관계에는 상호 작용과 상호 의존이 존재한다. 권력은 상호 작용을 통해 생산되는데, 이 상호 작용에는 시간과 역사 속에서 능동적으로 행위하는 역압된 '피지배자'와 '지배자' 양자 모두가 참여한다. 비록 지배자는 피지배자의 능동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이다. 상호 작용을 탐구함으로써 권력을 드러나게 할 수 있게 되는데, 성의 권력 관계에서 특히 이러한 사실은 분명하다. 여성 쉼터에서 여성들이 개별적으로 당한 학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비로소 의식이 노출되면서 이전에는 모호하던 권력 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

남성과 소년 들이 개인적으로 성적인 차원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처럼, 권력은 한 성이 일방적으로 다른 성에게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남성과 소년 들도 성 차원을 당하기도 한다는 사실이 계급으로서의 여성 집단에 대한 성적 권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허위의 이분법적 대립(개별적 남성 및 소년 대 개별적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집착은 대립(남성들과 소년들이 당하는 폭력은 여성이 당하는 폭력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을 낳고 이것은 소년에 대한 성 차원을 지배의 예외 조항으로 만든다.

그러나 푸코가 주장하는 이분법적 대립의 거부는 내가 여기서 제시하는 것처럼 성적 권력 관계의 복합성을 이해하기 위해 대립 너머의 것을 보려는 여성주의 이론과 같은 관계에 근거하지 않는다. 푸코와 그의 지지자들에게

---

[7] Ibid., p. 95.

[8] Nancy Hartsock, "Foucault on Power: A Theory for Women?" in Linda Nicholson, ed., *Feminism/Postmodernism* (New York: Routledge, Chapman & Hall, 1990), pp. 157 – 175에서는 푸코가 지배자들에게 초점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다. 허츠속은 이 책의 168 – 169쪽에서 푸코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과 이러 구조의 차이를 발견하고 지적한다.

서 수많은 여동을 위해 유용한, 참으로 대단한 도구상을 부여받은 요소 중의 하나이다."[7]

섹스가 어떻게 권력으로 구조화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의 개별의 내용물 속에서 길을 잃지 말고 그것이 작동하는 지점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푸코 이론의 문제점은, 그가 미시 영역에서의 성적 권력을 밝히는과 권력의 계급들을 만들어 내는 집단적 조건에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이다.[8] 성적 권력은 모든 영역에서 작동한다. 이것은 개인적 커플 관계 내에서, 그리고 동시에 집단적 · 제도적 · 공적 차원의 성적 관계에서 잘입업이 재생산된다. 성적 관계에서 "권력은 어느 곳에나 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오기 때문이다"라는 그의 인식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는 구조를 제거하였고, 그럼으로써 권력을 무형의 것으로 만들면서 권력의 위계성을 무효화시켰다. 권력을 정의하면서 푸코는 그것을 정의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이론은 권력에 대한 책임감을 덜어낸다.

푸코의 말처럼, 성적 권력은 모든 곳에 있고 모든 곳으로부터 오지만 그것의 작용은 편재성으로 나타난다. 푸코에게 "주체란 없다." 억압의 주체는 신분 확인을 교묘하게 피해 나간다. 권력에 대한 푸코의 정의는, 성적 권력이 "권력 관계들의 다중적인" 상호 그물망 속에서 "순간순간 [잘입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포착하고 드러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밝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푸코는 권력을 결혼, 매매춘, 구조적 불평등의 맥락 안에서 성별

---

[7] Ibid., p. 95.

[8] Nancy Hartsock, "Foucault on Power: A Theory for Women?" in Linda Nicholson, ed., *Feminism/Postmodernism* (New York: Routledge, Chapman & Hall, 1990), pp. 157 – 175에서는 푸코가 지배자들에게 초점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다. 허츠속은 이 책의 168 – 169쪽에서 푸코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과 이러 구조의 차이를 발견하고 지적한다.

1960년대 말 이후 여성 운동의 출현 이래로, 적어 절반 이상의 섹슈얼리티 관련 도서들이 여성들에 의해 쓰여졌다. 이 책들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성적 경험을 묘사하고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언어들을 보여준다. 이것은 분석적 범주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야 했다. "자신이 성적 쾌락자가 되는 것에 대한 항의를 통해 학문을 이성애자 백인 여성들이 인종 차별주의와 계급 계층의 문제 그리고 동성애 공포증의 문제를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했다."[1] 프로이트에 대한 카마니의 저작은 적어 내의 언더ground 문화 운동의 기반을 사사한다. 정치적 용어들에 대한 우리의 비난은 적대적 페미니즘을 확증을 주로주어 운동이라고 하여금하면서 발생했다는, 최적이 끄덕임 없는 것은 주제인데 발생했다고 말하는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러한 저작들 내부에서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이것은 이러한 저작들이 가진 지적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저작들은 성적 억압을 여성들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여성들이 억압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러한 저작들이 가진 지적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저작들은 성적 억압을 여성들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여성들이 억압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1] Rose Hayden, "Does Equity Claim Victims?" *The New York Times*, June 12, 1994, p. 46 (*The New York Times Magazine*), 1994.

연결, 여성적인 통제 체계 없이 여성들을 대표한다. 전적으로 여성적인 남성의 여성들이 주로 남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행동주의의 분리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여성적 힘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행동주의의 분리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여성적 힘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중반, 여성 운동은 활발한 부활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여성적 정체성 체계를 통해 발현된, 여성 해방적 힘신하는 페미니스트들의 그림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성 운동의 변화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남성 속이기'라는 용어는 비난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성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페미니즘은 적인적인 것을 통속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분 대통령적인 것은 여성들이 이성애의 분석과 정치에 해방을 적인적 분석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여성들 분석에 올바르지 문제로 다시 대해지면서 분석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은 페미니즘 운동을 적인적 선택의 차원으로 분석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것은 남성 여성들은 그들의 여성주의가 남성들, 인종 차별주의, 이성애적 성향에 대한 분석을 이야기한다. 오염자들을 '속이기'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여성들을 위한 정상적인 조건으로서 매매춘을 옹호한다.

펜먹은 특이 된다. 그것은 '타자'를 종속시킴으로써 지배 계급을 위한 이익과 우월적 지위를 생산한다. 성 착취는 여성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로부터 남성들이 얻는 이익은 단순히 남성에게 득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성 착취는 여성을 후퇴시키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해악 속으로 퇴락시키기 때문에 발전과 성장을 향한 여성의 성취 능력을 좌절시킨다.

여성주의 정치 의식 대 이데올로기

십 년이 넘도록 나의 책 『여성 성 노예제』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에 귀기울이면서, 나는 몇몇 여성들로부터 이 책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읽을 수가 없다"거나 "너무 기분을 처참하게 만든다"는 얘기를 듣는 한편으로, 그들의 경험이 싸워와 노예 상태였음을 이 책이 폭로해 주었기 때문에 혹은 단순히 사례가 명명되고 밝혀졌기 때문에 "힘을 얻었다"는 여성들의 반응도 접했다.

이 밖의 다른 반응들 중에는 이 작업을 '피해자 페미니즘' 또는 '남성 죽이기'로 분류하는 것도 있다. 미국에서 이것은 그저 단순한 반응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이다. 해방 운동으로서의 페미니즘에 대한 폐나 시끄러우면서 언론에 의해 과대 포장된 이러한 공격은, 페미니즘의 '정치적 올바름'을 공격하는 보수주의 진영과 자유주의자들과 손잡고 등장한다. 그들은 여성 억압을 부인함으로써 성 차별주의와 인종 차별주의, 동성애 공포증과 환경에 대한 사회의 저항 및 정치적 각성을 침묵시킨다. 남성에 대한 여성의 변호라는 형태의 안티페미니즘이 여성 운동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익과 '정치적 올바름'에 반대하는 세력의 연합은 새로운 것이다. 캐서 도이피는 페미니즘의 정치적 올바름에 반대하는 우익 진영 및 자유주의자들과 공모한 위험한 여성 운동의 선별이다. 그녀는 자신의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결정 있는

얻어 놓음으로써 계급 관계와 성별화된 대인 관계를 거의 완벽하게 일치시킨다. 이것이 여성 억압을 특수하게 만드는데, 섹스가 연루되는 성별화된 대인 관계를 통해 구성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것은 고도로 공식적 · 가시적 · 구조적인 동시에 개인적이다. 즉 감추어져 있고 비밀스러우며 육체적 · 정서적으로 내면화되어 있다.

성 권력의 쌍대 관계는 매매춘, 포르노그라피 그리고 결혼 안에서 제도화된 동시에 개인화되어 있다. 섹스는 보통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가려진 가운데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인간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관계적 권력이다. 프랑스 사회학자 엠마뉘엘 레비나스는 "타자"로 지칭되는[1] 그룹섹스 그리고/또는 집단 강간을 제외하면 성적 관계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며 연금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권력 관계는 구조적으로 개인화되고 그러면서도 상업화되게 마련이다.

사적인 성적 관계에서의 권력이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성 산업에서의 권력도 부인된다. 섹스가 사업과 다국적 복합 기업을 통해 산업화됨에 따라, 미국이 제3세계를 지배하는 권력 관계 안에서의 섹스의 사용도 비가시화된다. 결과적으로 성의 권력 관계에서 개인이라는 단위는 여성을 배제하고 상품화하는 성 산업의 발전과 국가 정책에 의해 실현되는 동시에 유지된다.

이러한 성의 권력 관계하는 맥락에서, 즉 여성 억압의 개인적이고 성애화된 지점에서, 여성들이 (여성주의 쉼터나 실질적 경제적 대안이 없는 상태로) 집을 떠날 때(시구에서의 가출, 제3세계에서의 이민) 그들은 거의 대부분 섹스의 공적 · 정치적 제도인 매매춘에 빠져든다. 또다시 유색 인종 여성들에 대한 경제적 대안을 가로막는 인종 차별의 권력 관계와 서구의 백계모니는 빈곤한

[1] See Alain Corbain, "The Secret of the Individual" and "Intimate Relations," in Michelle Perot, ed., Arthur Goldhammer, trans., *A History of the Private Life*, Vol. IV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pp. 457–604.

그 전략은 직접적이지도 솔직하지도 않다. 추측건대 성적 권력 관계가 의식화와 여타의 운동들과의 행동주의 속에서 표면화됨에 따라, 일부 남성들, 백인들, 이성애자들 그리고 한정 오염자들은 자신들의 집단과 구성원들이 정치로부터의 후퇴와 차워의 가해자로 인식되는 것에 불편해하고 있다. 이 여성들은 성적 권력에 맞서기보다는 억압을 드러내고 부정의에 대항하는 여성들에게 눈을 돌리면서 우리가 여성을 피해자로 환원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주장은 정치적 의식이 부재하는 상황에서만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의식은 피해자라는 것이 단순히 수동성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이다. 제니스 레이몬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오래 전, 페미니즘 물결이 시작되던 초기에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선택이 가부장제에 의해 구성되고, 부당 지워지고, 틀 지어지고, 손상되고, 제약되고, 제한받고, 장오되고, 형성된 것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어느 누구도 이것의 의미를 여성의 선택이 결정 지어졌다거나 여성이 수동적이거나 가부장제의 무력한 피해자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은 많은 여성들이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페미니즘의 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분명히 가부장제의 손아귀에 있는 나굿나굿한 순종자이거나 사회적으로 결정된 역할 속에 있을 때는 여성들이 변화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기 때문이다.[37]

지금의 운동은,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식이 물 끓던 시기에 그곳에 없었던 여성들에 의해 갈수록 더 주도되고 있다. 수십 년간의 침묵 이래 처음으로, 여성들은 스스로를 계급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반에 여성주의 운동

37) Janice G. Raymond, "Sexual and Reproductive Liberalism," in Dorchen Leidholdt and Janice G. Raymond, eds., *Sexual Liberals and the Attack on Feminism* (Elmsford, N. Y.: Pergamon Press, 1990), p. 101.

을 특정 지었던 권력 관계에 대한 비판은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비정치적인 개인주의의 수렁에 빠져 그것으로 대체되었다. 이것이 바로 실라 제프리스가 정의한 성 자유주의론인데, 즉 "성적 표현은 본래적으로 해방적이며 심지어 이것이 타인에 대한 착취와 이런 상태를 수반하는 때에도 잠열 없이 변성되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가정에 근거한 정치적 신념과 행동의 양식"을 말한다.[38] 이제 문제된 것은 '성 자유주의'도 '반동'backlash도 개인적 선택이라는 점의 식적 이데올로기를 지성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익과 자유주의자 둘 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점점 더 여성 운동은 강간을 비난하기 위해서 강력한 물리력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든지, 특히 성적 권력 관계가 사회에서 여성-남성의 상호 작용을 형성하면서 일상 생활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도록 압력을 받는다. 강력한 물리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당성은 1970년대에 우리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강간 반대 운동을 시작했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데 기인한다. 이것이 바로 레이건 행정부 초기에 사회적 서비스 삭감과 사회적 지향 운동에 대한 심벌 위협 이데로 성폭력에 반대하는 여성 운동이 수세적 위치에 놓이게 된 정확이다. 수많은 강간 위기 센터와 매 맞는 아내를 위한 쉼터들이 서비스 대상과 내용을 줄이기 시작했다. 사회 복지 서비스 기관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이 단체들은 그들이 받고 있던 얼마 되지 않지만 귀중한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로이파와 소위 '남성 죽이기' 운동으로부터 남성들을 보호하려는 여성 전위 부대는 레이건 반동 정부에 의해 촉발된 자발적인 자기 규제를 지속시키고 있고, 이것은 부시 행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우익, 근본주의자, 정치적으로 반동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여성들 간의 이상하고도 위험한 충직함이다. 이들은 개인적 선택을 수탕하여 강간을 정상적인 섹스로 취급하고, 포르노그라피를 장려하고, 인종

38) Dorchen Leidholdt, "Introduction," in Leidholdt and Raymond, *ibid.*, p. ix.

이 중요한 인종적으로 '순수한' 환경에 대한 개인적 선호로 여기고, 동성애 혐오를 표현하거나 '레즈비언 동아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여성주의 정치학에 대한 충성의 증거로 간주하는 것은 여성주의 정치학을 개인적 취향의 차원으로 바꾸는 이데올로기적 작업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여성주의 정치학을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성폭력 반대 운동에서 "싫다는 말은 싫다는 것"the no means no이라는 슬로건은 우리의 자신이 거절하는 남성에게 원치 않는 성적 경험으로 농락당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이거나 무슨 여성적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표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말을 싫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강간은 여성의 성적 욕망이 남성의 욕망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욕망이 여성의 욕망을 억압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주의 정치학이 여성의 성적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욕망을 해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여성주의 정치학이 여성의 성적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욕망을 해방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주의 정치학이 여성의 성적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욕망을 해방하는 것이다.

을 낳아서 본다

비식별은 잘 작동해 대형마트 여성 종업원 쌍둥이, 세트종 쌍둥, 세트로 식사하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이 정치구조이지 않다고 해서 비식별이 지배적인 사람을 구성하는 모든 조건을 다루지 않고 다루는 것이다. 그것이 여성주의 인식론의 출발점이다. 주관적 경험을 포함해 모든 조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조건들을 구성하는 핵심 몇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인식론이 아니라 정치적 개입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여성주의 인식론이 지향하는 바이다.

조건들을 다루지 않고 오직 하나의 이슈만 대립하고 조직적인 효과를 위해 쉬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것이 정치적 개입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여성주의 인식론이 지향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개입을 위해 여성 몸을 서구 여성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동일하는 객관적 조건이 그렇다 아닌지도 명백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오류를 범하는 사람을 여성주의 인식론이 비판하는 이유는 현실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여성 몸이고 인종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특정 몇 개에 정당화하는, 구조화되고 이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정치구조이지 않다고 해서 비식별이 지배적인 사람을 구성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루지 않고 다루는 것이다. 그것이 여성주의 인식론이 지향하는 바이다.

성 정치가 비로소 등장한다.

적인적으로 나는 나의 작업으로부터 별률적 거슬우이의 이데올로기를 덧 어낸기 위해서 그것의 한계에 대면해야 했던 경험이 있다. 석사논 이야기 라우주에 있다. 1991년 나는 스페인의 연구자 한나 올리Hanna Oliver를 만났 는데, 그녀는 우표를 정부 연구를 「여성을 보고서」(The Passion Report)의 책임 자였다. 만나게 나는 이미 1981년에 스페인의 여성운동에 관한 우리의 연구에 대해 토로할 기회를 가졌었다. 우리는 서구의 다른 곳에서 살며 서로에 대해 무 슨에 알고 있는 것이 없었으므로, 복합은 주제로 연구했고 심에서 박우 슬사한 결론을 가지고 박웃고 사기에 출판을 했다는 사실에 강한 인상을 받았 다. 「여성을 보고서」에서 한나가 "사랑 없는 남성 시선"에 대해 말하는 부분 나는 나의 책 「여성 성 노예」에서 포주들의 유인 전략으로서의 친밀하기 사랑하기에 관해 이야기했다. 1985년 내가 소설한 국제 회의에 건강한 인권들을 위로 만약 한다는 내용 중국하여 용어 설다 "만소식 격식 을 구면적에 받이들이는 여성 종업원 쌍둥이, 세트종 쌍둥, 세트로 식사하 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이 정치구조이지 않다고 해서 비식별이 지배적인 사람을 구성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루지 않고 다루는 것이다. 그것이 여성주의 인식론이 지향하는 바이다.

조건들을 다루지 않고 오직 하나의 이슈만 대립하고 조직적인 효과를 위해 쉬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것이 정치적 개입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여성주의 인식론이 지향하는 바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오류를 범하는 사람을 여성주의 인식론이 비판하는 이유는 현실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여성 몸이고 인종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특정 몇 개에 정당화하는, 구조화되고 이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정치구조이지 않다고 해서 비식별이 지배적인 사람을 구성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루지 않고 다루는 것이다. 그것이 여성주의 인식론이 지향하는 바이다.

조건들을 다루지 않고 오직 하나의 이슈만 대립하고 조직적인 효과를 위해 쉬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것이 정치적 개입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여성주의 인식론이 지향하는 바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오류를 범하는 사람을 여성주의 인식론이 비판하는 이유는 현실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여성 몸이고 인종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특정 몇 개에 정당화하는, 구조화되고 이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정치구조이지 않다고 해서 비식별이 지배적인 사람을 구성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루지 않고 다루는 것이다. 그것이 여성주의 인식론이 지향하는 바이다.

베에손과 같은 감간은 방법이라 한다. 양자 모두 소녀 및 여성 등을 스스로의 자아로부터 분리시키고 온전한 전체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인간 존재를 분할하면서 나눌 수 없는 것을 조각 내는 여성 종속의 테러적인 모델이다. 성 정치학에 대한 의식화는 파편화되었던 전체를 다시 복원한다. 이것은 지유 및 행동의 토대가 된다.

여성주의 정치 의식은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특수한 것과 일반적인 것, 또 우리 자신의 문화적 · 국가적인 특수성과 전세계적인 공동체 및 전지구적인 페미니즘 사이에서 변증법적인 상호 작용을 하게 한다. 정치 의식화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부터 공동체로, 개별 국가에서 전세계 경제로 그리고 전지구적인 정치 질서로 사회적 지형에 대한 의식을 확장시킨다. 국제적 페미니스트 행동주의는 우리를 가부장적인 권력에 대한 분석으로 이끌게 마련이다.

의식화는 섹스가 착취되는 조건을 볼 수 있는 혼재가 될 것과 섹스 교환을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한다. 의식화는 단지 지적인 작업이 아니다. 정치적 의식화는 여성들이 개별적으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경험을 고통스러운 종속자로서뿐 아니라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잠재자로서 알게 해준다. 나는 여기서 초월성을 영적이거나 막연한 뜻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주의 의식은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한 지식인데, 폭력적인 현실을 만들어 내는 지배에 대해 아는 만큼 이들 조건들을 개혁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여성주의 의식은 남성 지배의 전체적 지형, 즉 억압을 인식한다. 억압에 대한 의식은 전략을 보다 명확하게 만들고, 비전을 전체적이게 하며, 행동을 보다 심화시킨다.

페미니즘에 대한 흔한 비판으로 페미니즘이 여성들을 피해자로 환원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자신을 피해자로, '힘있는 자'로, 피억압자로 그리고/또는 해방된 자로 인식하는 일은 오로지 정치적 의식화를 통해서만 현실적으로 가능해진다. 변화를 만들어 내는 의식화의 잠재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역동적이고 강력한 앎은 "정치적 올바름"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정치적 의식화의 힘은 가부장의 지배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개인에게 해방적이다. 의식화되지 않았거나 의식화되기 이전의 앎은 개인들에게 고립된 채 경험되기 때문에 이름도 없고 말해지지도 않은 그 무엇이 된다. 앎은 타자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립은 앎을 상대화시켜 개인 내부의 심리적 조건으로 규정해 버린다. 페미니즘이 여성들을 피해자로 환원시킨다는 비난을 받는 동안, 지배로 인한 여성들의 고립되고 억제된 분노와 고통은 일상적 조건들, 즉 고통의 물리적 근원으로 환원된다. 객관적인 지식은 자아의 안과 밖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억압의 경우에서처럼 자아를 희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고, 의식화의 경우에서처럼 집단적 행동의 토대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객관적 지배를 극복하는 것을 의지의 행동으로서, 심리적 상태로서 다루는 개인적 힘의 배양empowerment은 억압에 대한 지식을 개별화된 개인 감정과 신호 안에 빠뜨리는 이상주의적 접근이다.

의식화는 객관적 조건들을 정치적인 조건으로 인식함으로써 이것들에 대한 개인화되고 고립된 지식을 재구성한다. 지식을 재구성하는 것은 패배자화를 재정의하는 것인데, 이것은 더 이상 개인 내부의 경험으로서 인식되지 않으므로 개인의 의지나 동의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

따라서 여성들에 대한 화학의 가부장적 지배를 이는 것과 관련한 정정적인 차이는 바로 여성 억압에 대한 정치적 의식화에 달려 있다. 내가 논의하고 있는 의식화란 개인적 현실에 대한 정치적인 앎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행동은 현실에 대해 저항할 뿐만 아니라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바꿀 것이라는/바꿔야 한다는 앎과 확신을 포함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앎은 집단 행동을 통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새로운 현실을 상상하고 그 가능성을 알게 될 가능성에 대한 가부장적인 제한

그렇다. 나도 모르게 나는 여성의 선택이라는 '자유-강제' 이분법에 빠져 있었고, 이러한 나의 생각 때문에 『여성 성 노예제』에서 매매춘을 다루기 위한 적절한 틀거리로서 비범죄화를 제안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시장 교환을 장려하는 개인주의에 의해 왜곡되고 계몽된 미국적 권리 개념과 싸워야 하는 미국적 사고의 덫이라고 이제서야 이해하게 된 그 덫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시원한 느낌을 받았다. 극도로 과도한 개인주의는 권리를 개인의 권리로 한정시키고 그럼으로써 권리를 도구화한다. 시장 경제를 장려하는 개인주의 아래에서, 권리는 온전한 인간적 조건을 활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 경제에 봉사하기 위한 도구적 목적으로 전락하고 결국 개인주의의 경쟁적인 측면을 촉진하게 된다. 인권을 개인의 동의로 축소시키는 것은 권리의 의미를 시장 경제에 봉사하는 것으로 도구화하는 일이다. 이렇게 도구화될 때 권리는 인간 삶의 질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다. 미국의 성 자유주의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나듯이, 권리는 시장 경제적 용어로 이해된다. 즉 개인의 선택과 의지가 인간 경험의 내용과 질보다 우선시되는 탈규제화된 인간 조건으로서 이해된다.

내가 이 책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여성주의 인권 개념에 의하면, '동의'는 자유의 지표가 아닐 뿐더러 동의의 부재가 착취의 일차적 지표 또한 아니다. 자유주의적 동의 개념은 억압에 대한 여성주의 분석을 개인적인 잘못으로 협소화하고 페미니즘을 개인주의 윤리학 속으로 빠뜨린다. 이것은 섹스를 동의와 의지의 문제로 제한하는 것이고, 섹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떻게 경험되는지, 어떻게 권력으로 구성되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개인 및 제도적 차원에서, 비인간적인 섹스의 실제 경험은 여성에게 해악이 되고 낮은 계급을 유지시킨다. 이것은 억압이다. 억압에 동의하거나 대상화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듯이 보이는 것은 억압의 한 조건이다. 이것은 결코 자유로운 상태의 표현이 아니다. 성 착취는 억압이다. 이 말은 성 착취가 피억압자 집단 안에서 수용되고 실천이 장려될 것임을 뜻한다. 억압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형태의 억압이 유지되는 방식이다. 동의를 위반하는 것은 어머도 착취의 한 측면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착취를 규정하는 결정적 특징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자유가 일차원적인 동의 개념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반드시 인간의 전반적 조건, 여성의 조건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의 계급으로서 여성에 대한 모든 착취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폭력을 반대하는 또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는 운동은 광범위한 성적 억압(여기에는 결혼에서 여성들의 성적 종속과 레이프에서 십대들의 성의 종속이 포함되듯이 매매춘도 포함된다)의 일부분에 대한 도전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나는 동의의 문제나 강제의 개념은 법적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매매춘을 강간으로부터 잘못 분리시킨다고 본다. 결론. 레이프 그리고 강간의 경우에, 여성들이 중명해야만 하는 것은 그들이 원해당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창녀가 아니라는 사실, 즉 그들은 섹스를 위한 물품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성폭력에 반대하는 운동들이 점점 더 "싫다는 말은 싫다는 것"(No means No)이라는 캠페인 수준으로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은 강간이 섹스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함으로써 마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 매맞 투쟁은 이러한 얇은 수준의 요구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성적 권력에 전면적으로 대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여성들이 우리의 온전한 해방을 쟁취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